

역사자료총서
21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구제영II

靑丘題詠

일러두기

1. 이 책에서는 『청구제영』의 각 첩 지역 구분을 따르지 않고, 현재의 행정구역별로 탁본을 재배치하였다.
2. 『청구제영』은 각 첩마다 미세하게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세로 49cm, 가로(펼침) 77cm정도이다.
이 책에서는 탁본의 크기와 편집방식을 가능할 수 있도록 본문의 이미지의 세로를 모두 같은 크기로 편집하였다.
3. 『청구제영』의 고화질 사진은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목차

CONTENTS

항해도	004
평안도	116
함경도	204
부록	260
청구제영 수록 탁본 목록	

역사자료총서21 청구제영(靑丘題詠)

— 황해도



尙州人 安臣子 太宗丁酉文科 官至平安監司 以剛直名

본관은 상주이며 박안신(朴安臣)의 아들이다. 태종 정유년 문과(1417)에 급제하여 관직이 평안감사에 이르렀다. 강직함으로 이름이 났다.

부월(斧鉞)을 짚고 풍속 살피니³⁾ 멋진 유람이라 이를 만한데
때마침 올해 가을을 맞았네.
가련해라, 곳곳에 유망(流亡)한 사람들의 집이어
이런 광경 보며 때때로 눈물 거두지 못하겠네.

杖鉞觀風號勝遊
如何適在是年秋
可憐處處流亡屋
見此時時淚不收

정묘년(1447) 10월 일 도관찰사 박이창

丁卯十月 日 都觀察使 朴以昌

- 1) 박이창: 조선전기 우부승지, 공조참판, 황해도 관찰사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명나라에 사신으로 갈 때 양곡 40말을 더 가져간 것이 죄가 되어 돌아오는 길에 붙잡히자, 국법을 어긴 것을 뉘우치고 자결했다고 한다.
- 2) 영휘루는 풍천도호부 객관 동쪽에 있는 정자이다. 뒤에 나오는 성명 미상의 서하인(西河人), 인임서(林愼) 등의 시와 운자가 같으므로, 영휘루에 걸린 시판인 것으로 추정하였다.
- 3) 부월(斧鉞)을 짚고 풍속 살피니: 부월(斧鉞, 鉞鉞)은 임금의 권위를 상징하는 신물(信物)로, 여기서는 작자가 임금에게 벼슬을 제수 받아 공직에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2 박로(朴魯, 1584~1643)⁴⁾

풍천 영휘루(청구제영 제1첩)



字魯直 號大瓠 密陽人 光海己酉文科 官至兵曹參判

자는 노직(魯直), 호는 대호(大瓠), 본관은 밀양. 광해군 기유년(1609)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병조참판에 이르렀다.

벽 위의 운자를 빌어서 시를 지어 원님인 이명부⁵⁾에게 드린다.

次壁上韻 贈主倅 李明府

관서 지방 두 번이나 노니는 것⁶⁾ 웃을 만한데
다섯 해나 세월 흐른 것에 도리어 깜짝 놀란다.
기쁘게 부사 만나 돌아가는 것 잊고서
낭자한 술잔들 거두지 못하겠네.

可笑西關再度遊
却驚流歲五經秋
喜逢主倅忘歸去
狼藉杯觴任不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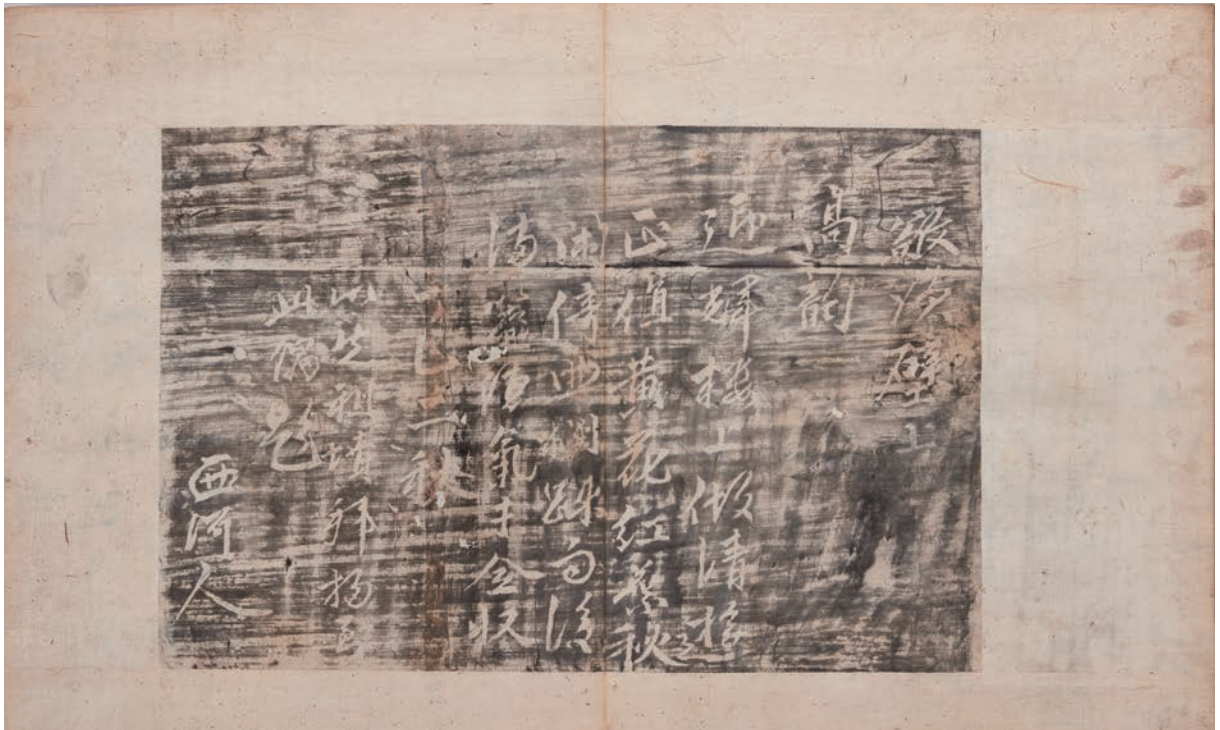
송정 기사년(1629) 봄 응천 박로

崇禎己巳之春 凝川 朴魯

4) 박로: 광해군, 인조대 문신이다. 정묘호란 뒤 심양에 여러 번 파견되었다. 대 후금 외교 업무를 담당하여 전문가로 인정받았다.

5) 명부(明府): 군수나 현감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다.

6) 관서 지방 두 번이나 노니는 것: 박로는 정묘호란(1627) 뒤에 여러 차례 심양에 다녀왔으며, 소현세자를 모시고 3년 동안 심양에서 생활을 한 바 있다. 이때 관서 지방을 여러 차례 다녔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공경히 벽위에 걸린 고아한 운자를 빌려서 짓다

敬次壁上高韻

영취루 위에서 맑은 유람하는데

迎輝樓上做清遊

노란 꽃 붉은 잎 진정 가을 맞았네.

正值黃花紅葉秋

성근 비 지나간 뒤 한가로이 굽은 난간 기대니

閑倚曲欄疎雨後

주렴 가득 덕의 기운 아직 온전히 거두지 못했네.

滿簾德氣未全收

정사년 중추 선조의 분묘에 성묘하고 이곳에 이르러 우연히 짓다.

丁巳二秋 以先祖墳拜掃到此偶題

서하인

西河人

7) 이민서: 이 탁본의 상단에는 인물정보가 없지만, 이민서의 제영시이다. 이민서는 문장과 글씨에 뛰어났던 조선후기 문신이다. 강화부유수, 예조, 호조, 이조의 판서를 차례로 역임하였다.

4 정난중(鄭蘭宗, 1433~1489)⁸⁾ 풍천도호부(豐川都護府) 망원루(望遠樓)⁹⁾(청구제영 제1첩)



字國馨 號虛白 東萊人 光廟朝捷四科 官至吏判 諡翼惠

자는 국형(國馨), 호는 허백(虛白), 본관은 동래이다. 세조 때 네 번의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이 이조판서에 이르렀다. 시호는 익혜(翼惠)이다.

엄숙한 모습으로도 다시 조정을 바라볼 일 없어라.¹⁰⁾

강산은 어제런 듯하고 사람은 다함 없는데

예악은 때를 따를 뿐 내가 도모할 것은 아니네.

아침에 절하며 때때로 임금을 생각하고

밤에 노닐면서 금오(金吾)를 두려워 할 곳 없네.

가을 바람에 홀연 일엽편주 흥취 생기니¹¹⁾

하지장(賀知章)만이 홀로 경호(鏡湖)를 그리워했던 것은 아니네.¹²⁾

令儀無復望廉隅

江山如昨人無盡

禮樂隨時我不圖

朝拜有時思玉輦

夜遊無處怕金吾

秋風忽有扁舟興

不獨知章憶鏡湖

8) 정난중: 조선 전기 문신이다. 황해도 관찰사로서 이시애의 난을 평정, 공을 세우고 이듬해 호조참판에 전임, 춘추관동지사로서 『세조실록』 편찬에 참여했다. 훈구파의 중진으로 성리학에 밝았으며 서예에도 뛰어났다.

9) 정난중이 차운한 시 중에 마지막 작품의 운자가 풍천 영취루에 걸린 일련의 시와 같으므로, 풍천도호부 관아에 걸려있는 시판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작품 안에서 ‘망원루(望遠樓)’라는 명칭이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영취루와는 다르게 풍천성의 문루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10) 엄숙한……없어라: 탁본첩에서 첫 행이 빠져있기 때문에 맥락을 잡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원시(原詩)에서 ‘영의(令儀)’는 엄숙한 위(威儀)를 뜻하고, ‘염우(廉隅)’는 단정하고 절도 있는 모습 혹은 조당(朝堂)을 뜻한다. 경련(頸聯)에서 임금의 수레를 뜻하는 ‘옥연(玉輦)’, 임금을 호위하는 ‘금오(金吾)’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였다.

11) 가을 바람에 …… 생기니: 중국 오(吳)나라의 장한(張翰)이 벼슬을 하다가, 가을 바람이 불자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고사가 있다.

12) 하지장만이 …… 아니네: 하지장이 고향인 회계(會稽)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자 당현종이 경호(鏡湖) 한쪽에 있는 섬계(剡溪) 한 굽이를 하사하였다는 고사를 활용하였다. 여기서는 작자인 정난중 역시 벼슬을 그만두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표명하면서, 동시에 이 정자가 있는 곳이 경호에 비견할 만한 승경(勝景)을 가지고 있음을 표현하였다.

또

황혼녘 달을 맞으며 또한 술병을 잡으니
 늙은 나무 기이한 가지가 집 모퉁이로 든다.
 만 이랑 물결빛은 은빛 세계요
 드넓은 숲 가을 경치는 비단 병풍의 그림이라.
 이곳에 오른 호걸 많지 않겠지만
 시를 쓰며 풍류 즐기는 건 나뿐만이 아니리라.
 벼슬 그만두고 시골로 돌아가는 것 응당 멀지 않으리니
 달빛 아래 낚싯대 하나로 강호에서 늙어가려네.

또

망원루¹³⁾에서 멋진 유람에 힘쓰노라니
 푸른 하늘 끝없는데 기러기 소리 끊어지는 가을이라.
 의자에서의 흥취에 삼경의 달빛 비추어
 열두 주렴¹⁴⁾ 반쯤은 걷지 않았네.

감사 봉원 정난중

又

黃昏邀月又携壺
 老樹虬枝入屋隅
 萬頃波光銀色界
 千林秋景錦屏圖
 登臨豪傑無多在
 題詠風流不獨吾
 乞骸歸田應有日
 一竿明月老江湖

又

望遠樓中辦勝遊
 碧天無際斷鴻秋
 胡床興口三更月
 十二珠簾半未收

監司 蓬原 鄭蘭宗

13) 망원루(望遠樓): 옛날 황해도 풍천에 있던 성의 누각.

14) 열두 주렴: 원문은 ‘十二珠簾’. 십이누각(十二樓閣), 십이난간(十二欄杆) 등은 신선세계의 누각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러한 곳에 거는 주렴이라는 뜻이다. 이 누정이 신선계에 있는 것처럼 아름답다는 것을 표현하였다.

5 민효환(閔孝權, ?~?)¹⁵⁾

풍천 영휘루(청구제영 제1첩)



驪興人 英廟庚子文科 官至掌令 以升之先

본관은 여흥이며, 세종 경자년(1420)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장령에 이르렀다. 민이승(閔以升, 1649~1698)의 선조이다.

차운하다

次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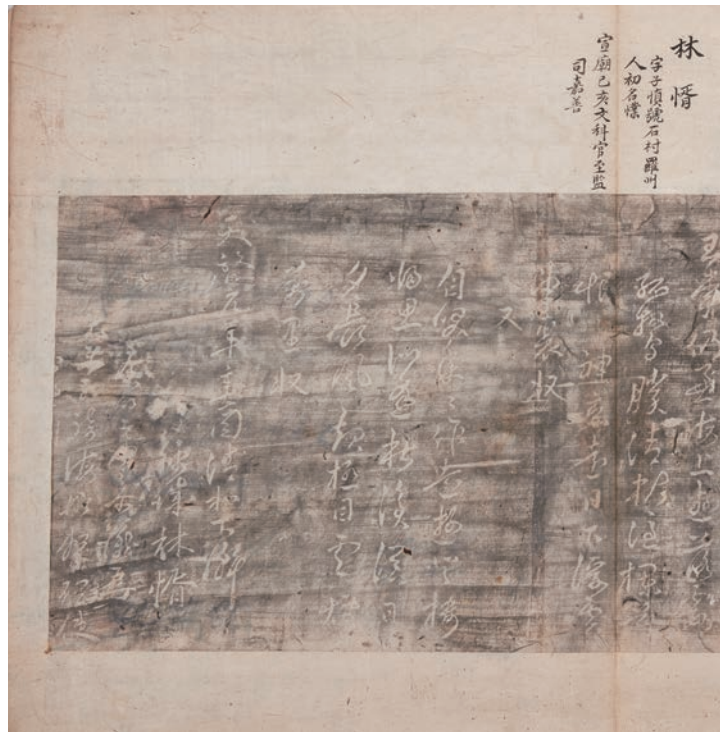
절약 근검하고 백성들을 부지런히 하며 느긋하게 노니는 것 삼가니
위엄 있는 명성 혁혁하여 그 기운 가을을 가로지른다.
지금 임금의 은택이 살과 뼈에 사무치니
변방 밖 요사스런 분위기 절로 거두어지리.

節儉勤民慎爾遊
威名赫赫氣橫秋
即今聖澤淪肌骨
塞外妖氛不賴收

정통 기미년(1439) 봄 경차 성균사에 여강 민효환

正統己未春 敬差 成均司藝 驪江 閔孝權

15) 민효환: 1420년(세종 2) 식년시에서 진사를 거쳐 같은 해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이후 우정언, 형조좌랑, 충청도경력, 원평부사, 사헌부 장령 등을 지냈다. 이 시가 1439년에 창작되었으므로, 원평부사(1439)를 지낼 때 지은 것으로 보인다.



字子愔 號石村 羅州人 初名엽(葉) 宣廟己亥文科 官至監司嘉善
자는 자신(子愔), 호는 석촌(石村), 본관이 나주이다. 초명은 엽(葉)이다. 선조 기해년(1599)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감사, 가선대부에 이르렀다.

공무(公務)에 겸해서 바닷가에서 노니니
저녁노을 외로운 기러기에 멋지고 맑은 가을이라.¹⁷⁾
난간에 기대어 서울 멀다고 한탄하지 말라,
태양 아래 뜬구름 눈앞에서 걷히네.

王事仍兼海上遊
落霞孤鶩勝清秋
憑欄莫恨神京遠
日下浮雲望裏收

또
해마다 멀리 노니는 것 스스로 웃나니
누정에 올라 돌아갈 생각에 가을 맞은 듯.
넓은 바다에 해는 지고 긴 바람 일어나서
눈길 멀리 구름과 안개가 만 리에 걷힌다.¹⁸⁾

又
自笑年年作遠遊
登樓歸思似逢秋
滄溟日夕長風起
極目雲烟萬里收

천계원년 신유년(1621) 맑은 가을 하순 금성¹⁹⁾ 임서

天啓元年辛酉清秋下澣 錦城林愔

내가 공조참의로 중국의 사신 □□□정리사를 하였다.

余以工曹參議爲天使□□海整理使

16) 임서: 조선후기 문신으로, 전라도 안핵사, 무장현감 등을 지냈다. 광해군대 인목대비의 폐모론이 있을 때 벼슬을 사직하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인조반정 이후 중용되어 안동부사, 황해도 관찰사 등을 역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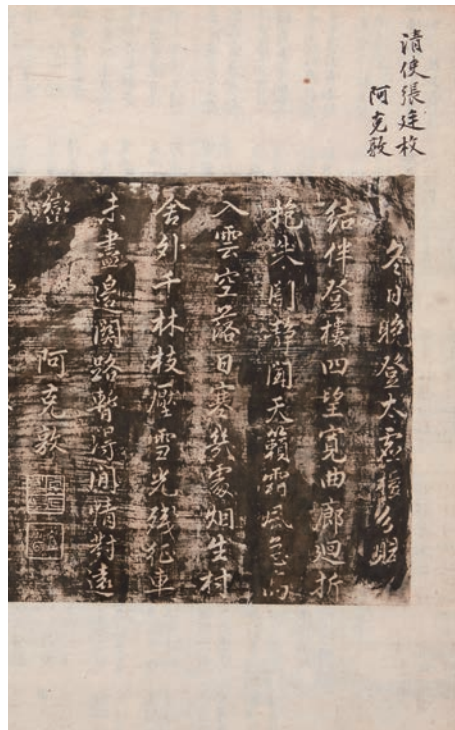
17) 저녁노을 …… 가을이라: 왕발(王勃)의 『등왕각서滕王閣序』의 “저녁 노을은 외로운 오리와 나란히 날아간다”(落霞與孤鶩齊飛)라는 구절을 활용하여 표현했다.

18) 두 편의 시는 모두 임서(林愔)의 문집인 『석촌유고石村遺稿』에 「次豐川東軒板上韻」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19) 금성(錦城): 나주(羅州)의 옛 이름. 임서의 본관이 나주이다.

7 아극돈(阿克敦, 1685~1756)²⁰⁾

황주(黃州) 태허루(太虛樓)²¹⁾(청구제영 제1첩)



겨울날 저녁 태허루에 올라 나누어 짓다.

冬日晚登太虛樓分賦

짝을 지어 누정에 오르니 사방으로 널리 보이는데
 굽은 회랑 구불구불 붉은 난간 감싸고 있다.
 자연의 소리²²⁾ 고요히 들으니 서리바람 급한데
 새는 구름 낀 하늘로 들고 지는 해 차가워라.
 연기 나는 마을 집 밖으로 몇 군데나 있는가
 온 숲에 가지 눌러 눈빛이 빛난다.
 먼 길 가는 수레는 변방 길을 아직 다 가지 못했는데
 잠시 한가로운 마음으로 먼 봉우리를 마주한다.²³⁾

結伴登樓四望寬
 曲廊廻折抱朱闌
 靜聞天籟霜風急
 鳥入雲空落日寒
 幾處烟生村舍外
 千林枝壓雪光殘
 征車未盡邊關路
 暫得閒情對遠巒

아극돈

阿克敦

20) 아극돈: 민주(滿洲) 정람기(正藍旗) 태생으로, 자는 충화(沖和), 입항(立恒), 항암(恒巖) 등이며, 당호는 덕음당(德蔭堂)이다. 네 차례에 걸쳐 조선에 사신으로 다녀갔다.

21) 태허루(太虛樓): 황해도 황주에 있던 누정이다. 이덕무의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에 따르면 태허루의 편액을 주지번(朱之蕃)이 썼고 아극돈(阿克敦), 전희공(錢希孔) 등의 시판이 걸려 있었다고 한다.

22) 자연의 소리: 천뢰(天籟). 『장자』 「제물론齊物論」에 나오는 단어로, 바람이 불어 천지의 모든 구멍에서 나는 소리지만 조화로움에 이른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23) 아극돈의 이 작품과 다음에 나오는 장정매의 시는 『승정원일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1717년(숙종43) 11월 27일자 기사에서 아극돈과 장정매 두 사신이 황주 태허루에서 지은 시를 판각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만 걸어두도록 분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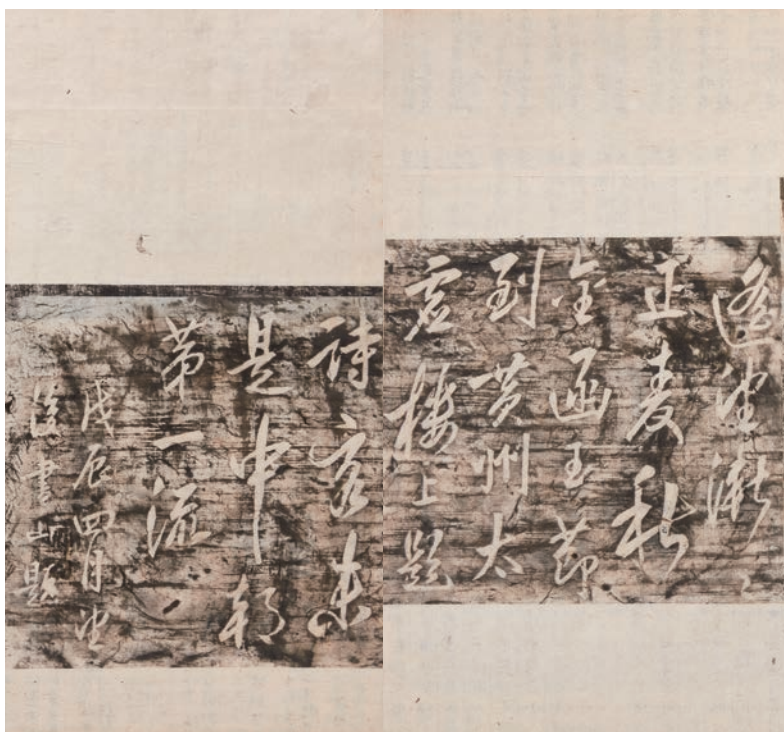
높은 누각에서 눈을 멀리 두니 나그네 회포 느긋해지는데
먼 풍경 아득하여 그림 같은 난간으로 올라간다.
창 밖은 안개로 싸여 수많은 나무 자그마하고
앉은 자리에 바람 들어오니 사시사철 서늘하다.
풀 시드는 들판에 강물 처음 합쳐지고
해 떨어지는 서남쪽으로 빛이 기울려는 듯하다.
동지들이 있는 덕에 맑은 흥취 길이 일어나매
온 하늘 푸른 안개가 숲과 봉우리 감싼다.

장정매

高樓極目客懷寬
遠景微茫上畫闌
窓外煙籠千樹小
座中風入四時寒
草枯原野水初合
日落西南盡欲殘
賴有同心清興永
一天蒼靄擁林巒

張廷枚

24) 장정매(張廷枚): 장정매는 아극돈과 함께 두 차례 조선에 사신으로 왔다. 한 번은 1717년(숙종 43) 10월 숙종이 안질(眼疾) 때문에 청나라에 약재를 요청하자 그것을 가지고 조선으로 왔으며, 또 한 번은 같은 해 12월에 청나라 황태후의 부음을 가지고 조선에 왔다.



아득히 바라보니 점차 보리 익는 계절로 가는데
 금함(金函)²⁵⁾과 옥절(玉節)²⁶⁾ 모시고 황주에 이르렀다.
 태허루 위에 시를 쓴 나그네들
 중국에서 일류는 아닌 듯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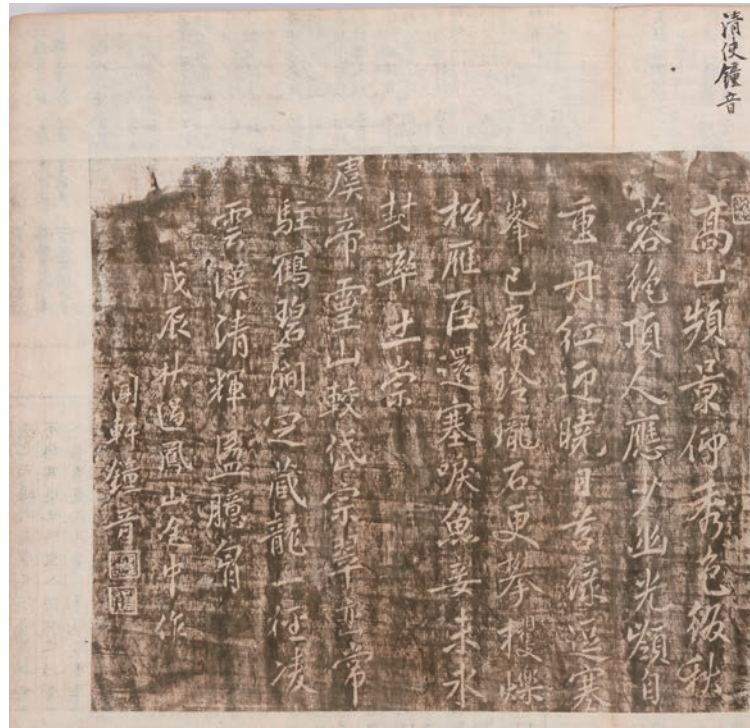
무진년 4월 16일 서산 씀

遙望漸漸正麥秋
 金函玉節到黃州
 太虛樓上題詩客
 未是中朝第一流

戊辰四月望後 書山題

25) 금함(金函): 금으로 만든 상자로, 왕명을 적은 문서를 넣어놓은 함을 말한다.

26) 옥절(玉節): 옥으로 만든 부절(符節)로, 왕명을 받은 사신 혹은 관리를 말한다.



높은 산 자주 우러러보니
 빼어난 빛은 가을 연꽃인 듯.
 산꼭대기엔 사람 응당 적으리니
 그윽한 빛에 고개는 절로 장중하다.
 붉은 빛은 새벽해를 맞이하고
 푸른 빛은 차가운 봉우리에 머문다.
 영롱한 바위를 이미 밟았으니
 다시 굳센 노송(老松)을 부여잡고 오른다.
 기러기²⁸⁾는 변방으로 돌아가며 울고
 물고기는 아직 얼음으로 갇히지 않았네.
 천하의 모든 땅은 순임금을 숭상하고
 신령스러운 산은 태산과 비교하네.
 비췌빛 봉우리에는 항상 학이 머물고
 푸른 계곡물에는 필시 용을 감추었으리.
 한 줄기 길은 은하수를 넘으리니
 밝은 빛이 가슴을 일렁이게 하네.

高山頻景仰
 秀色役秋蓉
 絕頂人應少
 幽光嶺自重
 丹紅迎曉日
 苔綠逗寒峯
 已履玲瓏石
 更攀攫爍松
 雁臣還塞唳
 魚妾未永封
 率土崇虞帝
 靈山較岱宗
 翠巒常駐鶴
 碧澗定藏龍
 一徑凌雲漢
 清輝盪臆胸

무진년(1748) 가을 봉산을 지나는 도중에 문헌 종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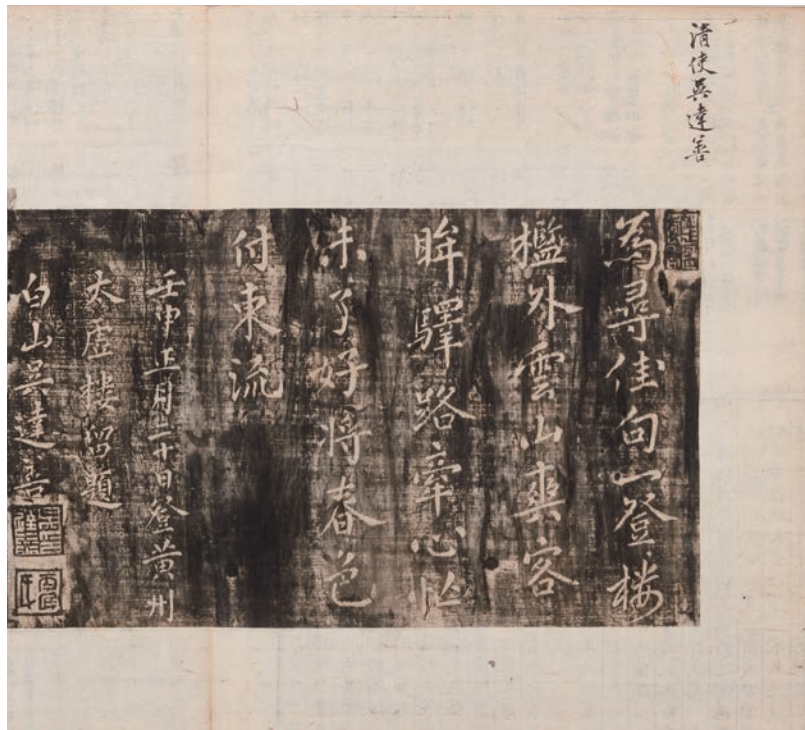
戊辰秋 過鳳山途中作 聞軒鐘音

27) 종음: 청나라 사신이다. 자는 위장(魏莊), 호는 문헌(聞軒), 만주 양남기인(鑲藍旗人) 출신이다. 실록에 의하면, 1748년(영조 24) 7월 27일조에 황후의 시호를 반하(頒下)하기 위해 조선에 사신으로 왔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28) 기러기: 원문은 안신(雁臣). 기러기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을에 천자에게 조회를 하고 봄이면 다시 돌아가는 사신을 지칭하기도 한다.

11 오달선(吳達善, ?~1771)²⁹⁾

황주 태허루(청구제영 제1첩)



아름다운 구절 찾으며 누정에 오르니
난간 밖 구름낀 산이 나그네 눈을 시원하게 한다.
역로(驛路)가 마음 당겼지만 바빠서 못다하고³⁰⁾
그대로 봄빛을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부쳤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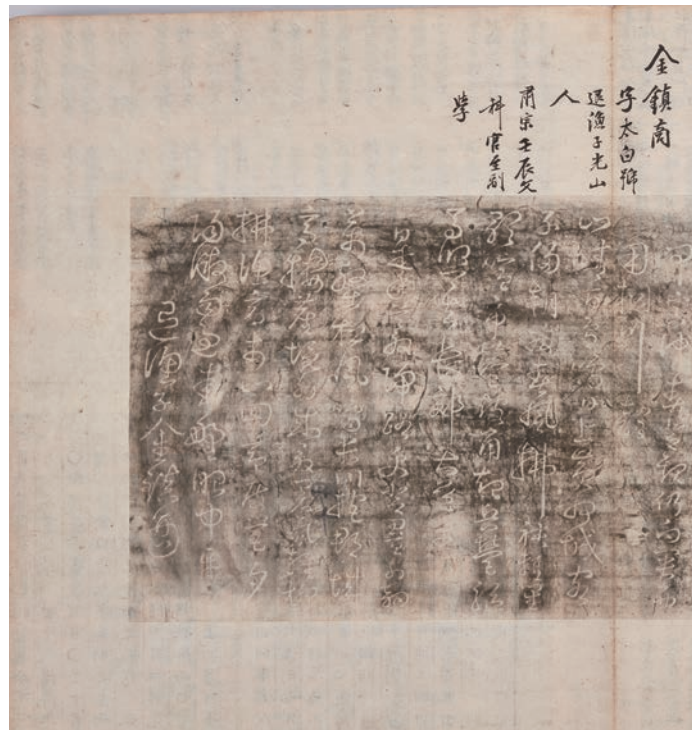
爲尋佳句一登樓
檻外雲山爽客眸
驛路牽心忙未了
好將春色付東流

임신년(1752) 정월 20일 황주 태허루에 올라서 시를 남기다.
백산 오달선

壬申正月二十日 登黃州太虛樓 留題
白山 吳達善

29) 오달선: 청나라 사신으로, 자는 우민(雨民), 만주 정홍기인(正紅旗人)이다. 1736년(영조 2) 진사가 되었으며, 국자감 제주(祭酒), 병부좌시랑, 태자소보(太子少保) 등을 역임하였다.

30) 역로가 …… 못했는데: 사신으로서의 임무를 아직 끝내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字太白 號退漁子 光山人 肅宗壬辰文科 官至副學

자는 태백(太白), 호는 퇴어자(退漁子), 본관은 광산이다. 숙종 임진년(1712)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부제학에 이르렀다.

갑인년(1734) 중춘, 누정에 올라 구경하고 이에 관서를 향해 가며 망천(漚川)의 운자를 빌어서 쓰다.³²⁾

甲寅仲春 登觀仍向關西 用漚川韻

산은 맑고 흰새는 우는데
해는 황주성 위로 떠오른다.
나그네는 아침 되자 길 떠나니
봄바람은 소매에 스쳐 가볍다.
생황과 노랫소리는 저갯거리에 떠들썩하고
북과 나발 소리는 병영에서 일어난다.³³⁾
말을 몰아 유유히 떠나가니
긴 교외에 옛길이 평평하다.

山晴白鳥鳴
日上黃州城
客子侵朝發
春風拂袂輕
笙歌喧市巷
鼓角起兵營
驅馬悠悠去
長郊古道平

31) 김진상: 조선후기 대사성, 대사헌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1722년(경종 2) 신임사화로 유배되었다가 영조 즉위 후 중용되었다. 글씨에도 이름을 떨쳐 많은 비문을 썼다.

32) 이 시는 김진상의 문집 『퇴어유고退漁遺稿』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33) 북과 나발 …… 일어난다: 북과 나발은 고각(鼓角)을 번역한 것으로, 군중(軍中)에서 명령을 내리거나 호령할 때 사용하는 악기다.

이 해 초여름, 돌아가는 길에 다시 올라서 이전의 운자를 빌려서 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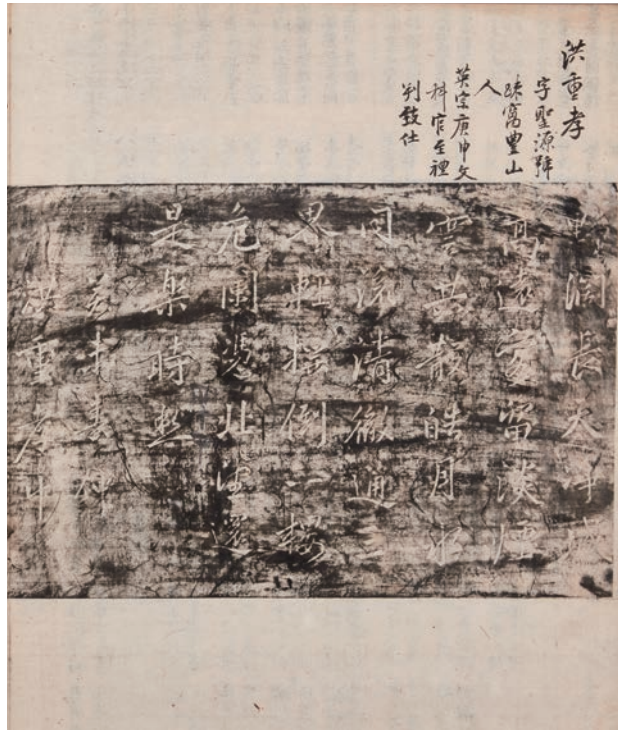
是年首夏歸路更登疊前韻

모든 골짜기에 솔바람 소리 울리고
긴 시내는 고을 성을 감싸고 흐른다.
높은 누각은 속세 밖에 있고
한여름 더위 분위기는 가볍다.
버드나무는 생선 시장에 산들거리고
산은 절도영(節度營)을 휘감고 있다.
저녁빛에 가랑비 지나가니
봄 들판이 눈[眼]에 평평하구나.

萬壑松風鳴
長川抱郡城
高樓塵境外
盛夏暑氛輕
柳拂漁商市
山回節度營
夕陽微雨過
春野眼中平

퇴어자 김진상

退漁子 金鎮商



字聖源 號疎窩 豐山人 英宗庚申文科 官至禮判致仕

자는 성원(聖源), 호는 소와(疎窩), 본관은 풍산이다. 영조 경신년(1740)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예조판서에 이르러 사직하였다.

들판 드넓고 긴 하늘은 맑은데
성은 높고 먼 길 떠난 나그네 머문다.
열은 안개는 구름과 함께 흩어지고
밝은 달은 물과 함께 흘러 간다.
맑디 맑아서 삼계(三界)³⁶⁾에 통하고
가볍게 흔들려 누각 거꾸로 비친다.
아스라한 난간에 기대어 북쪽을 바라보니
도리어 즐거울 때 근심스럽다.

野闊長天淨
城高遠客留
淡煙雲共散
皓月水同流
清徹通三界
輕搖倒一樓
危闌憑北望
還是樂時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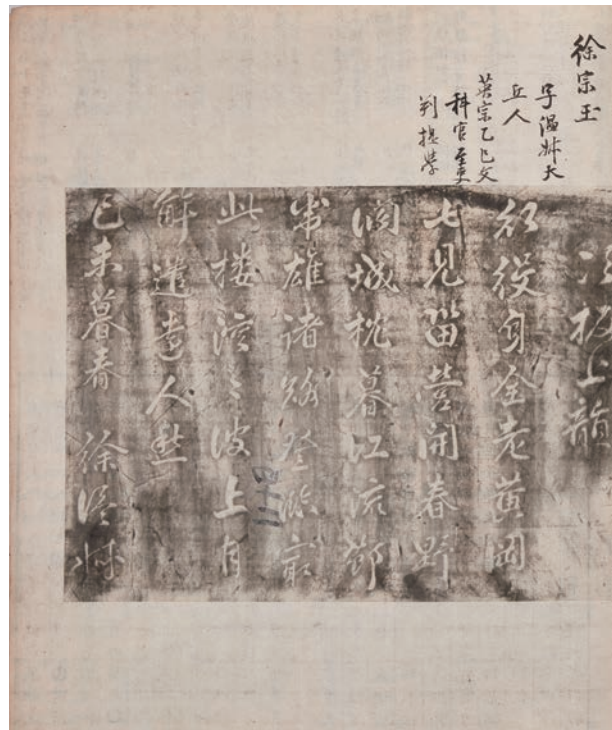
계미년(1763) 춘중 홍중효 쓰다.

癸未春仲洪重孝艸

34) 홍중효: 영조대 대사헌, 예조판서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주청사의 부사로 연경(燕京)에 다녀오기도 했다. 경전에 마음을 쏟으면서도 시에 뛰어났으며 만년에 글씨에도 힘을 기울였다.

35) 월파루(月波樓): 용금정(湧金亭)으로도 부른다. 황주읍성을 등지고 적벽강 옆에 지은 누정. 황주를 대표하는 명승지이다.

36) 삼계(三界): 불교에서 말하는 천계(天界), 지계(地界), 인계(人界)의 세계(世界). 즉 온 우주를 의미한다.



字溫叔 大丘人 英宗乙巳文科 官至吏判 提學

자는 온숙(溫叔), 본관은 대구이다. 영조 을사년(1725)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이조판서, 제학에 이르렀다.

시판의 시에 차운하다

次板上韻

돌아다니느라 몸은 온통 늙었나니
 황강³⁸⁾에서 일곱 차례나 묵었었지.
 군영은 드넓은 봄 들판을 향해 열렸고
 성은 저무는 강 물결을 베고 있다.
 절도있게 통솔하매 여러 길들이 뻗어나고³⁹⁾
 올라와 보니 이 누정이 최고로다.
 넘실거리는 물결 위의 달빛이
 먼 길 떠난 사람의 근심을 풀어주는구나.

行役身全老
 黃岡七見留
 營開春野濶
 城枕暮江流
 節制雄諸路
 登臨寂此樓
 溶溶波上月
 解遣遠人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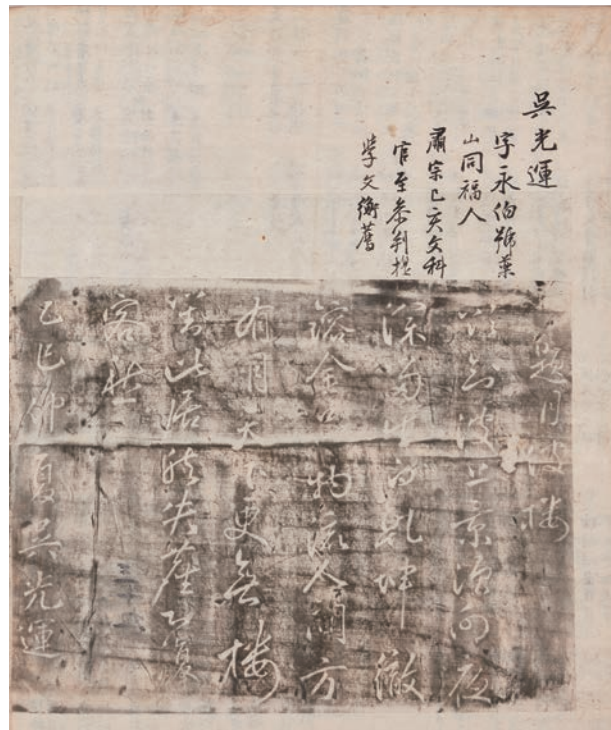
기미년(1739) 늦봄 서온숙

己未暮春 徐溫叔

37) 서종옥: 영조대 대사간, 대사헌, 함경도관찰사를 지낸 문신이다. 서종옥은 1739년(영조 12) 2월, 진위 겸 사은사(陳慰兼謝恩使)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이 시는 청나라로 가는 길에 황주 월파루에서 지은 것으로 보인다.

38) 황강(黃岡): 황주의 다른 이름이다.

39) 절도있게 …… 뻗어나고: 황주성을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험준한 산들이 이어지다가, 황주를 기점으로 남쪽은 평야지대가 펼쳐진다. 이 때 문에 황주는 북방의 침략을 방어하는 요충지로 인식되어 군영(軍營)을 따로 두었다. 여기서는 황주를 중심으로 조선 곳곳으로 뻗어가는 길을 통해서 이곳의 웅혼한 기운을 보여주려는 의도를 담은 것이다.



字永伯 號藥山 同福人 肅宗己亥文科 官至參判 提學文衡薦

자는 영백(永伯), 호는 약산(藥山), 본관은 동북이다. 숙종 기해년(1719)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참판, 제학에 이르렀으며, 문형에 천거되었다.

월파루에 쓰다⁴¹⁾

題月波樓

물결 위의 경치를 알고 싶다면
모름지기 밤 깊어갈 때 머물러야지.
흰빛 생겨나니⁴²⁾ 천지가 환해지고
금을 녹이니 만물이 유행(流行)한다.
인간 세상에 바야흐로 달이 뜨면
천하에 또 다시 이런 누정 없네.
이를 마주하고도 느긋하게 잃어버린다면
속세의 마음에 다시 나그네 근심 일어나리.

欲知波上景
須向夜深留
生白乾坤徹
鎔金品物流
人間方有月
天下更無樓
對此居然失
塵心復客愁

을사년(1725) 중하 오광운

乙巳仲夏 吳光運

40) 오광운: 숙종대 급제하여 영조대 활동한 문신이다. 영조가 연잉군(延昞君)이었던 시절 서연관(書筵官)이었고, 영조가 즉위한 뒤에는 영조의 탕평 정책 하에서 청남(淸南) 세력의 정치적 지도자로 활약하였다.

41) 오광운의 문집 『약산유고藥山遺稿』에 보이지 않는 작품이다.

42) 흰빛이 생겨나니: 『장자莊子』에서, “텅 빈 방에서 흰빛이 생겨나니 상서로움이 머무른다”(虛室生白, 吉祥止止)고 하였다. 이럴 때 텅 빈 방은 마음을 뜻한다.

16 유엄(柳儼, 1692~1752)⁴³⁾

황주 월파루(청구제영 제1첩)



字叔瞻 一字思叔 文化人 景宗癸卯文科 官至判書

자는 숙침(叔瞻), 또는 사숙(思叔), 본관은 문화이다. 경종 계묘년(1723)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판서에 이르렀다.

시판의 운자를 빌어서 짓다.

次板上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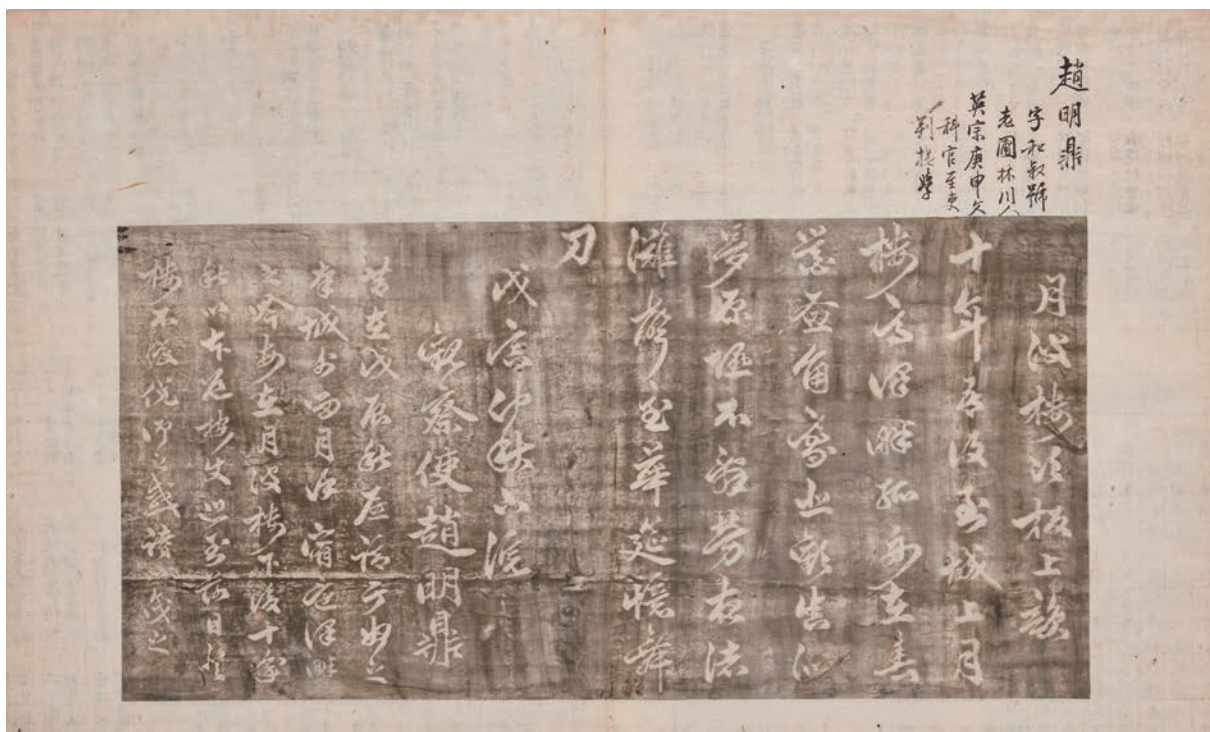
좋은 날 오르지 못해
애오라지 이전처럼 머무르네.
터를 잡은 산은 들판을 만나 일어났고
넓은 강은 성을 안고 흘러간다.
달이 뜨자 바야흐로 맑은 지경(地境) 만들고
물결 잔잔하니 이 누각 아니던가.
돌아가는 수레 마땅히 좇으며 바라보나니
그 후에야 번뇌와 근심을 씻어버리리.

不及良宵上
聊從向日留
山盤當野起
川濶抱城流
有月方清境
無波未是樓
歸輶宜趁望
然後滌煩愁

정사년(1737) 맹추 그믐 진주부사 유엄 숙침

歲丁巳孟秋之晦 陳奏副使 柳儼叔瞻

43) 유엄: 영조대 수찬, 교리, 승지를 거쳐 경기도, 황해도 등 4도의 관찰사를 지냈다. 문장으로 이름이 높았다.



字和叔 號老圃 林川人 英宗庚申文科 官至吏判 提學

자는 화숙(和叔), 호는 노포(老圃), 본관은 임천이다. 영조 경신년(1740)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이조판서, 제학에 이르렀다.

월파루 시판의 시에 차운하다.

月波樓次板上韻

십 년만에 나 다시 이곳에 왔나니
성 위로 월파루 높아라.
물가에 외로운 배 놓여있고
봄의 군영에 화각(畫角) 소리 호탕하다.
슬픔과 기쁨은 진실로 꿈과 같고
들판과 습지는 수고로움을 사양하지 않는다.
밤의 물가에는 여울물 소리 급하고
아름다운 잔치자리에서는 칼춤을 추억한다.

十年吾復到
城上月樓高
澤畔孤舟在
春營畫角豪
悲歡眞似夢
原隰不辭勞
夜渚灘聲急
華筵憶舞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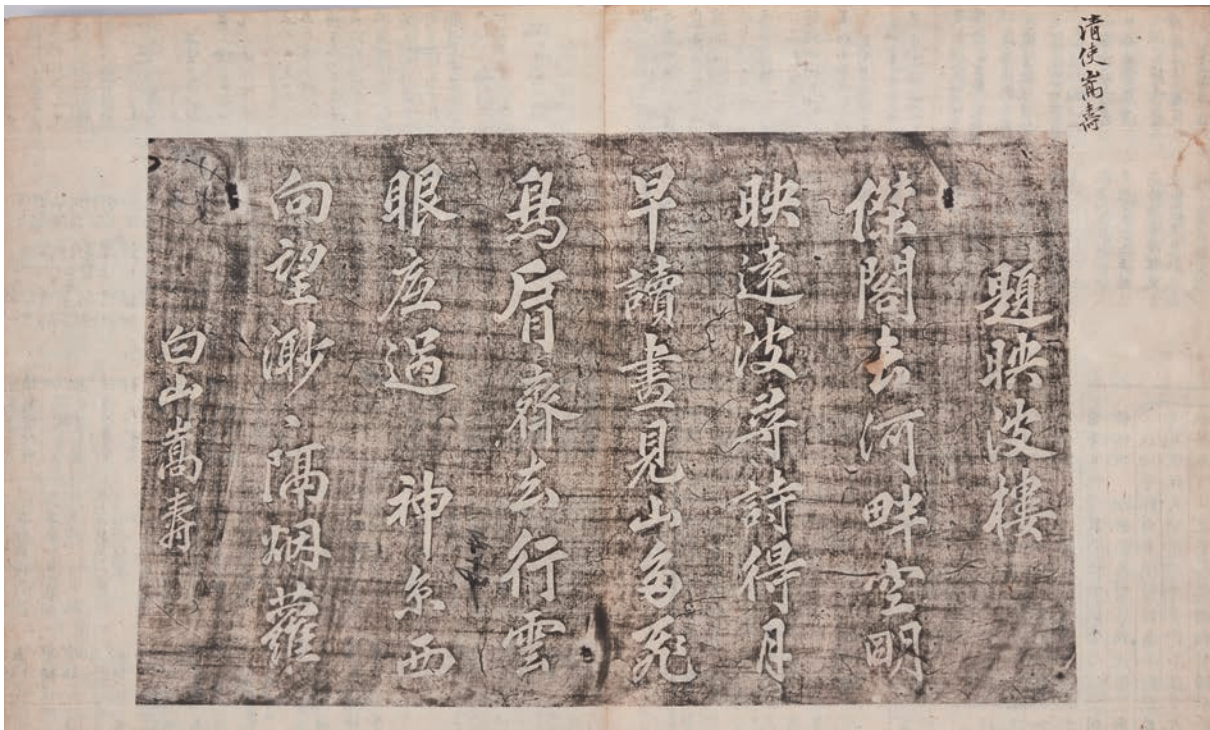
무인년(1758) 중추 하순 관찰사 조명정

戊寅仲秋下浣 觀察使 趙明鼎

昔在戊辰秋, 居謫于州之南城外, 留月餘. 有還, 澤畔之吟, 每在月波樓下. 後十年秋, 以本道按使巡到, 落日登樓, 不勝俛仰之感, 詩以識之.

옛날 무진년(1758) 가을, 고을 남쪽 성밖에서 귀양살이를 하며 한 달 남짓 머무르다가 사면을 받고 돌아갔는데, ‘물가의 읍조림’[澤畔之吟]을 매양 월파루 아래에 있는 것처럼 하였다. 10년 뒤 가을, 황해도의 관찰사 신분으로 여러 고을을 돌아보다가 이곳에 이르렀다. 해질녘 이 누각에 오르니 회고의 감흥을 이기지 못하여 시로써 이를 기록한다.

44) 조명정: 영조대 활동한 문신으로 경기좌도 심홍사, 황해도 관찰사 등을 역임했다. 『영조실록』의 찬집당상으로 편찬에 참여했고, 정조대 흥국영의 세도정치를 공격하다가 축출당했다.



영파루에 쓰다

題映波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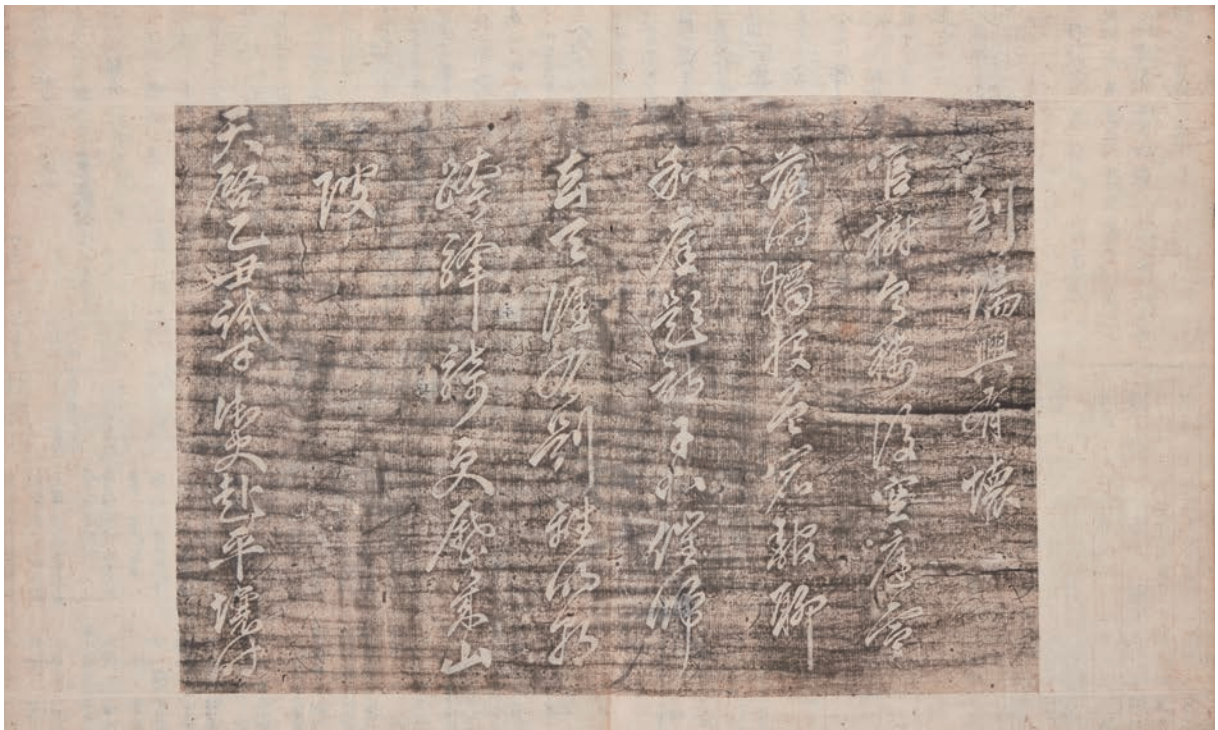
현결찬 누각이 긴 강 옆에 있는데
하늘의 밝은 빛이 멀리 물결에 비친다.
시구(詩句) 찾으며 달빛 일찍 받았고
그림 읽으며 산을 많이 보았지.
날아가는 새는 어깨와 나란히 떠나가고
흘러가는 구름은 눈 아래로 지나간다.
서울이 있는 서쪽 향해 바라보니
아득히 안개 낀 덩굴풀에 가려있구나.

傑閣長河畔
空明映遠波
尋詩得月早
讀書見山多
飛鳥肩齊去
行雲眼底過
神京西向望
渺渺隔烟蘿

백산 승수

白山崇壽

45) 승수: 1749년(영조 25) 청나라 사신 부도통(副都統) 소호제(蘇呼濟)와 함께 온 내각학사(內閣學士)이다.『영조실록』 권63 영조 25년(1749) 6월 12일 무자)



서흥에 이르러 생각이 있어서 짓다.

到瑞興有懷

관청 숲 높은 누각 뒤
텅 빈 뜰에 눈이 내릴 때.
일찍이 묵었던 객관(客館)에 홀로 투숙하고
옛날에 지었던 시에 애오라지 화답한다.
서울에서 돌아가기를 재촉하고
하늘 끝에서 이별한다.
내일 아침 역참의 말을 타고
또 다시 몇 개의 산과 언덕 지날 것인가.⁴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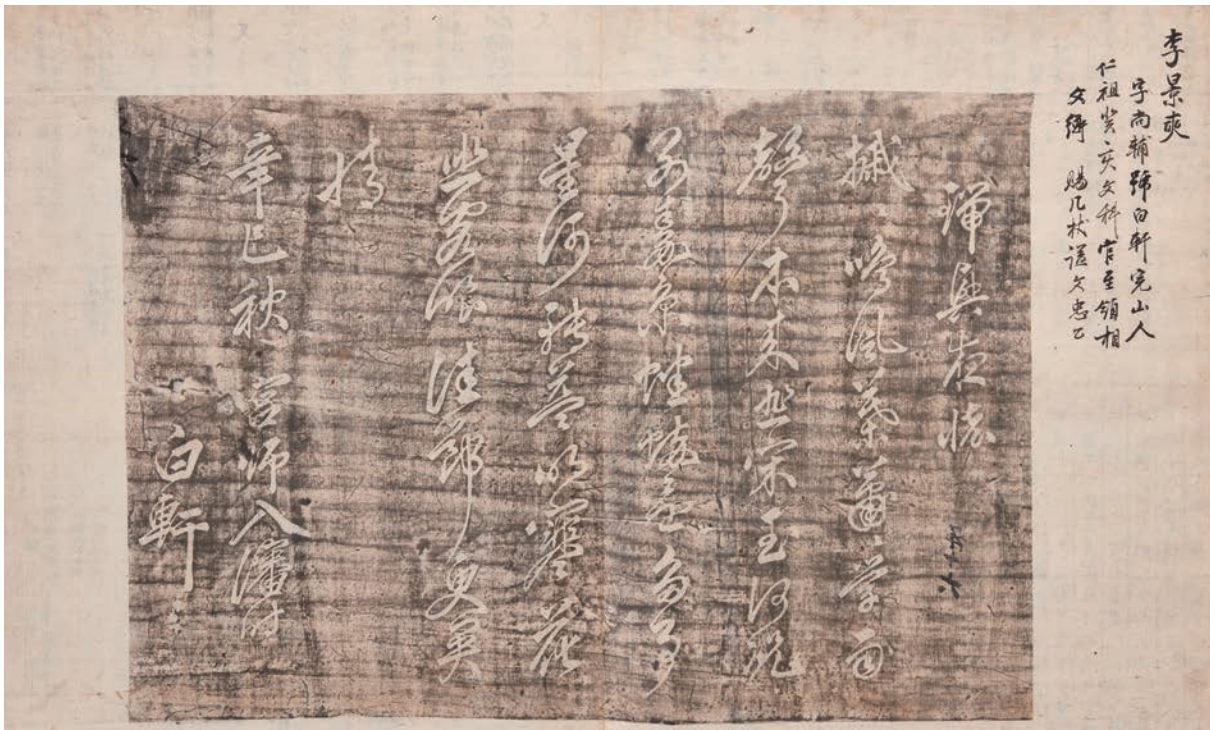
官樹高樓後
空庭雪落時
獨投曾宿館
聊和舊題詩
日下催歸去
天涯有別離
明朝跨驛騎
更歷幾山陂

천계 을축년(1625) 시재어사(試才御史)로 평양으로 갈 때 짓다.

天啓乙丑 試才御史赴平壤時

46) 이경석: 인조, 효종, 현종대 활동한 문신이다. 병자호란 이후에 예문관제학으로 <삼전도비문三田渡碑文>을 지었다. 관직에 있는 약 50여년 동안 시국의 안팎으로 얹힌 난국을 주관한 명상(名相)이었다.

47) 『청구제영』에는 이 작품의 작자가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경석의 문집 『백헌집白軒集』에 「到瑞興有懷」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문집에는 이경석이 옥당(玉堂)에 근무할 때 평양에 과거시험을 주관하러 갔으며 1624년(인조 2)이라고 되어 있다.



字尙輔 號白軒 完山人 仁祖癸亥文科 官至領相 文衡 賜几杖 諡文忠公

자는 상보(尙輔), 호는 백선(白軒), 본관은 완산이다. 인조 계해년(1623, 인조원)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영상에 이르렀다. 문형을 잡았으며, 궤장(几杖)을 하사 받았다. 시호는 문충공(文忠公)이다.

서흥에서의 밤 회포

瑞興夜懷

우수수 바람에 나뭇잎 지는 소리 들리고
 쓸쓸히 비 오는 소리 배운다.⁴⁸⁾
 본래 송옥(宋玉)을 슬퍼했나니⁴⁹⁾
 하물며 서울을 떠나왔음에랴.
 귀뚜라미는 도리어 일이 많고
 은하수는 돌고 돌아 더욱 밝아진다.
 국화는 나그네 눈을 비추고
 아름다운 계절은 변방의 정을 일깨운다.⁵⁰⁾

撼撼鳴風葉
 蕭蕭學雨聲
 本來悲宋玉
 何況別秦京
 蟋蟀還多事
 星河轉益明
 寒花照客眼
 佳節更關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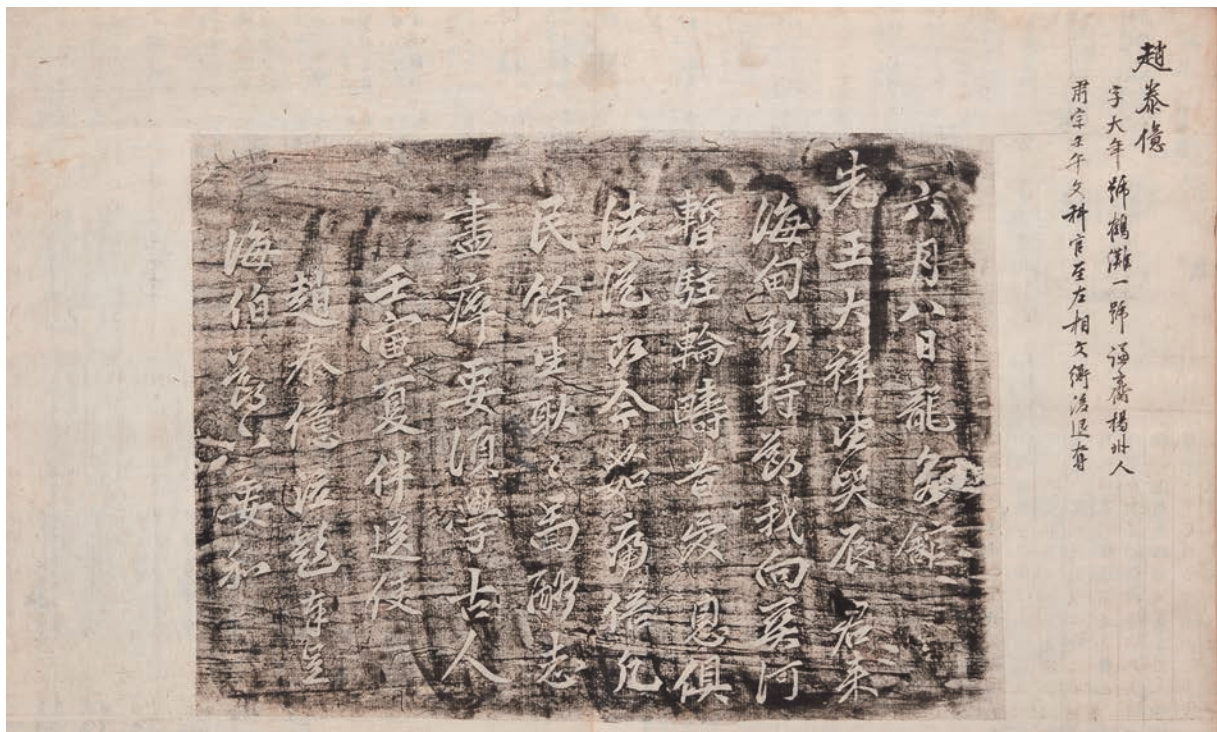
신사년(1641) 가을 궁사(宮師)로 심양(瀋陽)으로 들어갈 때 지음
 백헌

辛巳秋 宮師入瀋時
 白軒

48) 쓸쓸히 비오는 소리를 배운다: 낙엽이 바람에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비가 오는 소리처럼 들린다는 뜻이다. 이는 구양수(歐陽修)의 「추성부 秋聲賦」를 인용한 것이다.

49) 송옥(宋玉): 굴원(屈原)의 제자로, 뛰어난 초사(楚辭) 작가이다. 그는 스승과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가을에 비유하여 표현하였다.

50) 이 시는 『백헌집』에 같은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문집의 정보에 의하면 이 작품은 1641년(인조 19) 청나라 심양에 있는 소헌세자의 스승 자격으로 심양으로 들어갈 때 지었다.



字大年 號鶴灘 一號謙齋 楊州人 肅宗壬午文科 官至左相 文衡後退奪

자는 대년(大年), 호는 학탄(鶴灘) 또는 겸재(謙齋), 본관은 양주이다. 숙종 임오년(1702)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좌상에 이르렀다. 문형을 잡은 뒤 삭탈관직된 바 있다.

유월 팔일 용천관(龍泉館)

六月八日龍泉館

선왕의 대상(大祥)에 망곡(望哭)하는 날.⁵³⁾

先王大祥望哭辰

그대는 우리나라에 새로이 부절(符節)을 지니고 왔고

君來海甸新持節

나는 변방을 향해 가는 길에 잠시 수레를 멈추었네.

我向關河暫駐輪

옛날 은혜를 받아 함께 임금을 호종(扈從)하였는데

疇昔受恩俱法從

지금 참고 있는 고통은 보통 사람보다 두 배나 된다.

卽今茹痛倍凡民

남은 생애兢兢히 뜻을 이루기를 도모하나니

餘生耿耿圖酬志

심신을 다해 모름지기 옛사람을 배우리라.⁵⁴⁾

盡瘁要須學古人

임인년(1722년) 여름 반종사(伴從使) 조태억이 올면서 써서 해백(海伯)⁵⁵⁾ 절하(節下)에 올리고 화답을 요구하다.

壬寅夏 伴從使趙泰億泣題 奉呈海伯節下 要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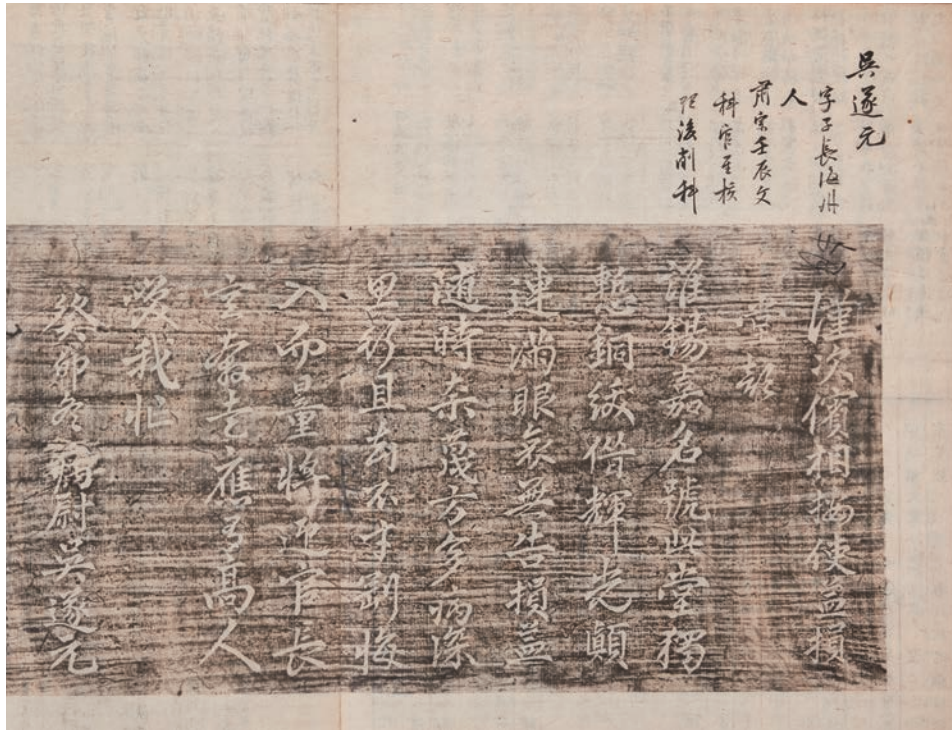
51) 조태억: 숙종, 영조대 활동한 문신이다. 1711년(숙종 37) 통신사 정사로 일본에 다녀왔다. 영조가 즉위한 뒤에 병조판서를 거쳐 우의정이 되었다. 소론으로 분류되며 저서로는 『겸재집謙齋集』이 있다.

52) 용천관(龍泉館): 황해도 서흥도호부 안에 있는 객관(客館)으로, 사신들의 숙소로 이용되던 곳이다.

53) 선왕의 대상: 숙종이 1720년(숙종 46) 봉어하였으므로, 1722년(경종 2) 대상을 맞아 곡을 했다는 뜻이다.

54) 이 작품은 조태억의 문집 『겸재집』에 「國祥日書懷奉呈海伯節下」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2수로 된 연작시인데, 여기에는 제1수만 수록되었다.

55) 해백(海伯): 황해도관찰사를 말한다.



字子長 海州人 肅宗壬辰文科 官至校理 後削科

자는 자장(子長), 본관은 해주이다. 숙종 임진년(1712)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교리에 이르렀으나, 후에 삭과(削科)되었다.

삼가 빈상안사(儼相按使)의 익손당 시에 차운하다

謹次儼相按使益損堂韻

어느 분이 아름다운 이름 내리셔서 이 집에 이름 지었는가
홀로 구리 인끈⁵⁸⁾에 광휘(光輝) 빌린 것 부끄러워라.
가난한 모습 눈에 가득해도 그 슬픔 고할 데 없고
손해와 이익 때를 따르니 무슨 방도가 있으랴.
병이 많아 떠나가기를 길이 생각하고
재주 없어 세월 보냄을 곧 후회하네.
관장(官長) 맞이하려고 부질없이 분주하니
응당 고인(高人)께서는 나의 바쁨을 웃으시겠지.

誰錫嘉名號此堂
獨慙銅紱借輝光
顛連滿眼哀無告
損益隨時奈蔑方
多病深思行且去
不才剛悔入而曠
將迎官長空奔走
應有高人笑我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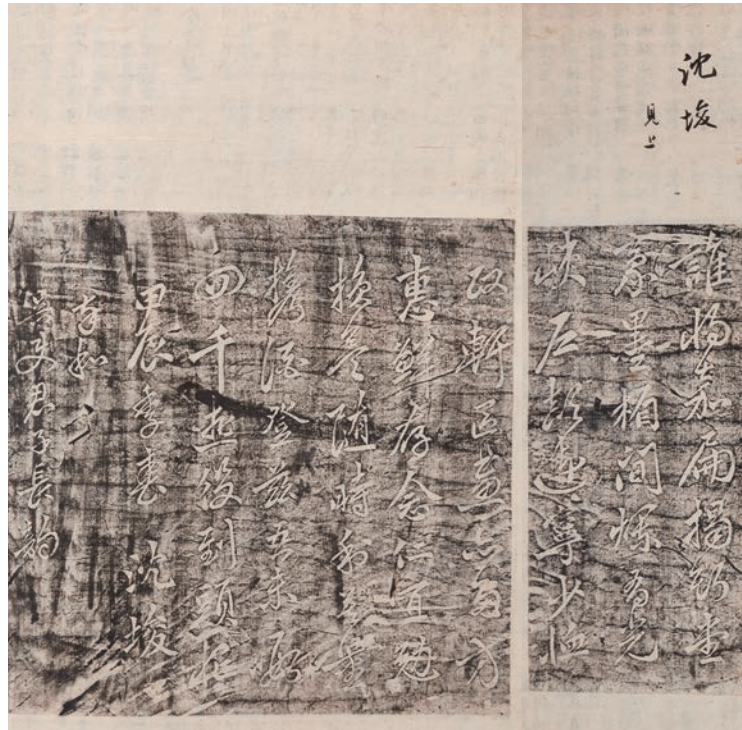
계묘년(1723) 겨울 병든 관리 오수원

癸卯冬病尉吳遂元

56) 오수원: 오도일(吳道一)의 아들로 숙종대 문과에 급제하였으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하여 삭과(削科)되었다. 이후 경종대 다시 복과(復科)되어 관직을 받았다.

57) 익손당(益損堂): 황해도 서흥도호부 관아 안에 있는 건물로 보인다. 『청구제영』 제1첩 마지막에 수록되어 있는 송성명의 시를 보면 용천관이 언급되어 있으므로, 같은 건물의 이칭이거나 같은 관아 안에 있던 건물로 추정된다.

58) 구리 인끈: 관리가 허리에 패용하는 것이므로 관리를 의미한다.



見上
위에서 보인다.

아름다운 편액을 누가 이 집에 걸었는가
호방한 글씨가 추녀 사이에서 찬란히 빛난다.
산골 마을 가난한들 구휼을 적게 할까.
정사(政事) 살피는 집 구획한 것 또한 방도 많아라.
은택 베푸는 일⁵⁹⁾ 마음에 두고 어진 성품 마땅히 힘쓰고
더는 것과 더하는 것 때에 따르니 이로움 측량할 수 없네.
술 가지고 이곳에 오르자니 나는 여가가 없는데
사천 리 여행길이 끝까지 바쁘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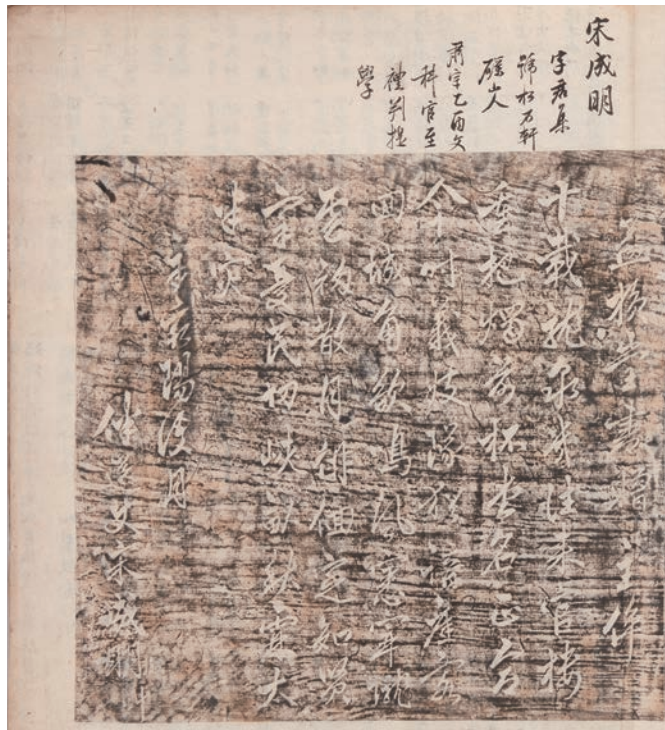
誰將嘉扁揭斯堂
豪墨楣間爛有光
峽戶顛連寧少恤
政軒區劃亦多方
惠鮮存念仁宜勉
損益隨時利莫量
携酒登茲吾未暇
四千燕役到頭忙

갑진년(1724) 계춘 심준이 사군(使君) 오자장(吳子長)⁶⁰⁾의 운을 빌려서 받들어 화답하다.

甲辰季春 沈埏 奉和吳使君子長韻

59) 은택 베푸는 일: 원문은 '혜선(惠鮮)'으로, 『서경』 무일(無逸)편에 나오는 '혜선환과(惠鮮鰥寡)'의 준말이다. 굶주리고 불쌍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생기 있게 만든다는 뜻이다.

60) 앞 항에 수록된 오수원(吳遂元)의 자가 자장(子長)이다.



字君集 號松石軒 礪山人 肅宗乙酉文科 官至禮判 提學

자는 군집(君集), 호는 송석헌(松石軒), 본관은 여산이다. 숙종 을묘년(1675)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예조판서, 제학에 이르렀다.

익손당에서 시를 지어 부사에게 드리다

益損堂書贈主倅

십 년동안 용천관을 몇 차례나 오갔던가
관청의 누각에서 거듭 촛불 앞의 술잔을 잡았네.
집의 이름은 정히 지금의 의리에 부합하고
기녀들은 오히려 옛 나그네 돌아온 걸 알아보네.
성 모퉁이에서 울리는 듯한 것은 바람이 내는 소리요
빛기운 머금은 구름 막 흩어지자 달이 배회한다.
어진 부사께서 백성들의 절실한 사정 걱정하는 것을 정히 알지니
산골 받은 가을장마로 태반이 재앙을 입었네.

十載龍泉幾往來
官樓重把燭前杯
堂名正合今時義
妓隊猶諳舊客回
城角欲鳴風□寂
瀧雲初散月徘徊
定知賢宰憂民切
峽畝秋霖太半灾

신해년(1731) 10월 반송사(伴送使) 송성명 짓다.

辛亥陽復月 伴送使宋成明帥

61) 송성명: 숙종, 영조대 도승지, 대사헌, 함경도 관찰사 등을 지낸 문신이다. 1731년(영조 7) 반송사(伴送使)가 되었을 때 익손당(용천관)에서 지은 시로 보인다.



字叔獻 德水人 明宗甲子生壯 同年文壯 選湖堂 文衡 官至贊成 諡文成公 配文廟 世稱九度壯元

자가 숙헌(叔獻)이고 본관이 덕수(德水)이다. 명종 갑자년(1564)에 생원시에 장원하고, 같은 해에 문과에 장원하여 독서당에 뽑혔다. 문형(文衡)을 지내고 관직이 찬성(贊成)에 이르렀다. 시호가 문성공(文成公)이고 문묘에 배향하였다. 세상에서 ‘구도장원(九度壯元, 아홉 번 장원을 차지함)’이라 일컬었다.

부용당 위에서 한 곡조를 부르니

노래가 멀리 청천에 들어가 가던 구름이 슬퍼하네⁶⁴⁾

주인⁶⁵⁾이 술을 권해 길손이 돌아감을 잊었는데

날 저물고 바람 불어 연못에 물결이 이네⁶⁶⁾

芙蓉堂上歌一曲

迴入碧霄愁行雲

主人勸酒客忘去

日暮池風生縠紋

율곡

栗谷

62) 이이: 조선의 유학자이자 정치가이다. 『동호문답』, 『성학집요』 등의 저술을 남겼으며 이를 통해 조선 사회의 제도개혁을 주장하였다. 문묘(文廟)에 배향되었으며 시호는 문성(文成)이다.

63) 부용당(芙蓉堂): 황해도 해주시 부용동에 있던 건물이다. 1500년(선조 13)에 해주 목사 윤철(尹哲)이 건립하였고, 황해도 관찰사 김근사(金謹思), 황해도 관찰사 이천보(李天輔), 서명옹(徐命膺) 등이 중수하였다.『송자대전宋子大全』「해주부용당기海州芙蓉堂記」,『만정당집晩靜堂集』「부용당중수기芙蓉堂重修記」,『보만재집保晩齋集』「중수부용당기重修芙蓉堂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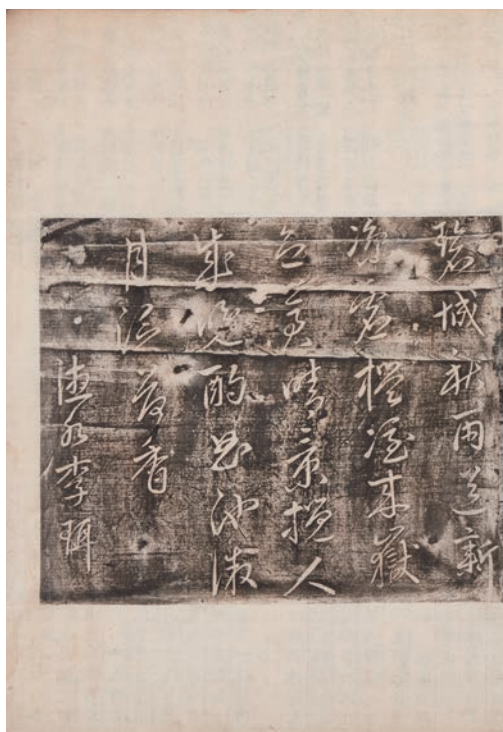
64) 노래가……슬퍼하네: 노랫소리가 하늘에 올라 퍼져서 흘러가던 구름이 노래를 듣고 멈추어 슬퍼할 정도로 노래가 뛰어나다는 뜻이다. 진(秦)나라의 명창 진청(秦靑)이 노래를 부르자, 흘러가던 구름이 노랫소리를 듣고 멈추었다는 ‘향알행운(響遏行雲)’의 고사가 있다.『열자列子』「탕문湯問」

65) 주인: 황해도 관찰사 이해수(李海壽, 1536~1599)를 말한다.

66) 부용당…이네: 이이가 1580년(선조 13) 가을에 황해도 해주 부용당에서 지은 시이다. 이때 이이는 황해도 관찰사 이해수(李海壽), 도사(都事) 이계정(李繼祚, 1542~?), 동생인 이우(李瑬) 등과 함께 부용당에 모여 여러 편의 시를 지었다.『율곡전서栗谷全書』제목이「聽歌聲」로 되어있다. 이이는 1578년(선조 11) 3월에 대사간을 사직한 뒤 해주 율곡에 머물고 있다가 1580년(선조 13) 12월에 대사간이 되어 조정에 들어갔다.

26 이이(李珣)

해주 부용당(청구제영 제2첩)



벽성⁶⁷⁾의 가을비가 시원함을 보내와서
빈 난간에 기대니 산빛이 푸르네
맑게 갠 풍경이 사람을 당겨 저녁에 술 마시니
둥근 못의 초승달 아래 연꽃 향이 떠 있네⁶⁸⁾

덕수 이이

碧城秋雨送新涼
虛檻憑來嶽色蒼
晴景攬人成晚酌
曲池微月泛荷香

德水李珣

67) 벽성(碧城): 해주(海州)의 다른 이름이다.

68) 벽성의……있네: 이이가 1580년(선조 13) 가을에 황해도 해주 부용당에서 지은 시이다. 『울곡전서』 제목이 「부용당에서 방백 대중, 도사 가응 및 계헌과 작은 술자리를 열다[芙蓉堂與方伯大仲都事嘉應及季獻小酌]」로 되어있다. 대중(大仲)은 이해수(李海壽), 가응(嘉應)은 이제경(李繼禎), 계헌(季獻)은 이우(李瑀)의 자(字)이다. 이제경의 또 다른 자는 중수(仲綏)이다. 『옥산시고玉山詩稿』에는 ‘추(秋)’가 ‘경(輕)’, 3구가 ‘승흥만래성소작(乘興晚來成小酌)’, ‘범(泛)’이 ‘동(動)’으로 되어있다.



字○○[季獻] 號玉山 栗谷之弟

자가 [계헌(季獻)]⁷⁰⁾이고 호가 옥산(玉山)이며, 율곡의 아우⁷¹⁾이다.

차운

次韻⁷²⁾

바람 가득한 연못에 이른 추위 떠 있고
물안개와 산빛이 밤중에 검푸르네
고운 난간 대자리에 사람이 옥처럼 맑고
거문고와 술동이에 달이 비쳐 기녀들⁷³⁾이 아름답네

風滿荷池泛早涼
水烟山色夜蒼蒼
畫闌珍簾人如玉
月映琴樽珠翠香

옥산 이우

玉山李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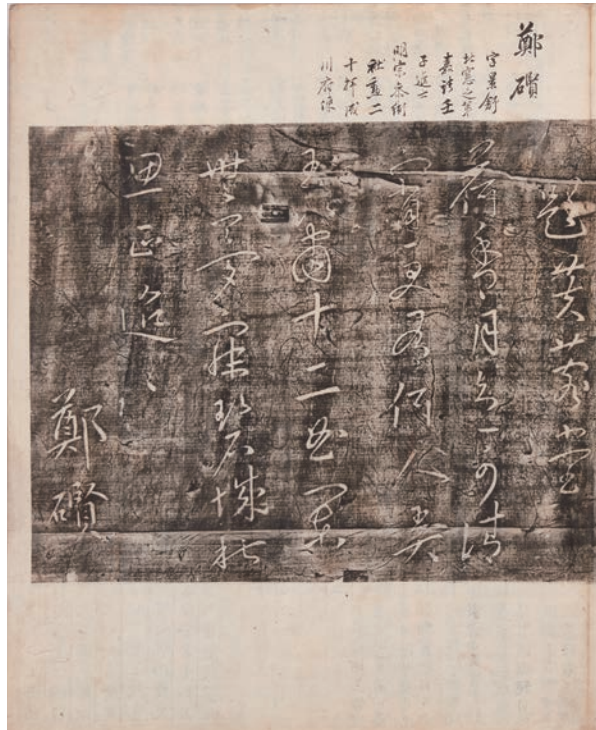
69) 이우: 율곡 이이의 동생이다. 비안현감, 고부군수 등을 역임했다. 시(詩), 서(書), 화(畫), 금(琴)을 모두 다 잘하여 사절(四絶)이라고 불렸다.

70) 계헌(季獻): 원문에는 이우의 자(字)가 적혀 있지 않으나 다른 기록을 참고하여 보충한 뒤 번역하였다.

71) 아우: 원문에는 ‘형(兄)’으로 되어있으나 잘못이므로 ‘제(弟)’로 바로잡고 ‘아우’로 번역하였다.

72) 차운(次韻): 이우가 1580년(선조 13) 가을에 황해도 해주 부용당에서 황해도 관찰사 이해수의 시에 차운하여 지은 시이다. 『옥산시고』에 제목이 「숙씨[이이]를 모시고 방백 이대중 영공과 함께 부용당에서 작은 술자리를 열고, 영공의 시에 차운하다. 숙수 이계정이 아사[도사]로 또한 참여하였다[陪叔氏 共李方伯大仲令公 小酌芙蓉堂 次令公韻 李繼禎叔綏以亞使亦參]」로 되어있다. 그리고 제목의 ‘부용당’ 아래에 ‘해주에 있다[在海州]’라고 부기(附記)하였고, ‘만(滿)’이 ‘점(點)’, 2구가 ‘수광산기공창창(水光山氣共蒼蒼)’, ‘난(闌)’이 ‘난(欄)’, ‘금(琴)’이 ‘금(金)’으로 되어있다.

73) 기녀들: 원문의 ‘주취(珠翠)’는 진주와 비취로 여인들의 장식품이다. 보통 화려하게 단장한 여인을 상징하는데, 여기에서는 잔치에 참여한 기녀들을 가리킨다.



字景舒 北窓之弟 嘉靖壬子進士 明宗參衛社勳 二十拜成川府使

자가 경서(景舒)이고 북창(北窓, 정엄)의 동생이다. 가정(嘉靖) 임자년(1552)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명종 때 위사공신(衛社功臣)의 녹훈(錄勳)에 참여하여 20세에 성천 부사(成川府使)에 임명하였다.

부용당에서 시를 짓다⁷⁵⁾

題芙蓉堂

연꽃 향과 달빛이 맑은 밤에 알맞은데
또 어떤 사람이 옥 통소를 부는가
열두 구비 난간에서 잠들지 못하니
벽성의 가을 시름이 정말로 아득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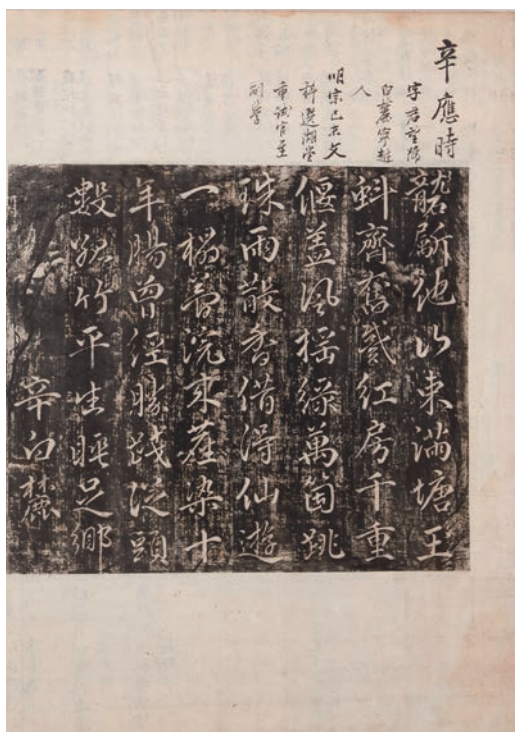
荷香月色可清宵
更有何人弄玉簫
十二曲闌無夢寐
碧城秋思正迢迢

정현

鄭璣

74) 정현: 1545년(명종 즉위) 을사사화(乙巳士禍) 때 15세의 어린 나이로 윤임(尹任), 유관(柳灌) 등 대윤(大尹) 일파를 고발하고 대윤 제거에 공을 세워 위사공신(衛社功臣) 3등에 녹훈(錄勳)되고 성천 부사로 부임하였다.

75) 부용당에서 시를 짓다: 정현이 해주 부용당에서 지은 시이다. 『만죽헌시집萬竹軒詩集』에 제목이 「부용당에서 짓다[題芙蓉堂]」로 되어있고, 제목 아래에 “해주에 있다[在海州]”라고 부기(附記)하였다. 이수광(李睟光)의 『지봉유설芝峯類說』, 이유원(李裕元)의 『임하필기林下筆記』, 이덕무(李德懋)의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에도 시가 실려 있다.



字君望 號白麓 寧越人 明宗己未文科 選湖堂 重試 官至副學

자가 군망(君望)이고 호가 백록(白麓)이며, 본관이 영월(寧越)이다. 명종 기미년(1559)에 문과에 급제하여 호당에 뽑혔고 중시(重試)에 급제하였으며, 관직이 부제학(副提學)에 이르렀다.

다른 산의 돌을 다듬어 연못 가득 설치하니
흰 물결이 일어나 붉은 연꽃을 이고 있네⁷⁷⁾
천 겹의 솔잎⁷⁸⁾이 바람에 푸르게 흔들리고
만 개의 빗방울이 연꽃 향을 퍼뜨리네
침상에서 잠을 자며 선경을 유람하고
십 년 묵은 속세의 찌든 마음을 씻어내네
일찍이 들렀던 명승을 처음부터 헤아리니
평생에 고죽⁷⁹⁾ 고을이 꿈나라⁸⁰⁾로 충분하네⁸¹⁾

礪斷他山束滿塘
玉蚪齊奮戴紅房
千重偃蓋風搖綠
萬箇跳珠雨散香
借得仙遊一榻夢
浣來塵染十年腸
曾經勝踐從頭數
孤竹平生睡足鄉

신백록

辛白麓

76) 신응시: 전라도 관찰사, 연아부사, 대사간 등을 역임한 문인이다. 성혼(成渾), 이이(李珥)와 교분이 두터웠다. 저서로는 『백록유고』가 남아있으며 배천의 문회서원에 제향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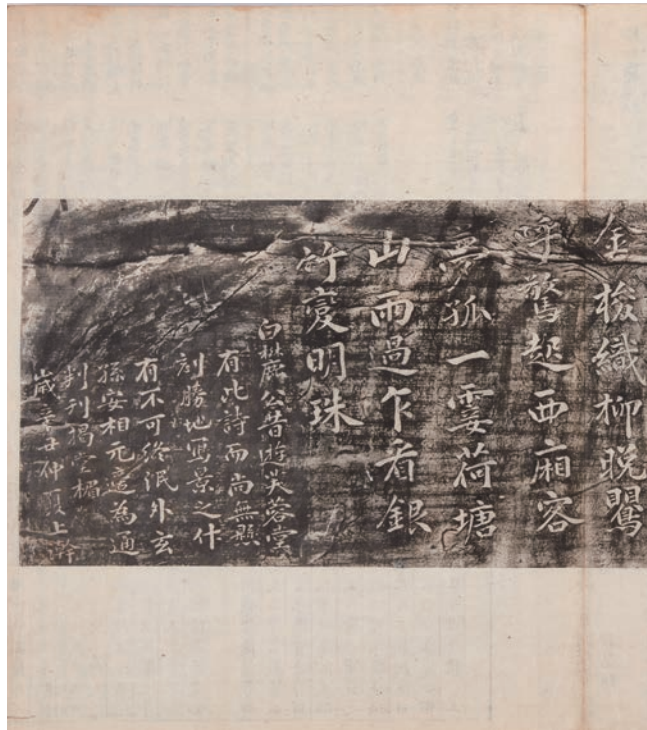
77) 흰 물결이……있네: 원문의 ‘옥두(玉蚪)’는 흰 물결, ‘홍방(紅房)’은 붉은 연꽃을 아름답게 표현한 말이다. 이 구절은 바람결에 흰 물결이 일어 연잎과 연대에 부딪히는 모습을 형용한 것이다.

78) 솔잎: 원문의 ‘언개(偃蓋)’는 일산을 펼친 것처럼 소나무의 가지와 잎이 옆으로 늘어진 것을 형용하는 말이다.

79) 고죽(孤竹): 해주(海州)의 다른 이름이다.

80) 꿈나라: 원문의 ‘수향(睡鄉)’은 꿈나라로, 잠이 들어서 가는 이상 세계, 곧 태평성대를 말한다. 소식(蘇軾)의 「수향기(睡鄉記)」에 “천하가 잘 다스려짐이 수향(睡鄉)과 같다.”라고 하였다.

81) 다른……충분하네: 신응시가 해주 부용당에 들러 지은 시이다. 『백록유고白麓遺稿』에 제목이 「海州芙蓉堂」으로 되어있다.



노란 버들잎에 피꼬리가 오가며 저녁에 짝을 불러⁸²⁾
 서쪽 행랑에 홀로 잠든 나그네가 꿈 깨어 일어나네
 삼시간에 연못에 산 비가 내리더니
 잠깐 사이 빗줄기⁸³⁾가 빗방울로 변하네⁸⁴⁾

金梭織柳晚鶯呼
 驚起西廂客夢孤
 一霎荷塘山雨過
 乍看銀竹變明珠

白麓公昔遊芙蓉堂有此詩 而尙無懸刻 勝地寫景之什 有不可終泯 外玄孫安相元適爲通判 刊揭堂楣
 歲辛丑仲夏上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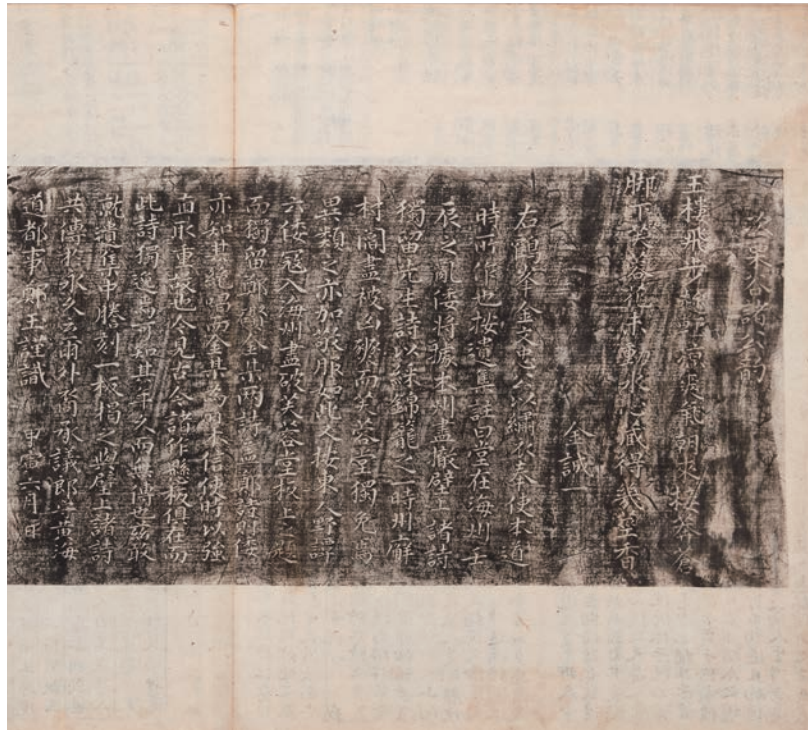
백록공(白麓公, 신응시)이 옛날에 부용당에서 놀며 이 시들을 지었으나 아직도 시를 새긴 시판(詩板)이 없다. 명승지의 경관을 묘사한 시편이 끝내 없어지게 하면 안 된다. 외현손(外玄孫) 안상원(安相元, 1668~1736)이 마침 통판(通判)이 되어 부용당 처마에 시를 새겨서 건다.

신축년(1721) 중하 상순

82) 노란……불라: 원문의 ‘금사(金梭)’는 본래 ‘금으로 만든 베틀의 북’인데, 여기에서는 버들가지에 노랗게 돋은 버들잎을 비유한 것이다. 따라서 ‘금사직류(金梭織柳)’는 베틀의 북이 오가며 베를 짜듯이 버들가지에 돌아난 노란 잎 사이를 피꼬리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비유한 것이다.

83) 빗줄기: 원문의 ‘은죽(銀竹)’은 짙은 무성한 대숲처럼 거세게 쏟아지는 흰 빗줄기를 비유한다. 이백(李白)의 「숙하호협(宿蝦湖)에 “흰 비가 찬 산에 내리니, 무성한 은빛 대숲과 같네.[白雨映寒山, 森森如銀竹.]”라고 하였다.

84) 노란……변하네: 신응시가 해주 부용당에 들러 지은 시이다. 『백록유고』에 제목이 「芙蓉堂」으로 되어있다. 김만중(金萬重)의 『서포집西浦集』에도 이 시가 실려 있다.



울곡 등 여러 공의 시에 차운하다⁸⁶⁾

次栗谷諸公韻

가벼운 바람 따라 날듯이 누각에 오르니
아침의 맑은 기운이 푸른 들에 접해 있네
발아래의 연꽃이 아직 피지 않았지만
물속에 몇 줄기 향긋한 연대가 숨어있네

玉樓飛步趁輕涼
爽氣朝來接莽蒼
腳下芙蓉花未動
水心藏得幾莖香

김성일

金誠一

85) 김성일: 선조대 문신으로, 병조좌랑, 사은사 등을 역임했다. 1590년(선조 23) 통신사로 일본에 파견되어 갔다가 올라와 왜가 군사를 일으킬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난 후 파직되었다. 이후 경상우도 초유사로 임명되어 의병과 함께 항전하였고, 1593년(선조 26) 경상우도 순찰사로 있다가 병으로 죽었다.

86) 울곡(栗谷)……차운하다: 황해도 순무어사(黃海道巡撫御史) 김성일이 1583년(선조 16) 5월에 해주 부용당에 들러 이이(李珥)의 시에 차운하여 지은 시이다. 이이의 원운시(原韻詩)는 제목이 「부용당에서 방백 대중, 도사 가응 및 계현과 작은 술자리를 열다 芙蓉堂與方伯大中都事嘉應及季獻小酌」이다. 『학봉집鶴峯集』에 제목이 「부용당에서 울곡 이이 등 여러 공의 시에 차운하다 芙蓉堂次李栗谷珥諸公韻」로 되어있다. 제목 아래의 부기(附記)는 정옥이 인용한 문집의 주석과 일부 다른 글자도 있으나 내용은 거의 같다. 그리고 시 끝부분에 “부용당은 연못 안에 있으며 돌기둥으로 떠받쳤다.[堂在池中, 駕以石柱.]”라고 부기(附記)하였다.

右鶴峯金文忠公 以繡衣奉使本道時所作也 按遺集註曰 “堂在海州 壬辰之亂 倭將據本州 盡撤壁上諸詩 獨留先生詩 以綵錦籠之 一時州廨村閭 盡被凶燹 而芙蓉堂獨免焉 異類之亦加敬服如此” 又按東人野譚云 “倭寇入海州 盡破芙蓉堂板上之題 而獨留鄭礪金某兩詩 蓋鄭詩則倭亦知其絕唱 而金某爲日本信使時 以強直取重故也” 今見古今諸作懸板俱在 而此詩獨逸焉 可知其年久而無傳也 茲敢就遺集中 謄刻一板揭之 與壁上諸詩 共傳於永久云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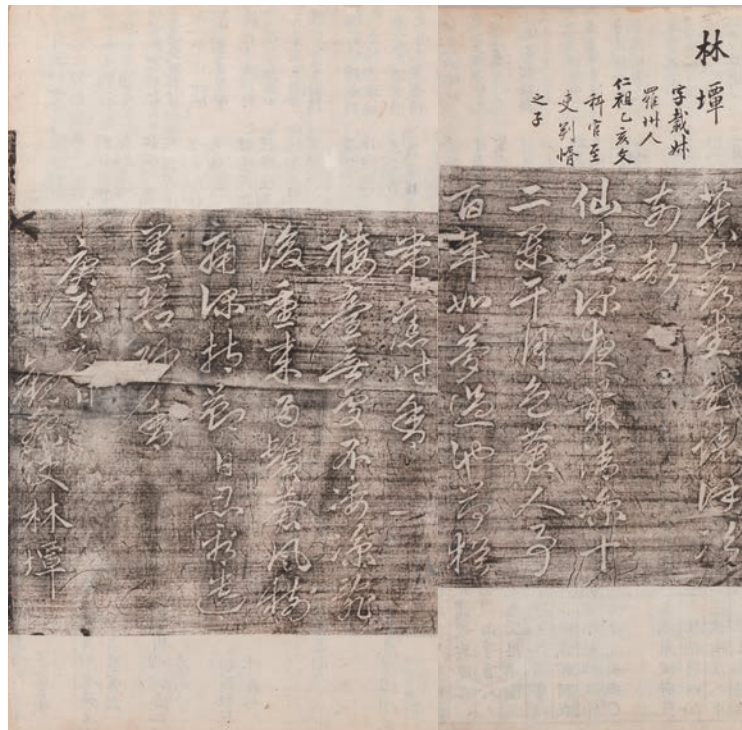
外裔承議郎守黃海道都事鄭玉謹識 甲寅六月日

앞의 시는 학봉(鶴峯) 문충공(文忠公)이 수의어사(繡衣御史)로 본도(本道, 황해도)에 왔을 때 지은 것이다. 유집(遺集)의 주석을 살펴보면 “부용당(芙蓉堂)은 해주(海州)에 있다. 임진왜란 때 왜장(倭將)이 본주(本州, 해주)를 점거하여 벽에 걸린 여러 시를 모두 철거했지만 유독 선생의 시판은 채색 비단으로 싸서 남겨 두었다. 일시에 고을의 관청과 마을의 집들이 모두 불에 탔으나 부용당만은 화를 면하였으니, 왜구들도 이처럼 선생을 존경하고 복종하였다.”라고 하였다.

또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야담(野譚)에 이르기를 “왜구가 해수에 침입하여 부용당 현판의 시를 모두 파괴하였으나 유독 정현(鄭礪)과 김성일의 시판(詩板) 두 개만을 남겨 두었다. 대개 정현의 시는 왜구들도 절창(絶唱)임을 알았고, 김모는 일본에 통신사(通信使)로 갔을 때 강직하여 존중을 받았기 때문이었다.”라고 하였다.

지금 고금에 제작한 여러 시판이 모두 걸려 있는 것을 보았으나 학봉의 이 시판이 유독 빠져 있으니, 연대가 오래되어 전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감히 유집에 나아가서 시판에 시를 새겨서 걸고, 벽에 걸린 여러 시와 함께 영구히 전해지기를 바란다.

외손(外孫) 승의랑(承議郎) 수직(守職) 황해도 도사(都事) 정옥(鄭玉)이 삼가 쓰다. 갑인년(1734) 6월



字載叔 羅州人 仁祖乙亥文科 官至吏判 愾之子

자가 재숙(載叔)이고 본관이 나주(羅州)이다. 인조 을해년(1635)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이조판서에 이르렀다. 임서(林愾)의 아들이다.

부용당에서 감회가 일어 삼가 앞의 시에 차운하다

芙蓉堂感懷 拜次前韻

깊은 밤에 부용당⁸⁸⁾이 최고로 시원한데
열두 구비 난간에 달빛이 아득하네
백 년의 인간사가 꿈처럼 흘렀지만
연꽃은 여전히 예전처럼 향기롭네

仙堂深夜最清涼
十二闌干月色蒼
人事百年如夢過
池荷猶帶舊時香

누대는 시원하지 않은 곳이 없는데
난리 뒤에 다시 오니 머리털이 세었네
관찰사로 부임하여 풍수지탄이 깊으니
푸른 비단으로 감싼 선친 유물을 차마 보랴⁸⁹⁾

樓臺無處不淒涼
亂後重來兩鬢蒼
風樹痛深持節日
忍看遺墨碧紗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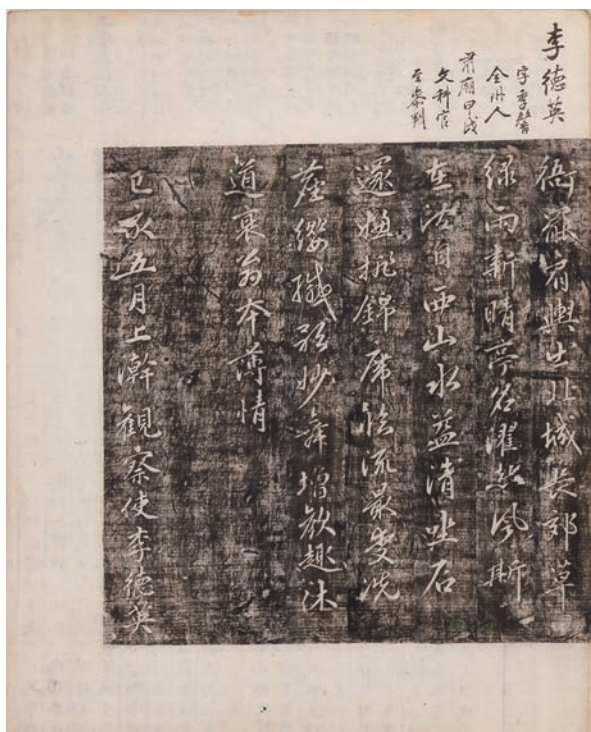
경진년(1640) 여름 관찰사 임담

庚辰夏日 觀察使林潭

87) 임담: 조선후기의 문신이다. 이 시는 황해도 관찰사로 부임한 1640년(인조 18) 임담이 해주 부용당에서 이이의 시에 차운하여 지은 시이다. 이이의 원문시는 제목이 「부용당에서 방백 대중, 도사 가응 및 계현과 작은 술자리를 열다 芙蓉堂與方伯大仲都事嘉應及季獻小酌」이다.

88) 부용당: 원문의 '선당(仙堂)'은 신선이 사는 집이라는 뜻으로, 부용당을 말한다.

89) 관찰사로……보랴: 원문의 '지절(持節)'은 지방 장관으로 부임함을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임담이 황해도 관찰사로 부임한 일을 말한다. 임담이 황해도 관찰사로 부임한 뒤 1640년(인조 18) 여름에 선친 임서의 부용당 제영시를 보고 불효를 자책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임서는 1623년(인조 1), 임담은 1639년(인조 17)에 황해도 관찰사로 부임하였다.



字季馨 全州人 肅廟甲戌文科 官至參判

자가 계형(季馨)이고 본관이 전주(全州)이다. 숙종 갑술년(1694)에 문과에 급제하고 관직이 참판(參判)에 이르렀다.

공무 끝나 가마 타고 성곽 북쪽으로 나가니
긴 들판의 푸른 풀이 비를 맞아 싱그럽네
탁열정이라 이름하여 바람이 이 아래에 있고⁹²⁾
서산에서 물이 흘러와 물이 더욱 깨끗하네
비단 자리 까는 것이 싫어 바위에 앉고
물가에서 때 묻은 갓끈을 씻는 것이 가장 좋네
고운 노래와 멋진 춤이 즐거움을 더하니
늙은이가 본래 박정하다고 말하지 말라⁹³⁾

衙罷肩輿出北城
長郊草綠雨新晴
亭名濯熱風斯在
波自西山水益清
坐石還嫌排錦席
臨流最愛洗塵纓
纖歌妙舞增歡趣
休道衰翁本薄情

기해년(1719) 5월 상순 관찰사 이덕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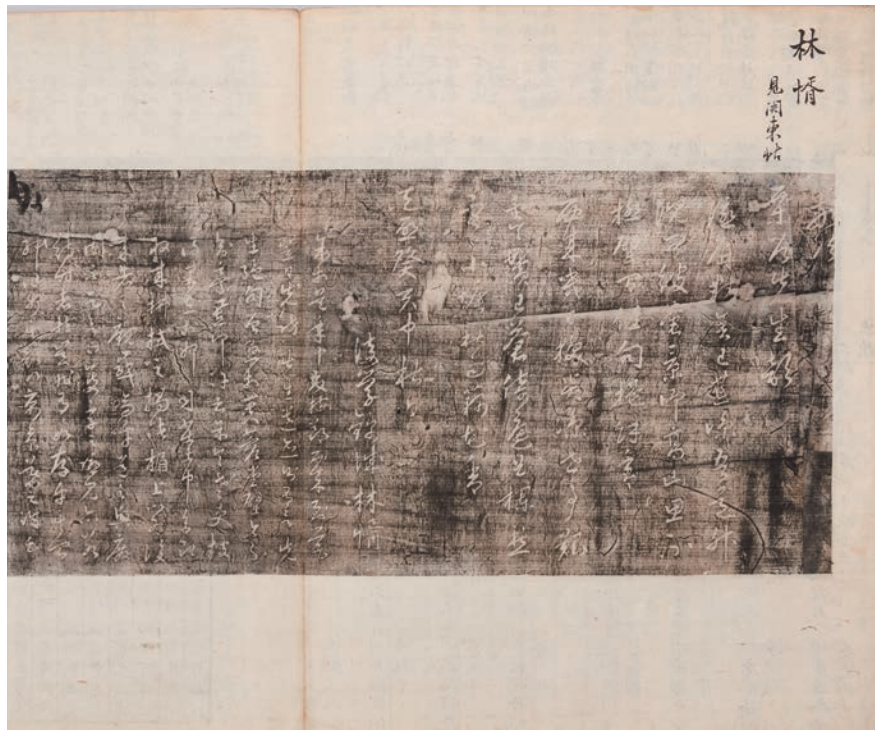
己亥五月上澣 觀察使李德英

90) 이덕영: 조선후기의 문신으로 삼사(三司)와 시강원의 관직을 두루 지냈다.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집권하였을 때는 과거에 응시하지 않다가 갑술환국으로 서인이 복귀하자 과거에 응시하여 장원을 차지하였다.

91) 탁열정(濯熱亭): 해주 목사 황정옥(黃廷彧)이 1579년(선조 12) 가을에 해주성 북쪽 2리의 수양산 아래 청풍동(淸風洞)에 건립한 정자이다. 탁열정 앞에 넓은 시내가 있고 골짜기 깊으며 숲이 우거져서 더위를 식힐 만하다고 전한다.

92) 탁열정(濯熱亭)이라……있고: 정자 아래에서 바람이 불어 시원하므로 탁열정이란 이름이 명실상부함을 말한 것이다. 『장자莊子』 「소요유逍遙遊」에 “구만리 높이 올라가서 바람이 아래에 있게 된 뒤에 바람을 탈 수 있다.[九萬里則風斯在下矣, 而後乃今培風.]”라고 하였다.

93) 공무(公務)……말라: 황해도 관찰사 이덕영이 1719년(숙종 45) 5월 상순에 해주 탁열정에서 지은 시이다. 이덕영은 1718년(숙종 44) 1월 11일에 황해도 관찰사에 임명되었다.



見關東帖

관동첩에 보인다.

삼가 울곡 선생의 시에 차운하다⁹⁴⁾

敬次栗谷先生韻

은병정사⁹⁵⁾가 이미 황량하게 되어서
우리 유도의 부침을 저 청천에 물어보네
높은 산처럼 우리름에 그리움이 끝나지 않고
벽에 걸린 아름다운 시구에서 남은 향을 맡네

隱屏精舍已荒涼
吾道升沈問彼蒼
景仰高山思不極
壁間佳句挹餘香

해서에 온 지 며칠 만에 날씨가 바뀌었고
세상사가 어려워 머리털이 벌써 세었네
굽은 난간에 기대니 시름겹고 쓸쓸한데
가을비에 작은 못의 연꽃이 향긋하네

西來幾日換炎涼
世事艱虞鬢已蒼
倚遍曲欄愁寂寂
小塘秋雨藕花香

천계(天啓) 계해년(1623) 중추일 후학 금성 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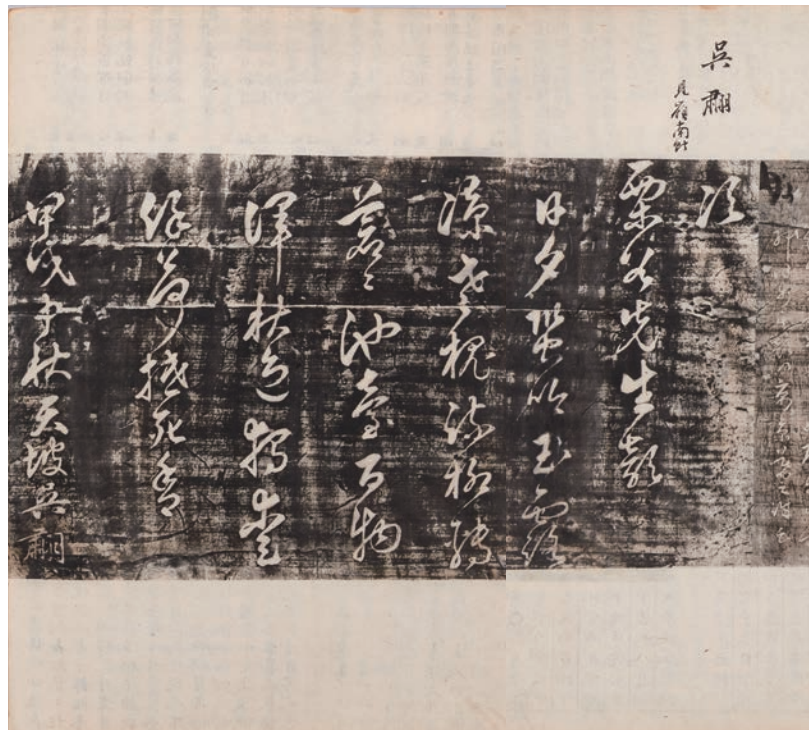
天啓癸亥中秋日 後學錦城林愔

94) 삼가……차운하다: 황해도 관찰사 임서가 1623년(인조 1) 8월에 해주 은병정사(隱屏精舍)와 부용당에서 이이의 시에 차운하여 지은 시이다. 이이의 원운시는 제목이 「부용당에서 방백 대중, 도사 가응 및 계현과 작은 술자리를 열다芙蓉堂與方伯大仲都事嘉應及季獻小酌」이다. 『석촌유고石村遺稿』의 「해서기행海西紀行」에 제목이 「부용당에서 울곡 선생의 시에 차운하다芙蓉堂次栗谷先生韻」과 「또 차운하다又次」로 되어있고, 제1수와 제2수의 순서가 바뀌어 실려있다. 한시 아래의 부기(附記)는 일부 글자나 표현이 다른 곳도 있다.

95) 은병정사(隱屏精舍): 황해도 벽성군(碧城郡) 석담리(石潭里)에 있는 소현서원(紹賢書院)을 말한다. 이이(李珣)가 1578년(선조 11) 은병정사를 지어 주희(朱熹)의 위패를 모셨는데,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가 1604년(선조 37)에 복원하였고 1610년(선조 37)에 '소현(紹賢)'이라는 사액을 받아 서원으로 승격하였다.

余於是年中夏 按節而來 到營翌日 先訪先生遺迹 則有言 “先生絕句 曾懸於芙蓉堂壁 今不知棄置何許”云 余令老吏搜得 果在於州司塵土中 令卽收來拂拭之 揭諸楣上 以爲後來者之觀感 嗚呼 道之興廢 固不足言 而隻字之隱見 亦若待時者然 豈非有數存乎其間耶 謹步其韻 以寓景慕之誠云

내가 올해[1623] 5월에 황해도 관찰사로 와서 감영에 도착한 다음 날에 먼저 율곡(栗谷) 선생의 유적을 방문하니, 어떤 이가 말하기를 “선생의 절구(絶句)가 일찍이 부용당 벽에 걸렸었는데, 지금은 어디에 방치되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늙은 아전에게 시를 찾아보게 하니, 과연 고을 관사의 먼지 속에 있었다. 즉시 가져와서 먼지를 털고 부용당 처마에 걸어서 뒤에 오는 사람들이 보고 느끼게 하였다. 아아! 도(道)가 흥하고 망함은 진실로 말하기에 부족하지만 짧은 절구(絶句)가 숨었다가 나타남이 또한 마치 때를 기다린 듯하니, 어찌 그 사이에 운수가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삼가 선생의 운(韻)에 따라 경모하는 정성을 담는다.



見嶺南帖

영남첩(嶺南帖)에 보인다.

율곡 선생의 시에 차운하다⁹⁷⁾

저녁에 귀뚜라미 울고 이슬이 차게 되자
늙고 성근 왜나무와 버들잎이 시드네
연못과 누대의 온갖 사물이 온통 가을빛을 띠지만
시들어도 향기 나는 연꽃을 유독 좋아하네

次栗谷先生韻

日夕蛩吟玉露涼
老槐疏柳轉蒼蒼
池臺百物渾秋色
獨愛餘荷抵死香

갑술년(1634) 중추 천파(天坡) 오숙

甲戌中秋 天坡吳翹

96) 오숙: 조선중기의 문신으로 광해군대 병조좌랑 등을 지냈으며 인조반정 후에 정언, 교리를 지냈다. 이괄의 난 때 왕을 호종한 공으로 병조참지가 되고 1633년(인조 11) 황해도 관찰사로 가도(假島)의 분쟁을 수습하기도 하였다.

97) 율곡(栗谷)……차운하다: 황해도 관찰사 오숙이 1634년(인조 12) 8월에 해주 부용당에서 이이의 시에 차운하여 지은 시이다. 이이의 원운시는 제목이 「부용당에서 방백 대중, 도사 가응 및 계현과 작은 술자리를 열다芙蓉堂與方伯大仲都事嘉應及季獻小酌」이다. 『천파집天坡集』에 제목이 「부용당에서 율곡의 시에 차운하다芙蓉堂次栗谷韻」로 되어있다.



字宜叔 號晉庵 延安人 英宗己未文科 官至領相 提學

자가 의숙(宜叔)이고 호가 진암(晉菴)이며, 본관이 연안(延安)이다. 영조(英祖) 기미년(1739)에 문과에 급제하고 관직이 영의정에 이르렀다. 제학(提學)을 지냈다.

하당의 달밤⁹⁹⁾

荷堂月夜

연못 달이 외로운 녀를 씻어
영문¹⁰⁰⁾이 특별히 밝고 맑네
누각 그림자가 바야흐로 일렁이고
가을 기운이 더 맑고 밝아지네
이슬 내린 자리에 연꽃 향기 흐르고
바람 부는 숲속에서 학 울음이 들려오네
새로 지은 시가 경물 밖에 있어서
점점 도심이 생김을 깨닫네

池月洗孤魄
轅門特地清
樓陰方蕩漾
秋意倍虛明
露簾流荷氣
風林帶鶴鳴
新詩猶外境
稍覺道情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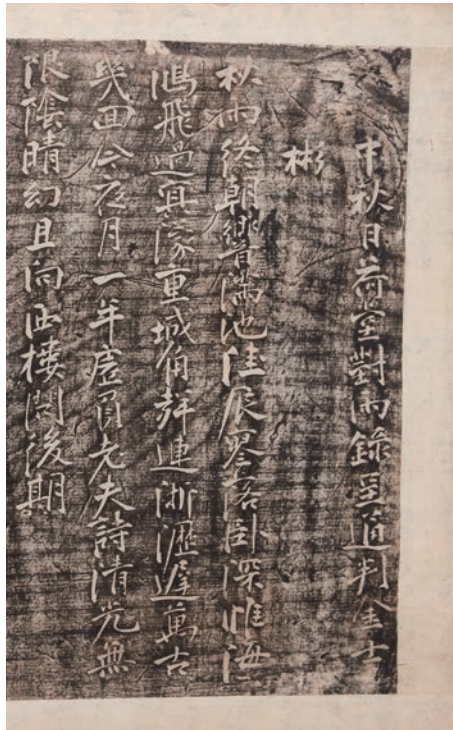
정묘년(1747) 초가을 이천보

丁卯初秋李天輔

98) 이천보(李天輔): 조선 후기 문신으로 영조대 이조판서, 병조판서 등을 거쳐 영의정까지 올랐으나 사도세자(思悼世子)의 평양 원유사건(遠遊事件)에 연루되어 음독 자결하였다. 시에 뛰어난 자질을 보였다.

99) 하당(荷堂)의 달밤: 원문의 '하당(荷堂)'은 해주 부용당을 말한다. 황해도 관찰사 이천보가 1746년(영조 22) 8월에 해주 부용당에서 지은 시이다. 이 시는 『진암집풀菴集』에 실려있지 않다.

100) 영문(營門): 원문의 '원문(轅門)'은 수레의 끝채를 마주 세워 문의 모양을 만든 것으로, 감영(監營)·병영(兵營)·수영(水營)·군영(軍營)의 문을 가리킨다. 여기에서는 해주 감영(海州監營)의 문을 가리킨다.



중추에 하당에서 비를 마주하여 통판 김사빈¹⁰¹⁾에게 시를 지어 올리다¹⁰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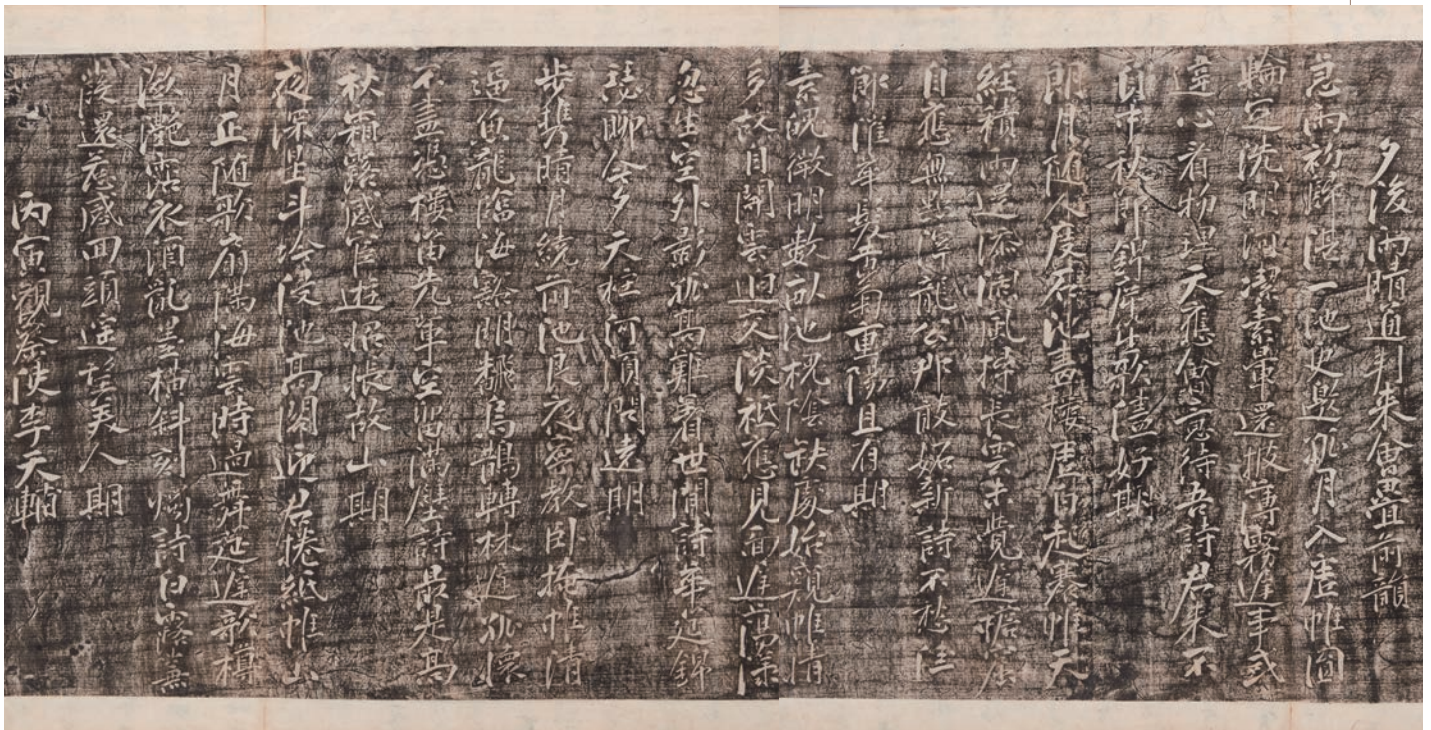
中秋日荷堂對雨 錄呈通判金士彬

가을비가 아침 내내 연못 가득 올리고
추석에 쓸쓸히 깊은 휘장 안에 누웠네
바다에서 기러기가 아득히 거둠 날아가고
성에서 뿔피리 소리가 느리게 이어지네
만고에 몇 번이나 오늘 밤의 달과 같으랴
올해 내내 늙은이가 시를 헛되이 저버렸네
날이 흐리다가 개어 맑은 달빛이 무한하니
서쪽 누각 향하여 후일의 기약을 묻네

秋雨終朝響滿池
佳辰寥落臥深帷
海鴻飛過冥濛重
城角聲連淅瀝遲
萬古幾回今夜月
一年虛負老夫詩
清光無限陰晴幻
且向西樓問後期

101) 통판(通判) 김사빈(金士彬): 통판은 판관(判官)과 같은 말인데, 여기에서는 해주 판관(海州判官)을 가리킨다. 사빈(士彬)은 김문행(金文行, 1701~1754)의 자이다. 본관은 안동, 호는 화음(華陰)이다. 1726년(영조 2) 증광시에 합격하여 해주 판관에 임명되었고, 1746년(영조 22) 정시 문과에 급제하여 응교(應敎)·좌승지·대사간 등을 지냈다.

102) 중추(中秋)……올리다: 황해도 관찰사 이천보가 1746년(영조 22) 8월 15일, 곧 추석 밤에 해주 부용당에서 지은 시이다. 『진암집晉菴集』에 제목이 「중추에 비를 마주하여 동헌의 사안에서 시를 적어 올리다[中秋對雨 錄呈東閣詞案]」로 되어있다. 동각(東閣)은 동헌(東軒)이고, 사안(詞案)은 정안(政案)과 같은 말로 지방 수령이 근무하는 책상을 말한다.



저녁 이후에 비가 개고 통판이 모임에 와서 앞의 시에 거듭하여 차운하다¹⁰³⁾

夕後雨晴 通判來會 疊前韻

소나기가 막 그쳐 온 연못이 가득하고
다시 달빛이 빈 휘장 안으로 들어오네
둥근 달이 은하수에 씻겨서 깨끗하고
흰 달빛이 열은 안개 헤치고 느리게 나오네
일이 간혹 마음에 어긋나도 사물 이치를 살피고
하늘이 응당 내 뜻을 알아 나의 시를 기다리네
그대가 와서 중추절을 저버리지 않으니
비단 자리에서 생황 노래로 좋은 만남을 다하네

急雨初歸湛一池
更邀孤月入虛帷
圓輪定洗明河潔
素暈還披薄霧遲
事或違心看物理
天應會意待吾詩
君來不負中秋節
錦席笙歌儘好期

밝은 달이 사람 따라 돌 연못¹⁰⁴⁾을 건너오고
고운 누각이 밝아서 휘장을 걷어 올리네
하늘은 장마가 지나자 다시 더 넓어지고
바람이 먹구름을 쓸어 더딘 줄 모르네
달¹⁰⁵⁾이 절로 한 점의 티끌도 없으니

朗月隨人度石池
畫樓虛白起褰帷
天經積雨還添濶
風掃長雲未覺遲
蟾窟自應無點滓

103) 저녁……차운하다: 황해도 관찰사 이천보가 1746년(영조 22) 8월 15일 밤에 해주 부용당에서 지은 시이다. 『진암집』 제목이 「저녁 이후에 비가 개어 구름 속 달이 흐릿하고 통판이 모임에 와서 앞의 시에 거듭하여 차운하다[夕後雨晴 雲月朦朧 通判來會 疊前韻]」로 되어있다. 5수 중에서 제2수는 문집에 실려있지 않다. 그리고 제4수의 ‘활(豁)’이 ‘활(濶)’, ‘명(明)’이 ‘광(光)’, ‘고추(高秋)’가 ‘가신(佳辰)’, 제5수의 ‘요(遙)’가 ‘창(愴)’으로 되어있다.

104) 돌 연못: 원문의 ‘석지(石池)’는 부용당이 있는 연못을 말한다. 부용당은 석주(石柱)를 물속에 박고 그 위에 건물을 엮었다.

105) 달: 원문의 ‘섬굴(蟾窟)’은 달을 달리 표현하는 말이다. 달 속에 두꺼비가 산다고 하여 달을 섬굴(蟾窟), 섬궁(蟾宮)이라 부르기도 한다.

용이 어찌 새로 시 짓는 것을 시기하라¹⁰⁶⁾
 명절이 백발 재촉함을 근심하지 않고서
 중앙절에 국화 필 때를 장차 기약하네

龍公那敢妬新詩
 不愁佳節催華髮
 黃菊重陽且有期

흰 달¹⁰⁷⁾이 몇 이랑의 연못을 희미하게 비추더니
 왜나무가 없는 곳으로 달빛이 휘장 안을 엿보네
 정이 많아 저절로 멀리 구름이 걷히고
 사귀이 담담하여 다만 더디 얼굴을 보이네¹⁰⁸⁾
 달빛이 환하게 갑자기 하늘에서 나오고
 고고한 달은 세간의 시로 짓기 어렵네
 오늘 밤 화려한 자리에서 비파를 즐길 뿐
 어찌 꼭 천주봉에서 달구경 하는 먼 기약을 물으랴

素魄微明數畝池
 槐陰缺處始窺帷
 情多故自開雲迥
 交淡祇應見面遲
 蕩漾忽生空外影
 孤高難着世間詩
 華筵錦瑟聊今夕
 天柱何須問遠期

달빛 띄고 걸으며 앞 연못을 돌아야지
 좋은 밤에 어찌 휘장을 치고 누워있으랴
 맑은 바람 불어서 어룡이 드넓은 바다에서 뛰놀고
 밝은 달빛 반짝여 까마귀가 숲으로 더디 돌아가네
 외로운 회포는 누각에 기대 피리를 불어도 다하지 않고
 선배들은 부질없이 벽 가득히 시를 남겼네
 중추에 상로의 감회가 가장 크게 일어나니
 벼슬살이 서글퍼서 고향에 돌아가길 기약하네

步携晴月繞前池
 良夜寧教臥掩帷
 清逼魚龍臨海豁
 明翻烏鵲轉林遲
 孤懷不盡憑樓笛
 先輩空留滿壁詩
 最是高秋霜露感
 宦遊悵恨故山期

밤이 깊어 북두성이 연못에 서늘하게 비치고
 높은 누각에서 그대 맞아 종이 휘장을 걷네
 산 위의 달빛이 정말로 노래하는 부채 따라 가득하고
 바다 위 구름이 때로 춤추는 자리를 더디게 지나가네
 찰랑찰랑 술동이 기울여 옷 적시며 술 마시고
 비스듬히 붓을 휘둘러 시각 다뒀 시를 짓네¹⁰⁹⁾
 흰 이슬과 갈대¹¹⁰⁾가 도리어 감회를 일으키니
 머리 돌려 멀리 보며 미인을 기약하네

夜深星斗冷侵池
 高閣迎君捲紙帷
 山月正隨歌扇滿
 海雲時過舞筵遲
 欹樽激灑霑衣酒
 亂墨橫斜刻燭詩
 白露蒹葭還惹感
 回頭遙望美人期

병인년(1746) 관찰사 이천보

丙寅觀察使李天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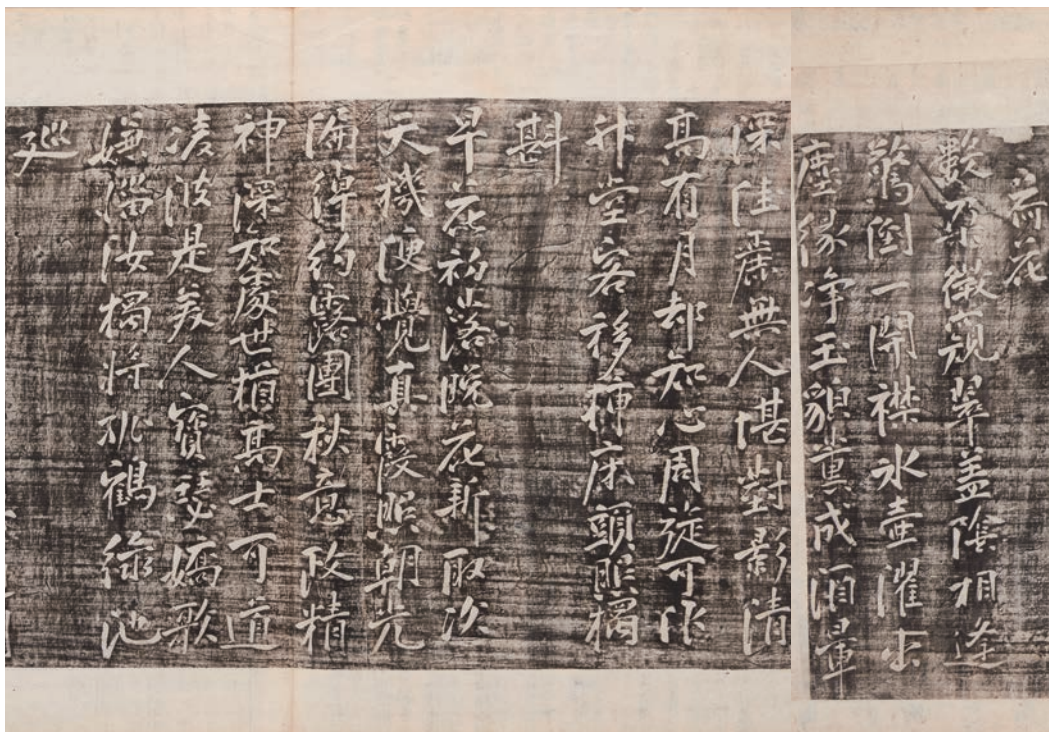
106) 용이……시기하라: 원문의 ‘용공(龍公)’은 비바람을 주관하는 용을 말한다. 맑은 달밤에 새로 시를 지을 때 용이 비바람을 몰고 와서 시 짓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107) 흰 달: 원문의 ‘소백(素魄)’은 희고 밝은 달을 비유한다.

108) 정이……보이네: 달이 구름에 가렸다가 시간이 흘러 구름이 걷혀 달빛이 더디게 비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109) 시각……짓네: 원문의 ‘각촉시(刻燭詩)’는 ‘각촉부시(刻燭賦詩)’의 준말로, 초에 눈금을 긋고 초가 눈금을 그은 곳까지 타기 전에 시(詩)를 짓는 것을 말한다.

110) 흰 이슬과 갈대: 원문의 ‘백로겸葭(白露蒹葭)’는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애석함을 뜻한다.



연꽃

연꽃 몇 송이가 푸른 연잎 속에 살짝 보여
놀라 달려가 꽃을 보고 마음을 활짝 여네
얼음처럼 맑은 성질은 티끌 인연을 깨끗하게 씻었고
옥처럼 고운 모습은 길북은 연꽃을 피웠네
연꽃의 고움은 아무도 짝할 사람이 없지만
연꽃의 맑음은 달이 도리어 마음을 알아주네
주선하여 방에 들일 길손이 될 만하기에¹¹¹⁾
침상 머리로 옮겨 꽃자 홀로 마시는 술잔을 비추네

일찍 핀 꽃들이 막 지고 연꽃이 늦게 새로 피니
차례대로 천기 얻어 문득 천진을 느끼네
아침노을 비치니 연꽃이 매우 아름답고
가을 이슬 맺히니 연꽃 정신이 빼어나네
연꽃의 처세가 고상한 선비 같음을 깊이 알겠고¹¹²⁾
물 위에 핀 연꽃은 미인이라 말할 만하네
비파 소리와 고운 노래로 너를 괴롭히기 싫어서
한 마리 학을 데리고 푸른 연못 가를 도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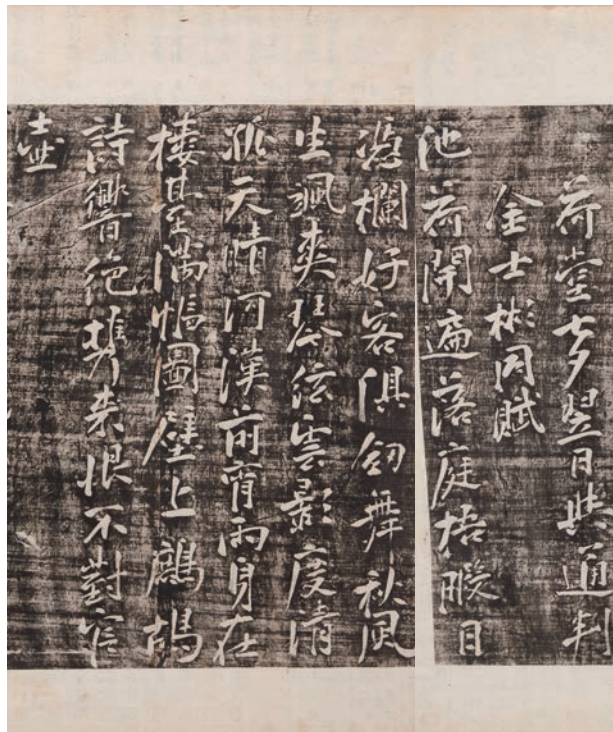
荷花

數朶微窺翠蓋陰
相逢驚倒一開襟
水壺濯出塵緣淨
玉貌薰成酒量深
佳麗無人堪對影
清高有月却知心
周旋可作升堂客
移插床頭照獨斟

早花初落晚花新
取次天機便覺眞
霞照朝光偏綽約
露團秋意政精神
深知處世猶高士
可道凌波是美人
寶瑟嬌歌嫌惱汝
獨將孤鶴綠池巡

111) 주선하여……만하기에: 연꽃이 매우 훌륭하여 방에 들어 손님으로 접대할 만하다고 말한 것이다. 원문의 '승당(升堂)'은 '승당입실(升堂入室)'의 줄임말로, 도가 심오한 경지에 들어감을 뜻한다.

112) 연꽃의…알겠고: 송(宋)나라 주돈이(周敦頤)가 「애련설愛蓮說」에서 연꽃을 군자(君子)에 비유하였다.



하당에서 칠석 다음날에 통판 김사빈과 함께 시를 짓다¹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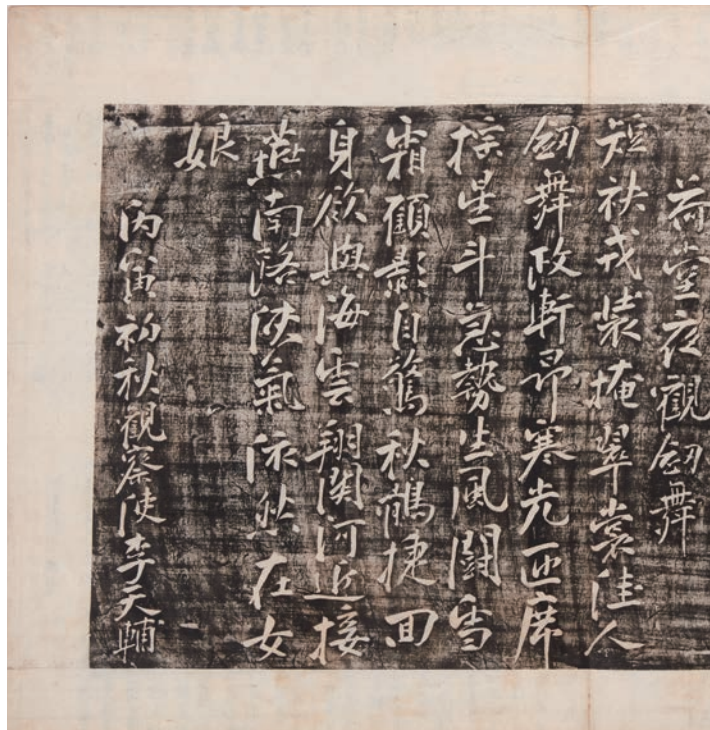
荷堂七夕翌日 與通判金士彬同賦

연꽃이 두루 피고 오동잎이 뜰에 질 때
한가한 날 좋은 손님과 함께 난간에 기대네
검무 출 때 가을바람이 시원하게 일어나고
거문고 소리가 구름까지 맑게 울려 퍼지네
지난밤에 비가 내려 은하수가 맑아지고
몸이 누대에 있어 그림 같은 풍경이네
벽 위의 자고 시¹¹⁴⁾는 울림이 절묘한데
관아 술을 가져와서 못 마심이 한이네

池荷開遍落庭梧
暇日憑欄好客俱
劍舞秋風生颯爽
琴絃雲影度清孤
天晴河漢前宵雨
身在樓臺滿幅圖
壁上鷓鴣詩響絕
携來恨不對官壺

113) 하당(荷堂)에서……짓다: 황해도 관찰사 이천보가 1746년(영조 22) 7월 8일 밤에 해주 부용당에서 지은 시이다. 김사빈은 해주 통판 김문행(金文行)이다. 『진암집』에 제목이 「하당에서 밤에 술을 마시다[荷堂夜酌]」로 되어있고, ‘가(暇)’가 ‘청(晴)’, ‘만(滿)’이 ‘일(一)’로 되어있다.

114) 벽 위의 자고(鷓鴣) 시: 원문의 ‘자고시(鷓鴣詩)’는 당(唐)나라 시인 정곡(鄭谷)이 지은 시인데, 이 시가 원래 유명하여 사람들이 정곡을 정자고(鄭鷓鴣)라고 불렀다. 후대 사람들은 성이 정씨(鄭氏)인 사람을 만나면 으레 ‘자고’라고 일컬었다. 여기에서는 해주 부용당에 시판이 걸린 정현(鄭賧)의 「제부용당題芙蓉堂」 시를 가리킨다.



하당에서 밤에 검무를 구경하다¹¹⁵⁾

荷堂夜觀劍舞

짧은 소매에 용복 차림으로 푸른 치마를 가리고
미인이 칼춤을 추니 정말로 씩씩하네
차가운 칼날 빛이 자리를 돌다가 북두성을 흔들고
급한 기세에 바람 일어 눈 서리와 싸우는 듯하네
그림자 돌아보면 가을 매처럼 빨라 스스로 놀라고
몸을 돌리면 바다 구름과 함께 날아갈 듯하네
관하가 연나라 남쪽 길에 가까이 접하여
협객의 기상이 의연히 칼춤 추는 여인에게 있네¹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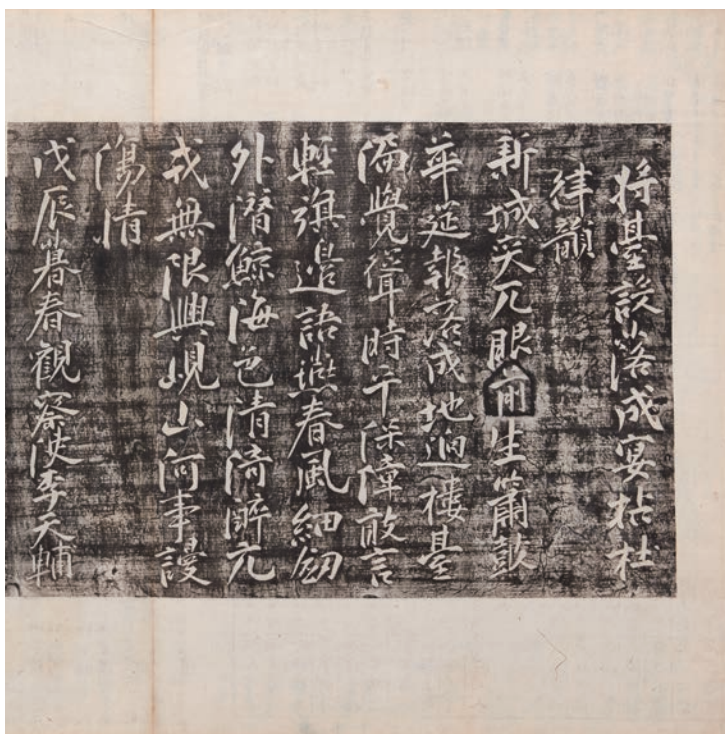
短袂戎裝掩翠裳
佳人劍舞政軒昂
寒光匝席搖星斗
急勢生風鬪雪霜
顧影自驚秋鵲捷
回身欲與海雲翔
關河近接燕南路
俠氣依然在女娘

병인년(1746) 초가을 관찰사 이천보

丙寅初秋 觀察使李天輔

115) 하당(荷堂)에서……구경하다: 황해도 관찰사 이천보가 1746년(영조 22) 7월에 해주 부용당에서 지은 시이다. 『진암집』에 제목이 「밤에 검무를 구경하다[夜觀劍舞]」로 되어있다.

116) 관하(關河)가…있네: 황해도 해주가 비분강개(悲憤慷慨)하는 협객이 많았던 연(燕)나라 남쪽에 있으므로 연나라 협객의 유풍이 기생들의 검무에 남아있다는 뜻이다. 중국 고대에 유연(幽燕) 지방은 자객 형가(荊軻) 등 비분강개한 협객이 많았다. 『사기(史記)』 「자객 열전(刺客列傳)」



장대¹¹⁷⁾에서 낙성연을 베풀고 두보의 읍시¹¹⁸⁾에 차운하다¹¹⁹⁾

將臺設落成宴 拈杜律韻

새로 쌓은 성곽¹²⁰⁾이 눈앞에 우뚝하고
잔치의 음악 소리가 낙성연을 알리네
땅이 멀어 누대가 매우 우뚝하게 느껴져도
시대가 태평하다고 성곽을 가볍게 말하라
깃발 가에서 제비 울어¹²¹⁾ 봄바람이 살랑이고
검 너머에 고래 잠겨 바닷물이 맑네¹²²⁾
술에 취한 원수는 흥취가 무한한데
현산에선 무슨 일로 부질없이 슬퍼했나

新城突兀眼前生
簫鼓華筵報落成
地迥樓臺偏覺聳
時平保障敢言輕
旗邊語燕春風細
劍外潛鯨海色清
倚醉元戎無限興
峴山何事謾傷情

무진년(1748) 모춘 관찰사 이천보

戊辰暮春 觀察使李天輔

117) 장대(將臺): 장대는 장수가 군사를 지휘하는 곳인데, 여기에서는 해주 공해대(控海臺)를 말한다. 공해대는 이천보가 1747년(영조 23)에 해주성을 개축할 때 성곽 북쪽 곡성(曲城)에 건립한 장대이다.([진암집] 공해대기控海臺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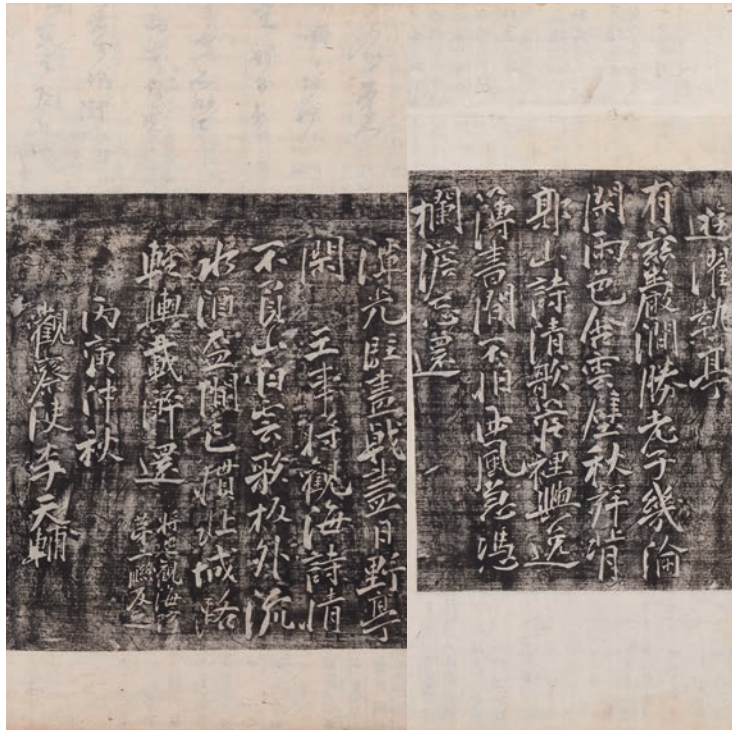
118) 두보(杜甫)의 읍시(律詩): 두보의 「강릉 절도사 양성 군왕이 새 누각을 완성하자 왕이 엄 시어 판관에게 칠언 시를 지으라고 청하여 함께 짓다江陵節度使陽城郡王新樓成 王請嚴侍御判官賦七字句 同作」를 차운한 것이다.

119) 이 시는 황해도 관찰사 이천보가 1748년(영조 24) 3월에 해주 장대(將臺)인 공해대(控海臺)에서 두보(杜甫)의 칠언율시에 차운하여 지은 시이다.

120) 새로 쌓은 성곽: 이천보가 1747년(영조 23)에 해주성을 개축한 것을 말한다. 이천보가 황해도 관찰사로 부임한 뒤 조정에 건의하여 1747년(영조 23) 2월부터 12월까지 축성 공사를 완료하고 낙성 잔치를 열었다.([진암집] 「해주성 개축 비기海州城改築碑記」)

121) 제비 울어: 원문의 ‘어연(語燕)’은 ‘연작상하(燕雀相賀)’와 같은 말로, 건축물을 새로 지으면 제비와 참새가 보금자리가 생겼다고 서로 축하한다는 고사가 있다.

122) 고래……맑네: 왜적의 침입이 없어 나라가 평안하다는 뜻이다. 바다의 고래가 작은 물고기를 탐욕스럽게 먹으므로 흉포한 외적의 침략을 뜻한다.

탁열정에서 노닐다¹²³⁾

이곳은 바위와 시내가 뛰어나서
노부가 몇 번이나 잠을 내었던가
빗기운이 구름 낀 절벽에 있고
가을 소리가 성곽 등진 산에 있네
시가 음악 소리 속에 맑고
흥이 문서 사이에 넘치네
가을바람 거센 것을 겁내지 않고
난간에 기대 돌아감을 잊었네

연못가에 창을 든 병졸이 머물고
종일토록 들판 정자가 한가하네
나랏일로 장차 바다를 살피려 하고
시심으로 산을 저버리지 못하네
가판¹²⁴⁾ 너머로 흰 구름이 떠가고
술잔 사이로 물이 흘러가네
성곽 북쪽 길이 이미 익숙하니
가벼운 가마에 실려 취해서 돌아가리

병인년(1746) 중추 관찰사 이천보

遊濯熱亭

有茲巖澗勝
老子幾偷閑
雨色含雲壁
秋聲背郭山
詩清歌管裡
興逸簿書間
不怕西風急
憑欄澹忘還

潭光駐畫戟
盡日野亭閑
王事將觀海
詩情不負山
白雲歌板外
流水酒盃間
已慣北城路
輕輿載醉還

丙寅仲秋 觀察使李天輔

123) 탁열정에서 노닐다: 황해도 관찰사 이천보가 1746년(영조 22) 8월에 해주 탁열정에서 지은 시이다. 김사빈은 해주 통판 김문행(金文行)이다. 이 시는 『진암집』에 실려있지 않다.

124) 가판(歌板): 옛날에 노래의 박자를 맞추기 위해 두드리는 판인데, 박달나무로 만든 것을 단판(檀板)이라고 한다.



字大卿 號江漢 長水人 英宗庚申文科 官至吏判 文衡

자가 대경(大卿)이고 호가 강한(江漢)이며, 본관이 장수(長水)¹²⁶⁾이다. 영조 경신년(1740)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이조판서에 이르렀다. 문형(文衡)을 지냈다.

공해대에서 벽 위의 시에 차운하다¹²⁷⁾

控海臺次壁上韻

북과 피리 소리가 바다 구름 가운데 있고
관찰사가 새로 지은 공해대가 백 길로 웅장하네¹²⁸⁾
난간이 다만 쌓인 천지의 기운에 응하고
돛대가 문득 멀리 허공에 다시 비치네
봉화가 요동과 계주¹²⁹⁾의 평안한 소식을 전하고
깃발이 등주와 내주¹³⁰⁾의 호탕한 바람에 흔들리네
해서 땅은 이제부터 성곽이 웅장하니
천년의 요충지가 원수를 기다렸네

鼓笳聲在海雲中
觀察新臺百丈雄
軒檻祇應臨積氣
帆檣忽復映遙空
烽傳遼薊平安信
旗颭登萊浩蕩風
西土從今城郭壯
關防千載待元戎

무진년(1748) 맹하 황경원

戊辰孟夏 黃景源

125) 황경원: 영조대 대사성, 대사간, 대사헌 등 청화직(淸華職)을 두루 거친 문신이다. 서예에 뛰어났으며 예학과 고문에도 밝았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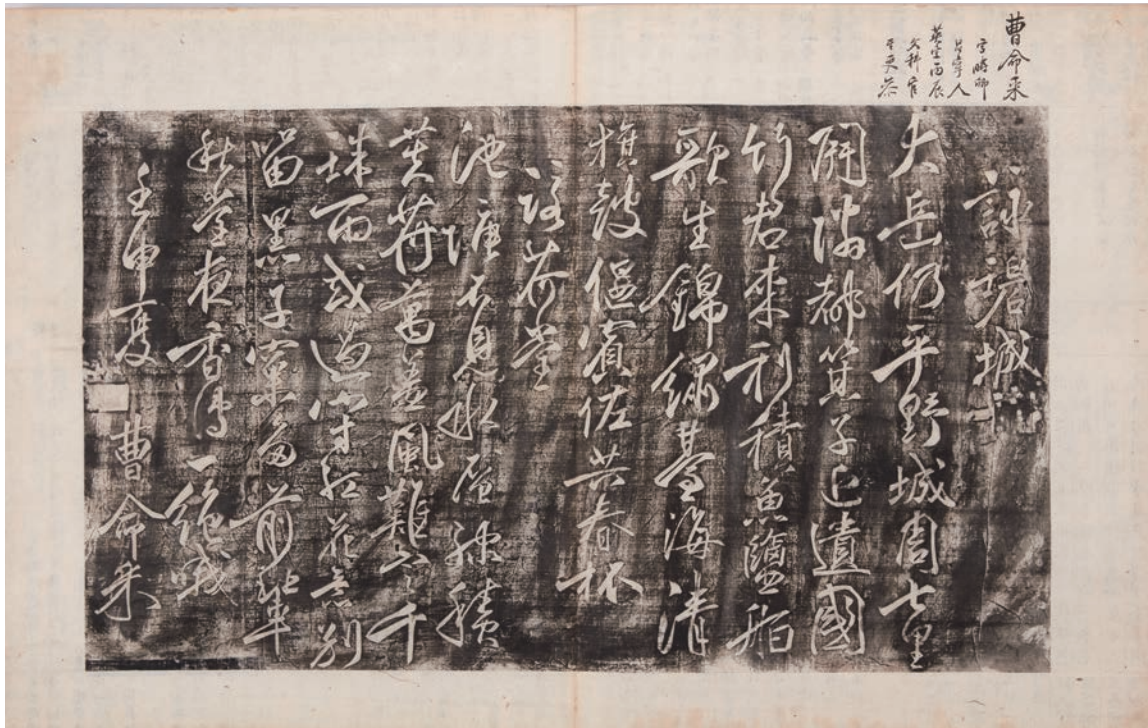
126) 장수(長水): 원문에는 '창원(昌原)'으로 되어있으나 잘못이므로 '장수(長水)'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127) 공해대(控海臺)에서……차운하다: 황경원이 1748년(영조 24) 4월에 해주 공해대에서 앞 사람의 시에 차운하여 지은 시이다. 원운시(原韻詩)는 이천보(李天輔)가 지은 것으로 보이나 『진암집』에 운이 같은 작품이 실려있지 않다. 이 시는 『강한집江漢集』에 실려있지 않다.

128) 관찰사(觀察使)가……웅장하네: 이천보가 조정에 건의하여 1747년 2월부터 12월까지 해주성을 쌓았던 일을 말한다.

129) 요동(遼東)과 계주(薊州): 원문의 '요계(遼薊)'는 중국의 요동과 북경을 둘러싼 계주를 말한다.

130) 등주(登州)와 내주(萊州): 원문의 '등래(登萊)'는 중국 산둥성에 있는 고을이다.



字疇卿 昌寧人 英宗丙辰文科 官至吏參

자가 주경(疇卿)이고 본관이 창녕(昌寧)이다. 영조 병진년(1736)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이조참의에 이르렀다.

벽성에서 시를 읊다

詠碧城

큰 산이 평야로 이어지고
성 둘레가 7리 남짓 열려있네
기자의 도움이 가까이 있고
고죽군의 나라에서 유래했네¹³²⁾
이익이 물고기와 소금 실은 배로 쌓이고
노래가 비단 펼친 누대에서 나오네
바다 맑고 북소리가 그쳐서
빈좌¹³³⁾와 함께 봄날에 술 마시네

大岳仍平野
城周七里開
隣都箕子近
遺國竹君來
利積魚鹽舶
歌生錦繡臺
海清旗鼓偃
賓佐共春杯

131) 조명채: 조선후기의 문신으로 영조대 정언, 지평, 이조참판, 대사헌 등을 지냈다. 1762년(영조 38) 사도세자 사건에 연루되어 국문을 당하였으나 곧 풀려났지만 2년 뒤 죽었다.

132) 기자(箕子)의……유래했네: 황해도 해주가 기자의 도움이었던 평양(平壤)과 가깝고, 해수에 있는 수양산(首陽山)이 고죽국(孤竹國)에서 유래하였음을 말한 것이다. 고죽국 임금의 아들인 백이(伯夷)와 숙제(叔齊)가 은나라가 망한 뒤에 수양산(首陽山)에서 은거하여 고사리를 먹고 살다가 죽었다는 고사가 있다.

133) 빈좌(賓佐): 감사(監司)·유수(留守)·병사(兵使)·수사(水使) 등을 따라다니는 비장(裨將)을 말한다.

하당에서 시를 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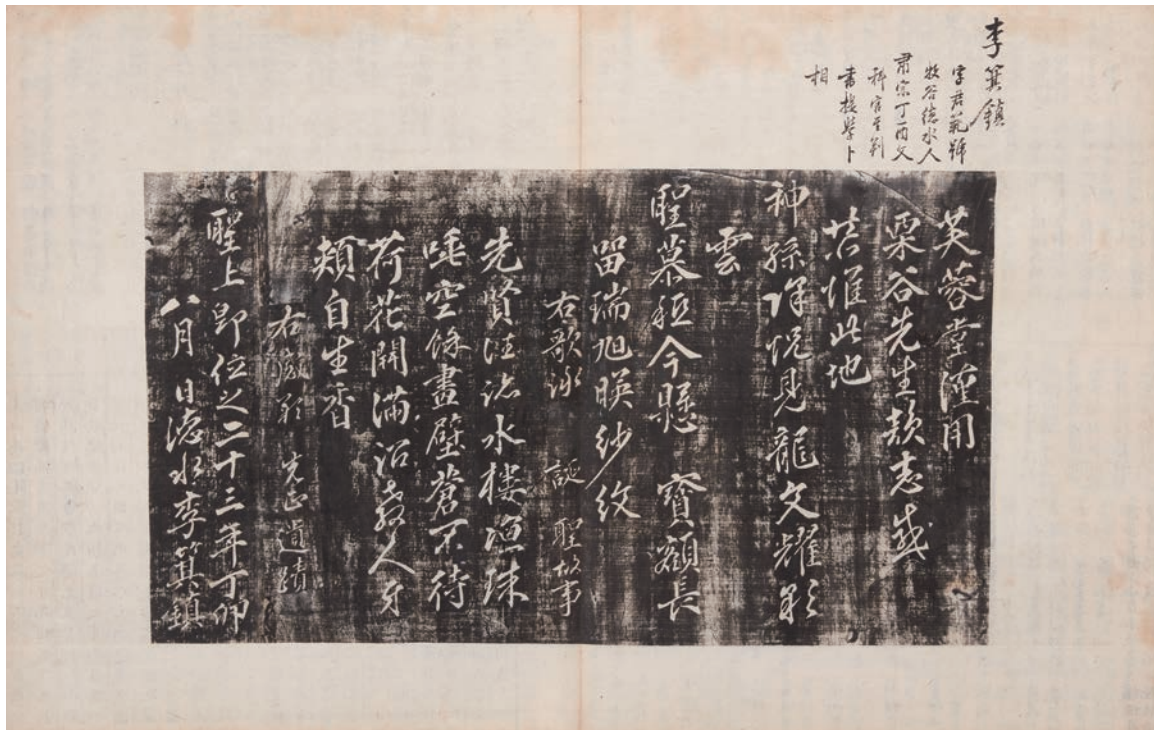
연못의 물이 보이지 않고
층층의 푸른 연잎이 쌓여있네
만 개의 연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천 개의 빗방울이 간혹 지나가네
붉은 연꽃이 시들어 떨어지자
검은 연밥이 많이 열려있네
선배들이 가을밤 부용당에서
빼어난 시를 지어 전했네

임신년(1752) 여름 조명채

詠荷堂

池塘不見水
層綠積芙荷
萬蓋風難定
千珠雨或過
守紅花意別
留黑子窠多
前輩秋堂夜
香傳一絕哦

壬申夏 曹命采



字君範 號牧谷 德水人 肅宗丁酉文科 官至判書 提學卜相

자가 군범(君範)이고 호가 목곡(牧谷)이며, 본관이 덕수(德水)이다. 숙종 정유년(1717)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판서에 이르렀다. 제학(提學)을 지내고 정승 후보에 뽑혔다.

부용당에서 삼가 율곡 선생의 운을 써서 감회를 적다¹³⁵⁾

芙蓉堂謹用栗谷先生韻志感

삼가 이곳에서 인조께서 탄생하셨고
군선 글씨가 오색구름처럼 빛남을 황홀하게 보네
성군께서 사모하여 지금 부용당에 편액을 걸었는데¹³⁶⁾
상서로운 햇살이 비단 덮은 편액에 비쳐 길이 남으리라
위는 성군(聖君, 인조)이 탄생한 고사를 읊은 것이다

恭惟此地神孫降
悅見龍文耀彩雲
聖慕祗今懸寶額
長留瑞旭映紗紋
右歌詠誕聖故事

선현의 자취가 서린 수루¹³⁷⁾가 시원하고
시편이 공연히 남아 고운 벽이 창연하네
연꽃이 못에 가득 피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입안에서 저절로 향기가 나오네

先賢往跡水樓涼
珠唾空餘畫壁蒼
不待荷花開滿沼
教人牙頰自生香

위는 선정(先正, 이이)의 유적에 감탄한 것이다

右感歎先正遺蹟

성상 즉위 23년 정묘년(1747) 8월 모일 덕수 이기진

聖上即位之二十三年丁卯八月日 德水李箕鎭

134) 이기진: 숙종, 영조대 홍주목사, 평안도 관찰사, 황해도 관찰사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저서로 『목곡집牧谷集』이 있다.

135) 부용당에서……적다: 이기진이 1747년(영조 23) 8월에 해주 부용당에서 인조(仁祖)의 탄생과 이이(李珥)의 유적을 회고하며 이이의 시에 차운하여 지은 시이다.

136) 성군께서……걸었는데: 원문의 '성모(聖慕)'에서 '성(聖)'은 영조(英祖)를 말한다. 영조는 임술년(1742)에 어필(御筆)로 '부용당(芙蓉堂)'이라는 세 글자를 특별히 써서 부용당에 걸게 하였다.

137) 수루(水樓): 부용당을 말한다.



見上帖

상첩에 보인다.

부용당에서 현판의 시에 차운하다¹³⁸⁾

槐나무와 버들이 교차하여 연못에 그늘지고
 열두 구비 난간에 빈 휘장이 단혀있네
 흰 구름이 비쳐서 성 그늘과 합쳐지고
 꼬꼬리가 울지 않아 바다 해가 더디 가네
 모자 쓰고 시 읊으며 멋진 풍경으로 들어가고
 늦은 연꽃이 피려 하여 시 짓기에 알맞네
 평소대로 걸음이 연꽃 향기 너머로 통하고
 기약하지 않아도 진솔하게 거문고와 술을 즐기네

활발한 잔물결이 푸른 못에 일렁이고
 영문에 일이 없어 낮에도 휘장을 걷었네
 비가 내려 버들잎이 난간으로 길게 들어오고
 바람 차서 연꽃이 물 위로 더디 나오네
 오늘 밤 즐길 만하여 오로지 피리를 불고
 옛사람은 먼저 시 짓는 것을 가장 어려워했네
 달빛 속에 맑게 우는 두 마리 학의 울음이 들리니
 분에 넘치게 세속을 멀리 벗어나길 기약하네

芙蓉堂次板上韻

槐柳交柯蔭一池
 闌干十二鎖虛帷
 白雲倒影城陰合
 黃鳥無聲海日遲
 短幘孤吟堪入畫
 晚荷將發始宜詩
 尋常步履通香外
 眞率琴尊在不期

活活輕波漾綠池
 轅門無事晝披帷
 雨過蒲葉侵軒長
 風冷荷花出水遲
 今夕可娛聊喚簫
 古人先着最難詩
 月中清淚聞雙鶴
 分外遐情出世期

138) 부용당에서……차운하다: 황해도 관찰사 조명정이 1759년(영조 35) 5월에 해주 부용당에서 이천보의 시에 차운하여 지은 시이다.



천림당¹³⁹⁾에서 지자 운을 거둬하여 차운하다¹⁴⁰⁾

天臨堂疊池字

오래된 천림각이 연못을 압도하고
천 송이 연꽃이 고운 휘장을 가리네
종묘사직 중흥하여 왕업¹⁴¹⁾이 영구하고
강산이 변치 않아 상서로운 구름이 더디 가네
향 연기가 가늘게 퍼져 뜰 풀에 머물고
단비가 고루 내려 마을이 시에 들어왔네¹⁴²⁾
백 척의 비석에 번개가 별을 휘감으니
문손¹⁴³⁾의 탄강이 또 기약한 듯하였네

天臨古閣壓芳池
千朵芙蓉掩畫帷
宗社重恢靈籙永
湖山不改瑞雲遲
香烟細裊留庭草
恩雨均霑入巷詩
百尺龜趺神電繞
文孫誕降又如期

기묘년(1759) 중하 관찰사 조명정

己卯仲夏 觀察使趙明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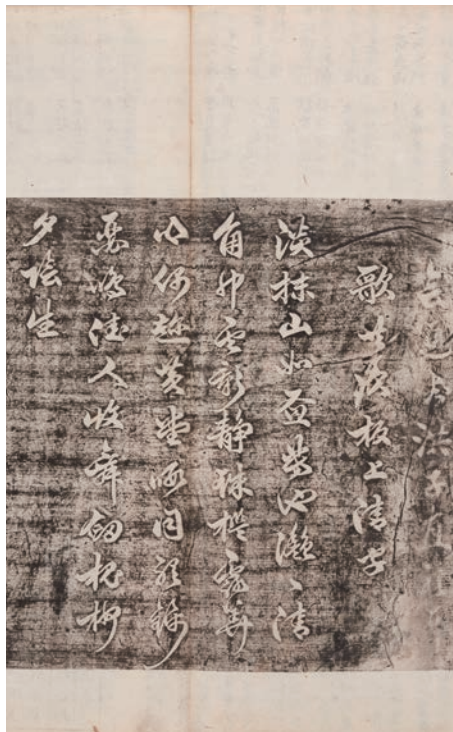
139) 천림당(天臨堂): 부용당 서편의 물가에 있는 천림각(天臨閣)을 말한다. 판자를 건너지르고 구들을 놓았으며 현판을 천림각(天臨閣) 또는 조일현(照日軒)이라 하였는데, 선조(宣祖)가 임진왜란 때 서울로 돌아오다가 해주에서 묵었던 곳이다.

140) 천림당(天臨堂)에서……차운하다: 황해도 관찰사 조명정이 1759년(영조 35) 5월에 해주 부용당 서쪽 물가에 있는 천림당에서 이천보의 시에 차운하여 지은 시이다.

141) 왕업(王業): 원문의 ‘영록(靈籙)’은 보록(寶籙)과 같은 말로, 왕통(王統)이나 왕업을 말한다. 전설에 따르면 영록은 봉황이 황제(黃帝)와 요(堯)임금에게 물었다 준 도록(圖籙)으로, 천명(天命)을 상징한다.

142) 단비가……들어왔네: 임금의 은택이 골고루 미쳐 민간에서 시로 칭송하였다는 뜻이다.

143) 문손(文孫): 본래 주(周)나라 문왕(文王)의 자손이란 뜻의 문자문손(文字文孫)에서 유래하여 황태자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여기에서는 인조를 말한다.



통판 홍자직과 모여 거문고와 노래를 듣고 함께 현판 위의 청자에 차운하다¹⁴⁴⁾

會通判洪子直 聽琴歌 共次板上清字

열게 물든 산 풍경이 그림 같고
연못 물이 맑게 찰랑이네
은자의 두건¹⁴⁵⁾에 구름이 조용하고
고운 난간에 이슬이 영롱하네
우연히 황당¹⁴⁶⁾에서 잠을 내어 가서
함께 비파 연주 소리를 듣네
미인이 칼춤 추던 칼을 거두니
훼나무와 버들에 어둠이 깃드네

淡抹山如畫
芳池灩灩清
角巾雲影靜
珠檻露華明
偶趁黃堂暇
同聽錦瑟鳴
佳人收舞劍
槐柳夕陰生

144) 통판(通判)……차운하다: 자직(子直)은 홍익필(洪益弼)의 자(字)이다. 해주 통판과 배천 군수 등을 역임하였다. 황해도 관찰사 조명정이 1759년(영조 35) 5월에 해주 부용당에서 이천보의 시에 차운하여 지은 시이다. 이천보의 원운시는 제목이 「荷堂月夜」이다.

145) 은자(隱者)의 두건(頭巾): 원문의 '각건(角巾)'은 옛날에 은사(隱士)나 관직에서 은퇴한 이들이 쓰던 두건이다.

146) 황당(黃堂): 지방 수령이 거처하던 청사로, 옹황(雄黃)의 염료(染料)를 칠한 데에서 유래하였다. 여기에서는 황해도 관찰사의 정아(正衙)인 선화당(宣化堂)을 가리킨다.

50 조명정(趙明鼎)

해주 부용당(청구제영 제2첩)



삼가 율곡의 현판 시에 차운하다¹⁴⁷⁾

謹次栗谷板上韻

선경의 일월¹⁴⁸⁾이 더디고 물가 누각이 시원한데
수양산의 풍경이 주렴 가득 푸르네
난간에 기대 연꽃이 늦게 피를 아쉬워하지 않으니
부들잎이 바람에 나부끼고 또 절로 향기롭기 때문이네

壺日遲遲水閣涼
首陽山色滿簾蒼
憑軒不惜荷花晚
蒲葉翻風也自香

기묘년(1759) 중하 조명정

己卯仲夏 觀察使趙明鼎

147) 삼가……차운하다: 황해도 관찰사 조명정이 1759년(영조 35) 해주 부용당에서 이이의 시에 차운하여 지은 시이다.

148) 선경(仙境)의 일월(日月): 원문의 ‘호일(壺日)’은 ‘호중일월(壺中日月)’의 준말로, 신선이 사는 별천지를 뜻한다. 후한(後漢)의 술사(術士) 비장방(費長房)이 시장에서 약을 파는 선인(仙人) 호공(壺公)의 충예를 받아 호리병 안으로 들어가니, 호리병 안에 일월(日月)이 걸려 있고 선경인 별천지가 펼쳐져 있었다고 한다.『후한서後漢書』「비장방 열전費長房列傳」)



공해대에서 현판의 시에 차운하다¹⁴⁹⁾

控海臺次板上韻

맑은 기운 한 줄기가 위로 올라가서
공해대는 바다와 산의 웅장함을 뽐내네
구름이 성곽을 감싸 천 채의 집이 운택하고
갈매기가 백사장에 있어 양쪽 언덕이 비어있네
경계하는 소리 없어 대낮에도 잠자고¹⁵⁰⁾
기생들이 한가하여 봄바람에 춤추네
근래에 서양 선박이 왔다고 들었는데
오랑캐를 방비함에 대비책¹⁵¹⁾이 필요하리라

淑氣扶輿一幹中
亭臺獨擅海山雄
烟雲繞郭千廚潤
鷗鷺印沙兩岸空
刁斗無聲眠白日
管絃多暇舞春風
近聞西溼浮疑舶
桑土應須在禦戎

149) 공해대(控海臺)에서……차운하다: 황해도 관찰사 조명정이 1759년(영조 35) 4월 해주 공해대에서 앞 사람의 시에 차운하여 지은 시이다.
150) 경계하는……잠자고: 나라가 태평하여 백성들이 편안하게 잠자고 생활한다는 뜻이다. 원문의 '조두(刁斗)'는 구리로 만든 술 같은 기구로 군중(軍中)에서 낮에 이것으로 음식을 만들고, 밤에 이것을 두드려 군사들을 경계하였다.
151) 대비책(對備策): 원문의 '상두(桑土)'는 '상두주무(桑土綢繆)'의 준말로, 미리 빈틈없이 꼼꼼하게 준비하여 위험스러운 사태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뜻이다. 『시경』 「빈풍(邠風) 치효(鸛鳴)」에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을 때, 저 뽕나무 뿌리를 주워, 틈과 구멍을 꼼꼼히 엮어매네.[迨天之未陰雨, 徹彼桑土, 綢繆牖戶.]”라고 하였다.

등석¹⁵²⁾에 생자 시에 차운하다¹⁵³⁾

燈夕次生字

눈 아래에 장관이 차례로 생겨나서
번쩍이는 연등 불빛이 누각을 감싸네
밝은 별이 떨어지듯 장대에 뻗뻗하고
붉은 깃발 나부끼듯 성가퀴에서 흔들리네
달빛이 멀리서 밤의 밝음을 독차지하고
봉화가 가늘게 안개의 맑음을 분점하네
3년의 국상¹⁵⁴⁾이 오늘 밤에 끝나서
원수가 대에 올라 한껏 정을 펼치네

眼底奇觀次第生
煌煌火陣抱樓成
千竿簇簇明星落
百堞搖搖赤幟輕
微月獨專遙夜白
孤烽分占細烟清
三年遏密還今夕
元帥登臺一暢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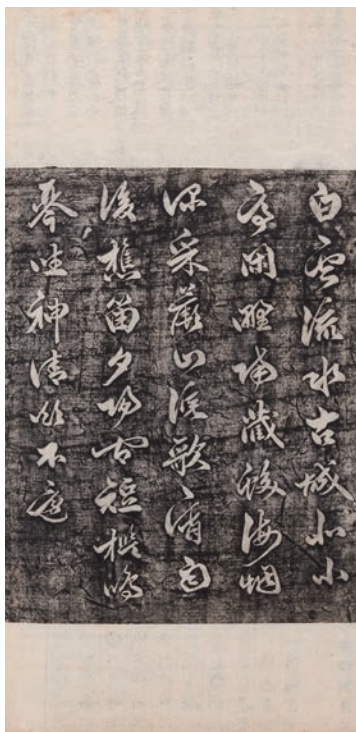
기묘년(1759) 중하 관찰사 조명정

己卯仲夏趙明鼎

152) 등석(燈夕): 원문에는 '등석(燈夕)'으로 되어있는데, '등(燈)'은 '등(燈)'의 약자(略字)이므로 '등석(燈夕)'으로 입력하고 번역하였다.

153) 등석(燈夕)에……차운하다: 원문의 '등석(燈夕)'은 4월 8일이다. 황해도 관찰사 조명정이 1759년(영조 35) 4월 8일에 해주 공해대에서 이천보의 시에 차운하여 지은 시이다.

154) 국상(國喪): 원문의 '알밀(遏密)'은 국상을 만나 음악을 중지함을 뜻한다. 여기에서는 인원왕후(仁元王后, 1687~1757)의 국상을 말한다. 인원왕후는 1757년 3월 26일에 영모당(永慕堂)에서 승하하였다. 『서경』 『순전(舜典)』에 “요임금이 세상을 떠나자 백성이 마치 부모의 상을 당한 것처럼 삼년복을 입었고, 천하에 음악 소리가 끊어져 조용해졌다.[帝乃殂落, 百姓如喪考妣三載, 四海遏密八音.]”라고 하였다.



흰 구름과 냇물이 오래되고
 성곽 북쪽 작은 정자가 한가하네
 들판이 교룡 숨은 바다와 떨어져 있고
 안개가 고사리 채취하던 수양산에 짙게 끼네
 밤비 온 뒤 빨래하는 노래가 울리고
 석양 무렵에 나무꾼이 피리를 부네
 작은 난간에 앉아 거문고를 타니
 정신이 맑아 돌아가고 싶지 않네

白雲流水古城北
 小亭閑野隔蛟海
 烟深采蕨山
 浣歌宵雨後
 樵笛夕陽間
 短檻鳴琴坐
 神清欲不還



병암에 가서 한자를 거둬하여 차운하다¹⁵⁵⁾

訪屏巖 疊閑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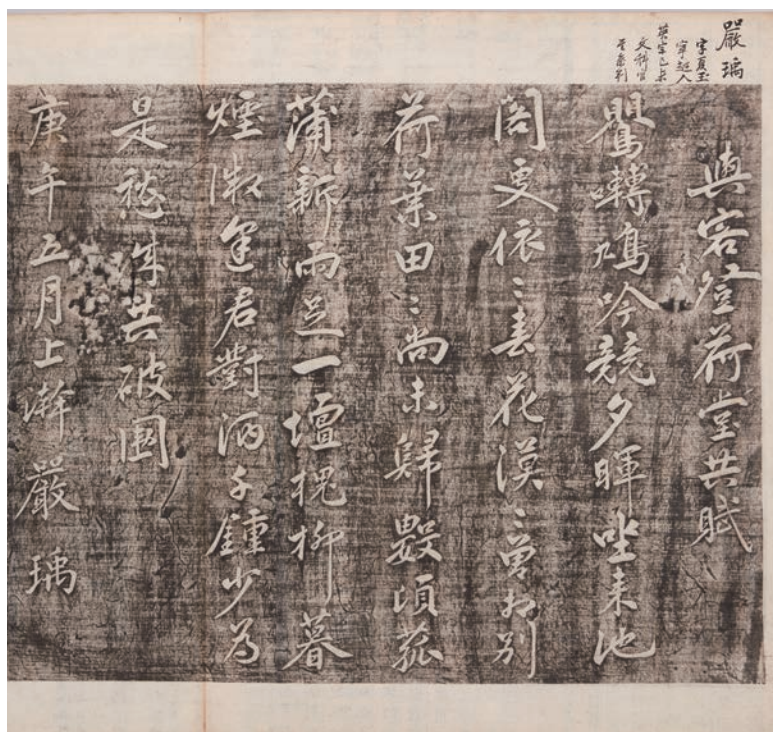
병암이 좋다는 말을 들었는데
산들바람에 걸음이 한가하네
 시내 따라 온통 흰 바위가 있고
 들판 둘러 푸른 산들이 펼쳐지네
 흰 폭포가 술잔 너머로 흘러내리고
 붉은 글씨가 오래된 석벽에 있네
 고깃배가 낙화 따라 아득히 가서
 서글프게 석양에 돌아가네

聞說屏岩好
輕風引步閑
沿溪渾白石
圍野是青山
水瀑流觴外
丹書老壁間
落花漁棹杳
惆悵夕陽還

기묘년(1759) 중하 관찰사 조명정

己卯仲夏 觀察使趙明鼎

155) 병암(屏巖)에……차운하다: 병암은 해주 감영 북쪽 산의 광석(廣石)에 상류에 있다. 황해도 관찰사 조명정이 1759년(영조 35) 5월에 해주 병암에서 이천보의 시에 차운하여 지은 시이다.



字夏玉 寧越人 英宗己未文科 官至參判

자가 하옥(夏玉)이고 본관이 영월(寧越)이다. 영조 기미년(1739)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참판에 이르렀다.

손님과 하당에 올라 함께 시를 짓다

與客登荷堂共賦

피꼬리와 비둘기가 석양에 울어
못가 누각에 앉자 들으니 더 아련하네
봄꽃이 질 때 일찍이 그대와 헤어졌는데
연잎이 무성해도 그대가 돌아오지 않네
몇 이랑 부들이 새 비에 잘 자라고
온 뜰의 화나무와 버들이 저녁 안개에 희미하네
그대 만나 술 마시면 천 잔 술도 적으니
시름¹⁵⁷⁾을 함께 달랠 수 있기 때문이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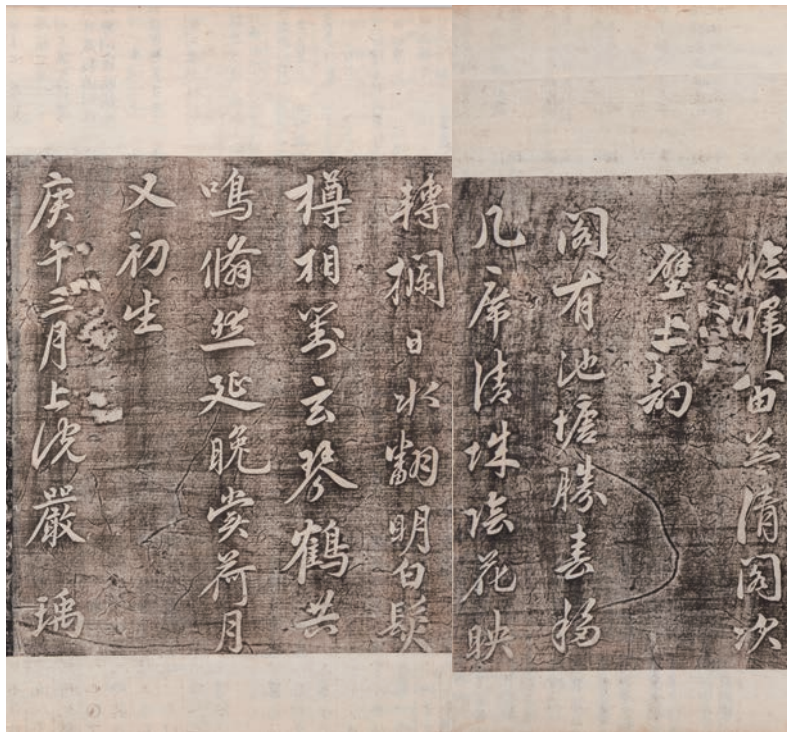
鸞囀鳩吟競夕暉
坐來池閣更依依
春花漠漠曾相別
荷葉田田尚未歸
數頃菰蒲新雨足
一壇槐柳暮煙微
逢君對酒千鍾少
爲是愁城共破圍

경오년(1750) 5월 상순 엄우

庚午五月上澣嚴瑀

156) 엄우: 영조대 문신이다. 정언, 수찬, 대사간, 황해도 관찰사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엄우는 1748년(영조 24) 4월 18일에 황해도 관찰사에 임명되어 6월에 부임하였고, 1750년(영조 26) 5월 14일에 대사간에 임명되어 조정으로 돌아왔다. 이 시는 엄우가 1750년(영조 26) 5월 상순에 해주 부용당에서 지은 시이다.

157) 시름: 원문의 '수성(愁城)'은 풀기 어려운 시름을 성벽(城壁)에 비유하는 표현이다.



돌아감을 앞두고 익청각에 머물며 벽 위의 시에 차운하다¹⁵⁸⁾

臨歸留益淸閣 次壁上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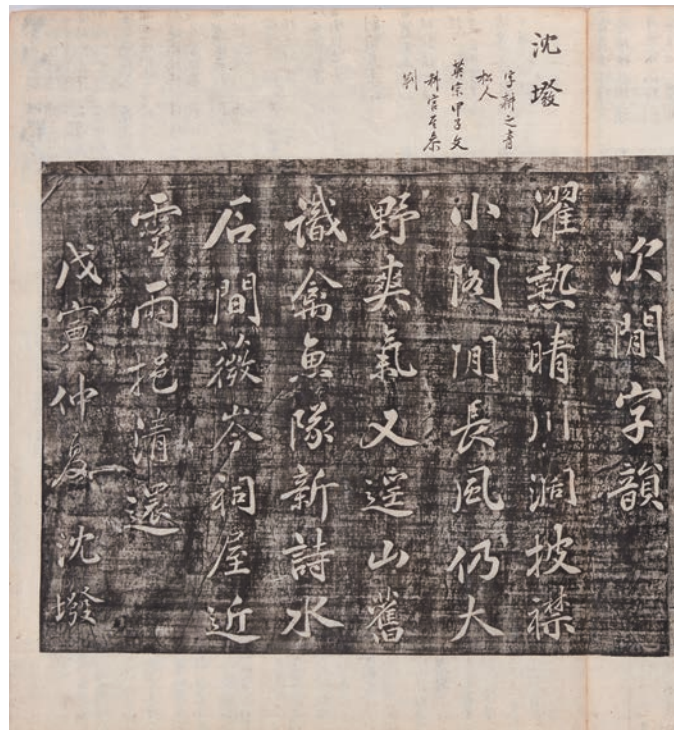
누각이 연못 가에서 빼어나
봄날에 의자 옮기니 시원하네
성 그늘이 꽃밭으로 옮겨오고
난간 해가 물에 비쳐 반짝이네
백발에 술잔을 마주하고
거문고가 학 울음과 함께 울리네
자유롭게 저녁까지 구경하니
연꽃 위로 달이 막 떠오르네

閣有池塘勝
春移几席淸
城陰花映轉
欄日水翻明
白髮樽相對
玄琴鶴共鳴
翛然延晚賞
荷月又初生

경오년(1750) 3월 상순 엄우

庚午三月上浣嚴瑀

158) 돌아감을……차운하다: 황해도 관찰사 엄우가 1750년(영조 26) 3월 상순에 해주 익청각(益淸閣)에서 이천보의 시에 차운하여 지은 시이다. 익청각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알 수 없으나 부용당 근처에 있던 건물로 보인다.



字耕之 靑松人 英宗甲子文科 官至參判

자가 경지(耕之)이고 본관이 청송(靑松)이다. 영조 갑자년(1744)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참판에 이르렀다.

한 자를 차운하다

次間字韻

더위 씻는 맑은 냇물이 드넓고
옷깃 헤치는 작은 정자가 한가하네
큰바람이 거둑 넓은 들에서 불고
상쾌한 기운이 또 먼 산에 있네
새와 물고기는 예전부터 알았고
물과 바위에서 새로 시를 짓네
수양산의 사당¹⁶⁰⁾이 근처에 있어
영험한 비가 맑은 향을 띠고 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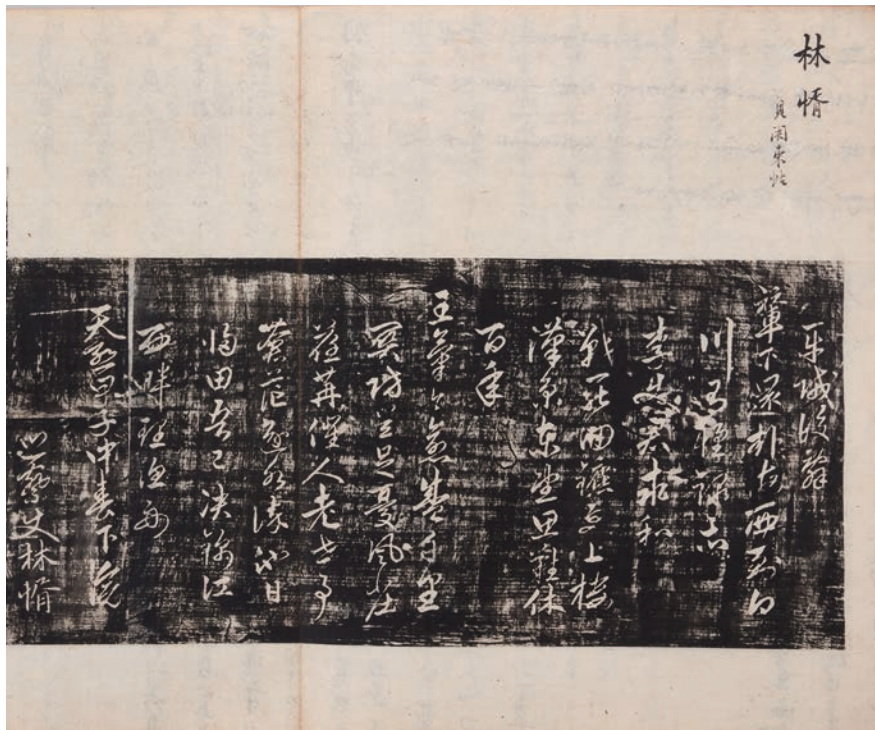
濯熱晴川潤
披襟小閣間
長風仍大野
爽氣又遙山
舊識禽魚隊
新詩水石間
薇岑祠屋近
靈雨挹清還

무인년(1758) 중하 심발

戊寅仲夏沈撥

159) 심발: 영조대 문신이다. 1756년(영조 32) 10월에 황해도 관찰사로 부임하였다가 1758년(영조 34) 10월 7일에 승지에 임명되었다. 이 시는 심발이 1758년(영조 34) 5월에 해주 탁열정에서 이천보의 시에 차운하여 지은 시이다.

160) 수양산(首陽山)의 사당: 원문의 '미잠(薇岑)'은 백이(伯夷)와 숙제(叔齊)가 고사리를 채취하던 산, 곧 수양산을 말하고, '사옥(祠屋)'은 해주 시 수양산에 백이와 숙제를 모신 사당인 청성묘(淸聖廟)를 말한다. 숙종이 1701년(숙종 27) 4월 2일에 '이제묘(夷齊廟)'의 이름을 '청성묘(淸聖廟)'로 바꾸어 정하고, 어필(御筆)로 써서 승정원(承政院)에 내린 뒤 걸게 하였다.



見關東帖

관동첩에 보인다.

적당을 평정한 뒤 대궐을 하직하고 다시 해서로 돌아가다가 배천에 이르러 감회가 있어 시를 적어서 이사군에게 보이고 화답을 구하다¹⁶¹⁾ 平賊後 辭輦下 還赴海西 到白川有懷 錄示李使君求和

전란 끝나 말을 돌려 다시 누각¹⁶²⁾에 오르니
동쪽으로 서울 보며 그리움이 그치지 않네
백 년의 왕기가 지금 더욱 성대하니
천 리의 관방을 어찌 족히 근심하랴
전란이 이어져서 늙음을 재촉하고
세상사가 아득히 물을 따라 흘러가네
내가 이미 결심한 건 훗날 전원으로 돌아가
금강 서쪽 가에서 낚싯배를 타는 일이네

戰罷回鑣更上樓
漢京東望思難休
百年王氣今愈盛
千里關防豈足憂
風塵荏苒催人老
世事蒼茫逐水流
他日歸田吾已決
錦江西畔理漁舟

천계(天啓) 갑자년(1624) 중춘 하순 순찰사 임서

天啓甲子中春下浣 巡察使林愔

161) 적당(賊黨)을……구하다: 황해도 관찰사 임서가 1724년(경종 4) 2월 하순에 배천에 이르러 배천 군수(白川郡守) 이경엄(李景嚴, 1579~1652)에게 준 시이다. 원문의 ‘평적(平賊)’은 이괄(李适)의 난을 평정한 것을 말하고, ‘이사군(李使君)’은 배천 군수 이경엄을 말한다. 『석촌유고石村遺稿』에는 제목이 「갑자년 2월 24일에 조정을 하직하고 해영(海營)으로 다시 달려갔고, 적당을 평정한 뒤 배천에 이르러 느낀 감이 있어 시를 짓다[甲子二月二十四日辭朝 還赴海營 平賊後到白川有感而作]」로 되어있다.

162) 누각: 황해도 배천에 있는 취경루(聚景樓)로 보인다. 취경루는 배천 객사 동쪽에 있다.



見關北帖

관북첩에 보인다.

여러 해 병에 걸려 외로운 성에 누우니
 임금의 은혜 입어 고향에 돌아가길 원하네¹⁶⁴⁾
 옥절 잡고 해서에 오니 모기가 산을 지듯 어렵고¹⁶⁵⁾
 붉은 교서 받들고 남쪽에 갈 때 말발굽이 가벼웠네¹⁶⁶⁾
 집안 편지는 기러기 통해 삼강¹⁶⁷⁾에 보내지 못하고
 황해도 옛 땅이 고향에 가는 길을 겨우 나누네
 지척의 도성 문¹⁶⁸⁾이 오히려 눈에서 멀어져도
 백발에 항상 임금을 그리는 마음은 늘 간절하네¹⁶⁹⁾

經年抱病臥孤城
 乞得殘骸荷聖明
 玉節西來蚊負重
 紫泥南去馬蹄輕
 家書休寄三江鴈
 故國纔分古里程
 咫尺脩門猶目遠
 白頭常切戀君情

만력(萬曆) 기미년(1619) 초겨울 관찰사 이덕형

萬曆己未孟冬 觀察使李德炯

163) 이덕형: 조선중기의 문신으로 1592년(선조 25)에 예조참판, 대제학을 겸임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왕을 정주까지 호종하고, 청원사(請援使)로 명나라에 파견되었다. 광해군 즉위 후에 영의정에 올랐다.

164) 고향에 돌아가길 원하네: 원문의 '갈득잔해(乞得殘骸)'는 고향으로 돌아가 묻힐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하는 것으로, 나이 많은 신하가 벼슬을 내놓고 그만두기를 임금에게 청원함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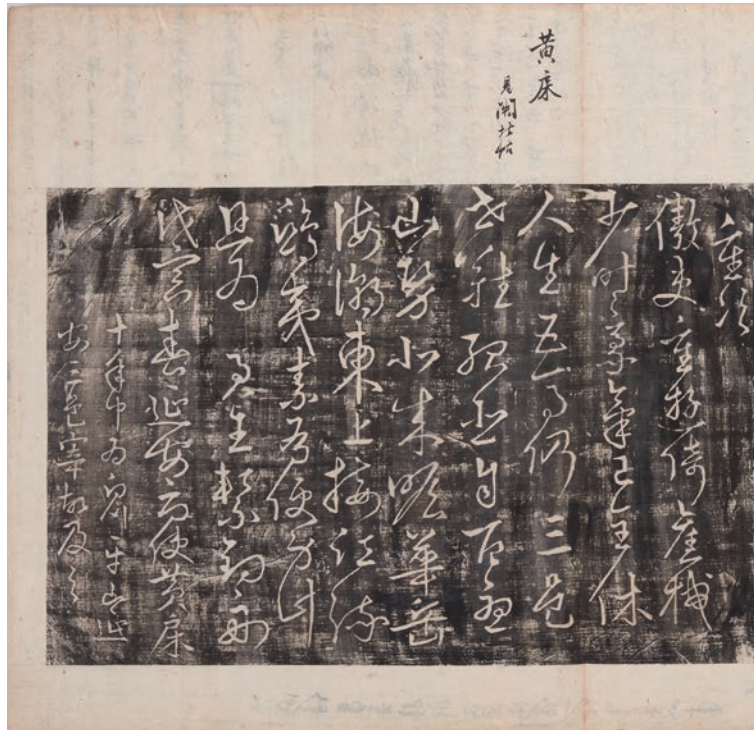
165) 모기가……어렵고: 원문의 '문부중(蚊負重)'은 사문부중(使蚊負山)과 같은 말로, 힘이 미약하여 중임을 감당하기 어려움을 비유한다. 『장자莊子』「응제왕應帝王」에 “천하를 다스림은 마치 맨몸으로 바다를 건너거나 강물을 파는 것처럼 힘들고, 모기에게 산을 지게 하는 것처럼 어렵다.[其於治天下也, 猶涉海鑿河, 而使蚊負山也.]”라고 하였다.

166) 붉은……가벼웠네: 원문의 '자니(紫泥)'는 고대에 진흙으로 서신(書信)을 봉하고 인장을 찍었는데, 황제의 조서(詔書)는 자색 진흙으로 봉했던 데서 유래하여 황제의 조서를 뜻한다. 여기에서는 이덕형에게 전라도 관찰사에 임명하는 교서를 내렸다는 뜻이다.

167) 삼강(三江): 서울에 있는 세 개의 강, 곧 한남동의 한강(漢江)·용산의 용산강(龍山江)·마포의 서강(西江)을 말한다. 전하여 서울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168) 도성 문: 원문의 '수문(修門)'은 본래 초(楚)나라 도성 영(郢)의 성문(城門)을 가리켰으나 뒤에 일반적으로 도성의 성문을 의미하는 말로 쓰였다.

169) 여러 해……간절하네: 황해도 관찰사 이덕형이 1619년(광해군 11) 10월에 해주 탁열정에서 지은 시이다.



見關北帖

관북첩에 보인다.

거듭 차운하다¹⁷¹⁾

관리¹⁷²⁾로 거듭 놀며 옛 누각에 기대니
젊을 때의 호기가 이미 전혀 없네
세상에 살면서 수령¹⁷³⁾으로 세 고을을 다스렸고
세상의 어려움에 온갖 근심으로 고달프고 슬펐네
산세가 북에서 내려와 화산¹⁷⁴⁾을 바라보고
바닷물이 동으로 올라와 한강과 이어지네
범려¹⁷⁵⁾는 평소에 몸을 편히 하는 피가 있었으니
장차 임금을 위해 사직하고 낚싯배를 타리라

무인년(1638) 연안 부사 황호

10년 사이에 배천(白川)·평산(平山)·연안(延安) 세 고을의 수령이 되었기 때문에 언급하였다.

十年中爲白川平山延安三邑宰 故及之

重次

傲吏重遊倚舊樓
少時豪氣已全休
人生五馬仍三邑
世難孤悲自百憂
山勢北來瞻華岳
海潮東上接江流
鷗夷素有便身計
且爲君王繫釣舟

戊寅春延安府使黃垺

170) 황호: 조선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창원(昌原), 자는 자유(子由), 호는 만랑(漫浪)이다. 인적사항이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약관에 대과에 급제하여 대사성, 대사간 등을 역임하였다. 문집으로 『만랑집漫浪集』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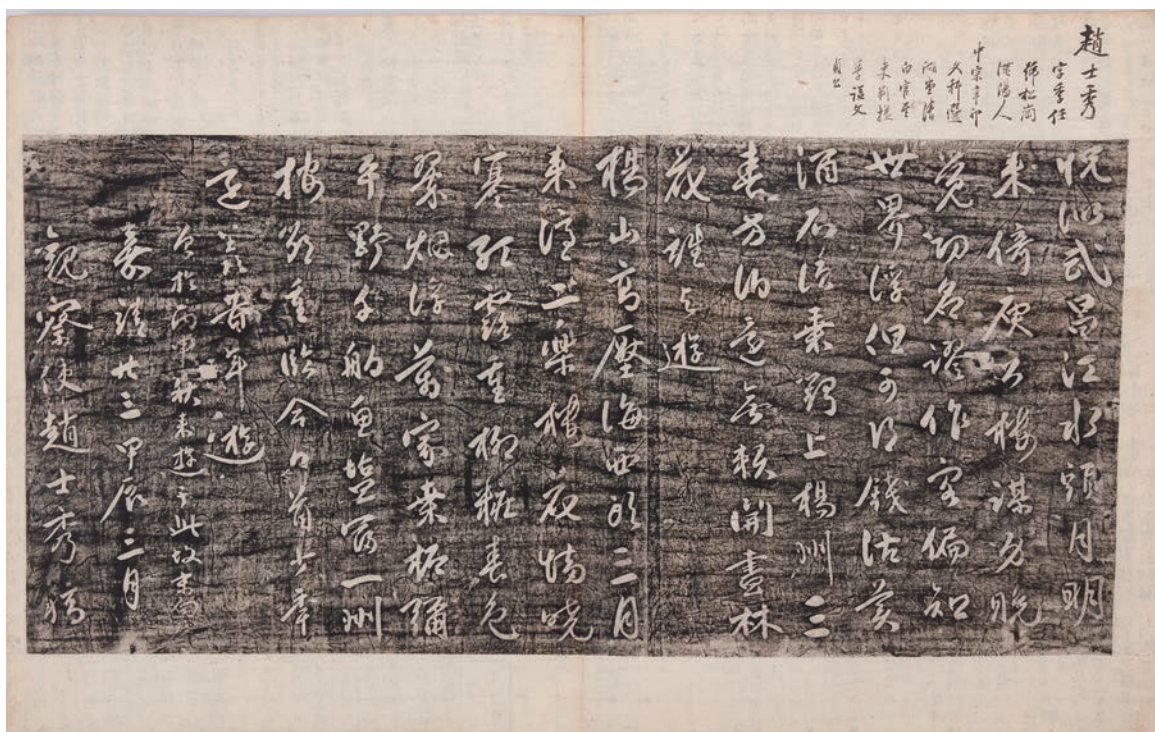
171) 거듭 차운하다: 연안 부사 황호가 1638년(인조 6) 봄에 배천에서 임서(林檎)의 시에 차운하여 지은 시이다. 임서의 원운시는 제목이 「平賊後辭輦下還赴海西到白川有懷錄示李使君求和」이다. 이 시는 『만랑집漫浪集』에 실려있지 않다.

172) 관리: 원문의 '오리(傲吏)'는 벼슬에 있으면서 세상을 오시(傲視)하고 예법에 구애받지 않는 고사(高士)를 말한다.

173) 수령: 원문의 '오마(五馬)'는 지방 수령의 수레를 말한다. 한(漢)나라 때 태수(太守)가 다섯 필의 말이 끄는 수레를 탔던 데에서 유래하였다.

174) 화산(華山): 원문의 '화악(華岳)'은 화산, 곧 서울의 삼각산(三角山)을 말한다.

175) 범려(范蠡): 원문의 '치이(鷗夷)'는 치이자피(鷗夷子皮)의 준말로, 전국시대 월(越)나라 범려(范蠡)를 말한다. 범려는 월(越)나라 왕 구천(句踐)을 도와 패자로 만든 뒤에 공명을 피하여 강호(江湖)에 몸을 숨기고 유유자적하였다. 『사기史記』「월왕 구천 세가越王句踐世家」



字季任 號松崗 漢陽人 中宗辛卯文科 選湖堂 清白 官至吏判 提學 諡文貞公

자가 계임(季任)이고 호가 송강(松崗)이며, 본관이 한양(漢陽)이다. 중종 신묘년(1531)에 문과에 급제하여 호당(湖堂)과 청백리(清白吏)에 뽑혔고 관직이 이조판서에 이르렀다. 제학을 지내고 시호는 문정공(文貞公)이다.

무창의 강어귀와 매우 흡사하여
 밝은 달밤에 유공의 누각에 기대네¹⁷⁷⁾
 입신양명 도모하다 뒤늦게 공명이 그릇됨을 깨닫고
 나그네가 되어 세상이 뜬구름 같음을 잘 아네
 돈이 있으면 맛난 술을 살 뿐이니
 학을 타고 양주로 날아갈 필요가 없네¹⁷⁸⁾
 봄 내내 머물러도 의지할 곳 없어서
 숲속 꽃이 활짝 퍼도 함께 놀기 어렵네

悅似武昌江水頭
 月明來倚庾公樓
 謀身晚覺功名謬
 作客偏知世界浮
 但可得錢沽美酒
 不須乘鶴上揚州
 三春方泊還無賴
 開盡林花難與遊

176) 조사수: 조선 전기 공조판서, 지중추부사 황해도 관찰사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이 시는 1544년(중종 39) 3월에 안악 이요루(二樂樓)에서 이세인(李世仁)의 시에 차운하여 지은 시이다. 아래의 제2수도 같다.

177) 무창(武昌)의……기대네: 원문의 '유공(庾公)'은 진(晉)나라의 재상 유양(庾亮)을 말한다. 안악의 풍경이 중국의 무창과 흡사하여 유양이 누각에 올랐던 것처럼 달밤에 이요루에 올랐다는 뜻이다. 유양이 일찍이 정서장군(征西將軍)이 되어 무창에 있을 때 장강(長江) 강가에 누각을 세우고 남루(南樓)라고 하였다. 어느 가을날 밤에 달이 막 떠오르고 날씨가 매우 맑아서 남루에 올라가서 좌리(佐吏)인 은호(殷浩)·왕호지(王胡之) 등과 함께 시를 읊으며 고상한 풍류를 만끽한 고사가 있다.『진서(晉書)』「유양열전(庾亮列傳)」

178) 학을……없네: 옛날에 네 사람이 각각 소원을 말할 때, 한 사람은 “양주 자사(揚州刺史)가 소원이다.”라 하고, 한 사람은 “나는 많은 재물이 소원이다.”라 하고, 한 사람은 “학을 타고 공중을 나는 것이 소원이다.”라고 하였다. 마지막에 남은 한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허리에 십만 관(貫)의 돈을 두르고 학을 타고서 양주로 날아가는 것이 소원이다.”라고 하여 세 사람의 소망을 겸하려고 했다는 고사가 있다.『고금사문유취(古今事文類聚)』후집(後集) 권42「가학상양주(騎鶴上揚州)」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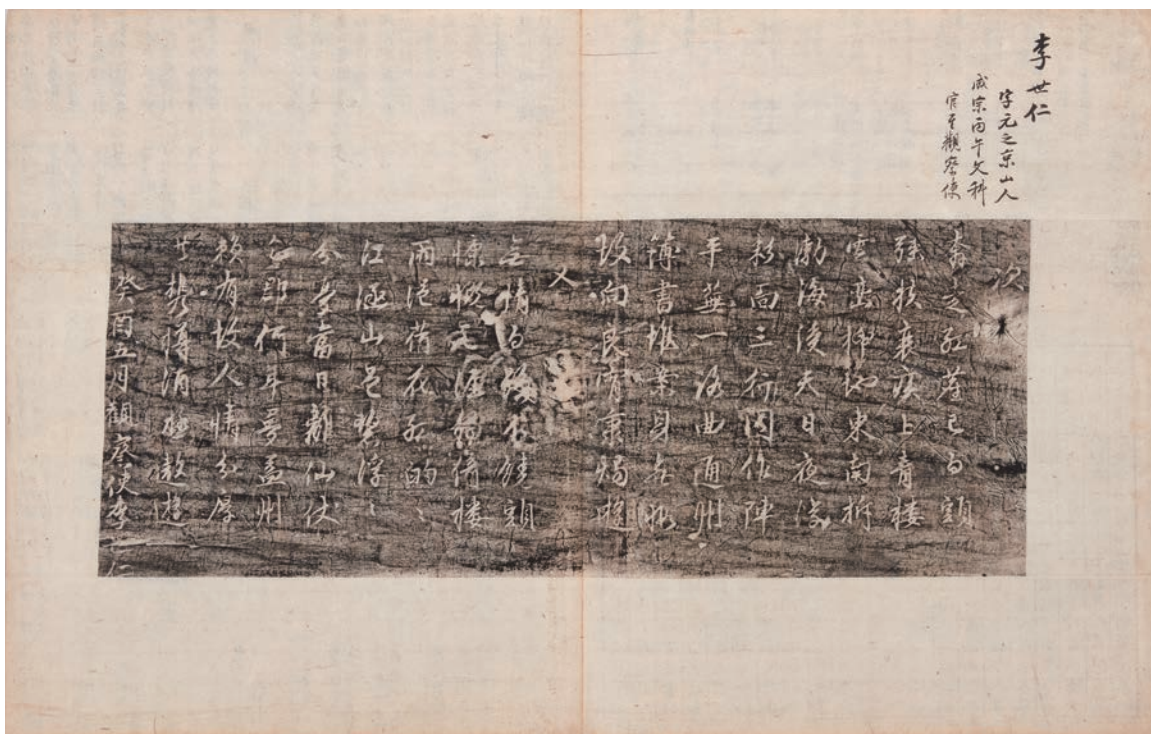
양산 ¹⁷⁹⁾ 이 황해도 어귀를 높이 놀러	楊山高壓海西頭
삼월에 찾아와서 이요루 ¹⁸⁰⁾ 에 기대네	三月來憑二樂樓
새벽 추위가 꽃을 시샘하여 붉은 이슬이 무겁고	花暈曉寒紅露重
봄빛이 버들에 들어 푸른 안개가 떠 있네	柳粧春色翠烟浮
만 채 집의 뽕나무가 평야에 가득하고	萬家桑柘彌平野
천 척 배의 물고기와 소금이 고을을 부유하게 하네	千舶魚鹽富一州
관찰사로 오늘 가장 먼저 여기에 거듭 왔으나	按節重臨今日首
옛날 소년 시절에 놀았던 일이 도리어 부럽네	少年還羨昔年遊

일찍이 병신년(1536) 가을에 여기에 와서 노닐었기 때문에 마지막 구절에서 언급하였다.
曾於丙申秋 來遊于此 故末句及[之]

가정(嘉靖) 23년 갑진년(1544) 3월 관찰사 조사수가 짓다. 嘉靖廿三甲辰三月 觀察使趙士秀稿

179) 양산(楊山): 황해도 안악의 다른 이름이다.

180) 이요루(二樂樓): ‘이요(二樂)’는 『논어』 「옹야雍也」의 ‘요산요수(樂山樂水)’, 곧 ‘산을 좋아하고 물을 좋아한다’라고 한 공자의 말에서 이름을 취한 것이다. 황해도 안악군 객관 동쪽에 있던 누각이다. 연못이 있으며 김수녕(金壽寧)의 시가 있다. 권준(權僞, 1610~1665)이 1659년 (효종 10) 가을에 안악 군수에 임명되어 이요루를 중수하였다.



字元之 京山人 成宗丙午文科 官至觀察使

자가 원지(元之)이고 본관이 경산(京山)이다. 성종 병오년(1486)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관찰사에 이르렀다.

차운

次

흥진에서 분주하여 벌써 백발이 되었고
병든 몸을 억지로 끌고 누각에 오르네
높은 산이 버들 숲 너머로 동남에 열려있고
발해가 개벽 이후에 밤낮으로 떠 있네
세 줄의 기생들¹⁸²⁾이 그대로 진을 이루고
외길의 벌판이 구불구불 고을로 통하네
문서가 책상에 쌓여 실 겨를이 없기에
일부러 좋은 밤에 촛불 들고 노니네

奔走紅塵已白頭
強扶衰疾上青樓
雲巒柳地東南拆
渤海後天日夜浮
粉面三行因作陣
平蕪一路曲通州
簿書堆案身無暇
故向良宵秉燭遊

181) 이세인: 조선전기의 문신이다. 홍문관직제학, 대사간 등을 역임하고 1512년(중종 7)에 황해도 관찰사로 부임하였다. 이 시는 이세인이 1513년(중종 8) 5월에 안악 객관에서 박원형(朴元亨) 등의 시에 차운하여 지은 시이다.

182) 세 줄의 기생들: 원문의 '분면삼행(粉面三行)'은 '삼행분면(三行粉面)'으로, 곱게 화장한 세 줄의 기생을 말한다.

또

무정한 백발이 많지 않은데
타향에서 강개하여 홀로 누각에 기대네
비가 연꽃을 적서 붉은 꽃이 선명하고
산이 강물에 비쳐 푸른 빛이 떠 있네
관찰사가 되던 당일에 대궐을 떠났는데¹⁸³⁾
고향 수령 간청하여 어느 해에 돌아갈까¹⁸⁴⁾
옛 친구의 정분이 두터움에 힘입어
함께 향아리 술 가지고 질탕하게 노네

계유년(1513) 5월 관찰사 이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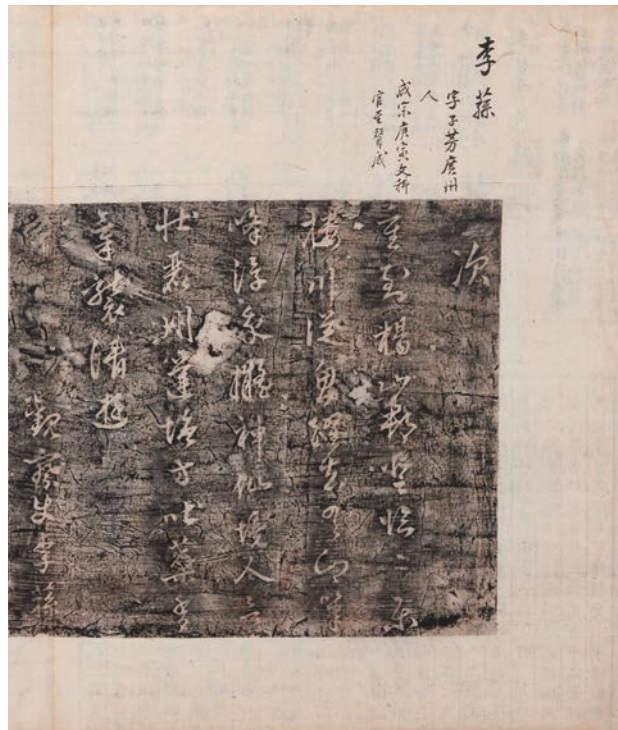
又

無情白髮不饒頭
慷慨天涯獨倚樓
雨浥荷花紅的的
江涵山色碧浮浮
分憂當日離仙仗
乞郡何年夢益州
賴有故人情分厚
共携樽酒極遨遊

癸酉五月 觀察使李世仁

183) 관찰사가……떠났는데: 원문의 ‘분우(分憂)’는 임금의 근심을 나눈다는 뜻으로, 지방관을 뜻한다.

184) 고향……돌아갈까: 이세인이 현재 황해도 관찰사로 부임하였으나 조만간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을 모실 수 있기를 꿈꾼다는 뜻이다.



차운

次

양산군에 다시 와서
이요루에 올랐네
넋물이 어약정을 따라 흘러가고
구름이 필봉정을 향해 떠 있네¹⁸⁶⁾
나는 신선 세계에 견주고
남들은 장려한 고을이라 말하네
연못에 바야흐로 연꽃이 피어서
향기가 노니는 이에게 스며드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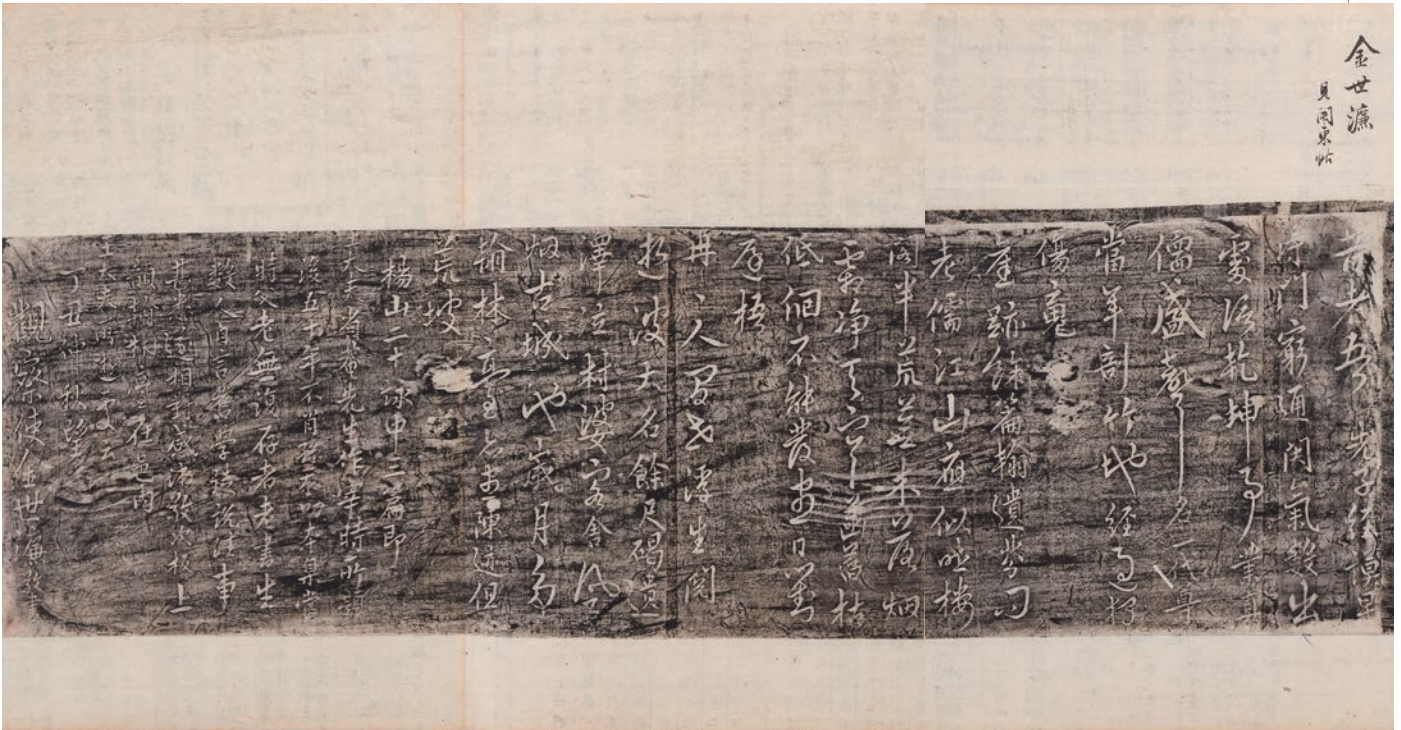
重到楊山郡
登臨二樂樓
川從魚躍去
雲向筆峰浮
我擬神仙境
人言壯麗州
蓮塘方吐蕊
香氣襲清遊

관찰사 이손

觀察使李蓀

185) 이손: 조선 전기의 문신이다. 충청도, 함경도 절도사와 충청도, 황해도 등 관찰사를 역임했다. 이 시는 이손이 1496년(연산군 2) 가을 무렵에 안악 이요루에서 박원형(朴元亨) 등의 시에 차운하여 지은 시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박원형, 어세겸(魚世謙), 유윤겸(柳允謙)의 오언율시가 각각 1수씩 실려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황해도 안악군 신증新增 이요루二樂樓」

186) 넋물이……있네: 어약정(魚躍亭)과 필봉정(筆峯亭)은 하연(河演, 1376~1453)이 1407년에 12월에 안악 군수 겸 권농병마단련부사(勸農兵馬團練副使)에 임명된 뒤 부임하여 지은 정자이다. 하연은 영춘정(迎春亭)·편월정(片月亭)·대수정(大樹亭)·어약정(魚躍亭)·필봉정(筆峯亭)을 축조하고, 늘 전야(田野)를 돌아다니면서 스스로 농가(農歌) 몇 절을 지어 농민들에게 권장하였다.



見關東帖

관동첩에 보인다.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¹⁸⁸⁾께서
 경전을 배움에 일찍이 문호를 얻었네
 궁통이 운수와 관계되어
 출처를 천지에 맡겼네
 사업은 참된 선비로 성대하고
 명성은 한 시대에 높았네
 당시에 군수¹⁸⁹⁾로 있던 땅을
 방문함에 홀로 마음이 아프네¹⁹⁰⁾
 조부의 옛 자취가 시편에 남아있고
 조부가 남긴 향기를 늙은 유생에게 묻네
 강산은 지난날과 같지만
 누각이 반쯤 황폐해졌네
 잎이 저서 서리가 깨끗하고
 날이 추워 연꽃이 시드네

昔者吾先子
 經謨早得門
 窮通關氣數
 出處信乾坤
 事業眞儒盛
 聲名一代尊
 當年剖竹地
 經過獨傷魂
 舊跡餘篇翰
 遺芬問老儒
 江山應似昨
 樓閣半荒蕪
 木落烟霜淨
 天寒菡萏枯

187) 김세렴: 광해군, 인조대 문신이다. 광해군대 예조좌랑, 정언을 역임했다. 인목대비의 폐모론을 반대하다가 유배되었다. 인조반정 이후 등용되어 수찬, 응교 등을 지냈으며 황해도 관찰사, 함경도 관찰사 등을 역임하였다. 경서(經書) 연구와 시문에 능하였다.

188) 할아버지: 원문의 '선자(先子)'는 선조인데, 여기에서는 김세렴의 할아버지 김효원(金孝元, 1542~1590)을 말한다. 김효원은 심의겸(沈義謙)과 함께 동서 분당의 시발점이 된 인물이다. 영흥 부사로 재직하던 중 죽었고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189) 군수(郡守): 원문의 '부족(剖竹)'은 죽부(竹符)의 절반을 나눠 신표(信標)로 삼는 것으로, 지방 수령을 뜻한다. 여기에서는 김세렴의 할아버지 김효원이 1583년(선조 16) 7월 22일에 안악 군수에 임명되어 부임하였던 일을 말한다.

190) 옛날에……아프네 : 황해도 관찰사 김세렴 1637년(인조 15) 8월 15일에 안악 객사에서 할아버지 성암(省菴) 김효원의 시에 차운하여 지은 시이다. 『동명집東溟集』 제목이 「안악 객사에서 현판의 시에 차운하다安岳客舍 次板上韻」로 되어있다.

머리 숙이고 오가며 출발하지 못한 채
 종일토록 뜰의 오동나무를 마주하네
 세상에서 시간이 점점 흘러
 덧없는 삶이 흐르는 물처럼 지나갔네
 큰 명성이 비석에 남아있고
 남은 은택에 시골 노파가 우네
 객사는 바람과 안개에 오래되었고
 금성탕지¹⁹¹⁾는 세월이 많이 흘렀네
 한림대 또한 사라져서
 묵은 자취는 황폐한 언덕뿐이네

低徊不能發
 盡日對庭梧
 冉冉人間世
 浮生閱逝波
 大名餘尺碣
 遺澤泣村婆
 客舍風烟古
 城池歲月多
 翰林臺亦盡
 陳迹但荒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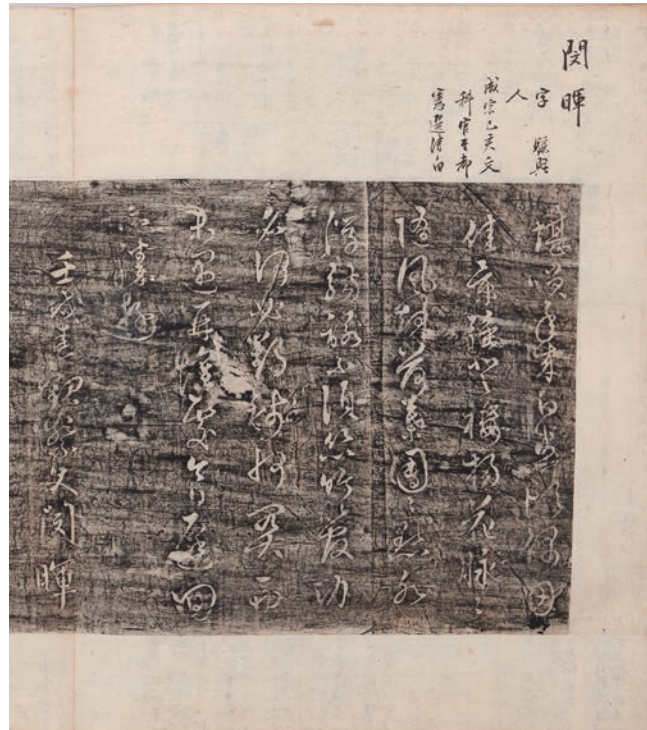
楊山二十詠中三篇 卽王大夫省菴先生作宰時所題 後五十年 不肖孫忝叨本臬 當時父老無復存者 老書生數人 自言舊學徒 說往事甚悉 遂相對感涕 敬次板上韻 翰林臺在邑內 王大夫所遊處云

丁丑仲秋望 觀察使金世濂敬書

양산(楊山, 안악)을 읍은 시 20수 중에서 3편이 바로 할아버지 성암(省菴, 김효원) 선생이 군수로 있을 때 지은 것이다. 50년 뒤에 불초한 손자가 외람되게도 황해도 관찰사가 되었는데, 당시의 부로(父老) 중에 생존한 사람이 없었다. 늙은 서생(書生) 몇 명이 스스로 옛날의 학도(學徒)라고 말한 뒤에 지난 일을 매우 자세하게 말하여 마침내 마주하여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삼가 현판의 시에 차운하였다. 한림대(翰林臺)가 읍내에 있는데, 할아버지께서 노닐던 곳이라고 한다.

정축년(1637) 중추 보름에 관찰사 김세렴이 삼가 쓰다.

191) 금성탕지(金城湯池): 원문의 '성지(城池)'는 금성탕지의 준말로, 쇠로 쌓은 성과 끓는 물이 흘러 성을 보호하는 견고한 요새를 말한다.〔한서漢書〕「괴룡전崩通傳」)



字○○驪興人 成宗己亥文科 官至都憲 選清白

자가 ○○이고 본관이 여흥(驪興)이다. 성종 기해년(1479)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도헌(都憲, 대사헌)에 이르렀다. 청백리(清白吏)에 뽑혔다.

우습게도 근래에 백발의 몸으로
우연히 명승으로 인해 누각에 올랐네
버들 숨이 끊임없이 바람 따라 날리고
연꽃잎이 둥글게 물 위에 점점이 떠 있네
술 마시며 시 읊을 때 음악이 꼭 필요치 않고
공명이 어찌 꼭 돈을 차고 양주에서 학을 타야 하나¹⁹³⁾
관서에서 두 번 다시 못 만날 곳인지라
오늘 더디 돌아가며 또 즐겁게 놀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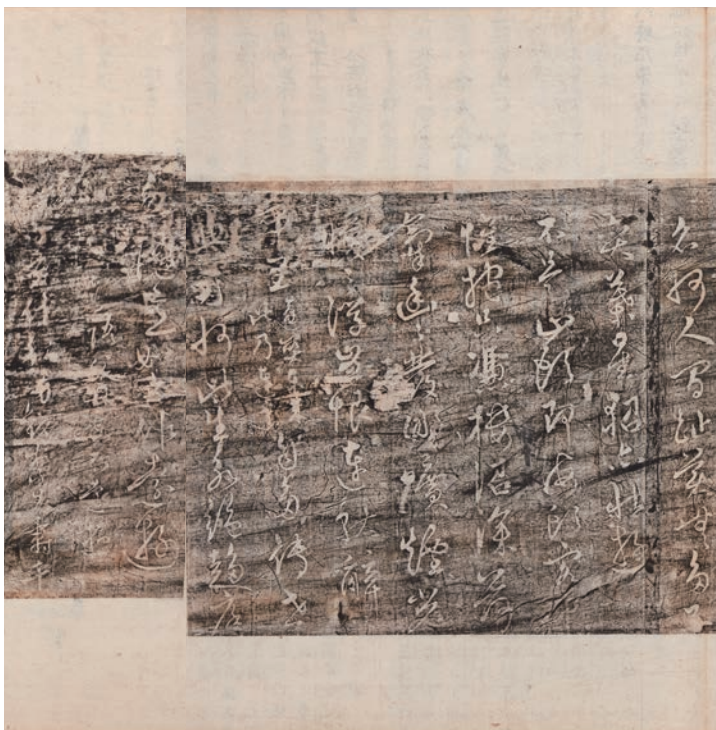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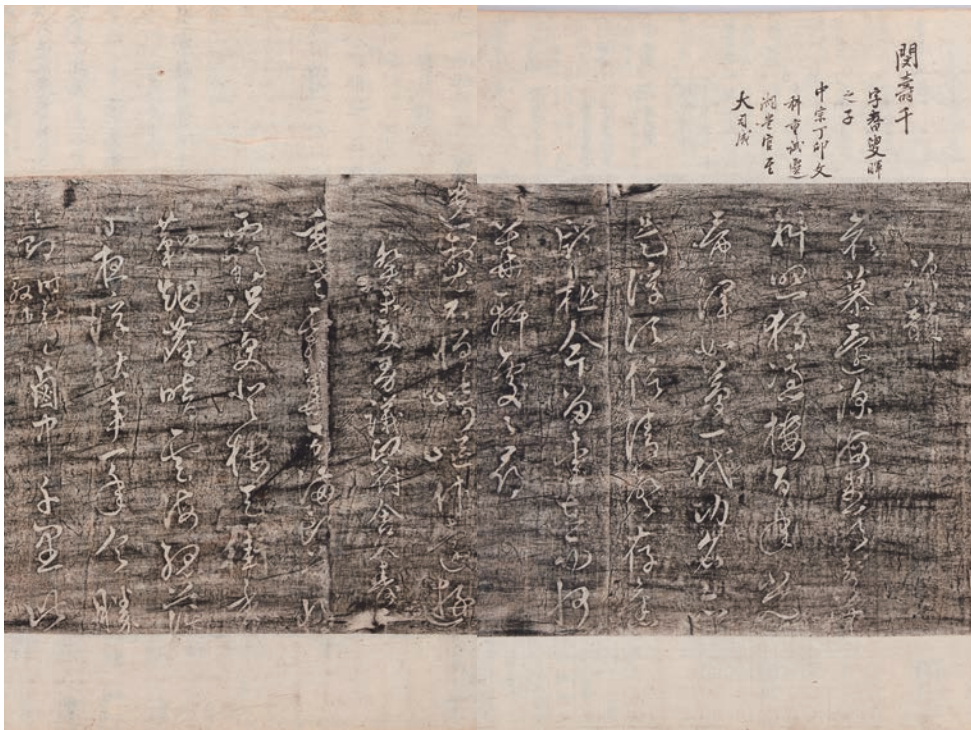
堪笑年來白盡頭
偶因佳景強登樓
楊花脈脈隨風起
荷葉團團點水浮
觴詠不須絲竹管
功名何必鶴錢州
關西未遇再惟處
今日遲回亦勝遊

임술년(1502) 봄 관찰사 민휘

壬戌春 觀察使閔暉

192) 민휘: 조선 전기에 활동한 문신이다. 정언, 지평, 대사간 등을 역임하고 1502년(연산군 7)에 황해도 관찰사로 부임하였다. 이 시는 민휘(閔暉, ?~?)가 봄에 안악 이요루에서 이세인(李世仁)의 시에 차운하여 지은 시이다.

193) 돈을……하나: 원문의 ‘학전주(鶴錢州)’는 학과 돈과 양주 자사(揚州刺史)를 합한 말로, 현실적으로 이루기 어려운 일을 원하는 일종의 몽상(夢想)을 말한다. 옛날에 네 사람이 각각 소원을 말할 때, 한 사람은 “양주 자사(揚州刺史)가 소원이다.”라 하고, 한 사람은 “나는 많은 재물이 소원이다.”라 하고, 한 사람은 “학을 타고 궁중을 나는 것이 소원이다.”라고 하였다. 마지막에 남은 한 사람은 “나는 허리에 십만 관(貫)의 돈을 두른 채 학을 타고 양주로 날아가는 것이 소원이다.”라고 하여 세 사람의 소망을 겹하려고 했다는 고사가 있다.



194) 민수천: 민휘의 아들이다. 중종대 관직생활을 시작하였다. 1527년(중종 22) 6월 5일에 황해도 관찰사에 임명되었다. 이 시는 민수천이 황해도 경차관으로 갔을 때 이요루에서 아버지 민휘의 시에 차운하여 지은 시이다.

자가 기수(耆叟)이고 민휘(閔暉)의 아들이다. 중종 정묘년(1507)에 문과 중시(重試)에 급제하고 호당에 뽑혔으며, 관직이 대사성(大司成)에 이르렀다.

차운

次韻

바닷가에서 애모가 도리어 깊어서
봄풀 돋은 석양에 홀로 누대에 기대네
백 년의 광경이 온통 꿈과 같고
한 시대의功名 또한 뜬구름이네
맑은 명성이 옛 문서에 보존됨을 믿겠고
지금도 남긴 사랑이 해서 고을에 있네
화려한 건물 곳곳에서 남긴 글을 찾노라니
어렵게 멀리 가는 것도 꺼리지 않네

哀慕還深海盡頭
春蕪斜照獨憑樓
百年光景渾如夢
一代功名亦是浮
須信清聲存舊牒
祇今留愛在西州
華軒處處尋遺製
不憚崎嶇作遠遊

계미년(1623) 여름에 아들 의정부 사인(議政府舍人) 수천

癸未夏 男議政府舍人壽千

노년이라 백발이 머리에 쉽게 가득하고
저녁에 객지에서 누대에 다시 오르네
도성 거리¹⁹⁵⁾엔 말수레의 먼지가 자욱하고
넓은 바다에 부평초가 밤낮으로 떠다니네
지금 추석 명절에 한 해 농사를 수확하고
이곳 이름난 고을엔 천 리 소금밭이 있네
세상의 좋은 일에 자식 많음이 없는데¹⁹⁷⁾
대를 이어 관찰사되어 또 장쾌하게 노니네

垂老霜華易滿頭
暮將羈況更登樓
天街香鞅烟塵暗
雲海孤萍日夜浮
秋事一年今勝節¹⁹⁶⁾
鹵中千里此名州
人間趾美無多子
奕葉星輶亦壯遊

산꼭대기가 아니고 바로 바닷가인지라
객지의 회포로 누대에 기댔 뿐이네
못이 깊어 연꽃 향기가 그윽하게 피어나고
들이 넓어 안개가 어둑하게 떠 있네
어찌 연달아 가을에 만 리 멀리 떠남을 한탄하랴
대를 이어 해서를 맡은 일이 저절로 자랑스럽네
이번 삶에 가르침을 받는 일이 영원히 끝나
지금처럼 마음대로 멀리 유람을 하리라
『논어論語』에 “부모가 살아계시면 멀리 놀러 가지 않는다.[父母在, 不遠遊.]”라고 하였다.¹⁹⁹⁾

不是山頭卽海頭
客中懷抱只憑樓
沼深荷氣幽幽發
野曠煙光曖曖浮
豈恨連秋辭萬里¹⁹⁸⁾
自多傳世典西州
此生永絕趨庭地
隨意如今作遠遊

■■■語 ‘父母在 不遠遊’

정해년(1527) 중추 전날 관찰사 수천

丁亥仲秋前 觀察使壽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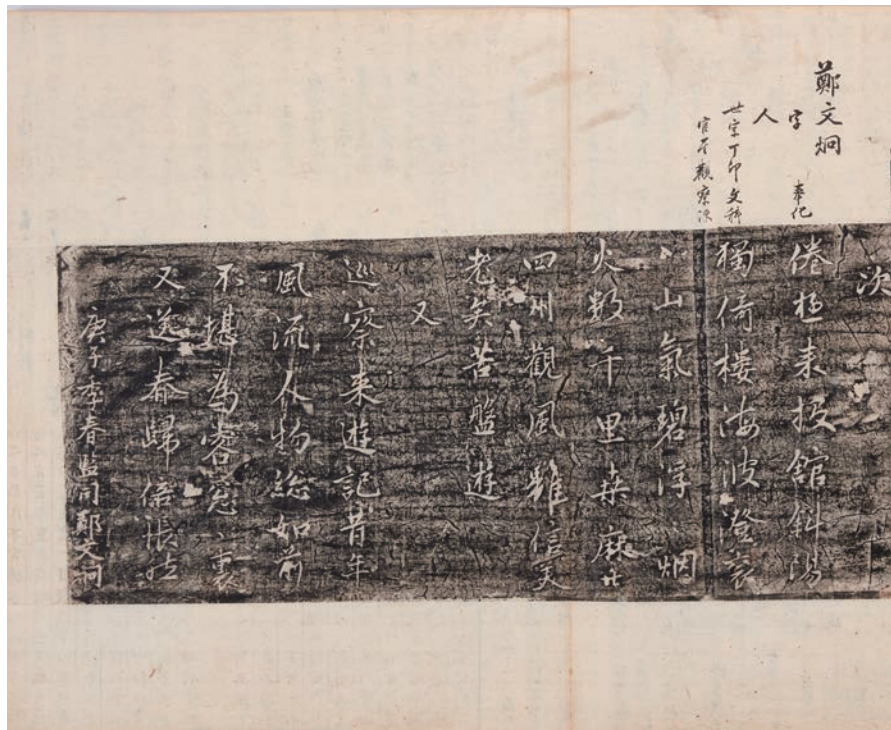
195) 도성(都城) 거리: 원문의 ‘천가(天街)’는 도성의 거리를 말한다.

196) 5구 아래에 “때는 바로 알맞은 중추(仲秋)이다.[時秋正殷仲]”라고 부기(附記)하였다. 『서경書經』 「우서虞書 요전堯典」에 “알맞은 중추가 되면 백성들이 평화롭고 조수(鳥獸)가 털갈이하여 윤택해진다. 以殷仲秋, 厥民夷, 鳥獸毛毳.”라고 하였다.

197) 세상의……없는데: 오복(五福) 가운데 자식이 많은 것이 없다는 뜻이다. 『서경書經』 「홍범洪範」에서 수(壽)·부(富)·강녕(康寧)·유호덕(攸好德)·고종명(考終命)을 오복이라 하였다.

198) 5구 아래에 “관동(關東)에 갔다가 이곳으로 왔으니, 바로 연달아 유람함이다.[適關東來此, 乃連遊.]”라고 부기(附記)하였다. 민수천은 1527년(중종 22) 5월 18일에 강원도 관찰사, 이어서 1527년(중종 22) 6월 5일에 황해도 관찰사에 임명되어 각각 가을에 부임하였다.

199) 『논어論語』에……하였다: 공자가 말하기를 “부모가 살아 계시는 때는 멀리 나가서 노닐지 말고, 나가서 놀더라도 반드시 일정한 장소를 알려야 한다.[父母在, 不遠遊, 遊必有方.]”라고 하였다. 『논어』 「이인리仁」)



字○○[明叔] 奉化人 世宗丁卯文科 官至觀察使

자가 [명숙(明叔)]²⁰¹⁾이고 본관이 봉화(奉化)이다. 세종 정묘년(1447)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관찰사에 이르렀다.

차운

次

매우 지쳐 객관으로 들어와서
석양에 홀로 누대에 기대네
파도가 해맑게 끝이 없고
산 기운이 푸르게 떠 있네
밥 짓는 연기가 수천 리에 이어지고
뽕나무와 삼이 24곳 고을²⁰²⁾에 있네
풍속을 살펴봄이 진실로 아름다워도
늘그막에 여기저기 유람함²⁰³⁾이 괴롭네

倦極來投館
斜陽獨倚樓
海波澄袞袞
山氣碧浮浮
烟火數千里
桑麻廿四州
觀風雖信美
老矣苦盤遊

200) 정문형: 조선전기의 문신으로 병조참판, 우참찬, 황해도 관찰사를 역임했다. 이 시는 정문형이 1480년(성종 11) 3월에 안악 이요루에서 김 수녕(金壽寧, 1436~1473)의 시에 차운하여 지은 시이다.

201) 명숙(明叔): 원문에는 자가 적혀 있지 않으나 다른 기록을 참고하여 보충한 뒤 번역하였다.

202) 24곳 고을: 조선시대에 황해도 고을이 모두 24곳이었다.

203) 여기저기 유람함: 원문의 '반유(盤遊)'는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노니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황해도 여러 고을을 순찰하러 다니는 것을 뜻한다.

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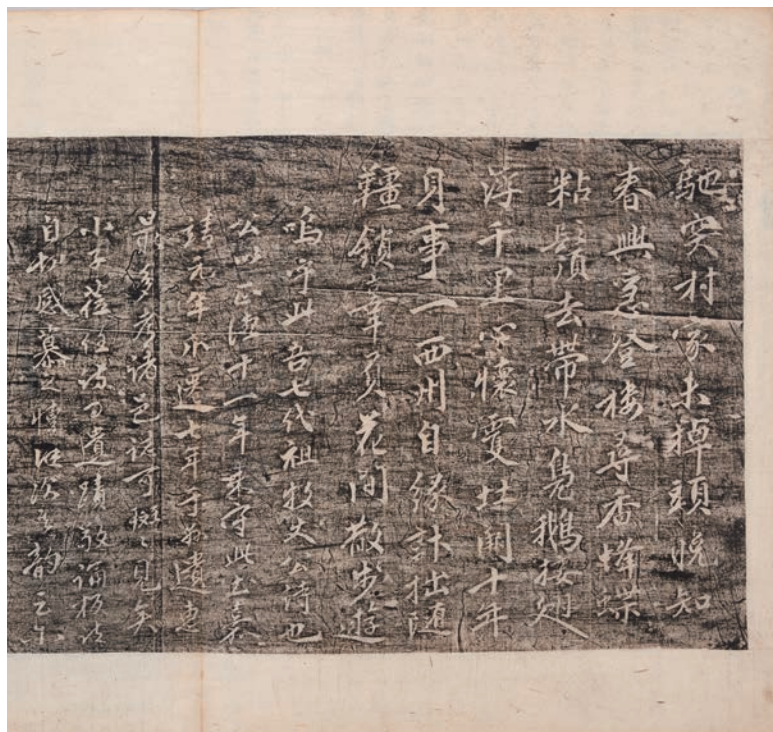
옛날에 순찰 와서 놀던 일이 생각나는데
풍류와 인물이 모두 예전과 같네
나그네 되어 바쁜 것을 견딜 수 없는데
또 가는 봄을 보내니 배나 서글프네

경자년(1480) 계춘 감사(監司) 정문형

又

巡察來遊記昔年
風流人物總如前
不堪爲客恩恩裏
又送春歸倍悵然

庚子季春監司鄭文炯



고개를 내젓지 않고 촌가에 달려갔다가
 뒤늦게 봄의 흥을 알아 급히 누대에 오르네
 향기 찾는 벌과 나비가 꿀을 따서 날아가고
 물에 있는 오리와 거위가 날개를 접고 떠 있네
 천 리 객지에서 마음은 대궐을 그리워하고
 십 년 사이 이 몸이 해서 고을에 있었네
 계책이 부족하고 벼슬의 굴레에 매였기에²⁰⁵⁾
 꽃 사이를 걸으며 유람함을 저버렸네

馳突村家未掉頭
 晚知春興急登樓
 尋香蜂蝶粘鬚去
 帶水鳬鵝接翅浮
 千里心懷臺北闕
 十年身事一西州
 自緣計拙隨韁鎖
 辜負花間散步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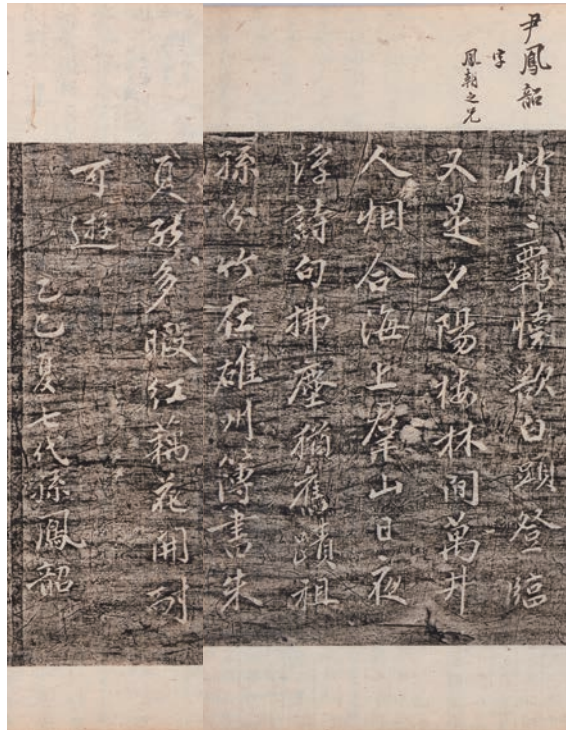
嗚呼 此吾七代祖牧使公詩也 公以正德十一年 來守此土 嘉靖元年瓜遷 七年于茲 遺惠最多 考諸邑誌 可斑斑見矣 小子蒞任 訪問遺蹟 敬誦板詩 自切感慕之懷 謹次其韻云爾

아아! 이 작품은 우리 7대조 목사공(牧使公, 윤탕)의 시이다. 공은 정덕(正德) 11년(1516)에 이 땅에 수령으로 왔다가 가정(嘉靖) 원년(1522)에 임기가 차서 옮겼는데, 7년 동안 여기에서 은혜를 베푼 것이 가장 많았으니, 읍지(邑誌)를 살펴보면 여기저기에서 볼 수 있다. 소자가 임소(任所)로 와서 선조의 유적을 방문하여 삼가 현판의 시를 낭송하니, 스스로 사모하는 마음이 절실하여 삼가 시에 차운할 뿐이다.²⁰⁶⁾

204) 윤탕(尹宕): 원문에 '윤탕(尹宕)'이 없으나 『청구제영靑丘題詠』의 제영시(題詠詩) 저자와 출처 체제에 따라 보충하였다. 윤탕은 윤봉소(尹鳳韶)와 윤봉조(尹鳳朝)의 7대조로, 자가 공작(公綽)이고 본관이 파평(坡平)이다. 조선전기 문신이다. 중종대 정언, 지평, 상주목사 등을 역임했다. 윤탕 이후의 가계도는 윤탕→윤응규(尹應奎)→윤인함(尹仁涵)→윤홍립(尹弘立)→윤유건(尹惟健)→윤비경(尹飛卿)→윤봉소, 윤봉조이다.

205) 계책이……매였기에 : 계책이 부족하여 지방관을 진전했다는 뜻이다. 원문의 '강쇄(韁鎖)'는 명강이쇄(名韁利鎖)의 준말로, 명리(名利)의 굴레를 쓰고 이록(利祿)의 쇠사슬에 묶였다는 뜻이다.

206) 아아……뿐이다 : 윤탕 한시 뒤의 부기(附記)는 윤봉소가 쓴 것이다.



字○○[成甫] 鳳朝之兄

자가 [성보(成甫)]²⁰⁸⁾이고 윤봉조(尹鳳朝)의 형이다.

슬프게도 객지 회포에 백발이 되려 하여
올라옴에 또 석양 무렵 누각이네
숲 사이의 많은 민가에서 밥 짓는 연기가 나고
바다의 여러 산이 밤낮으로 떠 있네
현판 시의 먼지를 터니 선조의 옛날 유묵이고
선조와 후손이 큰 안악 고을을 다스렸네
여름에 문서 살피며 겨를이 많지만
연꽃이 피어도 차마 놀 수 있으랴²⁰⁹⁾

을사년(1725) 여름에 7대손 봉소

悄悄羈懷欲白頭
登臨又是夕陽樓
林間萬井人烟合
海上群山日夜浮
詩句拂塵猶舊蹟
祖孫分竹在雄州
簿書朱夏能多暇
紅藕花開耐可遊

乙巳夏七代孫鳳韶

207) 윤봉소: 윤탕의 후손이다. 영조대 선사도호부사 등을 지낸문신이다. 윤봉소는 1725년(영조 1) 3월 28일에 안악 군수에 임명되어 4월 29일에 임금에게 하직하고 임소로 갔다. 그리고 1726년(영조 2) 9월 17일에 선산 부사에 임명되어 12월 10일에 대궐을 떠났다.

208) 성보(成甫): 원문에는 자가 적혀 있지 않으나 다른 기록을 참고하여 보충한 뒤 번역하였다.

209) 슬프게도……있으랴: 안악 군수 윤봉소가 1725년(영조 1) 5월에 7대조 윤탕의 시에 차운하여 지은 시이다. 원운시는 이세인(李世仁)의 시이다. 윤봉소는 1725년(영조 1) 3월 28일에 안악 군수에 임명되어 4월 29일에 임금에게 하직하고 임소로 갔다. 그리고 1726년(영조 2) 9월 17일에 선산 부사에 임명되어 12월 10일에 대궐을 떠났다.



字鳴叔 號圃巖 坡平人 肅宗乙酉文科 官至判敦寧 文衡

자가 명숙(鳴叔)이고 호가 포암(圃巖)²¹¹⁾이며, 본관이 파평(坡平)이다. 숙종 을유년(1705)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에 이르렀다. 문형(文衡)을 지냈다.

비단으로 감싼 현판²¹²⁾이 머리 위에서 환히 빛나니
백 년의 회포 일어 또 누각에 오르네
연못의 달을 맞이하니 난간에 바람이 불고
산 풍경을 두루 보니 바다 위에 떠 있네
전 군수의 이름이 읍지에 실려 전하고²¹³⁾
후손이 옛 강주²¹⁴⁾에서 사라지지 않으리라
문장이 어찌 모두 동으로 흐르는 물과 함께 흘러가라
오늘 유람하며 옛날에 놀던 것에 견주어 보네

助眼籠紗煥上頭
百年懷抱又登樓
將迎池月欄風在
閱歷山光海色浮
探誌尙傳前令尹
承家不泯古康州
文章豈並東流逝
應有今遊視昔遊

7대손 행직 부제학 윤봉조가 을사년(1725) 겨울에 마침 형의 임소에 도착하여 삼가 시에 차운하다.²¹⁵⁾

七代孫行副提學鳳朝 乙巳冬適到舍兄任所 敬次

210) 윤봉조: 조선후기의 문신으로 지평, 정언, 암행어사 등을 역임하였다. 앞의 제영시 작가인 윤봉소의 아우이다.

211) 포암(圃巖): 원문에는 '포암(圃庵)'으로 되어있으나 잘못이므로 '포암(圃巖)'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212) 비단으로 감싼 휘장: 원문의 '농사(籠紗)'는 '벽사롱(碧紗籠)'과 같은 말로, 귀인(貴人)과 명사(名士)가 지은 시문을 벽에 걸어 놓을 때 먼지가 시문에 묻지 않도록 푸른 비단으로 감싸서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213) 전 군수……전하: 안악군 읍지(邑誌)에 7대조 윤탕(尹宕)의 이름이 실려있음을 말한 것이다. 원문의 '영윤(令尹)'은 지방 수령을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안악 군수 윤탕을 가리킨다.

214) 강주(康州): 안악의 다른 이름이다.

215) 7대손……차운하다: 윤봉조가 1725년(영조 1) 겨울에 안악군에 도착하여 형 윤봉소를 만난 뒤 7대조 윤탕의 시에 차운하였음을 말한 것이다.



號耳溪

호가 이계(耳溪)이다.

악주에서 옛날 일을 생각하다

岳州感古

선조께서 부임했던 이 땅에²¹⁷⁾

吾祖分符地

지금 후손이 관찰사로 왔네

今孫仗節來

선정을 베풀어 천 집을 교화하니²¹⁸⁾

陽春千室化

양산 포구에서 백 년 뒤에도 슬퍼하네²¹⁹⁾

山浦百年哀

선정비에 비각을 새로 짓고

片石新華屋

국화가 낡시터에 의구하네

寒花舊釣臺

부르려 해도 유로들이 모두 죽어

欲招遺老盡

외로운 달과 함께 배회하네

孤月與徘徊

경인년(1770) 국추 관찰사 홍양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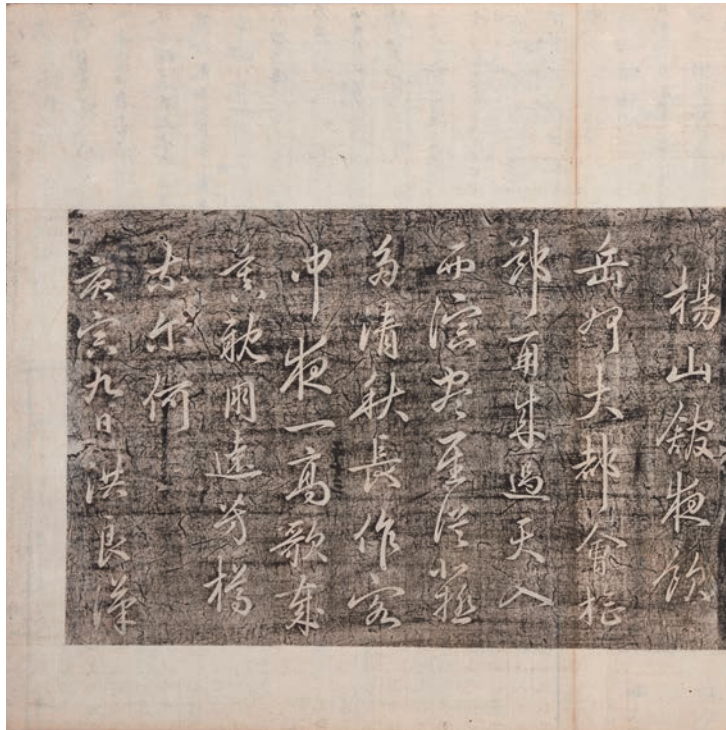
歲庚寅菊秋 觀察使洪良漢

216) 홍양호: 조선 후기 문신이자 문장가로, 본관은 풍산, 자는 한사(漢師), 호는 이계(耳溪)이다. 『청구제영』을 제작한 홍경모의 조부이다. 청나라에 사신으로 몇 차례 다녀오면서 청나라의 학자들과 교류하여 금석문을 중심으로 하는 19세기 학술 발전에 기여하였다. 글씨에 뛰어났으며 시문에 능하였다.

217) 선조께서…땅에: 홍양호의 증조부 홍만회(洪萬恢, 1643~1710)가 안악 군수로 부임하였던 일을 말한다. 홍만회는 1688년(숙종 14) 1월 14일에 안악 군수에 임명되었다가 1689년(영조 45) 인현왕후가 폐위되자 관직에서 물러났다. 홍만회가 떠난 뒤 아전과 백성들이 선정비를 세웠고, 홍양호가 1770년(영조 46) 비각(碑閣)을 건립한 뒤 기문을 지었다. 『이계집』 「안악군 거사비각기安岳郡去思碑閣記」

218) 선정(善政)을…교화하니: 원문의 '양춘(陽春)'은 봄날의 따듯한 햇살 같은 수령의 선정을 비유하는 말이다. 홍만회의 선정을 말한다.

219) 양산…슬퍼하네: 원문의 '산포(山浦)'는 양산의 포구, 곧 홍만회의 선정비가 있는 안악의 포구를 가리키는 듯하다.



양산관에서 밤에 술을 마시다²²⁰⁾

악주는 큰 도회인데
깃발과 부절 들고 다시 왔네
하늘이 서해로 들어 다하고
별들이 북극을 따라 많이 있네
맑은 가을에 오래 나그네가 되어
한밤중에 한바탕 크게 노래하네
세모에 친한 벗과 멀어지니
맛난 술 너를 어찌하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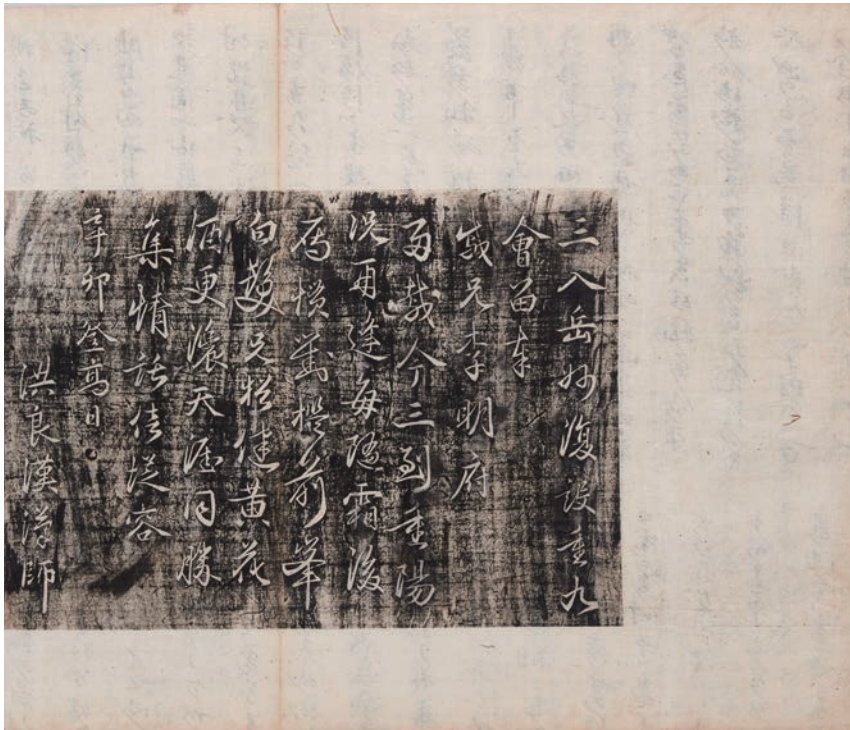
경인년(1770) 9월 홍양한

楊山館夜飲

岳州大都會
旌節再來過
天入西溟盡
星從北極多
清秋長作客
中夜一高歌
歲暮親朋遠
芳樽奈爾何

庚寅九日洪良漢

220) 양산관(楊山館)에서...마시다: 양산관은 황해도 안악 객관의 이름이다. 홍양호가 1770년(영조 46) 9월에 황해도 여러 고을을 순시하다가 안악 객관에 들러 지은 시이다. 『이계집耳溪集』에 실려있지 않다.



세 번 악주에 들어와서 다시 중구의 모임을 열고 시를 지어 인척 형 이명부²²¹⁾에게 올리다²²²⁾

三入岳州 復設重九會 留奉戚兄李明府

2년동안 지금 세 번째 이르러
중양절을 두 번이나 만났네
매번 서리 온 뒤 기러기를 따르고
익숙하게 난간 앞 봉우리를 마주하네
백발의 형이 여전히 건강하고
국화주는 다시 향이 짙네
하늘 끝에서 즐겁게 함께 모여
조용히 아름다운 정담을 나누네

兩載今三到
重陽況再逢
每隨霜後鴈
慣對檻前峰
白髮兄猶健
黃花酒更濃
天涯同勝集
情話佳從容

신묘년(1771) 등고일(登高日, 9월 9일) 홍양한 한사²²³⁾

辛卯登高日 洪良漢漢師

221) 인척 형(姻戚兄) 이명부(李明府): ‘명부(明府)’는 지방관에 대한 경칭(敬稱)이다. 안악 군수를 지낸 이시중(李時中, 1707~1777)으로 보인다. 이시중은 자가 의백(宜伯)이고 호가 현암(弦庵)이며, 본관이 전주이다. 1770년(영조 46)에 안악 군수로 부임하였다.『위암집韋菴集』「백씨 우윤공행장伯氏右尹公行狀」)

222) 세 번…올리다: 홍양호가 1771년(영조 47) 9월 9일에 황해도 여러 고을을 순시하다가 안악 객관에 들러 중구의 잔치를 연 뒤 인척 형 이시중에게 올린 시이다. 홍양호는 1770년(영조 46) 봄에 황해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1770년(영조 46) 가을, 1771년(영조 47) 봄과 가을에 황해도 고을을 순찰하다가 안악에 들른 것으로 보인다. 『이계집』에 실려있지 않다.

223) 한사(漢師): 홍양호의 자(字)이다.



岳州先祖舊莅也 小子忝按本道 巡節凡三到 而舍弟又蒙恩守是郡 奉親爲專城養 余於是請暇來觀 太守備儀 郊迎 回憶辛卯春 以新恩榮到碧城時 同一勝事 莫非國恩也先休也 謹題一律以識

악주는 선조²²⁴⁾가 옛날에 다스렸던 곳이다. 소자가 외람되게도 황해도 관찰사가 되어 고을을 순시하다가 세 번 이곳에 왔었다. 아우가 또 임금의 은혜를 입어 이 안악군을 다스리게 되어 노모를 모시고 전성의 봉양을 하고 있다.²²⁵⁾ 내가 이에 휴가를 청하여 악주에 노모를 뵈러 오니 태수인 아우가 의례를 갖추어 교외에서 맞이하였다. 회고하던대 신묘년(1771) 봄에 아우가 신은²²⁶⁾의 몸으로 벽성에 당도했을 때에도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으니, 나라의 은혜이자 선조의 아름다운 은덕 아님이 없다. 삼가 읍시 1수를 지어 적다²²⁷⁾

224) 선조(先祖): 홍양호의 증조부 홍만회를 말한다.

225) 아우가……있다: 원문의 ‘사제(舍弟)’는 홍양호의 아우 홍명호(洪明浩)를 말한다. 홍명호는 1783년(정조 7) 10월 16일에 안악 군수에 임명되어 부임하였다. 이듬해 3월에 홍양호가 방문하여 노모에게 문안을 드렸는데, 홍명호는 이때 고을의 노인들을 불러 양로연(養老宴)을 베풀었다. ‘전성(專城)의 봉양’은 자식이 고을 수령이 되어 부모를 봉양하는 것을 말한다.

226) 신묘년……신은(新恩): 홍명호가 1771년(영조 47)에 정시 문과 병과에 급제한 일을 말한다. 원문의 ‘신은(新恩)’은 과거에 새로 급제한 사람을 가리킨다.

227) 악주는……적다: 홍양호가 1784년(정조 8) 2월에 안악 군수로 있는 아우 홍명호를 방문한 뒤 지은 시이다. 『이계집』 『악주록岳州錄』에 실려 있는데, 문집에 ‘어시(於是)’가 빠져 있고, ‘근제일률이지(謹題一律以識)’가 ‘시이지지(詩以識之)’로 되어있는 것을 제외하면 모두 같다.

행차가 세 번 해주에 머물렀는데
 세월을 헤아리니 15년이 흘렀네⁽²²⁸⁾
 호수와 산이 분명하게 옛 모습을 드러내고
 노인들이 어지럽게 수레 행차를 둘러싸네
 노모 모시며⁽²²⁹⁾ 임금 은혜 막중함을 다시 깨닫고
 선정 베풀어도 백성 사랑하는 임금께 부끄럽네⁽²³⁰⁾
 옛날에 어사화를 꾀었다가 오늘 인장을 차고서⁽²³¹⁾
 형제가 나란히 함도 선조의 아름다운 은덕이네

檐帷三度駐西州
 屈指天星十五秋
 歷歷湖山呈舊面
 紛紛父老擁行輜
 萊衣更覺君恩重
 棠茇多慚子惠留
 當日簪花今佩印
 弟兄聯武總先休

갑진년(1784) 중춘 도어사 홍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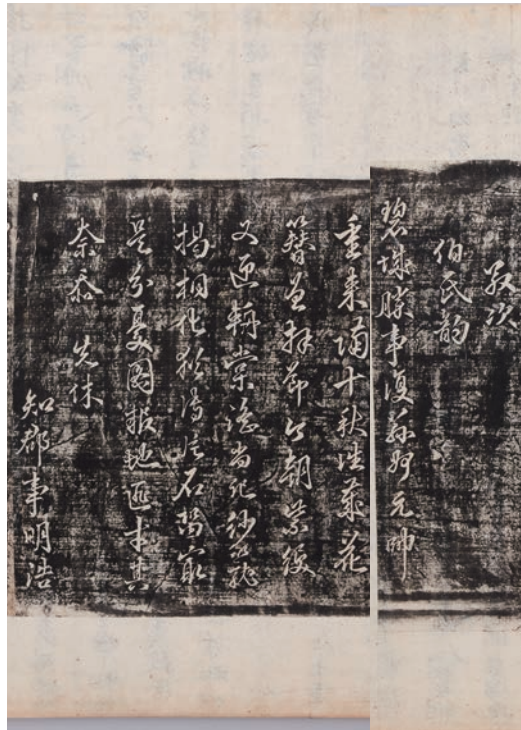
歲甲辰仲春都御史洪良浩

228) 행차가……흘렀네: 홍양호가 1770년(영조 46)에 황해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해주에 세 번 들렀던 적이 있는데, 벌써 15년이 지나 1784년(정조 8)이 되었음을 말한 것이다. 원문의 ‘첨유(檐帷)’는 사방에 휘장을 드리운 수레로, 자사(刺史)의 수레를 가리킨다. 여기에서는 황해도 관찰사로 부임했던 홍양호의 행차를 말한다. 원문의 ‘서주(西州)’는 해서(海西)의 고을, 곧 황해도 해주를 가리킨다.

229) 노모 모시며: 원문의 '내의(萊衣)'는 노래자(老萊子)의 옷으로, 연로한 부모를 모시는 즐거움을 말한다. 춘추시대 초(楚)나라의 노래자는 70세가 되어서도 부모 앞에서 색동옷을 입고 춤을 추면서 부모를 기쁘게 해드렸다. 여기에서는 홍명호가 계모 파평 윤씨를 모시는 즐거움을 표현한 것이다.

230) 선정(善政)……부끄럽네: 지방 수령으로 선정을 베풀어도 백성을 자식처럼 사랑하는 임금의 은덕에 부끄럽다는 뜻이다. 원문의 ‘당발(棠
 芟)’은 주(周)나라 소공(召公)이 팔배나무 밑에서 머물던 공이라는 뜻으로, 지방관의 선정(善政)을 의미한다.

231) 옛날에……차고서: 홍양호가 왕해도 관찰사로 재직하던 1771년(영조 47)에 홍명호가 문과에 급제하여 어사화를 쫓고 방문하였는데, 지금은 안악 군수가 되어 허리에 인장을 찻다는 뜻이다.



삼가 백형의 시에 차운하다

敬次伯氏韻

벽성의 좋은 일이 다시 이 고을에 있어
원수가 10여 년이 지나 다시 왔네²³³⁾
옛날에 어사화 쓰고서 일찍이 숙배했고
오늘에 붉은 인끈 차고서 또 행차하네
감당 노래 여전히 비단에 쌓여 걸려있고²³⁴⁾
동향의 교화가 아직도 선정비에 남아 전해지네²³⁵⁾
군수 되어 나라에 최고로 보답할 땅이니
못난 내가 어찌 선조의 훌륭한 옥보이라

碧城勝事復茲州
元帥重來隔十秋
往歲花簪曾拜節
今朝紫綬又匝轡
棠謠尙記紗籠揭
桐化猶傳片石留
最是分憂圖報地
匪才其奈忝先休

지군사 홍명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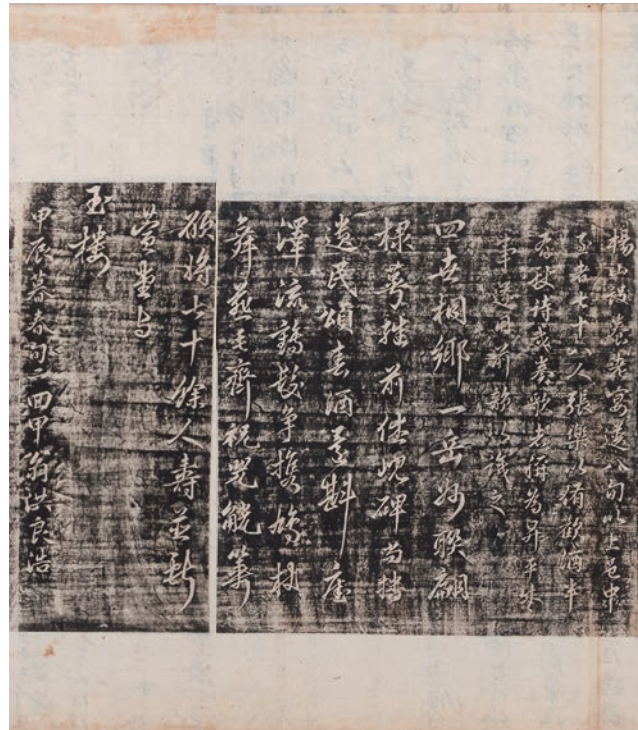
知郡事明浩

232) 홍명호: 홍명호의 아우로, 이 시는 안악 군수로 있던 1784년(정조 8) 봄에 형 홍양호가 지은 앞의 시에 차운하여 지은 작품이다.

233) 벽성(碧城)의……왔네: 원문의 ‘원수(元帥)’는 황해도 관찰사를 역임했던 홍양호를 말한다. 1770년(영조 46)과 1771년(영조 47)에 황해도 관찰사를 지냈던 홍양호가 10여 년이 지난 1784년(정조 8) 봄에 자신의 임소인 안악을 찾아와서 좋은 모임이 있게 되었다는 뜻이다. ‘벽성의 좋은 일’은 홍명호가 과거에 급제하여 관찰사인 형이 머물던 해주를 방문했던 일을 말한다.

234) 감당(甘棠)……걸려있고: 원문의 ‘당요(棠謠)’는 백성들이 소공 석(召公奭)의 선정을 기려 부르던 노래인데, 지방관의 선정을 비유하는 말로 쓰였다. 증조부 홍만회가 선정을 베풀며 지은 시를 현판에 새겨 걸었는데, 여전히 비단으로 감싸서 보관하고 있음을 말한 것이다.

235) 동향(桐鄉)의……전해지네: 주읍(朱邑)의 고사를 빌어 증조부 홍만회가 안악에서 선정을 베풀어 선정비가 여전히 전해지고 있음을 말한 것이다.



楊山設養老宴 選八旬以上 邑中至者七十八人 張樂以侑歡 酒半有獻詩 或奏歌者 稱爲昇平盛事 遂用前韻以識之
 양산에서 양로연을 베풀고 여든 이상 노인을 선발하니, 고을에서 잔치에 온 사람이 78명이었다. 악기를 연주하여 흥을 돋우고 술자리가 무르익자 시를 올리고 간혹 노래하는 이가 있어서 태평 시대의 성대한 일이라고 칭송하였다. 마침내 앞의 운자를 써서 적다²³⁶⁾

사세의 동향이 악주와 같으니²³⁷⁾

형제가 잇달아 선조의 아름다움을 계승하네

현산 비석이 여전히 전해져 백성들이 칭송하고²³⁸⁾

봄날 술을 다시 따라 옛날 은택이 흐르네

백발의 노인들이 다투어 구장²³⁹⁾을 잡고서 춤추고

잔치의 노인들이 일제히 빨간 들어 축수하네

70여 명 노인의 장수를 가져다가

모친 처소와 대궐²⁴⁰⁾에 함께 바치기를 원하네

四世桐鄉一岳州

聯翩棣萼繼前休

峴碑尙播遺民頌

春酒還斟舊澤流

鶴髮爭携鳩杖舞

燕毛齊祝兕觥籌

願將七十餘人壽

並獻萱堂與玉樓

갑진년(1784) 늦봄 12일 회갑을 맞은 노인 홍양호

甲辰暮春旬二 回甲翁洪良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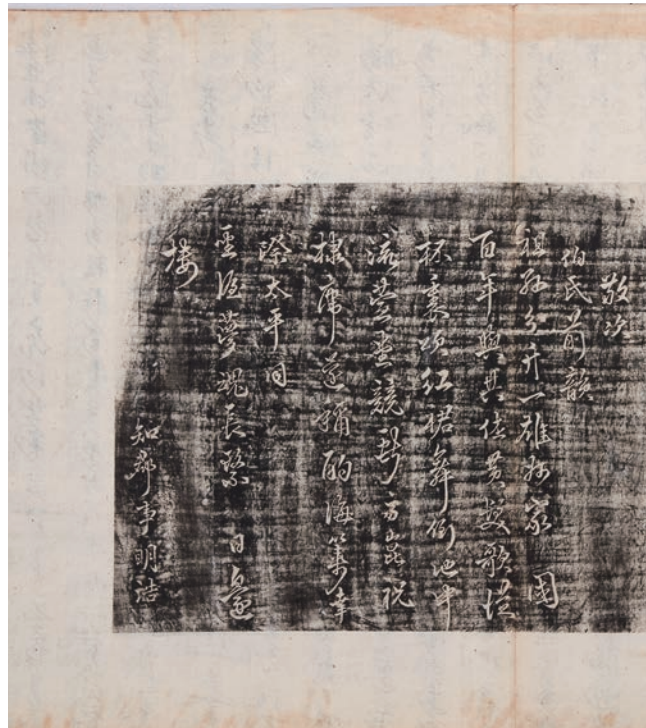
236) 양산(楊山)에……적다: 원문의 ‘양산(楊山)’은 안악의 다른 이름이다. 홍양호가 1784년(정조 8) 봄에 안악 군수 홍명호가 베푼 양로연에서 지은 시이다.

237) 사세(四世)의……같으니: 원문의 ‘동향(桐鄉)’은 안휘성 동성현(桐城縣)에 있는 지명으로, 생전에 선정을 베푼 고을이라는 뜻이다. 여기에서 ‘사세의 동향’은 증조부 홍만회가 안악 군수를 지낸 일을 말한다. 증조부와 조부와 부친과 자신의 대수를 합쳐 사세(四世)라고 한 것이다.

238) 현산(峴山)……칭송하고: 원문의 ‘현비(峴碑)’는 진(晉)나라 때 양양 태수(襄陽太守)로 선정(善政)을 베푼었던 양호(羊祜)의 덕을 사모하여 양양 백성들이 현산(峴山)에 세운 비석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안악 백성들이 세운 홍만회의 선정비를 가리킨다.

239) 구장(鳩杖): 옥구장(玉鳩杖)의 준말로, 나이 70세가 되어 치사(致仕)한 신하에게 내리는 지팡이다.

240) 모친 처소와 대궐: 원문의 ‘원당(萱堂)’은 어머니가 계시는 북당(北堂), ‘옥루(玉樓)’는 임금이 계시는 대궐을 말한다.



삼가 백형의 앞의 시에 차운하다²⁴¹⁾

敬次伯氏前韻

조부와 손자가 큰 고을 안악을 다스려서
집안과 나라가 백 년 동안 함께 아름다웠네
노인들이 노래하며 술잔 올려 칭송하고
기녀들²⁴²⁾이 춤을 추어 연못에 모습이 비치네
형제가 어머니께 장수의 축원을 다투어 올리는데
사람들이 형제²⁴³⁾에게 장수²⁴⁴⁾하라고 도리어 말하네
다행히 태평성대 만나 성은을 함께 입어
꿈속 님이 임금 계신 궁궐²⁴⁵⁾에 오래 묶여 있네

祖孫分竹一雄州
家國百年與共休
黃髮歌從杯裏頌
紅裙舞倒池中流
萱堂競獻齊崑祝
棣席還稱酌海籌
幸際太平同聖渥
夢魂長繫日邊樓

지군사 홍명호

知郡事明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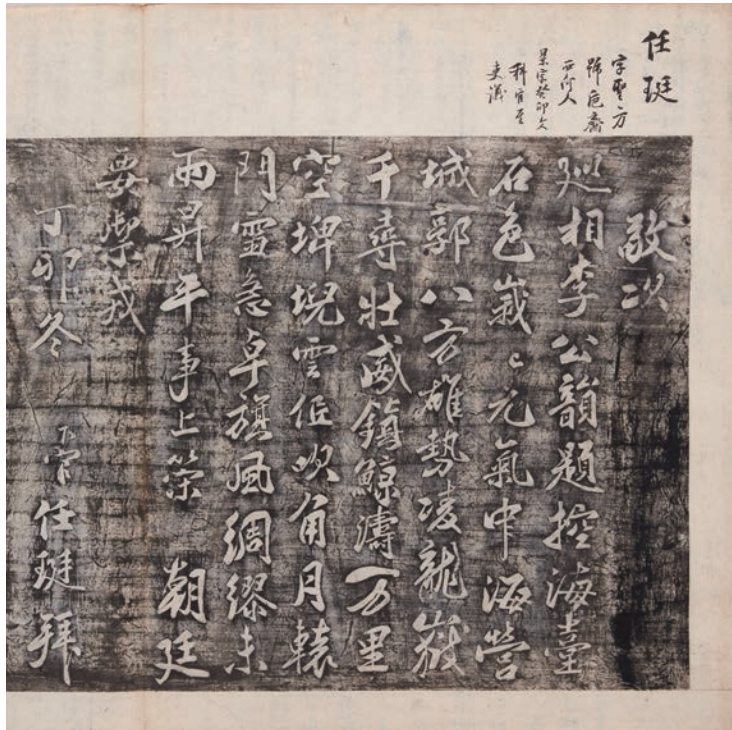
241) 삼가……차운하다: 안악 군수 홍명호가 1784년(정조 8) 봄에 형 홍양호가 지은 앞의 시에 차운하여 지은 작품이다.

242) 기녀들: 원문의 ‘홍군(紅裙)’은 붉은 치마로, 미녀나 기녀를 뜻한다.

243) 형제(兄弟): 원문의 ‘체석(棣席)’은 형제의 자리, 곧 형제를 말한다. ‘체(棣)’는 당체(棠棣)·상체(常棣)로 산앵두나무이다.

244) 장수(長壽): 원문의 ‘해주(海籌)’는 해옥주첩(海屋籌添)의 준말로, 장수를 기원하는 말이다.

245) 임금 계신 궁: 원문의 ‘일변(日邊)’은 궁궐이나 도성을 의미하는 말이다. 동진(東晉)의 명제(明帝)가 어렸을 적에 부왕 원제(元帝)가 장안(長安)과 태양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멀리 있느냐고 묻자, 해가 눈에 보이니 더 가깝다고 대답한 고사가 있다.



字聖方 號扈齋 西河人 景宗癸卯文科 官至吏議

자가 성방(聖方)이고 호가 호재(扈齋)이며, 본관이 서하(西河, 풍천)이다. 경종 계묘년(1723)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이조참의에 이르렀다.

삼가 순상 이공의 시에 차운하여 공해대에서 짓다

敬次巡相李公韻 題控海臺

석성의 모습이 원기 중에 우뚝하니
해서 감영의 성곽은 팔도에서 으뜸이네
형세가 천 길의 장대한 용수산²⁴⁷⁾을 능가하고
위엄이 만 리에 탁 트인 큰 파도를 진압하네
구름 아래 성가퀴에서 달밤에 빨피리를 불고
눈발 날리는 영문에는 바람에 깃발이 우뚝하네
위급하기 전에 방비함²⁴⁸⁾이 태평성대의 일이니
조정에 계책을 올려 오랑캐를 막아야 하네

石色峨峨元氣中
海營城郭八方雄
勢凌龍嶽千尋壯
威鎮鯨濤萬里空
埤堦雲低吹角月
轅門雪急卓旗風
網繆未雨昇平事
上策朝廷要禦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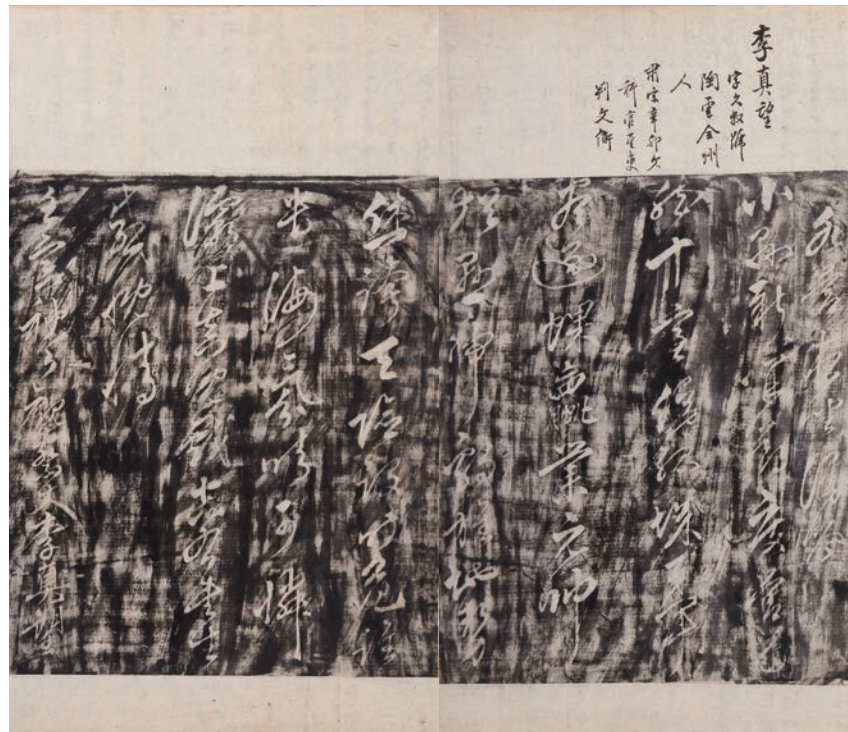
정묘년(1747) 겨울에 하관 임정 올림

丁卯冬 下官任珽拜

246) 임정: 숙종, 영조대 활동한 문신이다. 대사간을 거쳐 1746년(영조 22) 곡산도호부사(谷山都護府使)로 부임했다. 고금의 시가에 능했고 글씨도 뛰어났다고 한다. 이 시는 임정이 1747년(영조 23) 황해도 관찰사 이천보의 시에 차운하여 지은 시이다. 이천보의 원운시는 『진암집』에 실려있지 않다.

247) 용수산(龍首山): 원문의 ‘용악(龍嶽)’은 황해도 해주 북쪽 2리에 있는 진산(鎭山)인 용수산을 말한다.

248) 위급하기 전에 방비함: 원문의 ‘주무미우(綱繆未雨)’는 비가 오기 전에 뽕나무 뿌리를 주워 꼼꼼히 틈을 메운다는 뜻으로, 위험한 사태를 사전에 방비함을 말한다. 『시경』 『빈풍(邇風) 치효(鴟鵂)』에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을 때, 저 뽕나무 뿌리를 주워, 틈과 구멍을 꼼꼼히 엮어 매네. 迨天之未陰雨, 徹彼桑土, 綱繆牖戶.”라고 하였다.



字久叔 號陶雲 全州人 肅宗辛卯文科 官至吏判 文衡

자가 구숙(久叔)이고 호가 도운(陶雲)이며, 본관이 전주(全州)이다. 숙종 신묘년(1711)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이조판서에 이르렀다. 문형을 지냈다.

수영에서 밤에 앉아 공연히 시를 읊다

水營夜坐謾吟

작은 고을에 절도사의 수영을 새로 여니²⁵⁰⁾
 쓸쓸히 열 집의 마을²⁵¹⁾이 외로운 성 곁에 있네
 군사들은 모두 과라의 일²⁵²⁾을 따르고
 원수가 오히려 호표의 깃발을 걸었네
 지세가 천연의 요새라고 자랑하지 말라
 시대가 위태하면 누가 왜구²⁵³⁾를 소탕할까
 가련하게도 파상의 군대는 진실로 아이들 장난이니²⁵⁴⁾
 공연히 서생에게 감탄하는 마음이 있네

小縣新開節度營
 蕭然十室傍孤城
 居軍盡逐蜾蠃業
 元帥猶懸虎豹旌
 地勢休誇天險設
 時危誰遣海氛晴
 可憐灞上眞兒戲
 空有書生感慨情

임인년(1722) 가을 모일 관찰사 이진망

壬寅秋日 觀察使李眞望

249) 이진망: 숙종, 영조대 예조판서, 대제학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영조가 잠저(潛邸)에 있을 때 사부(師傅)였으므로 영조가 극진히 예우하였다고 한다. 이 시는 1722년(경종 2) 가을에 웅진(甕津) 수영에서 지은 시이다. 『도운유집陶雲遺集』에 실려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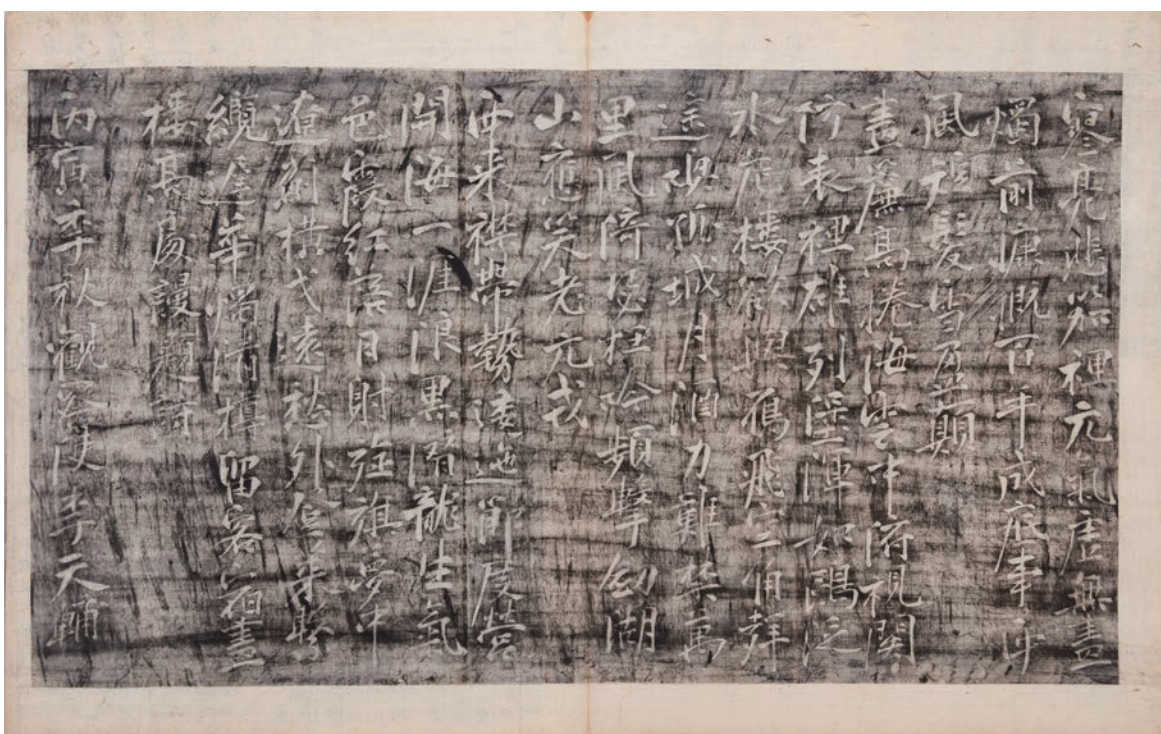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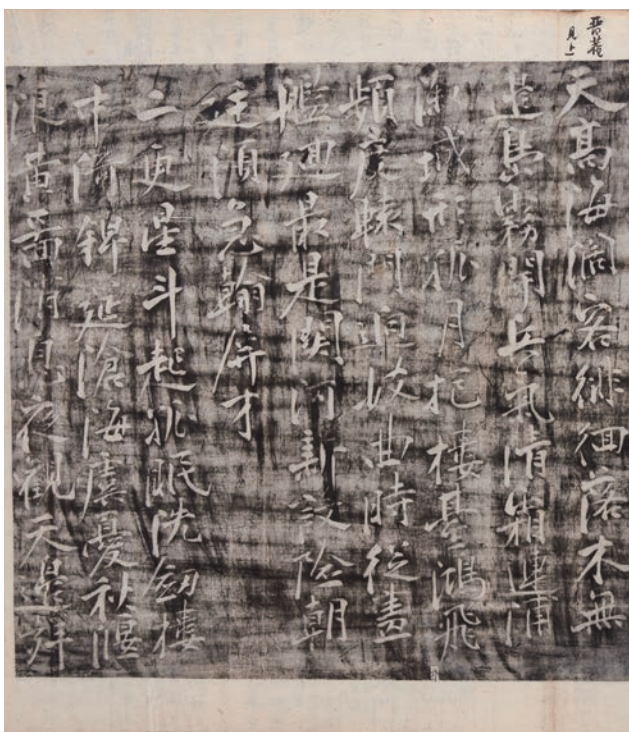
250) 작은……여니: 웅진 수영(水營)은 1718년(숙종 44) 6월 윤개(尹鑑)의 상소로 인하여 1719년(숙종 45)에 새로 개설(開設)하였다.

251) 열 집의 마을: 원문의 '십실(十室)'은 열 집 정도가 사는 작은 마을인데, 여기에서는 황해도 웅진 수영을 말한다.

252) 과라(蜾蠃)의 일: 원문의 '과라(蜾蠃)'는 나나니벌로, 보통 양자(養子)를 취하여 잘 양육하고 교육함을 뜻한다.

253) 왜구(倭寇): 원문의 '해분(海氛)'은 바다에서 나는 요사스러운 기운인데, 왜구의 침략을 지칭하는 말로 쓰인다.

254) 파상(灞上)의……장난이니: 파상의 군대는 군령(軍令)이 엄하지 않은 군대를 말한다.



晉菴 見上

진암[이천보] 앞에 보인다.

하늘 높고 바다 넓은 곳에서 길손이 배회하니
 끝없이 앞이 지고 섬 안개가 걷히네
 서릿발 같은 병사들의 기세가 포구에 이어지고
 달 같은 성의 모습이 누대를 안고 있네
 기러기가 날아 자주 영문을 지나 멀어지고
 기녀의 노래가 때로 배를 따라 돌아오네
 관하에 새로 요새를 설치함이 제일 중요하니
 조정에서 반드시 한병의 인재²⁵⁵⁾를 서둘러야 하네²⁵⁶⁾

天高海濶客徘徊
 落木無邊島霧開
 兵氣清霜連浦激
 城形孤月抱樓臺
 鴻飛頻度轅門迢
 妓曲時從畫艦廻
 最是關河新設險
 朝廷須急翰屏才

이경의 별빛에 외로운 잠을 깨어
 세검루²⁵⁷⁾ 안에서 비단 자리에 기대네
 창해의 근심은 가을에 풍랑이 거센 것이고
 황도의 소식은 밤에 하늘을 살펴 아네
 변방 소리는 슬픈 피리 소리 속에 쓸쓸하고
 타고난 기운은 촛불 앞에서 허무하네
 비분강개하며 평생에 무슨 일을 이루었나
 가을바람에 성근 머리 위에 백발만 가득하네

二更星斗起孤眠
 洗劍樓中倚錦筵
 滄海虞憂秋偃浪
 黃圖消息夜觀天
 邊聲寥亮悲笳裡
 元氣虛無畫燭前
 慷慨百年成底事
 西風短髮雪盈顛

바다 구름 가운데서 주렴을 높이 걷고
 관방을 굽어보니 안팎이 웅장하네
 늘어선 보루는 온통 물 위에 떠 있는 갈매기 같고
 높은 누각은 기러기와 함께 공중으로 날아갈 듯하네
 뿔피리 소리가 멀리 외로운 성 위의 달을 부르고
 술기운은 만 리에서 불어오는 바람도 금하기 어렵네
 비파에 기대 미친 듯 읊다가 자주 칼을 두드리니
 호수와 산이 응당 늙은 원수를 비웃으리

畫簾高捲海雲中
 俯視關防表裡雄
 列堡渾如鷗泛水
 危樓欲與鴈飛空
 角聲遙喚孤城月
 酒力難禁萬里風
 倚瑟狂吟頻擊劍
 湖山應笑老元戎

해서에 오니 산하²⁵⁸⁾의 형세가 구불구불하고
 절도사 수영이 바닷가 한쪽 끝에 열려있네
 잠룡의 검은 물결이 노한 물결 일으키고
 석양의 붉은 노을이 깃발을 비추네
 꿈속에 멀리 요동과 계주에서 창을 비껴들고
 시름겨워 등주와 내주로 가는 닻줄을 더디게 매네
 촛불과 맑은 술이 나그네를 머물러 묵게 하니
 화려한 누각 높은 곳에서 공연히 시만 쓰네

西來襟帶勢逶迤
 節度營開海一涯
 浪黑潛龍生氣色
 霞紅落日射旌旗
 夢中遼薊橫戈遠
 愁外登萊繫纜遲
 華燭清樽留客宿
 畫樓高處謾題詩

병인년(1746) 계추 관찰사 이천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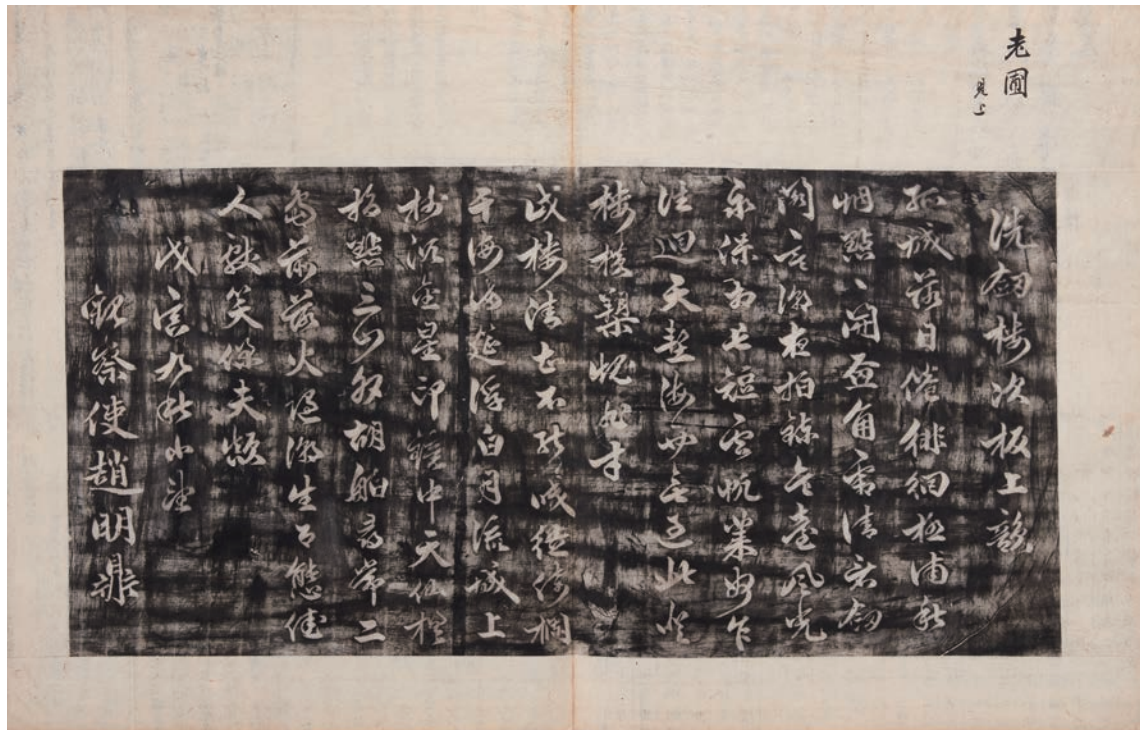
丙寅季秋 觀察使李天輔

255) 한병(翰屏)의 인재: 원문의 '한병(翰屏)'은 병풍과 기둥으로, 나라를 지켜주는 뛰어난 인재나 의지처를 말한다.

256) 하늘……하네: 황해도 관찰사 이천보가 1746년(영조 22) 9월에 황해도 웅진(襄津) 수영(水營)에서 지은 시이다.

257) 세검루(洗劍樓): 황해도 웅진 수영 안에 있던 누각으로, 바닷가 절벽에 자리하여 풍광이 매우 아름답다.

258) 산하(山河): 원문의 '금대(襟帶)'는 '산하금대(山河襟帶)'의 준말로, 산이 옷깃처럼 두르고 강이 띠처럼 돌아 흐르는 지형, 곧 요충지(要衝地)가 되는 지세를 말한다.



老圃 見上

노포[조명정] 앞에 보인다.

세검루에서 현판 위의 시에 차운하다²⁵⁹⁾

洗劍樓次板上韻

외로운 성에서 석양에 천천히 배회하니
 먼 포구가 가을 안개 속에서 점점이 열리네
 뿔피리 소리가 검을 보며 술 마시는 누각에 서리처럼 맑고
 찬 파도가 병사를 조련하는 누대를 밤에 때리네
 풍경이 영보정²⁶⁰⁾과 자웅을 겨루고
 돛단배가 내주²⁶¹⁾를 잠깐 사이에 오가네
 해서의 천해 요새는 여기보다 나은 곳이 없는데
 누대에 올라 창을 잡음에 재주 없어 부끄럽네

孤城落日倦徘徊
 極浦秋烟點點開
 畫角霜清看劍閣
 寒潮夜拍鍊兵臺
 風光永保相長短
 雲帆萊州乍往廻
 天塹海西無過此
 登樓橫槊愧非才

259) 이 시는 황해도 관찰사 조명정이 1758년(영조 34) 9월 14일에 옹진(甕津) 세검루에서 이천보의 시에 차운하여 지은 시이다. 이천보의 원운 시는 앞의 탁본이다. 『도운유집陶雲遺集』에 실려있지 않다.

260) 영보정(永保亭): 오늘날의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에 있었던 충청도 보령(保寧) 수영성(水營城) 안의 정자이다. 풍경이 매우 아름다웠다고 하며, 박은(朴聞)이 「영보정永保亭」 시를 지어 명성을 더욱 떨쳤다.

261) 내주(萊州): 오늘날의 산둥성(山東省) 내주시(萊州市) 지역으로, 등주(登州)에서 해안을 따라 서남쪽에 위치한다.

수루가 매우 맑아 잠을 이루지 못하여
 난간에 가서 기대니 바다가 자리에 가득하네
 흰 달이 떠서 성 위의 나무 위로 흐르고
 누런 별이 비쳐서 거울 같은 물에 있네
 사신의 뗏목이 삼산도²⁶²⁾ 너머를 가리키고
 오랑캐 선박이 이도²⁶³⁾ 앞을 평소에 오가네
 떨어지는 불꽃²⁶⁴⁾이 파도 따라 온갖 모습 생기는데
 미인이 웃음 짓자 마부가 자빠지네

戍樓清甚不能眠
 徙倚欄干海滿筵
 浮白月流城上樹
 沈金星印鏡中天
 仙槎指點三山外
 胡舶尋常二島前
 落火隨潮生百態
 佳人獻笑僕夫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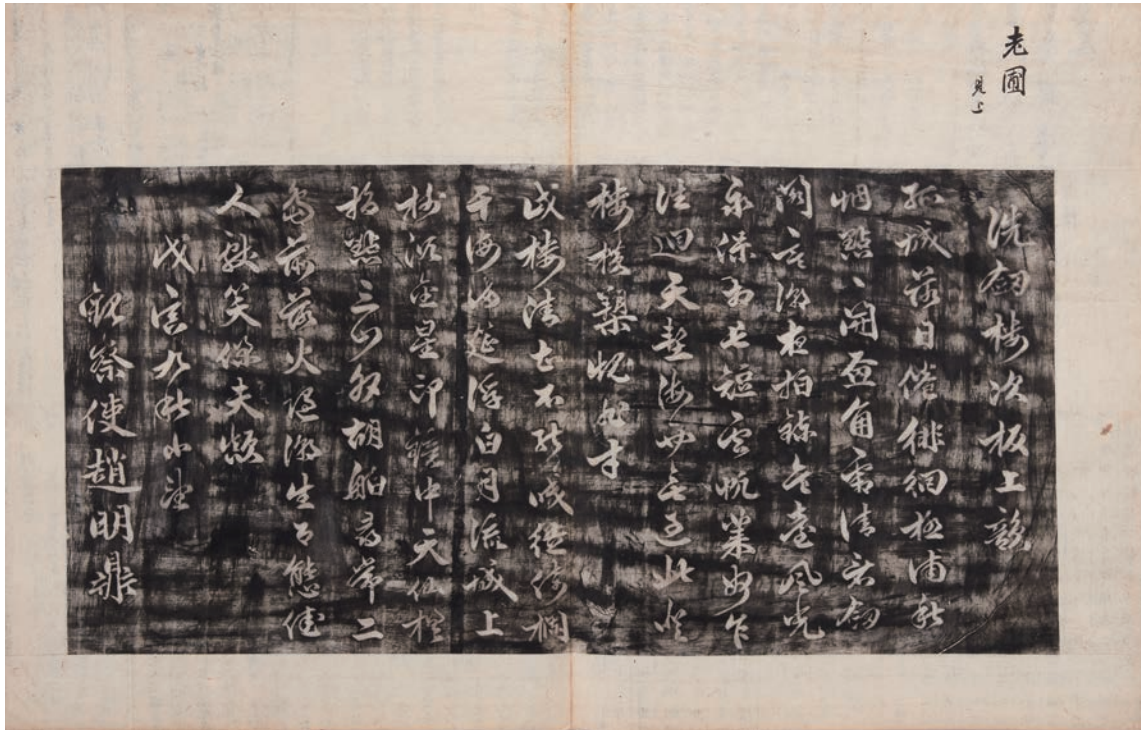
무인년(1758) 9월 소망(小望, 14일) 관찰사 조명정

戊寅九秋小望 觀察使趙明鼎

262) 삼산도(三山島): 조선 시대에 해로(海路)로 북경에 가는 도중에 있는 섬으로, 정자산(亭子山)과 평도(平島)의 사이에 있다.

263) 이도(二島): 일본의 일기도(壹岐島)와 대마도(對馬島)를 가리키는 듯하나 정확하지 않다.

264) 떨어지는 불꽃: 원문의 '낙화(落火)'는 옛날의 불꽃놀이(의 한 가지이다. 뽕나무 숯을 가루로 뽕아서 봉지에 넣어 여러 갈래로 뽕은 줄에다 매달아 놓고 불을 붙이면 불꽃은 숯가루가 떨어지면서 밤하늘에 장관을 이룬다.



字君受 號保晚齋 達城人 英宗甲戌文科 官至輔國判府事 文衡卜相

자가 군수(君受)이고 호가 보만재(保晚齋)²⁶⁶⁾이며, 본관이 달성(達城, 대구)이다. 영조 갑술년(1754)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대광보국승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에 이르렀다. 문형(文衡)을 지내고 정승 후보에 뽑혔다.

세검루가 토루 꼭대기에 드높아
해방의 명승이 나라 서쪽 가에 있네
산이 포구를 감싸 온통 진과 같고
파도가 영문에 이르러 절로 연못이 되었네
병사들이 활을 당기자 별처럼 땅에 어지럽고
원수가 갑옷을 입고서 밤에 하늘을 살피네
태평할 때 조정 계책은 대비²⁶⁷⁾를 먼저 하니
이웃 나라 물고기 잡는 배를 겁내지 않아도 되네

洗劍樓高土壘巔
海防形勝國西邊
山圍浦激渾如陣
潮到轅門自作淵
戍卒調弓星錯地
元戎整甲夜看天
時平廟算先陰雨
不怕隣疆漁採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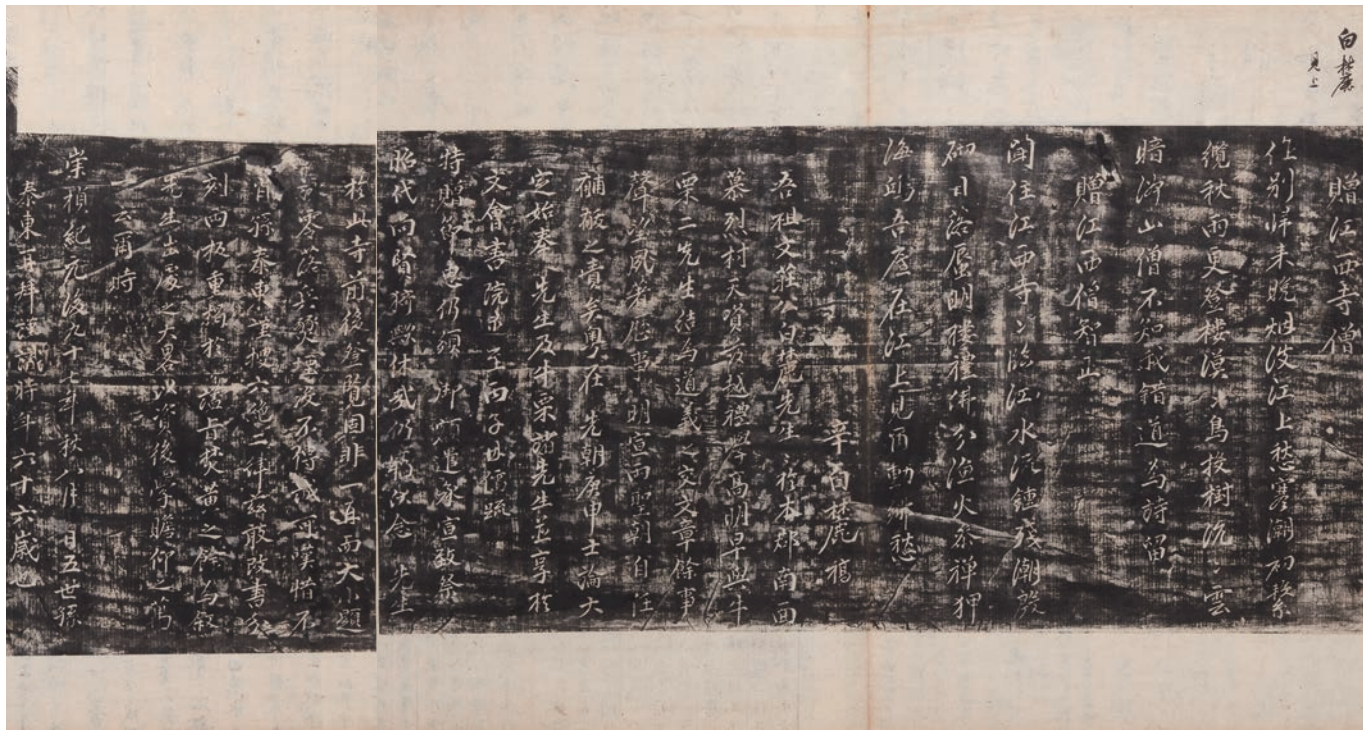
관찰사 서명응

觀察使徐命膺

265) 서명응: 영조, 정조대 활약한 문신이다. 보만재라는 호는 정조로부터 내려받은 것이다. 대제학, 정승반열에 올랐으며 박학강기(博學強記)로 이름났고 역학(易學)에도 조예가 깊었다. 북학파의 비조(鼻祖)로 일컬어지며 이용후생(利用厚生)을 추구하는 학풍은 아들 서호수, 손자 서유구로 이어졌다. 이 시는 서명응이 황해도 관찰사로 있을 때 1762년(영조 38) 옹진의 세검루에서 지은시이지만, 문집인 『보만재총서』에는 실려있지 않다.

266) 보만재(保晚齋): 원문에는 ‘보만재(葆晚齋)’로 되어있으나 잘못이므로 ‘사언(保晚齋)’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267) 대비(對備): 원문의 ‘음우(陰雨)’는 비가 오기 전에 대비한다는 ‘음우지비(陰雨之備)’의 준말로, 국가의 비상사태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뜻이다. 『시경』 「빈풍幽風 치호鷗鴂」에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을 때, 저 뽕나무 뿌리를 주워, 틈과 구멍을 꼼꼼히 엮어매네.[迨天之未陰雨, 徹彼桑土, 綢繆牖戶.]”라고 하였다.



白麓 見上

백록[신응시], 앞에 보인다.

강서사²⁶⁸⁾ 승려에게 시를 주다²⁶⁹⁾

헤어져서 저물녘에 돌아와
안개 낀 강가에서 걱정하네
찬 파도에 막 닻줄을 매고
가을비에 다시 누각에 오르네
아득히 새들이 숲에 깃들고
침침하게 구름이 모래섬에 어둡네
산사의 중이 나를 몰라서
시를 지어 달라고 잘못 말하네

贈江西寺僧

作別歸來晚
烟波江上愁
寒潮初繫纜
秋雨更登樓
漠漠鳥投樹
沈沈雲暗洲
山僧不知我
錯道爲詩留

268) 강서사(江西寺): 황해도 배천 동쪽 광정도(匡正渡) 옆의 운달산(雲達山)에 있으며, 건불사(見佛寺)·영운사(靈雲寺)·영은사(靈隱寺)라고 부르기도 한다. 오늘날의 황해도 연백군(延白郡) 운산면(雲山面) 강서리(江西里)에 있다. 예성강(禮成江) 서쪽에 있어 강서사라고 이름을 지었다. 도선(道銑)이 창건하였고, 고려 때에 혜소(惠素)가 주지로 머물러 김부식(金富弼)을 비롯한 많은 문인이 자주 찾았다. 임진왜란 때에 사찰이 불에 타자 중수하였고 이후 여러 차례 중수하였다.

269) 강서사……주다: 신응시가 배천 강서사에서 지은 시이다. 『백록유고』에 제목이 「강서사에서 승려에게 시를 주다 江西寺贈僧」로 되어있다.

듣건대 강서사에 머물고
 절이 강물에 임해 있다고 하네
 종소리가 잦아들어 파도 소리 섬돌에 크게 들리고
 해가 저서 신기루가 누각에 밝네
 예불하니 고깃배의 불빛이 분명하고
 참선한 뒤 바다의 갈매기와 노니네
 우리 집이 강가에 있어서
 그대를 보면 향수가 일어나네

聞住江西寺
 寺臨江水流
 鍾殘潮殷砌
 日落蜃明樓
 禮佛分漁火
 參禪狎海鷗
 吾廬在江上
 見爾動鄉愁

신백록의 시고

辛白麓稿

吾祖文莊公白麓先生 生於本郡南面慕烈村 天資發越 禮學高明 早與牛栗二先生 結爲道義之交 文章餘事 聲望夙著 歷事明宣兩聖朝 自任黼黻之責矣 粵在先朝庚申 士論大定 始奉先生及牛栗諸先生 並享於文會書院 逮至丙子 因儒疎 特贈節惠 仍頒御額 遣承宣致祭 昭代尙賢 猗歟休哉 仍竊伏念 先生於此寺 前後登覽 固非一再而大小題詠 零落兵燹 湮沒不傳 誠可嘆惜 不肖孫泰東謹搜六絕二律 茲敢改書 分刻兩板重揭 於謚旨焚黃之餘 爲紱先生出處之大略 以資後學瞻仰之萬一云爾 時崇禎紀元後九十七年秋八月日 五世孫泰東再拜謹識 時年六十六歲也

우리 선조 문장공(文莊公) 백록(白麓) 선생은 본군(本郡, 배천군) 남면(南面) 모열촌(慕烈村)에서 태어났다. 타고난 자질이 뛰어나고 예학(禮學)이 고명(高明)하여 일찍이 우계(牛溪, 성혼)와 율곡(栗谷, 이이) 두 선생과 도의(道義)의 사림을 맺었고, 문장(文章)이 여사였으나 명성이 일찍부터 드러났으며, 명종(明宗)과 선조(宣祖) 두 성군을 섬겨 보불(黼黻)의 책무²⁷¹⁾를 자임하였다.

옛날에 선조(先朝, 숙종) 경신년(1680)에 사론(士論)이 크게 정해져서 비로소 선생 및 우계·율곡 여러 선생을 받들어 나란히 문회서원(文會書院)²⁷²⁾에 제향하였다. 병자년(1696)에 이르러 유림의 상소로 인하여 특별히 절혜(節惠, 시호)를 추증하고 이어서 어필(御筆) 편액을 내리고 승선(承宣, 승지)을 보내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²⁷³⁾ 태평성대에 현인을 숭상함이 아름답고도 아름답다.

마음속으로 생각건대 선생이 이 절에 전후에 올라 유람한 것이 진실로 한두 번이 아니지만 길고 짧은 제영(題詠)이 전쟁통에 사라져서 전해지지 않으니, 진실로 한스럽고 애석하다. 불초한 후손 신태동(申泰東, 1659~1729)이 삼가 절구(絕句) 6수와 율시(律詩) 2수를 찾아 감히 고쳐 쓰고 두 개의 목판에 나누어 새겨 다시 걸었다. 시호(謚號)를 내리는 교지를 분황(焚黃)²⁷⁴⁾한 뒤에 선생 출처(出處)의 대략을 서술하여 후학(後學)이 만에 하나라도 우러러보는 바탕으로 삼을 뿐이다. 숭정(崇禎) 기원후(紀元後) 97년(1724) 8월 모일(某日)에 5대손 신태동이 재배하고 삼가 글을 쓰다. 이때 나이가 66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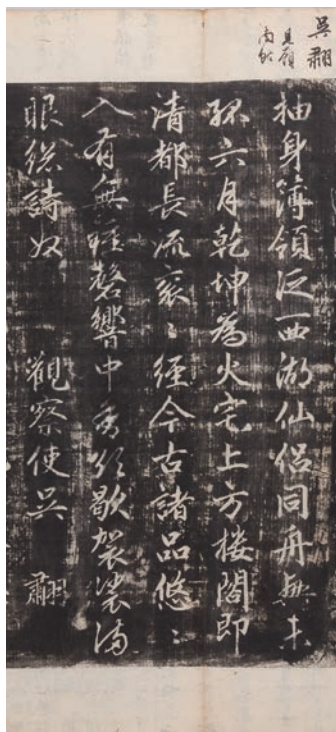
270) 강서사의……주다: 신응시가 배천 강서사의 승려 지정(智正)에게 준 시이다. 『백록유고』에 제목이 「강서사의 승려 지정에게 시를 주다[贈江西寺僧智正]」로 되어있다.

271) 보불(黼黻)의 책무: 임금을 보필하는 훌륭한 신하의 책무를 말한다. 보불은 옛날 임금의 대례복(大禮服)에 놓은 수를 말한다. 보(黼)는 도끼 모양의 흑백색 수이고, 불(黻)은 아자(亞字) 모양의 흑청색(黑靑色) 수이다.

272) 문회서원(文會書院): 황해도 배천군 치악산 기슭에 있는 서원이다. 선조(宣祖)가 1568년(선조 1)에 문회서원이라는 편액을 내렸으나 1592년(선조 25)에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었다. 1606년(선조 35)에 중건하였다. 1868년(고종 5) 이후 실시된 서원철폐령 때에도 훼손되지 않고 존속한 47개 서원중의 하나이다.

273) 병자년에……하였다: 원문에는 ‘병자년(1696)’으로 되어있으나 『숙종실록』과 『열성어제列聖御製』에는 정축년(1697)으로 되어있다. 숙종은 1697년(숙종 23) 10월 1일에 황해도 배천 유생(儒生) 신질(辛晳) 등이 상소하여 관청에서 희생과 폐백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자, 문회서원의 편액을 써서 내리고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274) 분황(焚黃): 죽은 사람에게 관직이 추증될 경우, 예조에서 사령장(辭令狀)과 황색 종이에 쓴 사령장 부분(副本)을 주면 자손이 추증된 선조의 묘소 앞에서 이를 고하고 황색 종이의 부분을 불태우는 의식을 말한다.



見嶺南帖
영남첩에 보인다.

문서에서 몸을 빼내 서쪽 호수에 가서
신선들과 배를 함께 타니 흥이 외롭지 않네
유월의 천지는 불난 집이 되고
절간의 누각이 바로 천상의 궁전이네
긴 강이 끊임없이 고금에 흐르고
만물이 아득히 유무의 세계로 들어가네
범종과 풍경 소리 속에 향불이 꺼지려 하고
눈 가득한 승려들이 모두 시의 노예²⁷⁵⁾이네²⁷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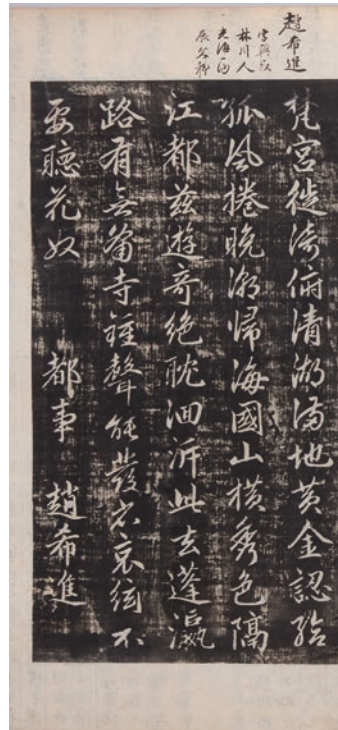
抽身簿領泛西湖
仙侶同舟興未孤
六月乾坤爲火宅
上方樓閣卽清都
長流袞袞經今古
諸品悠悠入有無
鍾磬響中香欲歇
袈裟滿眼總詩奴

관찰사 오숙

觀察使吳翹

275) 시(詩)의 노예: 원문의 ‘시노(詩奴)’는 스스로 문자를 써서 시를 짓지 못하고 시의 격률(格律) 등에 구애를 받아 시를 짓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승려들의 시격(詩格)이 떨어짐을 말하였다. 한유(韓愈)가 일찍이 가도(賈島)와 무가(無加)의 시가 뛰어나다고 칭찬했는데, 소식(蘇軾)은 도통(道通)에게 지어준 「증시승도통贈詩僧道通」 시에서 “한공에게 가벼이 인정하지 말라고 전하라, 지금부터 가도와 무가는 시노일 뿐이네.[爲報韓公莫輕許, 從今島可是詩奴.]”라고 하였다. 도가(島可)는 당(唐)나라 때의 시인 가도(賈島)와 시승(詩僧) 무가(無可)를 합친 말이다.

276) 문서에서……노예이네: 황해도 관찰사 오숙이 1634년(인조 12) 6월에 배천 강서사에서 지은 시이다. 오숙은 1633년(인조 11) 8월에 황해도 관찰사에 임명되고 1634년(인조 12) 가을에 병으로 교체되었다.



字與叔 林川人 光海丙辰文科

자가 여숙(與叔)이고 본관이 임천(林川)이다. 광해군 병진년(1616)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절간에 기대어 맑은 호수를 굽어보고
 황금이 땅에 가득하여 사찰임을 알겠네²⁷⁸⁾
 바람이 저녁 파도를 말아 바다로 돌아가고
 산이 멋진 경치를 가로질러 강화도 건너에 있네
 이곳 유람 매우 좋아 물을 거슬러 올라가지만
 여기 떠나 봉래산과 영주로 가는 길이 있을까
 절간의 종소리가 성찰하게 하는데
 애절한 가락에 같고 소리²⁷⁹⁾를 들을 필요가 없네

梵宮徙倚俯清湖
 滿地黃金認給孤
 風捲晚潮歸海國
 山橫秀色隔江都
 茲遊奇絕耽洄泝
 此去蓬瀛路有無
 蕭寺鍾聲能發省
 哀絃不要聽花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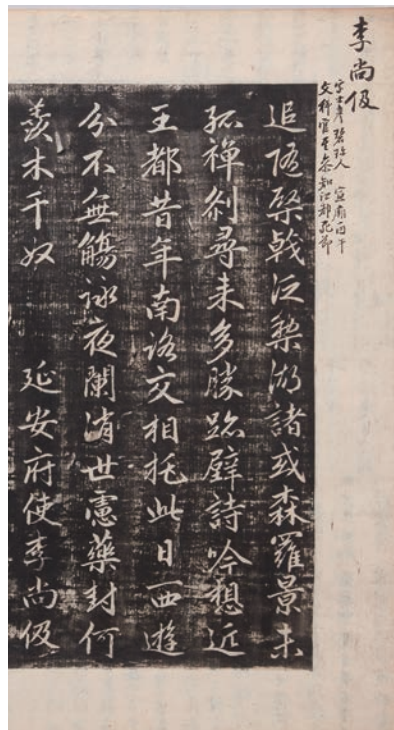
도사(都事) 조희진

都事 趙希進

277) 조희진: 광해군, 인조대 성균관 직강, 공조정랑, 군자감, 청송부사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이 시는 조희진이 황대호 배천 강서사에서 지은 시로 되어 있으나, 시기는 미상이다.

278) 황금(黃金)이……알겠네: 원문의 ‘금고(給孤)’는 기수금고독원(祇樹給孤獨園)의 준말로, 사원의 다른 이름이다. 옛날에 인도(印度)의 사위성(舍衛城)에 보시를 잘하는 장자(長者)가 있어서 사람들이 금고독장자(給孤獨長者)라고 불렀다. 이 사람이 부처의 설법을 듣고 감동하여 정사(精舍)를 세워 부처를 모시고자 하였는데, 정사를 세우기에 적당한 땅은 서다태자(逝多太子)가 소유한 지역뿐이었다. 그래서 그곳을 사려고 하자, 태자가 말하기를 “그 지역에 금을 모두 갈아놓으면 팔겠다.”라고 하였다. 이에 장자가 보관하고 있던 금을 모두 꺼내어 팔자, 태자가 성의에 감동하여 땅을 회사해 정사를 지었다.『불국기佛國記』

279) 갈고(羯鼓) 소리: 갈고는 장고와 비슷한 타악기이다. 원문의 ‘화노(花奴)’는 본래 당(唐)나라 현종(玄宗) 때 갈고를 잘 쳤던 여남왕(汝南王) 이진(李璣)의 이름이었다. 이로 인하여 후대에 갈고를 화노고(花奴鼓)라고 불렀다.



字思彦 碧珍人 宣廟丙午文科 官至參知 江都死節

자가 사언(思彦)²⁸¹⁾이고 본관이 벽진(碧珍)이다. 선조 병오년(1606)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참지(參知)에 이르렀다. 강도(江都, 강화)에서 순절(殉節)하였다.

계극²⁸²⁾을 뒤따라 이호²⁸³⁾에 배를 띄우니
삼라만상의 경관이 외롭지 않네
사찰을 찾아오니 이름난 고적이 많고
벽의 시를 읊조리니 도성이 가깝네
옛날에 남쪽 길에서 사귀며 의기투합했고
오늘 해서에서 노닐어도 헤어지게 되리라
밤 깊도록 술과 시를 즐겨 세상 근심이 사라지니
천 그루 감굴나무²⁸⁴⁾ 있으면 어찌 약을 부러워하라

追隨榮戟泛梨湖
諸或森羅景未孤
禪刹尋來多勝跡
壁詩吟想近王都
昔年南路交相托
此日西遊分不無
觴詠夜闌消世慮
藥封何羨木千奴

연안 부사 이상급

延安府使 李尙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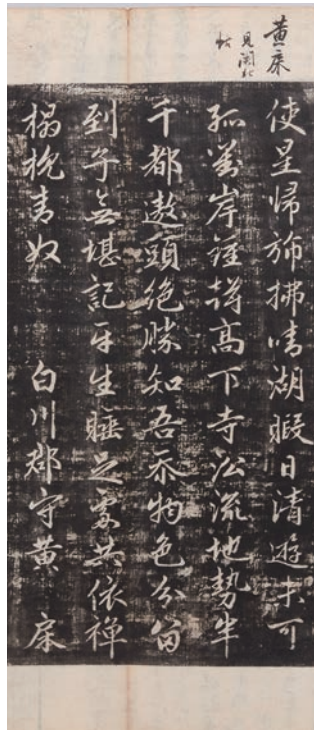
280) 이상급: 단천군수, 연안부사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병자호란이 발발했을 당시 인조를 호종하여 남한산성으로 들어갔다. 강화도로 묘사를 받들고 들어간 형 이상길을 찾아가다가 도중에 적병에 의해 살해당했다. 이 시는 이상급이 1634년(인조 12) 6월에 배천 강서사에서 황해도 관찰사 오숙(吳翹)의 시에 차운하여 지은 시이다.

281) 사언(思彦): 원문에는 '사언(士彦)'으로 되어있으나 잘못이므로 '사언(思彦)'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282) 계극(榮戟): 붉은 비단으로 싸거나 칠을 한 나무 창이다. 고대에 관리들이 사용했던 의장(儀仗)으로 출행할 때 앞에서 길을 인도하였는데 후 세에도 문 앞에 세워 놓았다. 『한서漢書』 「한연수전韓延壽傳」에 “공조(工曹)의 수레는 모두 네 필의 말이 끌고 계극을 싣었다.”라고 하였다.

283) 이호(梨湖): 황해도 배천에 있는 이포진(梨浦津)으로 보인다. 이포진은 배천 읍치(邑治)에서 동쪽으로 20리 지점에 있는데, 여현진(礪峴鎭)으로 통한다.

284) 천 그루 감굴나무: 원문의 '목천노(木千奴)'는 '천두목노(千頭木奴)'와 같은 말로, 천 그루의 감굴나무를 말한다. 삼국시대 오(吳)나라의 단양 태수(丹陽太守) 이형(李衡)이 일찍이 감굴 1천 그루를 심어 놓고, 임종할 때 자식에게 당부하기를 “네 모친이 내가 치산(治産)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곤궁해졌다. 그러나 내가 범주 가에 감굴나무 천 그루를 심어 놓았으니, 너에게 의식은 책임지게 하지 않을 것이다. [汝母惡我治家, 故窮如是. 吾州里有千頭木奴, 不責汝衣食.]”라고 하였다. 『삼국지三國志』 「오서삼사주전吳書三嗣主傳」)



見關北帖

관북첩에 보인다.

관리의 돌아가는 깃발이 맑은 호수를 스치고
한가한 날 맑은 유람이 외롭지 않네
언덕 너머 종소리가 위아래 절에서 들려오고
물길 따라 지세가 오백 년 도읍으로 이어지네
나는 욕되게도 군수²⁸⁵가 되어 명승을 알고
그대가 없어도 남겨 놓은 풍경²⁸⁶이 이르네
평생에 잠이 족한 곳을 기억할 만하니
함께 선방에 기대 죽부인²⁸⁷을 베고 있네²⁸⁸

使星歸旆拂晴湖
暇日清遊未可孤
對岸鍾聲高下寺
沿流地勢半千都
遨頭絕勝知吾忝
物色分留到子無
堪記平生睡足處
共依禪榻枕青奴

백천 군수 황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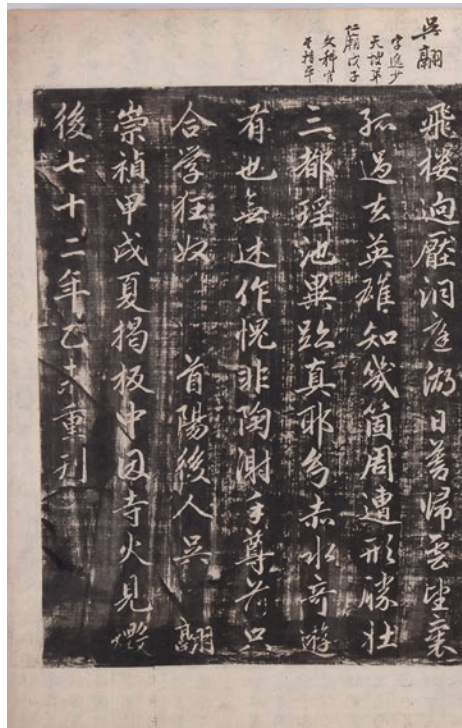
白川郡守黃床

285) 군수(郡守): 원문의 ‘오두(遨頭)’는 지방 수령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배천 군수인 황호를 가리킨다. 중국 성도(成都)의 옛 풍속에 4월 19일을 완화절(浣花節)이라고 하여 태수(太守)가 연회를 열고 백성들과 즐기는 일이 있었다. 『성도기(成都記)』에 “태수가 나와 놀면 사녀(士女)들은 나무 평상에서 보기 때문에 그것을 오상(遨狀)이라고 한다. 그런 까닭에 태수를 오두(遨頭)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286) 남겨 놓은 풍경: 원문의 ‘물색분류(物色分留)’는 고금의 시인들이 강서사의 경치를 많이 읊었으나 이곳의 풍경이 매우 빼어나서 아직도 시로 읊을 소재가 남아 있다는 뜻이다. 두보(杜甫)의 『악록산도림이사행(嶽麓山道林二寺行)』에 “송공이 쫓겨나서 일찍이 벽에 시를 지었는데, 풍경을 남겨 놓아 늙은 나를 기다리네.[宋公放逐曾題壁, 物色分留待老夫.]”라고 하였다.

287) 죽부인(竹夫人): 원문의 ‘청노(靑奴)’는 더운 여름에 서늘함을 취하는 침구(寢具)의 일종인 죽부인(竹夫人)의 별칭이다.

288) 관리의……있네: 배천 군수(白川郡守) 황호가 1634년(인조 12)에 배천 강서사에서 황해도 관찰사 오숙(吳勳)의 시에 차운하여 지은 시이다. 이 시는 『만랑집』에 실려있지 않다.



字逸少 天坡弟 仁廟丙戌文科 官至持平

자가 일소(逸少) 천파(天坡, 오숙)의 동생이다. 인조 병술년(1646 인조 24)²⁹⁰⁾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지평(持平)에 이르렀다.

날뚫한 누각이 멀리 동정호를 압도하고
저물녘에 돌아가는 구름이 시야 속에 외롭네
과거의 영웅이 몇 명이나 있었던가
주위의 명승이 삼도에서 웅장하네
요지의 기이한 발자취는 진실인가 환상인가
적수의 멋진 유람은 있었던가 없었던가
시 지음에 도잠과 사영운²⁹¹⁾의 솜씨가 아니라 부끄럽고
술동이 앞에서 다만 광노²⁹²⁾를 배울 뿐이네

飛樓迥壓洞庭湖
日暮歸雲望裏孤
過去英雄知幾箇
周遭形勝壯三都
瑤池異跡真耶幻
赤水奇遊有也無
述作愧非陶謝手
尊前只合學狂奴

首陽後人吳翹 崇禎甲戌夏揭板 中因寺火見燬 後七十二年乙酉重刊

수양 후손 오핵(吳翹)이 승정(崇禎) 갑술년(1634) 여름에 현판을 걸었으나 도중에 절의 화재로 인하여 현판이 불에 타서 72년 뒤인 을유년(1705)²⁹³⁾에 다시 목판에 시를 새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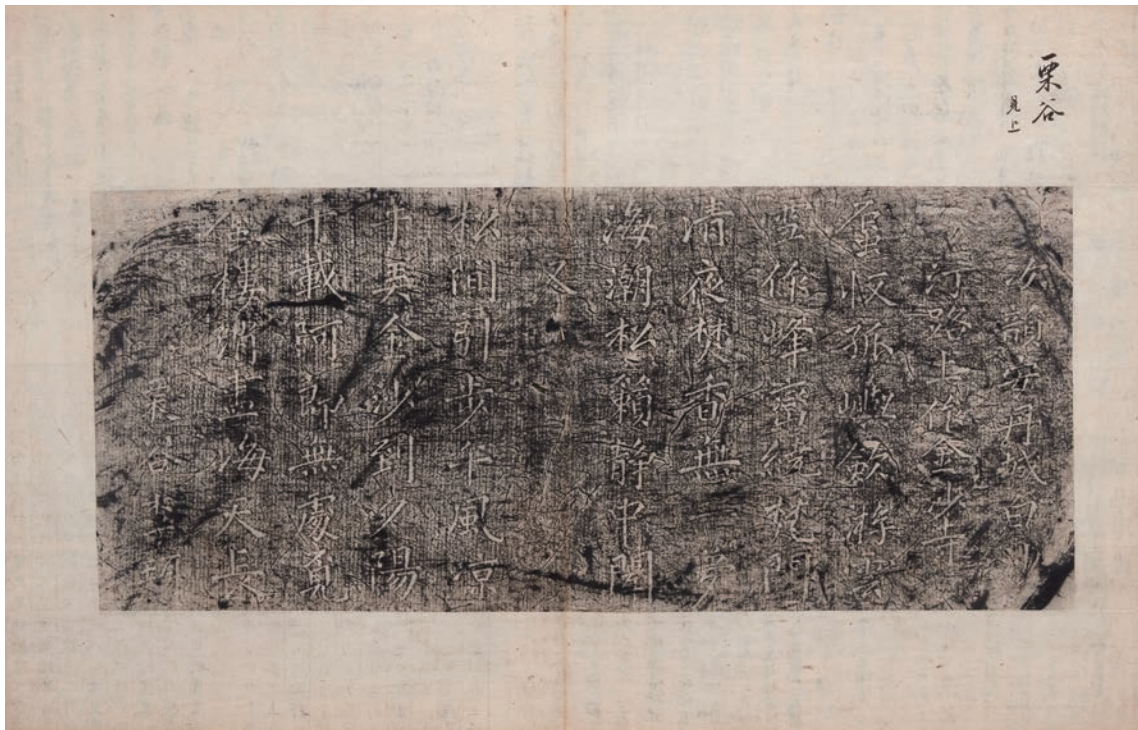
289) 오핵: 오숙의 동생으로, 인조대 문신이다. 오핵이 1634년(인조 12) 배천 강서사에서 형인 오숙(吳翹)의 시에 차운하여 지은 시이다.

290) 병술년: '병술(丙戌)'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오핵은 병술년 정시(庭試)에서 장원을 차지하였다.

291) 도잠(陶潛)과 사영운(謝靈運): 원문의 '도사(陶謝)'는 남조(南朝) 때의 저명한 시인인 도잠(陶潛)과 사영운(謝靈運)의 병칭이다. 도잠은 전 원시(田園詩)를 잘 지었고, 사영운은 산수시(山水詩)를 잘 지었다.

292) 광노(狂奴): 후한(後漢)의 고사(高士) 엄광(嚴光)을 말한다. 젊어서부터 방달불기(放達不羈)한 기상이 있어 광무제가 '미친놈'이란 의미로 친근하게 '광노'라고 불렀다.『후한서後漢書』「일민 열전逸民列傳 엄광嚴光」)

293) 을유년: '을미(乙未)'판각되어있으나 72년 뒤는 을유년(1705)이므로 '을유(乙酉)'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栗谷 見上

율곡[이이] 앞에 보인다.

단성 현감 안전이 백사정²⁹⁴ 노상에서 지은 금사사²⁹⁵ 시에 차운하다²⁹⁶

次韻安丹城白沙汀路上作金沙寺

외로운 섬에 신기루와 떠돌던 구름이 걷히고
눈 덮인 봉우리가 절간을 감싸네
맑은 밤에 향을 살라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
파도와 솔바람 소리가 고요 속에 들려오네

蜃收孤嶼斂游雲
雪作峰巒繞梵門
清夜焚香無一夢
海潮松籟靜中聞

또

솔숲을 걷노라니 대낮 바람 시원하여
금모래 잡고 노니 석양이 이르네
천 년 전 아郎을 찾을 길이 없지만
신기루가 사라지자 바다와 하늘이 넓네

又
松間引步午風涼
手弄金沙到夕陽
千載阿郎無處覓
蜃樓消盡海天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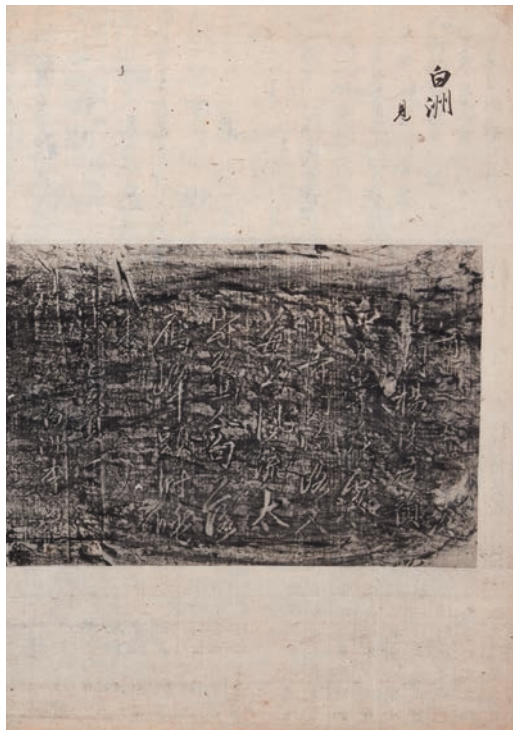
율곡 이이

栗谷李珣

294) 백사정(白沙汀): 오늘날의 황해도 웅진군 흥미면(興帽面) 등산리(登山里) 등산곶(登山串) 지역에 있는 백사장(白沙場)이다. 해안사구(海岸沙丘)가 잘 형성되어 있는 곳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남곤(南袞)의 「유백사정기遊白沙汀記」가 실려있고, 김수증(金壽增)이 1672년(현종 13) 4월에 이곳을 방문하여 지은 「유백사정기遊白沙汀記」가 있다.

295) 금사사(金沙寺): 황해도 장연의 백사정 위에 있던 사찰이다. 흰 모래가 끝없이 펼쳐진 백사정, 산세가 수려한 승선봉(勝仙峯)과 비로봉(毗盧峯)이 주변에 있어 경관이 매우 아름답다. 진보(鎭堡)를 설치하고 승장(僧將)을 두어 바다를 지키는 요충지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296) 단성 현감(丹城縣監)…차운하다: 원문의 ‘안단성(安丹城)’은 단성 현감 안전(安璣, 1513~1592)을 말한다. 이이가 1579년에 단성 현감을 지낸 안전이 황해도 장연 금사사(金沙寺)에서 지은 시에 차운한 작품이다.



백주[이명한] 白洲 見관동첩에 보인다.²⁹⁸⁾

■……■ 삼가 감호 양 사군의 시에 차운하다²⁹⁹⁾

敬次鑑湖楊使君韻

4월에 해당화가 곳곳에 피어 있고
절 문으로 들어가는 길에 이끼가 끼어 있네
풍류 태수가 사람을 놀라게 하는 시를 지어
낙안봉 꼭대기로 사조가 오는 듯하네³⁰⁰⁾

四月棠花處處開
寺門歸路入莓苔
風流太守驚人句
落鴈峰頭謝朓來

송정(崇禎) 을해년(1635) 여름 백주 이명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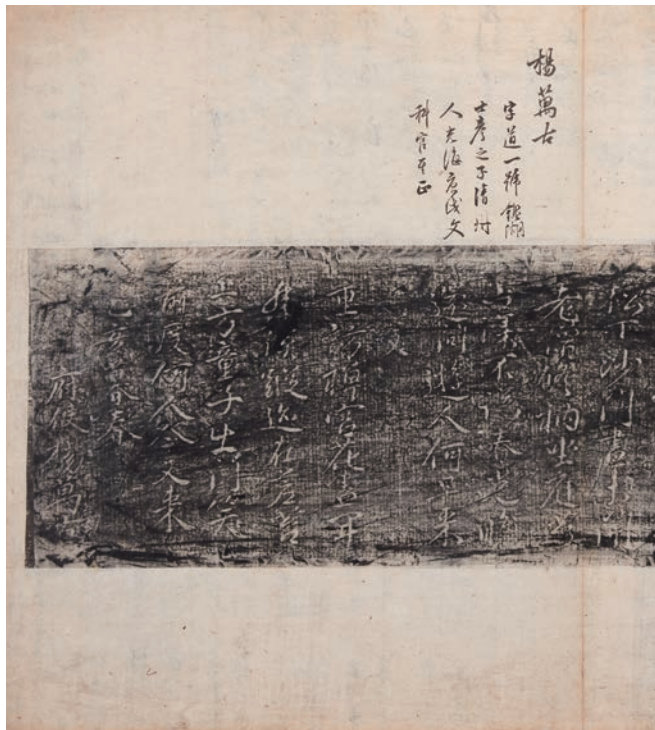
崇禎乙亥夏 白洲李明漢

297) 이명한: 조선후기의 문신이다. 아버지는 月沙 李廷龜이다. 대사헌, 이조판서, 예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시문과 서예에 뛰어났으며 저서로 『백주집白洲集』이 있다. 이괄의 난, 병자호란을 모두 겪었으며 1644년(인조 22) 심양에 볼모로 있던 소현세자를 모셔왔다.

298) 관동첩(關東帖)에 보인다: 원문에는 ‘견(見)’ 자만 있으나 다른 제영 첩자를 참고하여 보충한 뒤 번역하였다.

299) 삼가……차운하다: 원문의 ‘양사군(楊使君)’은 황해도 장연 부사(長淵府使) 양만고(楊萬古)를 가리킨다. 감호는 그의 호(號)이다. 이명한이 1635년(인조 13) 여름에 장연 금사사에서 양만고의 시에 차운하여 지은 시이다. 『백주집白洲集』에 제목이 「사군 양만고 도일에게 보내 다寄楊使君道一萬古」로 되어있고, ‘매(莓)’가 ‘청(靑)’으로 되어있다.

300) 풍류 태수가……듯하네: 원문의 ‘풍류태수(風流太守)’는 장연 부사 양만고이고, ‘낙안봉(落雁峯)’은 중국 화산(華山)에 있는 봉우리이다. 이백이 낙안봉에 올라 말하기를 “호흡하는 기운이 상제(上帝)에게 통하는데, 한스럽게도 사조(謝朓)처럼 사람들 놀라게 하는 시를 짓지 못하여 머리를 긁적이며 푸른 하늘에 묻지 못하겠네. [昔李白登落鴈峯曰, 呼吸之氣相通帝座, 恨不攜謝朓驚人句來, 搔首問青天]”라고 하였다. 『하씨어림何氏語林』



字道一 號鑑湖 士彦之子 淸州人 光海庚戌文科 官至正

자가 도일(道一)이고 호가 감호(鑑湖)이다. 양사언(楊士彦)의 아들이고 본관이 청주(淸州)이다. 광해군 경술년(1619)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군자감³⁰¹⁾ 정(軍資監正)에 이르렀다.

솔숲 아래 절 문이 낮에도 열리지 않고
노승이 가사 입고 뜰의 이끼에 앉아 있네
산이 깊어 봄 풍경이 저문 줄도 모르고
도리어 유람객이 어찌 일찍 오느냐고 묻네³⁰²⁾

松下沙門晝未開
老僧修衲坐庭苔
山深不識春光晚
還問遊人何早來

또
선방을 거듭 찾으니 꽃이 다 피고
호계³⁰³⁾의 발자취가 푸른 이끼에 있네
절간의 동자가 문을 나서 웃으며
지난번에 오신 분이 지금 또 왔다고 하네

又
重訪禪宮花盡開
虎溪蹤迹在蒼苔
上方童子出門笑
前度何人今又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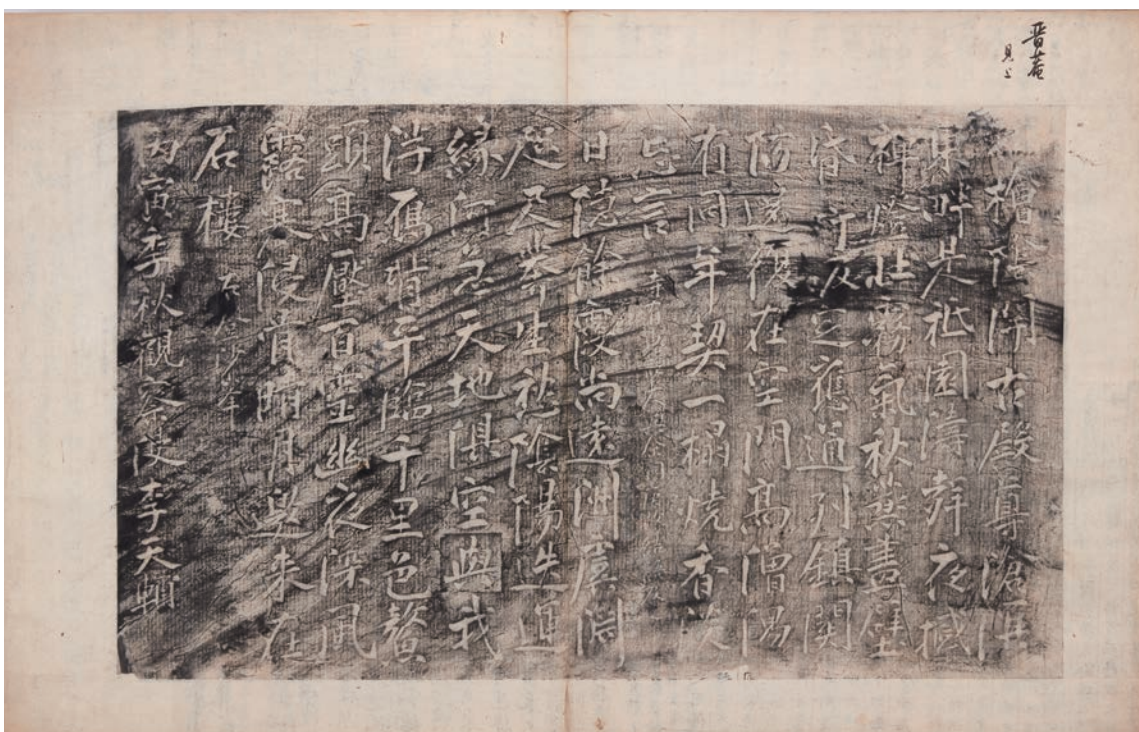
을해년(1635) 늦봄 부사 양만고

乙亥暮春 府使楊萬古

301) 군자감 정(軍資監正): 원문에는 '정(正)'만 있으나 군자감을 보충하여 번역하였다.

302) 양만고: 광해군, 인조대에 활동한 문신이자 서예가이다. 아버지는 글씨로 이름을 날렸던 양사언이다. 장연부사로 부임한 이듬해 1635년(인조 13) 3월에 장연 금사사에서 지은 시이다. 아래의 시도 같다.

303) 호계(虎溪): 중국 여산(廬山)의 동림사(東林寺) 앞에 있는 시내이다. 진(晉)나라 혜원법사(慧遠法師)가 이곳에 있으면서 손님을 보낼 때 이 시내를 건너지 않았는데, 여기를 건너면 문득 호랑이가 울었다. 하루는 도잠(陶潛)·육수정(陸修靜)과 이야기를 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호계를 건너 호랑이가 울자, 세 사람이 크게 웃고 헤어졌다고 한다.([동림십팔고승전東林十八高賢傳])



晉庵 見上

진암[이천보] 앞에 보인다.

솔숲이 열린 곳에 옛 전각이 드높고
큰 바다 동쪽 언덕에 사찰이 있네
파도 소리가 밤에 거세게 선방의 등불을 흔들고
안개가 가을에 어둑하게 고운 벽에 피어오르네
숨소리가 정말로 늘어선 진보에 통할 수 있고
요충지 방어가 도리어 사찰에 달려있네
고승과 우연히 동년의 사귀이 있기에
의자에서 향 사르고 담담하게 말을 잊네

松檜陰開古殿尊
滄溟東畔是祇園
濤聲夜撼禪燈壯
霧氣秋蒸畫壁昏
呼吸定應通列鎮
關防還復在空門
高僧偶有同年契
一榻燒香淡忘言

절에 혜심 상인(惠諡上人)³⁰⁴이 있는데, 나와 동갑이기 때문에 결어(結語, 미련)에서 언급하였다.

寺有惠諡上人 與余同庚 故結語及之

304) 혜심 상인(惠諡上人): 혜심(諡諡)과 동일인으로 보인다. 이덕무(李德懋)의 『청장관전서』 「서해여언西海旅言」에 “금사사의 상량문과 중수 기문은 승려 혜심(諡諡)이 지은 것으로, 비록 소략한 감은 있더라도 역시 승려 중에서는 걸출한 편이었다. 승랍(僧臘)이 80세인데, 다른 절에 가 있다고 한다.”라고 하였다.

해가 저도 노을이 여전히 먼 섬에 있고
 우연³⁰⁵⁾이 지척이라 아득히 시름이 이네
 일월이 번갈아 돌 때 어찌 그리 서두르나
 천지가 모두 비어 나와 함께 떠 있네
 기러기가 편안히 천 리 풍경에 내려앉고
 삼신산³⁰⁶⁾이 높이 솟아 온갖 신령이 깃들었네
 밤 깊어 바람 불자 추위가 뺏속에 스미는데
 밝은 달을 맞이하여 누각에 와있네³⁰⁷⁾

日隱餘霞尙遠洲
 虞淵咫尺莽生愁
 陰陽迭運緣何急
 天地俱空與我浮
 鴈背平臨千里色
 鰲頭高壓百靈幽
 夜深風露寒侵骨
 晴月邀來在石樓

위는 「사봉³⁰⁸⁾에 오르다」이다.

右登沙峰

병인년(1746) 제주 관찰사 이천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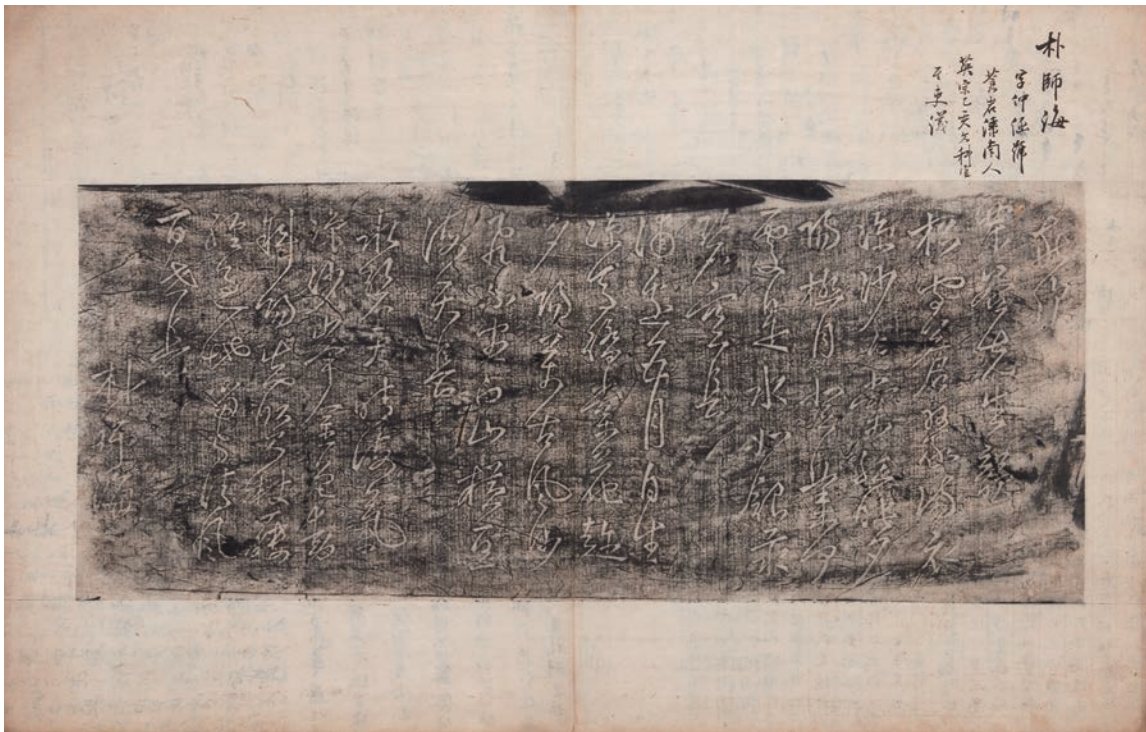
丙寅季秋 觀察使李天輔

305) 우연(虞淵): 해가 지는 곳이다. 『회남자淮南子』 「천문훈天文訓」에 “태양이 우연에 이를 때를 황혼이라 말한다.[日至于虞淵, 是謂黃昏.]”라고 하였다.

306) 삼신산(三神山): 원문의 ‘오두(鰲頭)’는 자라의 머리로, 삼신산을 가리킨다.

307) 이 두수의 시는 황해도 관찰사 이천보가 1746년(영조 22) 9월에 황해도 장연(長淵) 금사사(金沙寺)에서 지은 시이다. 『진암집』에 제목이 「금사사金沙寺」, 「사봉에 오르다登沙峰」로 되어있다.

308) 사봉(沙峰): 황해도 장연 금사산(金沙山)의 봉우리이다.



字仲涵 號蒼岩 潘南人 英宗乙亥文科 官至吏議

자가 중함(仲涵)이고 호가 창암(蒼岩)이며, 본관이 반남(潘南)이다. 영조 을해년(1755)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이조참의에 이르렀다.

삼가 율곡 선생의 시에 차운하다

敬次栗谷先生韻

솔숲이 푸르러 옷 가득 시원하고
백사장의 붉은 해당화가 석양에 비치네
달이 높은데 등주와 내주는 어느 곳인가
물빛이 수은 같고 창공이 아득하네

松間蒼翠滿衣涼
沙白棠紅映夕陽
極月登萊何處是
水如銀汞碧空長

309) 박사해: 영조대 활동한 문신이자 화가이다. 1755년(영조 31) 문과에 급제한 뒤 승지, 대사간 등을 역임했다. 서명응, 홍양호 등과 교유하였다. 전하는 작품으로 「관동도병關東圖屏」이 있다. 충석정, 낙산사, 청간정, 경포대 등을 그렸다. 이 시는 장연 금사사에서 이이의 시에 차운하여 지은 시이다.

5월이라 포구가 저절로 시원하고
말이 해당화 핀 곳을 밟으며 석양에 나아가네
만고에 모래바람이 날려 다하지 않고
흰 산이 가로질러 바다와 하늘이 아득하네

浦邊五月自生涼
馬踏棠花趁夕陽
萬古風沙飛不盡
白山橫亘海天長

물 푸르고 하늘 맑고 바다 기운이 시원한데
사봉의 노을빛이 석양에 흔들리네
선현³¹⁰⁾이 지팡이 짚고 들렀던 이 땅에
백대 뒤에도 청풍이 장구히 머물리라

水碧天晴海氣涼
沙峯金色動斜陽
先賢杖履經過地
留與清風百世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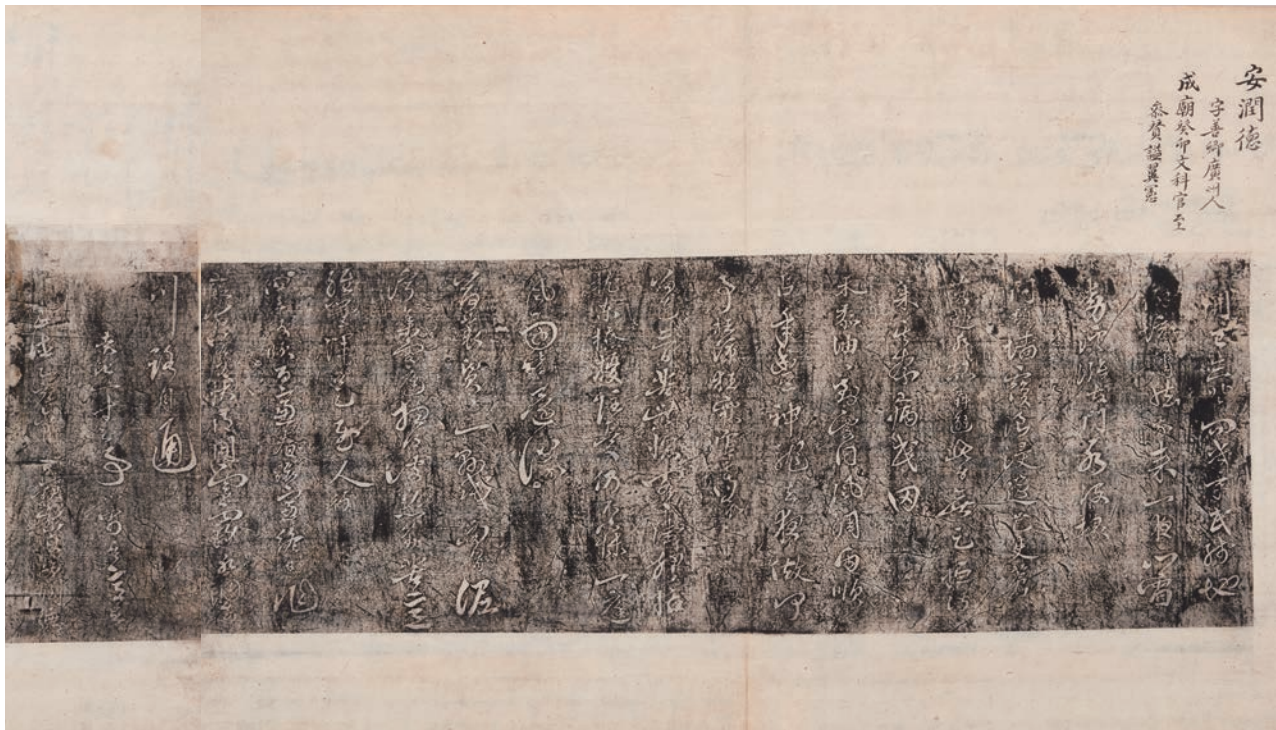
박사해

朴師海

310) 선현(先賢): 여기에서는 이이를 말한다.

역사자료총서21 청구제영(靑丘題詠)

— 평안도



字善卿 廣州人 成廟癸卯文科 官至參贊 諡翼憲

자는 선경(善卿), 본관은 광주이다. 성종 계묘년(1483)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은 참찬에 이르렀다. 시호는 익헌(翼憲)이다.

삼등²⁾ 고을 연 지가 몇 년이나 되었는가,
백성들 흠어지고 땅은 궁벽지고 마을은 쓸쓸하다.
내가 온 첫날 밤 시냇물은 우레처럼 울리는데
시냇물은 관청의 문에 불어나 물이 서까래를 덮친다.

開已三登間幾年
民殘地僻境蕭然
我來一夜川雷動
溪漲官門水沒椽

문은 퇴락하고 담은 무너져 물결은 뜰에 밀려오자
고을 아전은 당황해서 허둥대며 달려간다.
이 한몸 피신함은 애닦을 것 없지만
푸성귀 잠겨서 백성들의 밭 망가지는 건 어찌 할거나.

門頽牆覆浪浸筵
邑吏蒼黃赴水顛
犇避此身無足恨
潛菜其奈病民田

벼와 기장 어디서나 똑같이 무성하고
비바람 조화로워 풍년을 기대하네.
신룡(神龍) 떠나간 밤 무슨 일 벌어졌는가,
미친 듯 퍼붓는 비에 우리 고을 농사 망쳤구나.

禾黍油油到處同
風調雨順占年豐
神龍去夜做何事
枉沛狂霖害我農

1) 안윤덕: 조선 전기의 문신이다. 1483년(성종 14) 문과에 급제하였다. 연산군 때 도승지, 예조참판을 지냈다. 중종반정 이후 한성부좌윤이 되고 삼포왜란을 평정하였다. 이후 한성부판윤, 형조판서를 지냈으며 호조, 공조의 판서를 거쳐 좌참찬에 올랐다.

2) 삼등(三登): 평안남도 강동 지역의 옛 이름이다.

사흘을 연이어 쏟아져 괴롭기 그지없더니
□□□□□□□
어지러운 중에 근심 숨겨도 이에 잠 못 이루는데
뜰 가득 비바람에 어두컴컴 다시 흐릿해진다.

留連三日苦無悰
閣街□□□□東
撩擾隱憂仍不寐
一庭風雨暗還濛

도롱이 입고 온 고을 백성들 어지러이 다니는데
얼굴엔 진흙탕 뒤집어쓰고 □□ 뜰에 모였다.
생각해보면 물결의 점들 □□□□□
하는 일이라곤 온통 사람들 재촉하는 것.

荷蓑貿貿一縣氓
面冒泥濘集□庭
想得波點□苦□
經營渾是促人行

사 년동안 바장이며 온갖 생각 뒤섞였는데
□□ 집 종일토록 바보 늙은이 된 듯하다.
만약 장쾌하게 구름 안개 열린다면
앞 시내에 물 마르고 길은 절로 통하리라.

四年反順百慮春
□家終日作癡翁
若爲快得開雲霧
水涸前川路自通

□□□□□□
정덕 을해년 6월(1515), 관찰사 안윤덕

□□□之事以容其□□
正德乙亥六月 觀察使安潤德



字汝完 號竹南 同福人 百齡子 光海戊午文科 官至行判中樞 提學

자는 여완(汝完), 호는 죽남(竹南), 본관이 동북이다. 오백령의 아들. 광해군 무오년(1618)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행판중추, 제학에 이르렀다.

땅은 황강 멋진 곳이요

地即黃岡勝

관청은 바둑 두듯 한가로워라.

官如玉局閑

마음 편안한 소설(小雪)날,⁵⁾

居然小雪日

이 집의 편액을 지어 부른다.⁶⁾

喚作此堂顏

갑신년(1644) 겨울 소설날 죽남

甲申冬小雪日 竹南

3) 오준: 한성부판윤, 형조판서, 대사헌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글씨에 능하여 서사(書寫)의 일을 도맡았다고 한다. 한호에게서 글씨를 배웠다고 전해진다. <삼전도비명三田渡碑銘>의 서사관으로 뽑혀 그 글씨를 새기게 되었는데, 이 일을 평생 한으로 여기고 살았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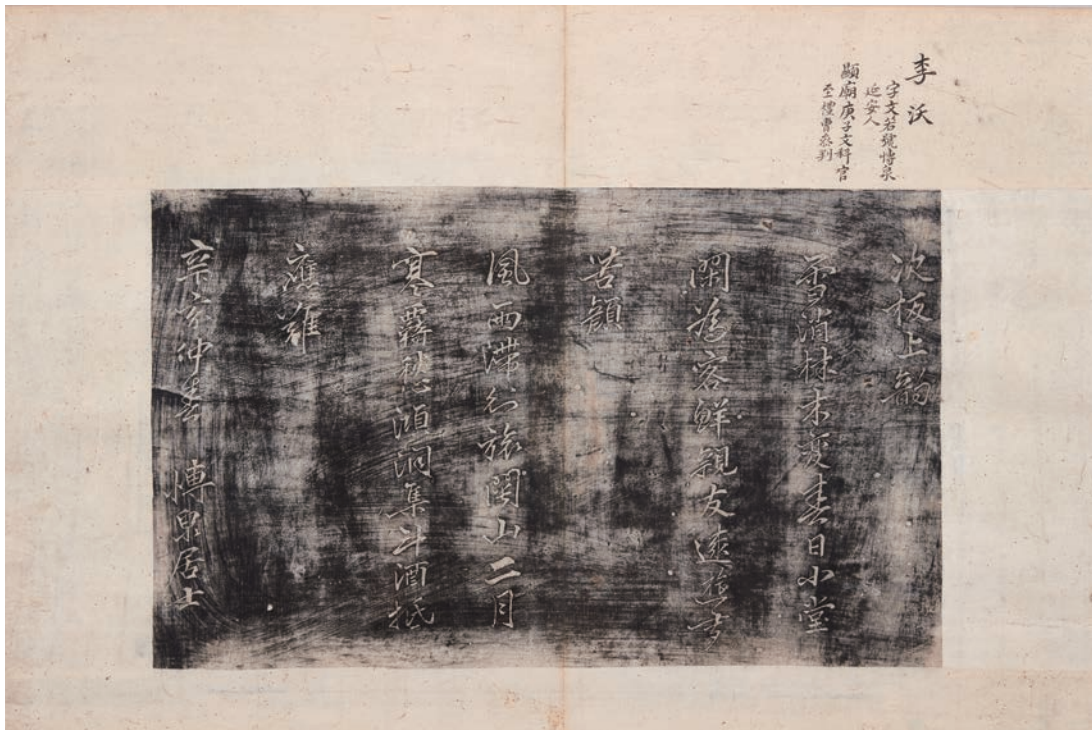
4) 소설당(小雪堂): 심육(沈鑄, 1685~1753)의 일기인 『저촌유고樵村遺稿』에 오준, 김세렴의 시판이 걸려있는 곳이 숙천(肅川) 관아의 부속 건물인 소설당(小雪堂)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숙천은 평안남도 평원군의 옛 지명이다.

5) 마음 편안한 소설날: 작자가 지금 머무는 집의 당호가 '소설당(小雪堂)'임을 엄두에 두고 표현하였다.

6) 이 작품은 오준의 문집인 『죽남당고竹南堂稿』에 「過黃州」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 시를 새긴 시판은 숙천(肅川) 소설당(小雪堂)에 걸려 있었다는 기록이 심육의 일기에 나온다.

3 이옥(李沃, 1641~1698)⁷⁾

숙천 소설당(청구제영 제1첩)



字文若 號博泉 顯廟庚子文科官 至禮曹參判

자는 문약(文若), 호는 박천(博泉), 본관은 연안이다. 현종 경자년(1660)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예조참판에 이르렀다.

시에 차운하다⁸⁾

次板上韻

눈 녹자 숲이 변하고
봄 햇살에 작은 집이 한가롭다.
나그네 되니 친구 드물고
멀리 노니 괴로운 표정 자주 짓는다.

雪消林木變
春日小堂閑
爲客鮮親友
遠遊多苦顏

바람과 비로 여행길 지체되는데
변방 2월은 춥기도 하지.
나그네 근심 뒤섞여 가득 모이니
말술로도 응대하기 어렵구나.

風雨滯行旅
關山二月寒
羈愁湏洞集
斗酒抵應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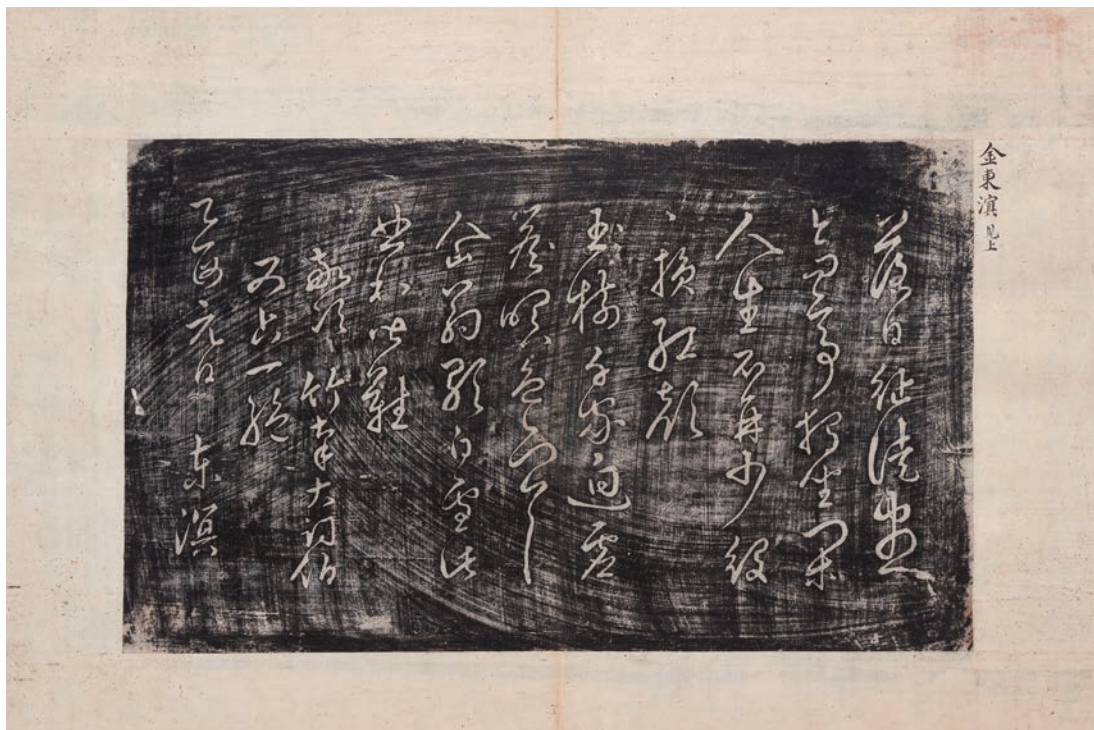
신해년(1671) 중춘 박천거사⁹⁾

辛亥仲春 博泉居士

7) 이옥: 조선후기 이조좌랑, 경기도관찰사, 예조참판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8) 이 작품의 앞부분(1~4행)은 이옥의 문집 『박천선생시집博泉先生詩集』에 「次小雪堂韻」이라는 이름으로 수록되어 있지만, 뒷부분(5~8행)은 문집에 보이지 않는다.

9) 박천거사: 이옥의 호이다.



金東溟 見上

김동명[김세렴], 앞에서 보인다.

해 저물자 나그네들 모두 사라져
높은 정자에 홀로 한가로이 앉아있다.
인생은 다시 젊어지지 않으니
애쓰는 가운데 붉은 얼굴¹¹⁾ 잃어간다.

落日征徒盡
高亭獨坐閑
人生不再少
役役損紅顏

옥 같은 나무¹²⁾에 모든 집 멀고
빈 처마에 새벽빛 차갑다.
선옹은 「백설가」¹³⁾를 부르니
이 곡조는 맞추기가 어렵구나.¹⁴⁾

玉樹千家迥
虛簷暝色寒
仙翁歌白雪
此曲和皆難

공경히 죽남 대사백의 운자를 빌려서 또 한 수를 짓다.
을유년(1645) 새해 첫날 동명

敬次竹南大詞伯 又占一絕
乙酉元日 東溟

10) 김세렴: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학자이다. 자는 도원(道源)이며, 호는 동명(東溟)이다. 인조 14년(1636)에 통신부사로 일본을 다녀왔으며 황해도 관찰사 등 외직에 있으면서 『근사록』, 『소학』을 간행하여 도민 교화에 힘썼다.

11) 붉은 얼굴: 젊은 시절 아름다운 얼굴.

12) 옥 같은 나무: 눈으로 덮여서 마치 옥으로 장식을 한 것 같은 나무를 말한다.

13) 백설가(白雪歌): 중국 춘추전국시대 초나라에서 불리던 고상하면서도 우아한 노래.

14) 이 시에 대한 또 다른 기록이 심육의 일기인 『저촌유고』 '10월 26일'조에 기록되어 있다. 이 글에 보면 오준(吳竣, 1587~1666)의 시에 동명이 차운한 시판이 걸려있다고 하면서, 오준의 시와 동명의 시를 모두 필사해 놓았다. 그 중에 동명의 제1수 '征'을 '酒'로 표기하고 있다는 점을 부기해 놓는다.

5 강유(姜瑜, 1597~1668)¹⁵⁾

함중(咸從) 척서루(滌暑樓)(청구제영 제4첩)



姜瑜 字公獻 號商谷 晉州人 仁廟甲子文科 官至監司

자가 공헌(公獻)이고, 호가 상곡(商谷)이며, 본관이 진주(晉州)이다. 인조(仁祖) 갑자년(1624)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감사(監司)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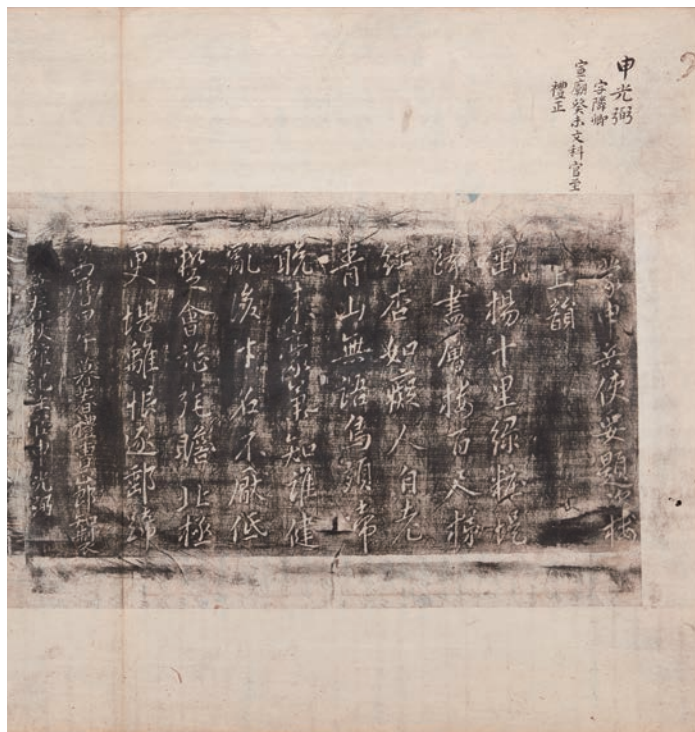
아성관 밖으로 부슬부슬 비가 내려
정말로 연못에 푸른 물이 불어나네
외진 땅에 봄이 깊어 사람이 쉽게 감개하고
먼 길에 날이 저무니 길손이 어디에 의지할까
한평생 천지에서 몸이 장차 늙어가고
만 리 구름 낀 숲으로 꿈에 홀로 돌아가네
근심스레 난간에 기대 끝없이 생각하며
술을 재촉함은 꽃을 즐기기 때문이 아니네

牙城館外雨霏霏
政是荷塘綠水肥
絕域春深人易感
長途日暮客何依
百年天地身將老
萬里雲林夢獨歸
悄悄憑欄無限思
催觴非爲翫芳菲

승정(崇禎) 을해년(1635) 모춘 상순에 관향종사관 진성 강유가 짓다.

崇禎乙亥暮春上浣 管餉從事官 晉城 姜瑜題

15) 강유: 인조대 문신이다. 함경남도병마절도사를 지낼 때 국방경비를 튼튼히 하였다. 황해도관찰사, 우부승지 등을 지냈으며 후에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이 시는 강유가 1635년(인조 13) 3월 상순에 평안남도 강서군 함중면(咸從面) 척서루(滌暑樓)에 들러 지은 시이다. ‘아성관’은 평안도 함중(咸從)의 객관이다. 함중의 옛날 이름이 아산(牙山), 아선(牙善)이다. 강유의 문집인 『상곡집商谷集』에 제목이 「등함중척서루登咸從滌暑樓」로 되어있다.



申光弼 字隣卿 宣廟癸未文科 官至禮正

자가 인경(隣卿)이다. 선조 계미년(1583)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예조정랑에 이르렀다.

신 병사가 시를 지으라고 요구하여 누각 위의 시에 차운하다

蒙申兵使要題 次樓上韻

십 리의 수양버들이 푸르게 독을 꾸미고
이층 누각의 백 척 계단을 다 올랐네
활짝 핀 붉은 살구꽃에 사람이 절로 늙고
말 없는 푸른 산에서 산새가 자주 우네
늘그막에 호기가 씩씩함을 누가 알라
난리 뒤에 명망이 낮아도 싫지 않으리
장수가 잠시 모여 북극성을 바라보고
이별 한을 건디며 역마를 따라가리

垂楊十里綠粧堤
躋盡層樓百尺梯
紅杏如癡人自老
青山無語鳥頻啼
晚來豪氣知誰健
亂後才名不厭低
暫會旌旄瞻北極
更堪離恨逐郵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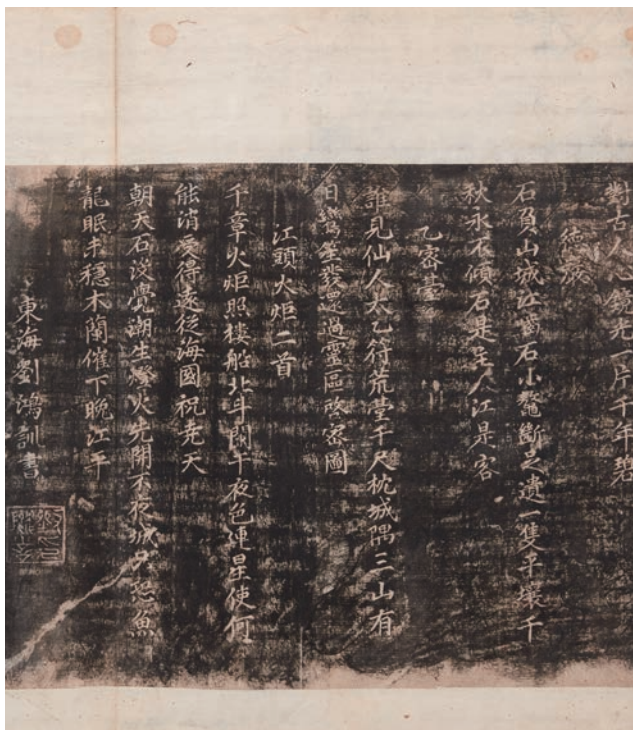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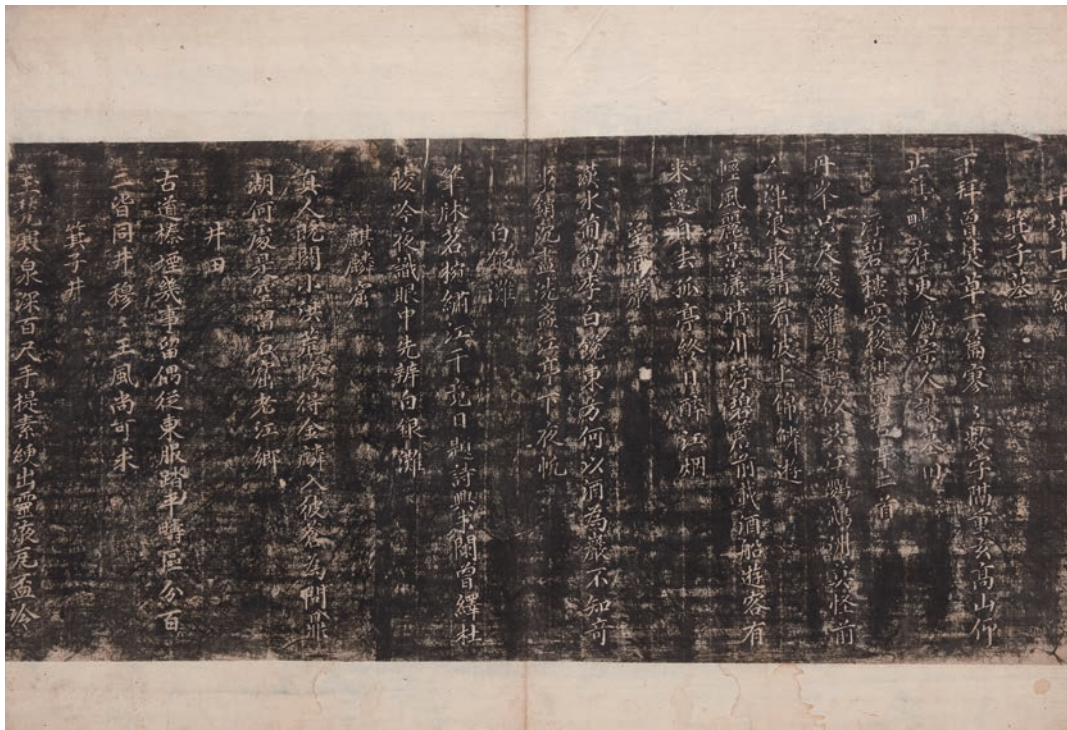
만력(萬曆) 갑오년(1594) 모춘 예조정랑 지제교겸 춘추관 기주관 신광필

萬曆甲午暮春 禮曹正郎知製兼春秋館記注官 申光弼

16) 신광필: 선조대 문신이다. 1583년(선조 16) 별시 문과에 을과로 급제한 뒤 여러 관직을 거쳐, 1591년(선조 24) 예조좌랑에 올랐으나 시관(試官)으로서 섬세하지 못하여 실수가 많다 하여 파직 당하였다. 이듬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정희적(鄭熙績)과 더불어 소모관(召募官)으로 육진(六鎭)에 들어가 선유하였다. 이 시는 1594년(선조 27) 3월에 평안도 함중(咸從) 척서루(滌暑樓)에서 평안도 병마절도사 신갑(申甲)의 요청을 받아 지은 시이다.

7 유흥훈(劉鴻訓, 1565~1634)¹⁷⁾

(청구제영 제6첩)



17) 유흥훈: 명나라 관리로, 산둥(山東) 장산현(長山縣) 출신이다. 자는 묵승(默承), 호는 청악(靑岳). 1621(광해군 13) 4월 조선에 사신으로 한양에 들어왔다는 기록이 『광해군일기』에 나온다.

참배하며 분향하고 글 한 편 지으니
 고요한 몇 글자가 하늘과 격해있네.
 높은 산처럼 우러러 본 기자의 구주¹⁹⁾ 남아있는데
 다시 후손에게 묘전 지키도록 하였구나.

下拜曾焚草一篇
 寥寥數字隔重玄
 高山仰止箕疇在
 更屬宗人護墓田

부벽루에서 연회를 한 뒤 함벽정에서 쉬며 (2수)

浮碧樓宴後憩涵碧亭二首

붉은 봉우리는 능라도²⁰⁾와 지척이라
 오강의 앵무주²¹⁾와 너무도 비슷해라.
 옛사람이 물결에서 이름 취한 것 괴이히 여기지 마오,
 청컨대 물결 위에 금린어 노는 걸 구경하라는 것이니.

丹峯只尺綾羅島
 酷似吳江鸚鵡洲
 莫怪前人渾浪取
 請看波上錦鱗遊

가벼운 바람 아름다운 풍경 맑은 시내에 살랑이는데
 부벽루 처마 앞에 술 실은 배 떠있네.
 유람객 왔다가 스스로 돌아가니
 외로운 정자에서 종일토록 강 안개에 취해 있다.

輕風麗景漾晴川
 浮碧簷前載酒船
 遊客有來還自去
 孤亭終日醉江烟

주암²²⁾을 바라보며

望酒巖

한수의 포도는 이태백이 탐했는데
 동방에선 어찌해서 술로 바위를 이름하였나
 기이한 일 모두 사라져 알지 못하겠고
 강가 정자에서 술잔 씻으며 밤 돛을 내린다.

漢水葡萄李白饞
 東方何以酒爲巖
 不知奇事銷沉盡
 洗盞江亭下夜帆

백은탄²³⁾

白銀灘

필상(筆牀)과 찻사발 아름다운 강변에서
 종일토록 시 지으니 흥취가 끝이 없어라.
 일찍이 두보의 ‘밤에도 알아본다’는 구절을 궁구했나니
 눈에 든 백은탄에서 먼저 그 뜻을 알겠네

筆牀茗碗繡江干
 竟日題詩興未闌
 曾繹杜陵吟夜識
 眼中先辨白銀灘

18) 기자묘: 평양 읍밀대 아래에 있으며, 기자의 무덤으로 전하는 곳이다. 1876년(고종 13) 편찬된 『평양지평壤志』에 의하면 평양부 북쪽에 있는 토산(兔山) 위에 있다고 하였다.

19) 기자의 구주: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아홉 가지 법도를 홍범구주(洪範九疇)라고 한다. 주나라 무왕이 기자에게 이야기한 것이라고도 하고, 반대로 기자가 무왕에게 가르친 것이라고도 한다. 여기서는 기자의 가르침이 지금도 전해진다는 의미로 사용한 표현이다.

20) 능라도(綾羅島): 평양 대동강 한가운데에 있는 섬. 아름다운 대동강 위에 비단을 풀어놓은 듯 아름답다는 뜻으로 명명되었다고 한다.

21) 이백(李白)의 시 「앵무주鸚鵡洲」에 보면, 오강(吳江) 한가운데에 앵무주가 있다고 했다. “鸚鵡來過吳江水, 江上洲傳鸚鵡名. 鸚鵡西飛離山去, 芳洲之樹何青青. 煙開蘭葉香風暖, 岸夾桃花錦浪生. 遷客此時徒極目, 長洲孤月向誰明.”

22) 주암(酒巖): 『평양지』에 의하면 바위 틈에서 술이 흘러나왔다는 전설이 있으며 그 흔적이 바위에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였다.

23) 백은탄: 평양 대동강에 있는 능라도와 만월도 사이에 있는 여울이다. 1990년 북한이 능라도를 정비하면서 없어졌다고 한다. 옛날 모란봉 꼭대기에 은빛 큰 종이 있었는데, 외부의 적이 쳐들어오거나 나라에 경사가 있으면 반드시 저절로 올랐다고 한다.

기린굴²⁴⁾

麒麟窟

진인께서 이미 작은 우주를 연 뒤에²⁵⁾
금기린을 타고 저 하늘로 들어가셨지.
문노니 정호²⁶⁾는 어느 곳인가,
부질없이 강마을에 바위를 남긴지 오래일세

真人既闢小洪荒
跨得金麟入彼蒼
爲問鼎湖何處是
空留石窟老江鄉

정전²⁷⁾

井田

나무숲에 덮인 옛길에 몇 번이나 머물렀던가
우연히 동쪽을 따라 이 들판을 밟았네.
힘준한 땅 구획하여 모두 정전을 똑같이 경작했으니
아름다운 왕의 풍모 아직도 찾아볼 수 있어라.

古道榛堙幾事留
偶從東服踏平疇
區分百二皆同井
穆穆王風尚可求

기자정²⁸⁾

箕子井

옥 우물 찬 샘물 깊이는 백 척인데
흰 두레박줄 손으로 잡으니 영액(靈液) 나온다.
질그릇 잔으로 서늘하게 옛 사람 마음 마주하니
한 조각 거울 빛이 천 년에 푸르르네

玉甃寒泉深百尺
手提素綆出靈液
瓦盃冷對古人心
鏡光一片千年碧

덕암²⁹⁾

德巖

바위는 산성을 지고 강물은 바위를 물어뜯는데
작은 자라 끊어진 발 한 짝을 남겼어라.
평양은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으리니
바위는 주인이요 강물은 나그네라.

石負山城江嚼石
小鼈斷足遺一隻
平壤千秋永不傾
石是主人江是客

을밀대

乙密臺

신선 태을의 부³⁰⁾를 누가 보았는가
천 길의 황량한 누대는 성 모퉁이를 베고 누웠다.

誰見仙人太乙符
荒臺千尺枕城隅

24) 기린굴: 평양 중구역 경상동에 있는 자연동굴로, 이 동굴이 청류벽 아래를 통해서 장경문 밖 대동강가에 있는 바위로 이어진다. 고구려를 건국한 동명성왕이 말을 타고 굴 속에서 달려 나와 이 바위에서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며, 그가 탄 말이 기린과 같이 늘씬하고 빨라서 기린마(麒麟馬)라고도 부른다.

25) 진인께서 …… 연 뒤에: 동명성왕(東明聖王)이 고구려를 건국한 일을 말한다.

26) 정호(鼎湖): 옛날 황제(黃帝)가 용을 타고 승천했다는 전설이 있는 호수이다. 임금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뜻하기도 한다.

27) 정전(井田): 『평양지』에 의하면, 평양외성 안에 기자가 구획한 것으로 알려진 정전의 유적이 남아있다고 하였다.

28) 기자정: 정전(井田) 안에 있는 우물.

29) 덕암(德巖): 평양 대동문 밖 연광정 아래에 있는 바위로, 강가에 우뚝 서서 대동강 물을 막아서 백성들에게 혜택을 주기 때문에 덕암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30) 신선의 태을부: 태을은 도교에서 가장 높은 신선 이름으로, 그가 신령함을 부릴 때 사용하는 부적을 말한다. 삼신산(三神山)은 태을선인이 머무르는 곳이라고도 한다.

삼산(三山)엔 언젠가 난새가 나오리니
도리어 신령한 곳에 비밀스런 그림 열어놓았네.

三山有日鸞生發
還過靈區啓密圖

강가의 횃불(2수)

江頭火炬二首

무수한 만든 횃불이 누선(樓船)을 비추고
북두칠성 비치는 난간은 밤빛과 이어졌다.
사신은 어떻게 소식을 얻을 수 있을까
멀리 해국(海國)에서 태평성대를 축하하다니.

千章火炬照樓船
北斗闌干夜色連
星使何能消受得
遠從海國祝堯天

조천석 사라지고 물결 일어나는 걸 깨달으니
등불이 먼저 불야성을 열었다.
다만 어룡이 잠을 편안히 들지 못하는 것 걱정되나니,
목란을 저어 내려가기를 재촉하니 저녁 강 잔잔하다.

朝天石沒覺潮生
燈火先開不夜城
只恐魚龍眠未穩
木蘭催下晚江平

동해 유흥훈 씀.

東海劉鴻訓書

8 서익(徐益, 1542~1587)³¹⁾

(청구제영 제6첩)



徐萬竹 見上

서만죽[서익] 앞에서 보인다.

손수 심은 정원의 꽃 근래 붉은데
윗 연못 부들잎이 아래 연못과 같아졌네.
저물녘 산 비 내려 향 피우고 앉으니
이 맛 멋드러져 원공³²⁾과 같구나.

기성소윤 서익

手植園花日間紅
上池蒲葉下池同
晚來山雨燒香坐
一味華然是遠公

箕城少尹 徐益

31) 서익: 선조대 문신으로, 서천군수, 안동부사, 의주목사 등을 지냈다. 문장과 도덕, 기개와 절조가 뛰어나 이이, 정철이 뜻이 통하는 벗으로 여겼다고 한다. 문집으로 『만죽헌집萬竹軒集』이 전한다.

32) 원공(遠公): 진(晉)나라의 고승 혜원(慧遠)을 지칭한다. 그는 여산 동림사에 주석하면서 절 밖을 나가지 않았다고 한다.



字穎叔 號牧隱 韓山人 穀子 中元朝 科授翰林 恭愍時官至門下侍中 我朝封韓山伯諡文靖

자는 영숙(穎叔), 호는 목은(牧隱), 본관이 한산(韓山)이다. 이곡(李穀)의 아들이다. 원나라 과거에 합격하여 한림 벼슬을 받았다. 공민왕 때 관직이 문하시중에 이르렀다. 조선에 와서 한산백에 봉해졌으며 시호는 문정이다.

어제 영명사³⁴⁾를 지나다가
잠시 부벽루에 올랐다.
텅 빈 성엔 한 조각 달
오래된 바위엔 천 년의 구름.
기린마는 떠나간 뒤 돌아오지 않으니³⁵⁾
천손은 어디에서 노니는가.
길게 휘파람 불며 바람 부는 돌길에 기대니
산은 푸르고 강은 절로 흘러간다.³⁶⁾

이색

昨過永明寺
暫登浮碧樓
城空月一片
石老雲千秋
麟馬去不返
天孫何處遊
長嘯倚風磴
山青江自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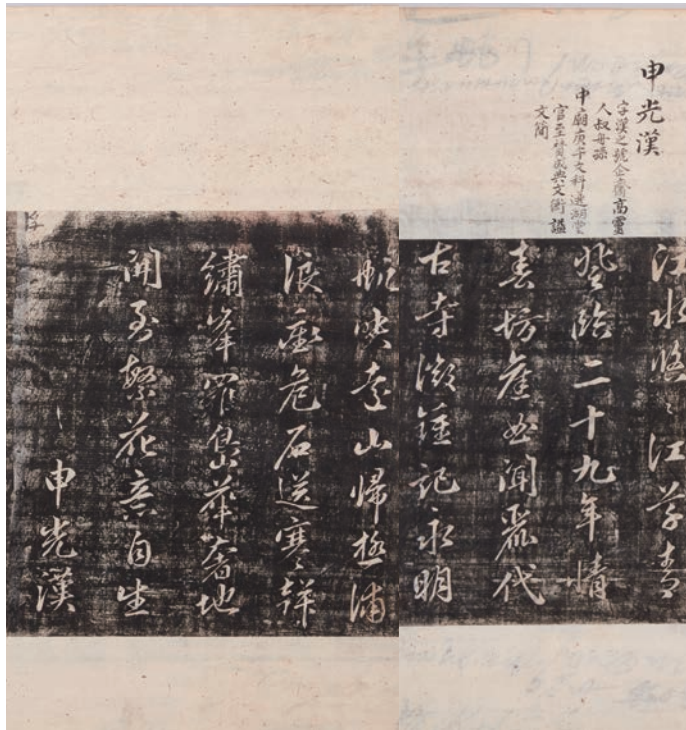
李穡

33) 이색: 고려 말의 학자이자 문신이다. 고려가 멸망하자 조선에 협조하지 않아 여주, 장흥 등으로 유배되었다가, 1396년(태조 5) 여강(驪江)으로 가던 도중에 죽었다.

34) 영명사: 평양 대동강변 금수산 위에 있는 절로, 이곳에 부벽루가 있다.

35) 기린마는 않으니: 기린굴 위쪽에 부벽루가 있으므로 이렇게 표현하였다.

36) 이 작품은 『목은집』에 「浮碧樓」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다만 원문의 ‘自流’는 문집에 ‘水流’로 되어 있다.



字漢之 號企齊高靈人 叔舟孫 中廟庚午文科進湖堂官至贊成典文 行角大衡 諡文簡
 자는 한지(漢之), 호는 기재(企齊), 본관이 고령(高靈)이다. 신숙주(申叔舟)의 손자이다. 중종 경오년(1510)에 문과에 급제하고, 호당에 뽑혔으며 관직은 찬성에 이르렀다. 문형을 관장했으며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강물 유유히 흐르고 강풀은 푸른데
 누정에 올라보니 29년 마음 떠오른다.
 춘방의 옛 노래는 고려 때부터 들렸고
 옛 절의 은은한 종소리에 영명사 생각한다.
 돛에 먼 산 어리며 아스라이 물가로 돌아오고³⁸⁾
 물결은 높은 바위에 부딪치며 서늘한 소리 보내온다.
 금수봉 능라도 아름다운 곳³⁹⁾
 활짝 꽃이 피어 마음 절로 일어난다.⁴⁰⁾

江水悠悠江草青
 登臨二十九年情
 春坊舊曲聞麗代
 古寺微鍾記永明
 帆影遠山歸極浦
 浪衝危石送寒聲
 繡峯羅島奢華地
 開到繁花意自生

신광한

申光漢

37) 신광한: 공조참판 신장(申樞)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영의정 신숙주(申叔舟)이며, 아버지는 내자시정(內資寺正) 신형(申炯)이다. 어머니는 사포(司圃) 정보(鄭溥)의 딸이다.

38) 아스라이 물가로: 원문은 '極浦'로, 아득히 먼 물가라는 뜻이다.

39) 금수봉 …… 아름다운 곳: 부벽루가 금수산 모란봉에 있으며, 이곳에서 능라도를 바라보며 풍류를 즐기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였다.

40) 이 작품은 신광한의 문집인 『기재별집企齋別集』에 수록되어 있다.



高麗門下平章事 諡文烈

고려 문하평장사를 지냈으며 시호는 문열이다.

이궁에서 조회하고 물러나와 멋진 놀이 즐기니
 끝없는 경치가 두 눈에 달려든다.
 구름 늘어선 산은 첩첩이 솟아났고
 성 아래 찬 강물은 느긋하게 흘러간다.
 버드나무 어둑한데 뉘집에서 술을 파는가
 달은 밝은데 낚싯배는 어디에 있는가.
 두목(杜牧)은 일찍이 한가한 나그네 되고 싶어 했는데
 지금 나는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것을 꺼리네.

김부식

朝退離宮得勝遊
 無窮景⁴³⁾象赴雙眸
 雲邊列岫重重出
 城下寒江漫漫流
 柳暗誰家酤⁴⁴⁾酒店
 月明何處釣魚舟
 牧之曾願爲閑客
 今我猶嫌不自由

金富軾

41) 김부식: 고려전기 직한림, 추밀원부사, 중서시랑평장사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1075년(문종 29)에 태어나 1151년(의종 5)에 사망했다. 신라 무열왕의 후손으로, 송의 서경조차도 박학다식하여 글을 잘 짓고 고금을 잘 알아 그를 능가할 사람이 없다고 평할 정도였다. 묘청의 난 때 원수로 임명되어 직접 중군을 거느리고 삼군을 지휘 통솔해 진압했다. 본인이 주도한 윤언이·한유충 등의 지방좌천 인사가 번복되자 정치보복을 염려하여 세 번 사직상소를 올리고 관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인종의 명에 따라 50권의 『삼국사기三國史記』를 편찬해 바쳤다.

42) 이 작품은 「西都九梯宮朝退休于永明寺」라는 제목으로 『동문선東文選』에 수록되어 있다.

43) 景: 동문선에는 物로 되어 있다.

44) 酤: 동문선에는 沽로 되어 있다.



鄭圃隱 見上

정포은[정몽주] 앞에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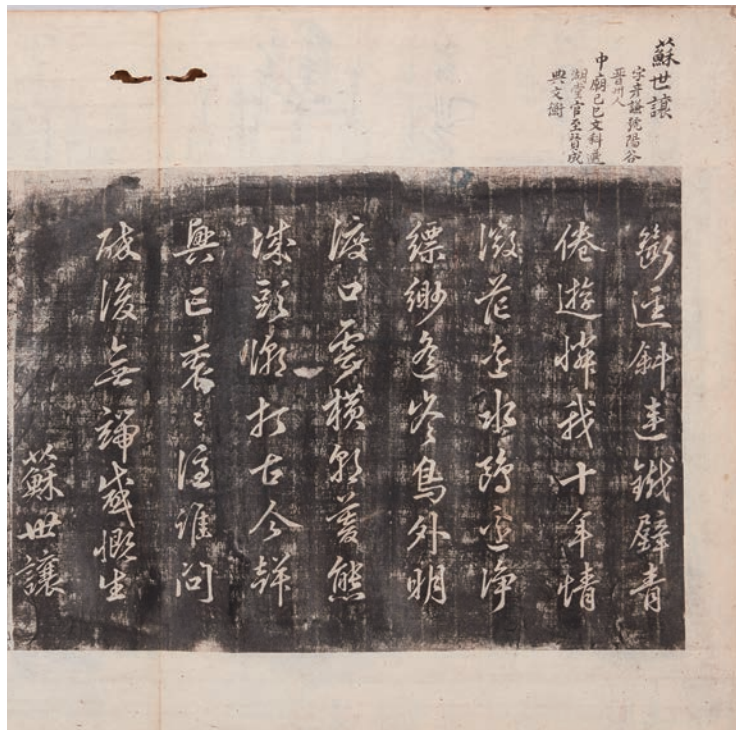
을축년(1385, 우왕11) 9월 중국 사신 학록 장보, 전부 주탁을 모시고 서경 영명루에 올라 판상의 시에 차운하였다⁴⁶⁾.
乙丑九月 陪天使張學錄溥周典簿倬 登西京永明樓 次板上韻

사신이 동쪽으로 와 좋은 유람 즐기니
모두 당대에 일류 명사들이로다.
옥절 앞세워 멀리 요해 위를 지났는데
패강 가에는 노란 국화 막 보이네.
인생에 술 있으니 취하기를 사양하지 마오,
나그네 길에 산을 마주하니 애오라지 실 만하리.
천하가 지금 하나로 돌아가니
누정에 올라서 한가로이 시름 일으킬 필요는 없으리.

使臣東下作清遊
俱是當今第一流
玉節遠過遼海上
黃花初見溟江頭
人生有酒莫辭醉
客裏對山聊可休
萬國卽今歸混一
登臨不用起閑愁

45) 정몽주: 고려 말의 문신이자 성리학자로 본관은 영일(迎日), 자는 달가(達可), 호는 포은(圃隱)이다. 1350년(충정왕 2)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벼슬에 나온 이후 문하찬성사, 예문관제학, 인물추변도감제조관 등을 역임하였다. 명나라와 일본에 사신으로 다녀왔다. 고려에 대한 충절을 지키다가 이방원에 의해 살해당하였다.

46) 이 작품은 동일한 제목으로 정몽주의 문집인 『포은집圃隱集』에 수록되어 있다.



字彥謙 號陽谷 晉州人 中廟己巳文科選湖堂官至贊成典文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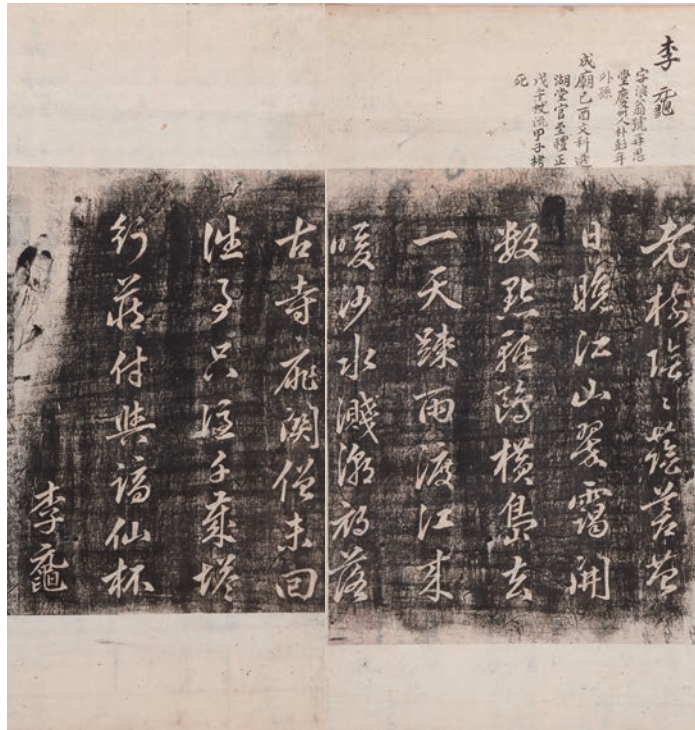
자는 언겸(彦謙), 호는 양곡(陽谷), 본관은 진주(晉州)이다. 종종 기사년(1509)에 문과에 급제하여 호당에 선발 되었으며, 관직은 찬성에 이르렀다. 문형을 맡았다.

끊어진 길 비스듬히 쇠로 된 푸른 절벽과 이어져
 느긋한 유람에 십 년의 정이 그리워라.
 아득하게 멀리서 흘러오는 강물은 갈매기 옆에 맑고
 아스라이 먼 봉우리는 새 저편으로 밝아라.
 나루터엔 구름 비스듬히 걸려 아침 저녁으로 모양 내고
 성 머리엔 물결 쳐서 고금(古今)의 소리 내는구나.
 세월 속에 흘러온 흥망(興亡) 누구에게 물어볼까나
 취한 뒤에 무단히 감개함이 일어난다.⁴⁸⁾

斷逕斜連鐵壁青
 倦遊憐我十年情
 微茫遠水鷗邊淨
 縹緲遙岑鳥外明
 渡口雲橫朝暮態
 城頭潮打古今聲
 興亡袞袞憑誰問
 醉後無端感慨生

47) 소세양: 조선전기 형조판서, 호조판서, 병조판서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문집으로 『양곡집陽谷集』이 전한다.

48) 이 작품은 1539년(중종 34) 2월, 소세양이 명나라 사신을 맞으러 용만(龍灣)에 갔다가 최연(崔演, 1503~1549), 엄흔(嚴昕, 1508~1553), 임형수(林亨秀, 1504~1547), 신광한(申光漢, 1484~1555) 등과 함께 부벽루에 올라서 지은 작품이다. 이 작품은 소세양의 문집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최연의 『간재집艮齋集』에 「부벽루浮碧樓」라는 제목으로 이들의 시가 모두 수록되어 있다.



字浪翁 號再思堂 慶州人 朴彭年外孫 成廟己酉文科選湖堂官至禮正戊午 杖流甲子拷死

자는 낭옹(浪翁), 호는 재사당(再思堂), 본관은 경주(慶州)이다. 박팽년(朴彭年)의 외손이다. 성종 기유년(1489)에 문과에 급제하여 호당에 뽑혔다. 관직은 예조정랑에 이르렀다. 무오년(1546) 곤장을 맞고 유배되었으며, 갑자년에 고문 당해 죽었다.

늙은 나무 어둑어둑 푸른 이끼에 드리웠고
 날 저무는 강산에 비취빛 안개 걷혀진다.
 가쁜한 갈매기 몇 점 섬을 가로질러 날아가고
 하늘에 성긴 비는 강을 건너오는구나.
 따스한 모래에 물은 찰랑이는데 조수(潮水) 막 떨어지고
 오래된 절 사립은 닫혔는데 스님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지나간 일은 다만 천 년 탑에 기대고
 나아가고 물러가는 것⁵²⁾ 적선⁵³⁾과 나누는 술잔에 부치노라.⁵⁴⁾

老樹陰陰⁵⁰⁾蔭蒼苔
 日晩江山翠靄開
 數點輕鷗橫島去
 一天疎雨渡江來
 暖沙水濺潮初落
 古寺扉關僧未回
 往事只憑千歲⁵¹⁾塔
 行藏付與謫仙杯

이원

李龜

49) 이원: 조선전기 검열, 호조좌랑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1498년(연산군 4) 무오사화 때 이로 인하여 곽산에 장류(杖流)되었다가 4년만에 다시 나주로 이배되었는데, 1504년(연산군 10) 갑자사화로 참형당하였다. 문장에 능하고 특히 행의(行義)로 추앙받았다. 저서로는 『금강록金剛錄』 『재사당집再思堂集』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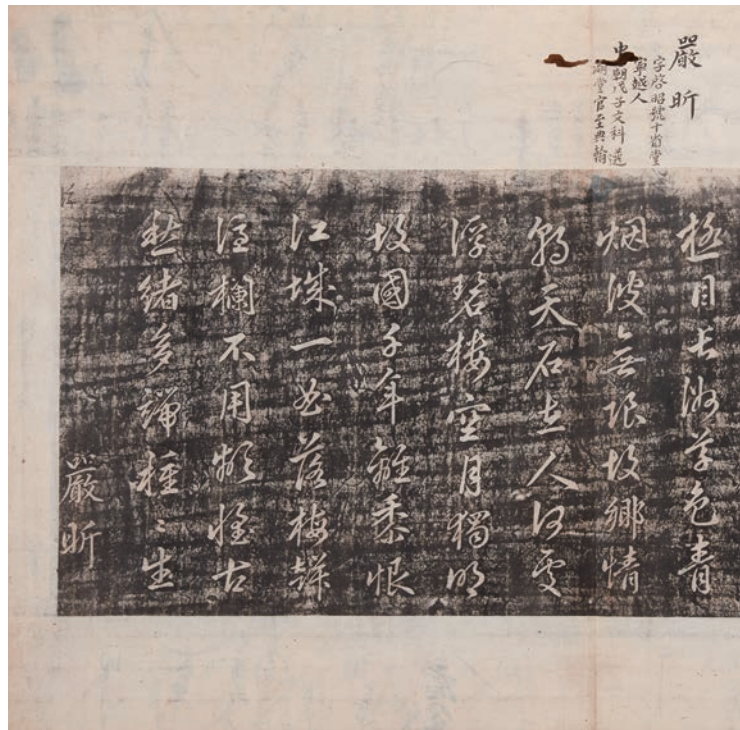
50) 老樹陰陰: 『재사당집』에는 陰陰老樹으로 되어 있다.

51) 歲: 『재사당집』에는 載로 되어 있다.

52) 원문은 ‘行藏’으로, 세상에 나아가는 것과 물러나는 것, 혹은 벼슬길에 나아가는 것과 물러나는 것을 의미한다.

53) 적선(謫仙): 인간세계로 귀양 온 신선이라는 뜻으로 이백(李白)을 지칭한다.

54) 이 작품은 이원의 『재사당집』에 「登浮碧樓」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字啓昭 號十省堂 寧越人 中廟戊子文科 選湖堂官 至典翰

자는 계소(啓昭), 호는 십성당(十省堂), 본관은 영월(寧越)이다. 중종 무자년(1523)에 문과에 급제하여 호당에 뽑혔다. 관직은 전한에 이르렀다.

저 멀리 긴 모래섬에 풀빛 푸른데
끝없는 안개 물결에 고향의 정이 스몄다.
조천석은 남아있는데 사람은 어디로 갔는가
부벽루 텅 비었는데 달만 홀로 밝아라.
옛 나라 천 년에 망국의 한 서렸고
강마을엔 한 곡조 매화 떨어지는 소리 나네.
난간에 기대서 자주 옛날을 생각할 필요 없나니
근심은 다단하게 계속 일어나는구나.

極目長洲草色青
烟波無限故鄉情
朝天石在人何處
浮碧樓空月獨明
故國千年離黍⁵⁶⁾恨
江城一曲落梅聲
憑欄不用頻懷古
愁緒多端種種生

엄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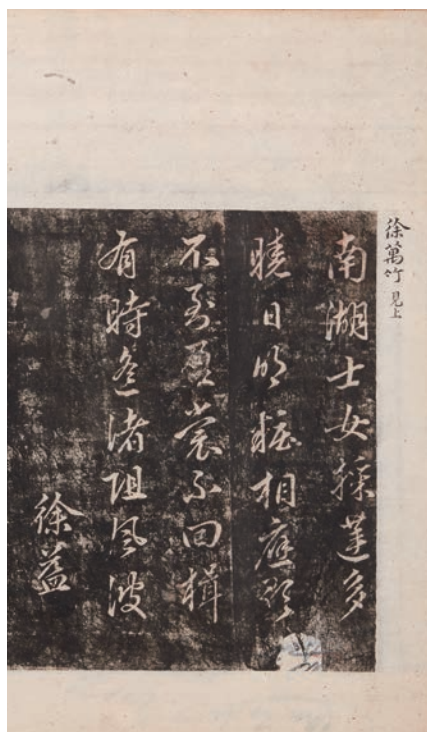
嚴昕

55) 엄흔: 조선전기의 문신으로, 시문에 능하여 시조 1수가 『가곡원류』에 전하며, 유저인 『십성당집十省堂集』 1권이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작품은 엄흔의 『십성당집』에 「浮碧樓」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56) 離黍: 『시경』에 나오는 구절로, 옛 주나라 궁실이었던 곳이 기장 밭으로 변했다는 고사에서 온 말. 망국을 안타까워 한다는 뜻이다.

16 서익(徐益)

대동강(大同江)(청구제영 제6첩)



徐萬竹 見上

서만죽[서익]앞에서 보인다.

남호의 아낙네들 연밥을 많이 따니
새벽부터 곱게 단장하고 서로 노래 주고 받는다.
치마에 가득 차지 않으면 배를 돌리지 않으리니
이따금 먼 물가엔 바람 물결 험하여라.⁵⁹⁾

서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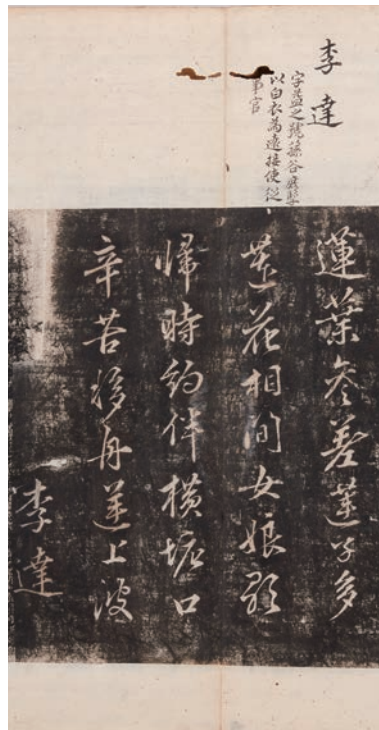
南湖士女採蓮多
曉日明⁵⁷⁾粧相應歌
不到盈裳不回楫⁵⁸⁾
有時遙渚阻風波

徐益

57) 明: 최경창의 문집 『고죽유고孤竹遺稿』, 장유(張維)의 『청창연담淸窓軟談』 등에는 靚으로 되어 있다.

58) 楫: 장유(張維)의 『청창연담』에는 棹로 되어 있다.

59) 이 작품은 약간의 글자 출입은 있지만 「溟江樓紅題詠」라는 제목 아래 최경창의 문집 『고죽유고』, 장유의 『청창연담』 등에 수록되어 있다.



字益之 號蓀谷 庶孽 以白衣爲遠接使從事官

자는 익지(益之), 호는 손곡(蓀谷), 서얼 출신이다. 백의(白衣)로 원접사(遠接使)의 종사관(從事官)을 지냈다.

연잎 들쭉날쭉하고 연밥 많은데
연꽃 사이에서 여인들의 노랫소리 들린다.
돌아올 때 포구 입구에서 짝과 약속 했나니,
고생스럽게 배를 저어 물결 거슬러 올라간다.

蓮葉參差蓮子多
蓮花相間女郎歌
來時約伴橫塘⁶¹⁾口⁶²⁾
辛苦移舟逆上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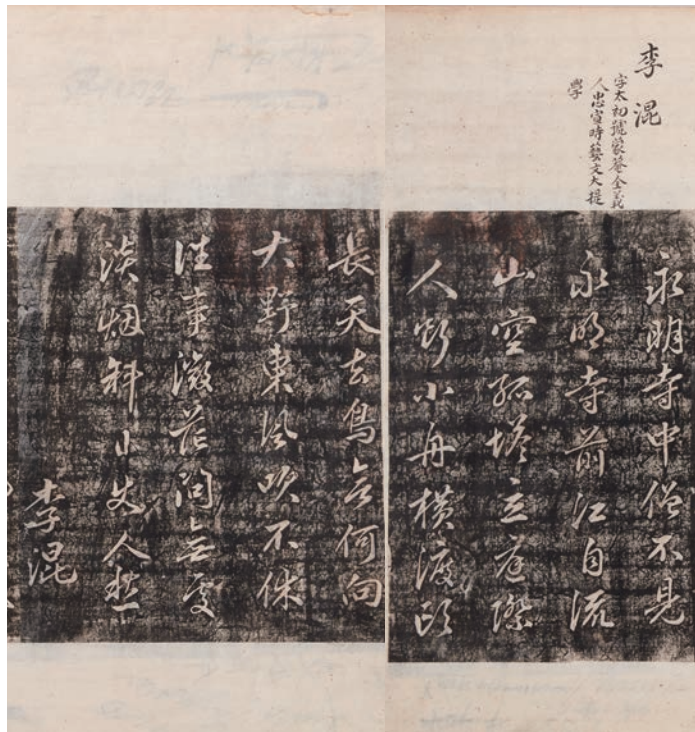
이달

李達

60) 이달: 조선 전기의 문인이자 허균의 스승이다. 원주 손곡(蓀谷)에 묻혀 살았기에 호를 손곡이라고 하였다. 이수함(李秀咸)의 서자이다. 이 작품은 이달의 문집인 『손곡시집蓀谷詩集』에 「采蓮曲次大同樓船韻」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또한 장유의 『청창연담』, 허균의 『성수시화』, 이유원의 『임하필기』 「春明逸史」, 이수광의 『지봉유설』 등에 널리 수록되어 있기도 하다.

61) 橫塘: 옛날 강둑의 이름. 중국 삼국 시대 회수(淮水) 남쪽에 쌓았던 제방이지만, 백성들이 모여 사는 곳을 지칭하기도 함. 여기서는 포구(浦口)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62) 口: 『청창연담』에는 浦로 되어 있다.



字太初 號夢庵 全義人 忠宣時 藝文大提學

자는 태초(太初)이며 호는 몽암(夢庵)이다. 충선왕(忠宣王) 때 예문대제학(藝文大提學)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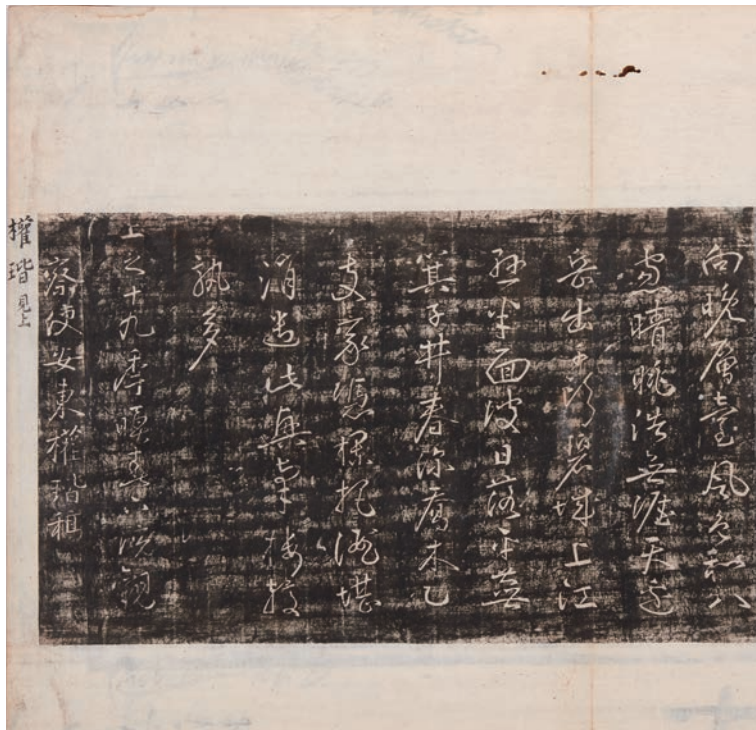
영명사 안에는 스님 보이지 않고
영명사 앞에는 강물만 절로 흐른다.
산은 비었는데 외로운 탑은 뜰 가에 서있고
인적은 끊겼는데 작은 배는 나루터에 비껴 있다.
먼 하늘에 날아가는 새는 어디로 가려는가,
넓은 들판 동풍은 끝없이 불어온다.
지난 일 아득하여 물어볼 곳 없는데
열은 안개 비끼는 해는 시름겹게 하는구나.

이혼

永明寺中僧不見
永明寺前江自流
山空孤塔立庭際
人斷小舟橫渡頭
長天去鳥欲何向
大野東風吹不休
往事微茫問無處
淡煙斜日使人愁

李混

63) 이혼: 고려후기 지밀직사사, 판밀직사사, 첨의정승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뒤에 예안백(禮安伯)에 봉해져 예안 이씨의 시조가 되었다. 시문에 능해 장단구 몇 편이 세상에 유행했으며, 영해에 귀양 갔을 때 지은 「무고舞鼓」가 『악부樂府』에 전한다. 이 작품은 『동문선東文選』에 「西京永明寺」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見上
앞에서 보인다.

저물녘 높은 누대에 경색(景色) 좋은데
창으로 들어오는 맑은 조망은 드넓어 끝이 없다.
하늘 가 솟은 산은 천 봉우리 푸르고
성 위에 강이 걸려 반쪽 면이 물결이라.
날 저무는 들판에는 기자의 우물
봄 깊은 큰 나무는 을지(乙支)의 집안.
난간에 기대 술잔 잡으며 근심 보낼 만하니
이 흥취는 남루에 비해 어느 쪽이 더 많을까.

向晚層臺風色和
入窓晴眺浩無涯
天邊岳出千頭碧
城上江懸半面波
日落平蕪箕子井⁶⁶⁾
春深喬木乙支家
憑欄把酒堪消遣
此興南樓較孰多

상 19년⁶⁷⁾ 9월 하순에 관찰사 안동 권해가 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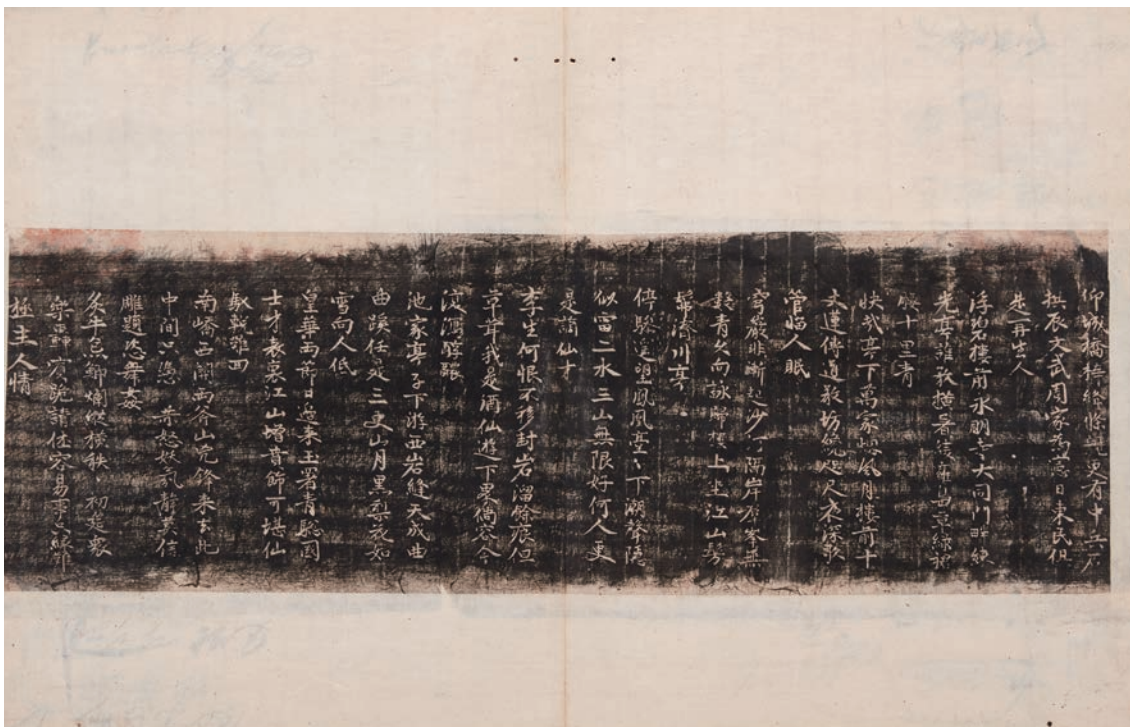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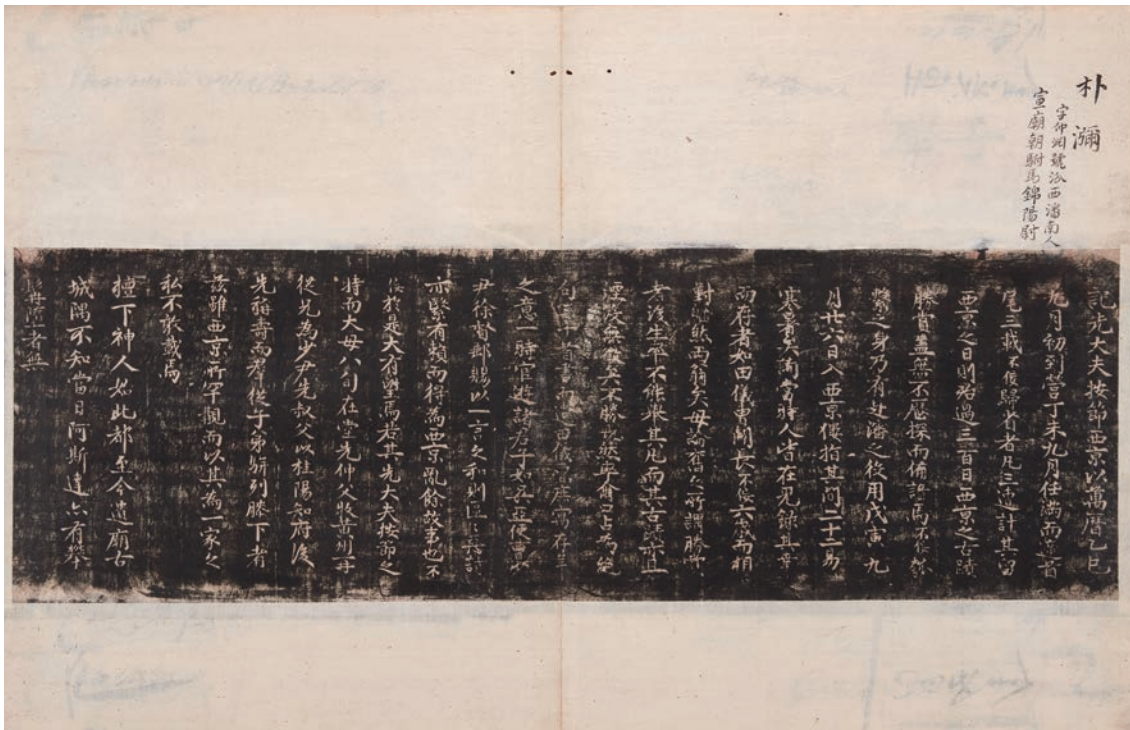
上之十九年暮春下浣 觀察使 安東 權瑨 稿

64) 권해: 조선후기의 문신이며, 문장과 글씨에 뛰어났으며, 고부단사의 서장관으로 중국 청나라에 다녀왔다. 대사간, 대사헌, 호조 참의를 지냈다. 저서에 『남곡집』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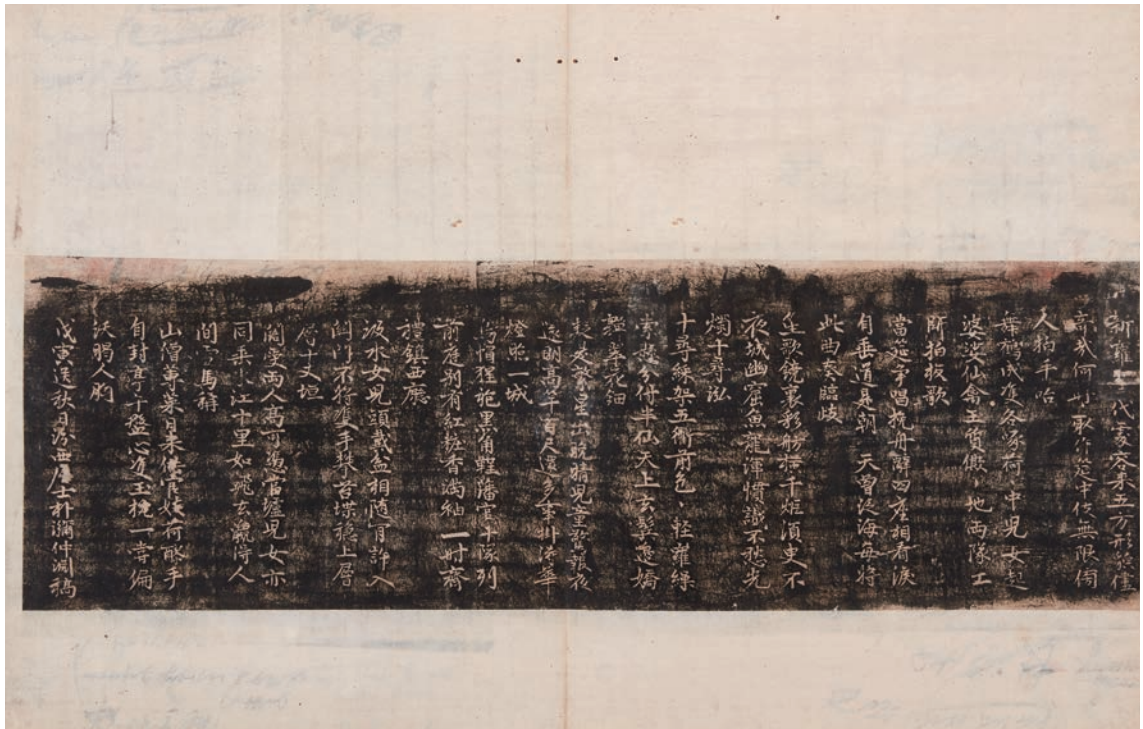
65) 망일헌은 평양감영 북쪽에 있는 건물로, 1614년(광해군 6) 감사 김신국(金薰國, 1572~1657)이 창건했다. 1837년(헌종 3) 간행된 『관서읍지 關西邑誌』에 의하면 당시에는 이미 없어진 건물이다.

66) 井: 『관서읍지』에는 國으로 되어 있다.

67) 上之十九年: 권해의 생몰년으로 보아 1693년(숙종 19)으로 추정된다.



68) 박미: 조선후기의 문신이자 서예가이다. 자는 중연(仲淵), 호는 분서(汾西)이다. 선조의 부마(駙馬)로, 문예에 능하였다. 이 작품은 박미의 문집인 『분서집汾西集』에 「西京感述」이라는 제목으로 서문과 함께 수록되어 있다. 문집의 기록에 의하면 이 작품은 사신으로 심양(瀋陽)을 다녀오면서 지은 것이다.



字仲淵 號汾西 潘南人 宣廟朝 駙馬 錦陽尉

자는 중연(仲淵), 호는 분서(汾西), 본관은 반남(潘南)이다. 선조 때 부마(駙馬)로 금양위(錦陽尉)에 봉해졌다.

記先大夫按節西京 以萬曆乙巳九月 初到營 丁未九月 任滿而適 首尾三載 不佞歸省者凡三遭 計其留西京之日 則殆過三百日 西京之古蹟勝賞 盖無不歷探而備諳焉 不佞瓠繫之身 乃有赴藩之役 用戊寅九月廿六日入西京 倂指其間 二十二易寒暑矣 詢當時人皆在鬼錄 其幸而存者 如田儀曹關 長不佞六歲 而相對皤然兩翁矣 毋論舊之所謂勝賞者 後生率不能舉其凡 而其古蹟亦且湮沒無徵矣 不勝慨然 率爾口占 爲絕句三十首 書而遺田儀曹 庶寓存羊之意 一時官遊諸君子 如吳亞使, 曹少尹 挺立, 徐督郵 賜以一言之和 則區區惡詩 亦繫有賴而得爲西京亂餘故事也 不佞於是 大有望焉 若其先大夫按節之時 而大母八旬在堂 先仲父牧黃州 再從兄爲少尹 先叔父以桂陽知府 後先稱壽 而群從子弟 駢列膝下者 茲雖西京所罕觀 而以其爲一家之私 不敢載焉

선대부께서 서경을 다스리던 때를 기억해보면 만력 을사년(1605) 9월 처음 감영에 도착하여 정미년(1607) 9월까지 임기가 딱 차서 체직되시기까지 꼬박 3년 동안이었다. 내가 귀성(歸省)한 것은 무릇 세 번이었으니, 서경에 머물렀던 날을 계산하면 거의 3백일이 넘는다. 서경의 고적과 뛰어난 명승지를 대개 탐방하여 모두 기억하지 않는 곳이 없었다.

나는 매달려있는 뒤웅박 같은 신세라 이에 심양으로 가는 일을 하게 되었다. 무인년(1638) 9월 26일 서경에 들어와서 그 기간을 손가락으로 꼽아보니 32년이나 흘렀던 것이다. 당시 사람들을 물어보니 모두 돌아가셨고, 다 행스럽게도 살아계신 분들은 의조(儀曹) 전벽(田關) 같은 사람이었다. 나보다 여섯 살 많은 분이었는데 만나보니 머리가 하얗게 센 두 노인이 마주하고 있었던 것이다. 옛날의 이른 바 뛰어난 감상처로 후생들이 대체로 그 대강을 들 수 없는 곳은 물론 고적(古蹟) 역시 인물되어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탄식을 이기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입으로 운자를 골라서 30수의 절구를 지어서, 써서 전의조에게 주었으니 이는 존양(存羊)의 뜻을 부치려 한 것이다. 한때 함께 벼슬을 했던 여러 군자들, 예컨대 아사(亞使) 오빈(吳邇, 1602~1685), 소윤(少尹) 조정립(趙廷立), 독우(督郵) 서정연(徐挺然) 등이 한 마디 말로 화답을 해주셨고, 보잘

것 없는 나의 시 또한 그 덕분에 서경의 난리 뒤의 고사가 될 수 있었다. 나는 이에 큰 바람이 있었으니, 선대부께서 이곳을 다스리실 때 할머니께서는 8순으로 당내에 계셨고 돌아가신 중부(仲父)께서는 황주(黃州)를 다스리고 계셨으며 재종형님은 소윤(少尹)으로, 돌아가신 숙부께서는 계양지부(桂陽知府)로 앞뒤로 장수를 칭송하고 있었으며, 여러 종형제들이 슬하에 떨어져 있었는데, 이는 비록 서경에서 드물게 보는 것이지만 일가의 사사로움이기 때문에 감히 수록하지 않는다.

박달나무 아래 신인이 처음 이곳에 도읍하여
지금까지 남긴 묘당이 옛 성 모퉁이에 남아있다.
모르겠구나, 당시 아사달에
또한 수염 붙들고 오르다 떨어진 사람 없었는지를.⁶⁹⁾

檀下神人始此都
至今遺廟古城隅
不知當日阿斯達
亦有攀髯墮者無⁷⁰⁾

이여송 부자의 공은 주발 부자에 가깝고
또한 중병 석공진이 있었네.
문과 무로 두루 나라의 법도를 세우던 날
동방의 백성들도 모두 다시 태어난 사람 되었지.

仰城橋梓絳條親
更有中兵石拱辰
文武周家爲憲日
東民俱是再生人

부벽루 앞 영명사
대동문 옆 연광정.
그 누가 능라도를 비스듬히 놓았는가,
초록빛 치마 허리띠처럼 십 리에 푸르구나.

浮碧樓前永明寺
大同門畔練光亭
誰教橫著綾羅島
草綠裙腰十里青

쾌재정 아래에는 만가(萬家)의 연기
풍월루 앞에는 활짝 피어난
들으니 교방이 바로 지척이라는데
깊은 밤 음악 소리가 잠 못들게 하는구나.⁷²⁾

快哉亭下萬家烟
風月樓前十丈蓮
傳道⁷¹⁾教坊纔咫尺
夜深歌管惱人眠

궁암이 이곳저곳 모래사장에 솟았고
건너 언덕 못 봉우리들 무수히 푸르러라.
오래도록 영귀루 위에 앉으니
강산은 제천정과 비슷하구나.

穹巖非漸起沙汀
隔岸群峯無數青
久向詠歸樓上坐
江山髣髴濟川亭

말 멈추고 아스라이 봉황대를 바라보니
대 아래 물결 소리 우레처럼 은은하다.
이수(二水)와 삼산(三山) 끝없이 좋으나
그 누가 다시 적선의 재주 부릴꼬.

停驂遙望鳳凰臺
臺下潮聲隱似雷
二水三山無限好
何人更是謫仙才

이생은 봉지(封地)를 옮겨주지 않은 것 어찌 한탄하였는가

李生何恨不移封

69) 이 시에서 읊은 묘당은 단군을 모신 사당인 단군사(檀君祠) 혹은 숭령전(崇靈殿)을 지칭한다. 19세기에 편찬된 『평양지』에 보면 춘추제향을 올린다고 되어 있으며, 조선 세종 때 설치되었다고 한다.

70) 박미는 이 작품 뒤에 다음과 같은 주석을 붙였다. “東史言, 檀君入阿斯達山爲仙. 或言卽今九月山也.” 『동사』에 이르기를, ‘단군은 아사달에 들어가 신선이 되었다’고 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의 구월산이라고 말한다.

71) 傳道: 박미의 문집에는 道是로 되어 있음.

72) 이 시에 대하여 박미는 다음과 같이 주석을 붙였다. “쾌재정은 대동관(大同館) 뒤에 있는데 지금도 우뚝 서있다. 풍월루는 임진란에 불에 탔지만 앞쪽으로 큰 연못이 있어서 연꽃이 무성했다. 지금 연못은 마르고 연꽃은 말라죽었다. 교방 역시 없어졌으니 옛 모습을 다시는 볼 수 없다.”

바위의 흘러내린 흔적에 다만 풀만 무성하네.
나 또한 주선(酒仙)으로 인간세상에 노닌다면
이제 다시 쏟아지는 술을 그릇에 담을 수 있을는지.

巖溜餘痕但草茸
我亦酒仙游下界
倘容今復瀉醇醴

지씨네 집 정자 아래 물은 서쪽으로 흐르고
하늘이 만든 바위엔 골골마다 오솔길.
산 달 캄캄하진 삼경(三更)이면
눈처럼 흰 배꽃이 사람 향해 고개 숙인다지.

池家亭子下游西
巖縫天成曲曲蹊
任是三更山月黑
梨花如雪向人低

두 분의 사신이 명나라에서 오니
한림원의 청춘마요 국사(國士)의 재주로다.
강산 안팎이 더욱 아름답게 장식되었나니
신선의 수레 이끌어 되돌리기 어려워할 만하네.

皇華兩節日邊來
玉署青驄國士才
表裏江山增賁飾
可堪仙馭輓難回

영남과 관서에 두 개의 부산(斧山)이 있나니
흉악한 칼끝이 이 사이에서 오갔었지.
엄청난 분노에 기대어 요사스러운 기운 진정되니
오랑캐들이 멋대로 간사함을 휘두르게 하지 말라.

南嶠⁷³⁾西關兩斧山
兇鋒來去此中間⁷⁴⁾
只憑赫怒妖氛靜
莫信雕題恣舞姦

소를 굽고 붕어 구워 종횡으로 어지러운데
많은 사람 모여 잔치 시작하자 못 음악 요란하다
손님이 무릎 꿇고 휴식 청하기는 쉬운 일이지만
다만 주인의 정 다하기 어려워 짐 때문이로다.

炙牛烹鯽爛縱橫
秩秩初筵衆樂轟
賓跪請休容易事
只緣難極主人情

신라 태평성대에 처용이 나타났으니
오방색 그 모습 정말로 기이해라.
언제 잔치에서 재주를 부려
수많은 구경꾼들에게 박수와 웃음 얻어냈는가.⁷⁵⁾

新羅聖代處容來
五方形貌儘奇哉
何時取作筵中伎
無限傍人拍手哈

춤추는 학 짝을 지어 제각각 연밥 쪼니
연밥 안의 아가씨들 일어나서 춤을 춘다.
학과 아가씨가 너울너울 춤추는 곳에
두 무리의 악공들이 연주하며 노래하네.

舞鶴成雙各啄荷
荷中兒女起婆娑
仙禽玉質傲傲地
兩隊工師拍板歌

잔치 자리에서 모두들 배 당기는 노래 부르면서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서로 보며 눈물 흘린다.
전해 오기로는 명나라에 사신 가며 바다를 건널 때면

當筵爭唱挽舟辭
四座相看淚自⁷⁶⁾垂
道是⁷⁷⁾朝天⁷⁸⁾曾泛海

73) 南嶠: 영남 지역을 지칭한다.

74) 兇鋒來去此中間: 임진왜란에 왜군들이 쳐들어 온 것을 말함.

75) 이 작품은 박미의 『분서집』에 기구(起句)만 같을 뿐 나머지 세 구절은 완전히 다르게 수록되어 있다. 문집의 작품은 다음과 같다. “新羅聖代處容來 五色聯翩舞袖回 千載華筵看故事 十分奇狀不須猜.”

76) 自: 『분서집』에는 欲으로 되어 있다.

77) 道是: 『분서집』에는 傳道로 되어 있다.

78) 天: 『분서집』에는 京으로 되어 있다.

매번 이 노래를 헤어지는 갈림길에서 부른다고 하네.
 생황과 노랫소리 들리는 아름다운 배 물에 비스듬히 있는데
 천 개의 횃불이 순식간에 불야성을 만든다.
 어둑한 굴 속 물고기와 용은 익히 알고 있는지라
 불빛이 열 길 물속까지 비추어도 근심하지 않는다.

每將此曲奏臨歧
 笙歌鏡裏彩舫⁷⁹⁾橫
 千炬須臾不夜城
 幽窟魚龍渾慣識
 不⁸⁰⁾愁光燭十尋泓

오거리 큰길 앞에 열 길 아름다운 무대
 색색이 가벼운 비단에 아침빛 줄 걸렸네.
 반선놀이(그네뛰기) 분부하며 천상으로 가버리니
 귀밑머리 옆으로 푸른 빛 꽃비녀 아름답게 늘어졌다.

十尋彩架五衢前
 色色輕羅縹索懸
 分付半仙天上去
 鬟邊嬌蹕翠花鈿

뻥뻥한 별들이 맑은 저녁에 나온 것 같으니
 아이들이 놀라서 밤이 다시 밝아졌노라 알려준다.
 백 척 높은 장대에 도리어 일도 많아
 아름다운 등불 매달아서 온 성을 비춘다.

疑是繁星出晚晴
 兒童驚報夜還明
 高竿百尺還⁸¹⁾多事
 掛得華燈照一城

오사모에 붉은 도포, 검은 뿔 허리띠
 지방 관속들 열 줄로 앞뜰에 도열했네.
 특별히 붉은 행장에 향기 가득한 소매로
 일시에 진서청에서 예를 올린다.

烏帽猩袍黑角鞵
 藩官十隊列前庭⁸²⁾
 別有紅裝香滿袖
 一時齊禮鎮西廳⁸³⁾

물 걷는 여자아이 머리에 물동이 이고
 줄줄이 어찌 관문으로 들어오길 허락해줄까
 두 손으로 이끼 낀 성가퀴를 잡지도 않고
 층층이 열 길 담장을 편안히 올라간다.
 두 사람 받아들일 넓이에 기댈 만한 높이라
 주막의 계집아이도 함께 올라탄다.
 얼음 언 강 십 리를 날아가듯 지나가니
 인간 세상에 썰매라고 충분히 이를 만하네.

汲水女兒頭戴盆
 相隨肯許⁸⁴⁾入關門
 不將⁸⁵⁾雙手攀苔堦
 穩上層層十丈垣
 闊受兩人⁸⁶⁾高可憑
 當墟兒女亦同乘
 氷江十里如飛去
 贏得人間雪馬稱

산승이 순채를 날마다 보내주고
 관기가 연잎술을 손수 봉하였네.
 한낮 쟁반에 한 쌍의 옥그릇
 한 번 맛보면 더위 먹은 가슴을 시원케 한다

山僧蓴菜日來供
 官妓荷醪手自封
 亭午盤心雙玉椀
 一嘗偏沃渴人膺

무인년(1638) 가을 끝자락에, 분서거사 박미 중언이 씀.

戊寅送秋日 汾西居士 朴瀾仲淵稿

79) 舫: 『분서집』에는 舟로 되어 있다.

80) 不: 『분서집』에는 肯으로 되어 있다.

81) 還: 『분서집』에는 眞으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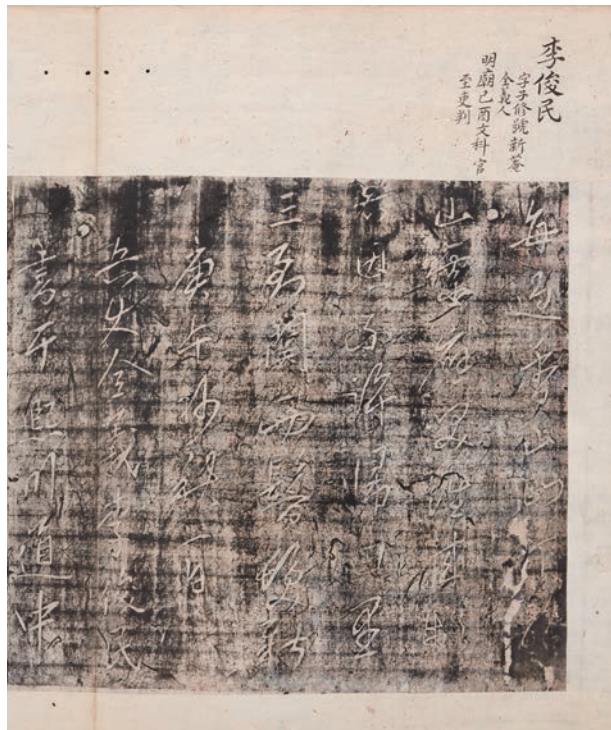
82) 『분서집』에는 기구(起句)와 승구(承句)가 서로 바뀌어 있다.

83) 鎮西廳: 평양 관아에서 순찰을 담당하는 관리가 근무하는 정야(正衙)를 말한다.

84) 將: 『분서집』에는 煩으로 되어 있다

85) 將: 『분서집』에는 煩으로 되어 있다.

86) 人: 『분서집』에는 身으로 되어 있다.



字子修 號新庵 全義人 明廟己酉文科 官至吏判

자는 자수(子修), 호는 신암(新庵), 본관은 전의(全義)이다. 명종 기유년(1549)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이조 판서에 이르렀다.

향산 산 아래 길을 매번 지나니
산신령은 자주 왕래한다며 응당 웃으리.
임금 은혜로 전원 돌아가는 것 허락지 않으시어
세 번이나 관서에 오니 머리카락 새로워라.

每過香山山下路
山靈應笑往來頻
君恩不許歸田里
三到關西鬢髮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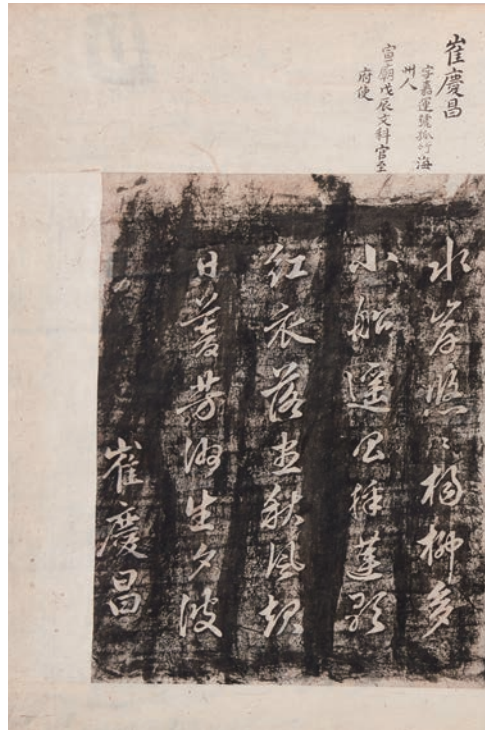
경오년(1570) 초추 초하루에 병사 전의 이준민이 희천 도중에 짓다

庚午抄秋一日 兵使全義李俊民 書于熙川道中

87) 이준민: 이견(李健)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이정운(李貞胤)이고, 아버지는 참봉 이공량(李公亮)이며, 어머니는 조언형(曹彦亨)의 딸이다. 영남의 대학자인 조식(曹植)이 그의 외숙이다.

22 최경창(崔慶昌, 1539~1583)⁸⁸⁾

부벽루(청구제영 제6첩)



字嘉運 號孤竹 海州人 宣廟戊辰文科 官至府使

자는 가운(嘉運), 호는 고죽(嘉運), 본관은 해주(海州)이다. 선조 무진년(1568)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부사에 이르렀다.

강 언덕 아득하고 버드나무 많은데
작은 배에서 아련하게 연밥 따는 노래 부른다.
붉은 단풍 다 떨어지자 가을바람 이는데
해 저무는 모래톱에 저녁 물결 일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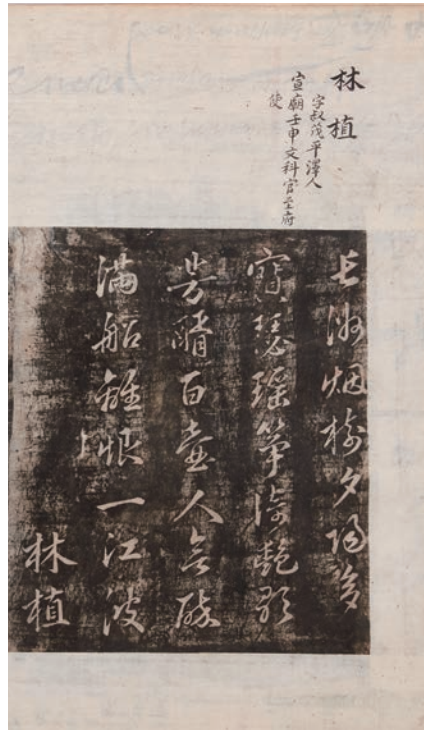
水岸悠悠楊柳多
小船遙唱採蓮歌
紅衣落盡秋風起
日暮芳洲生夕⁸⁹⁾波

최경창

崔慶昌

88) 최경창: 최충(崔冲)의 18대손이며 최자(崔滋)의 13대손이다. 아버지는 최수인(崔守仁)이며, 박순(朴淳)의 문인이다. 『고죽유고孤竹遺稿』를 저술하였다. 이 작품은 최경창의 문집 『고죽유고』에 「溟江樓缸題詠」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그 외에도 허균의 『성수시화』, 『해동역사』에 두루 실려 있는 명작이다.

89) 夕: 최경창의 『고죽유고』에는 白으로 되어 있다.



字叔茂 平澤人 宣廟壬申文科 官至府使

자는 숙무(叔茂), 본관은 평택(平澤)이다. 선조 임신년(1572)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부사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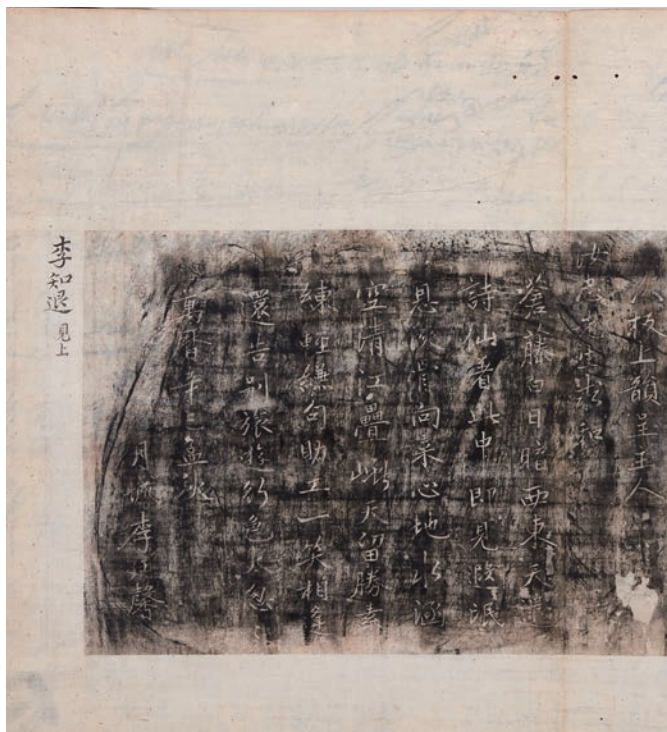
긴 모래톱 안개 낀 나무에 석양빛 길은데
아름다운 가얏고에 어여쁜 노래 부른다.
백동이 좋은 술에 사람들 취하려는데
배 가득 이별의 한이 온 강에 물결친다.

長洲烟樹夕陽多
寶瑟瑤箏倚艷歌
芳醕百壺人欲醉
滿船離恨一江波

임식

林植

90) 임식: 아버지는 형조좌랑 임정수(林貞秀)이며, 어머니는 전의이씨(全義李氏)로 현감 이진남(李震男)의 딸이다. 시문에 능하였으며, 서북지방의 명승을 대상으로 읊은 시가 전한다. 저서로는 『송파유고松坡遺稿』이 있다. 이 작품은 19세기에 편찬된 『관서읍지』에 수록되어 전한다.



李知退 見上

이지퇴[이정형] 앞에서 보인다.

시판의 운자를 차운하여 주인 여충 선생에게 드리면서 화답시를 구하다

次板上韻呈主人 汝忠先生求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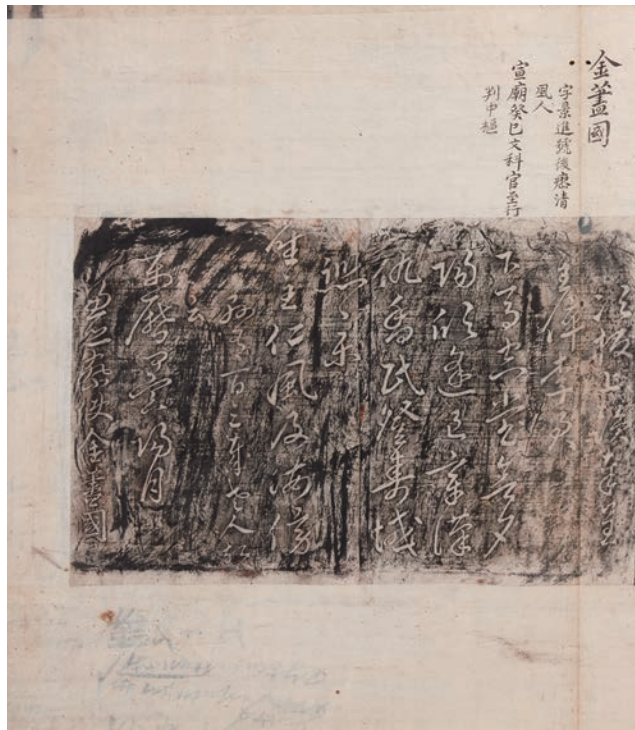
푸른 등나무에 한낮에도 동서가 어둑한데
하늘이 시선(詩仙)을 이곳에 내려 주셨네.
뵈오니 먼 땅의 백성은 은혜가 뼈에 사무치고
한결같은 그 마음은 물에 비친 하늘같아라.
맑은 강 첩첩한 봉우리는 하늘이 남겨놓은 승경
흰 명주 가벼운 비단은 시구에 공교로움을 돕는다.
한 번 웃으며 만났다가 다시 이별 고하니
유람길 행색이 자못 총총하여라.

蒼藤白日暗西東
天遣詩仙着此中
卽見遐氓恩浹骨
向來心地水涵空
清江疊巘天留勝
素練輕縑句助工
一笑相逢還告別
旅遊行色太怱怱

만력 신사년(1581) 맹추 월성 이정형

萬曆辛巳孟秋 月城 李廷馨

91) 이정형: 선조대 문신이다. 자는 덕훈(德薰), 호는 지퇴당(知退堂)·동각(東閣)이다. 임진왜란 때 좌승지로 임금을 모시고 평안도로 가다가 송도에서 의병을 일으켜 적을 막았으며 만년에는 성리학을 연구하였다. 저서에 『동각잡기東閣雜記』, 『황토기사黃兔記事』, 『지퇴당집』이 있다. 이 작품은 이정형의 문집에 수록되지 않은 것이다.



字景進 號後瘳 淸風人 宣廟癸巳文科 官至行判中樞

자는 경진(景進), 호는 후추(後瘳), 본관은 청풍(淸風)이다. 선조 계사년(1593)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행판중추에 이르렀다.

시판의 시에 차운하여 고을 원님인 이군에게 올리다

次板上韻奉呈主倅李君

말에서 내리는 빈 집엔 석양 지려는데

下馬空堂欲夕陽

기쁘게 고을 원님 만난다.

欣逢邑宰漢仇香⁹³⁾

백성들 오래 사는 곳에서 즐겁게 지내니

民登壽域熙熙樂

원님의 어진 품모 바닷가까지 미쳤도다.

座主仁風及海傍

현(縣)에 102세의 노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읊었다.

縣有百三歲老人故云

만력 갑인년(1614) 10월, 겸순찰사 김신국

萬曆甲寅陽月 兼巡察使 金愼國

92) 김신국: 선조, 광해군, 인조대 문신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모아 적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이후에 평안도 관찰사, 우참찬, 호조 판서를 지냈다. 병자호란 후 볼모로 가는 소현 세자의 이사(貳師)로서 심양까지 배종(陪從)한 뒤 귀국하여, 기로소에 들어갔다.

93) 한구향(漢仇香): 원래는 동한(東漢)의 한구람(韓仇覽)의 다른 이름으로 그가 주부(主簿)를 역임한 적이 있으므로 후에 '주부'를 지칭하게 되었다.



李鷺渚 見上

이노저[이양원] 앞에서 보인다.

차운하다

次韻

묘향산은 하늘 동쪽에 있으니
구름 밖 먼 산을 한 눈에 바라본다.
맑은 유람 힘쓰지 못하니 내 일이 빛바래고
절을 오르려니 오래된 인연 헛되구나.
나그네에게 시를 보내 빛이 되게 하였지만
늙은 나는 도리어 시구가 공교하지 않음을 싫어했네.
민속 살피며 수선하는 이에게 외람되이 거듭 부치니
봄이 한창일 때 관리의 깃발만 부질없이 바쁘구나.

妙香山在直天東
雲外脩眉一望中
未辦清遊吾事落
擬攀禪宇宿緣空
客邊要遣詩爲債
老先還嫌句不工
察俗繕工叨重寄
三春征旆謾怱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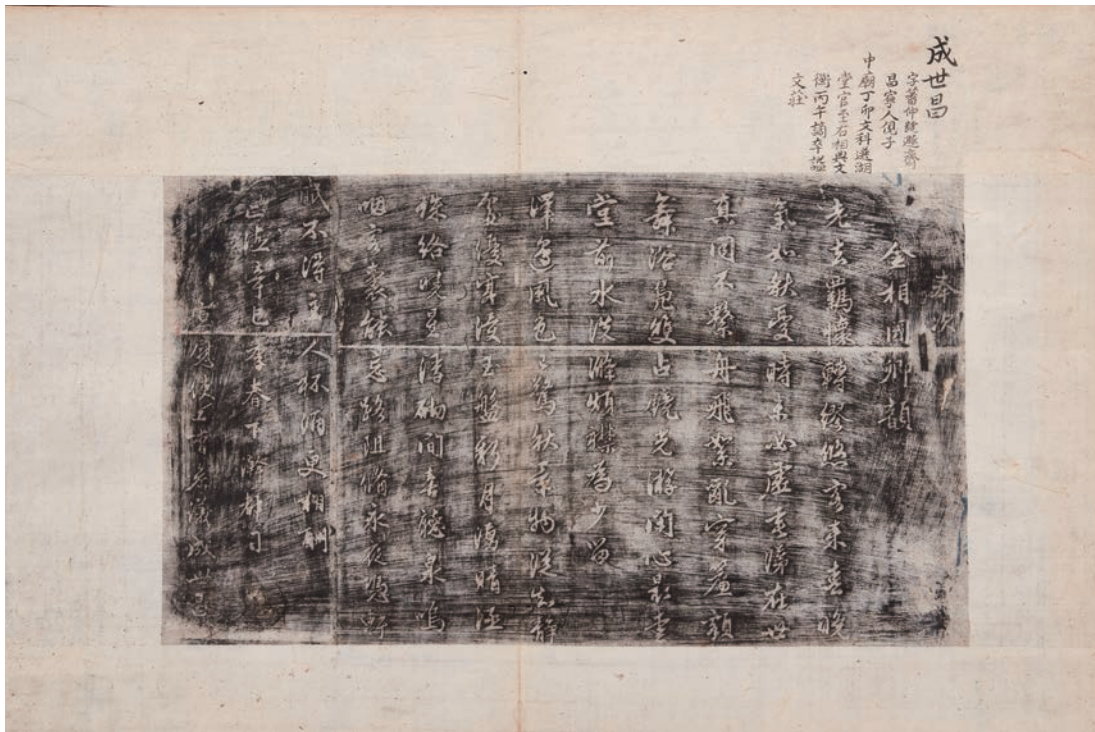
94) 이양원: 선조대 문신이다. 선조 24년(1591)에 우의정이 되고 임진왜란 때에 양주(楊州) 해유령(蟹踰嶺) 싸움에 승리하여 그 공으로 영의정에 올랐다. 의주(義州)에 있던 선조가 요동으로 피란 갔다는 잘못된 소문을 듣고 단식하다가 8일 만에 죽었다.

다시 앞의 운자에 차운하여 도사께 올리다
 해와 달은 서쪽으로 달려가고 물은 동쪽으로 흐르니
 뜬세상 세월이 꿈속 같아라.
 나그네 한에 하염없이 천 리 먼길 떠나고
 병들어 비쩍 마른 몸 오히려 시 한 수 없을까 두려워한다.
 산바람이 비를 동반하자 도리어 험준함을 덧붙태고
 봄 농사 천기를 타자 이미 공교함을 물리쳤네.
 향로봉 마주 앉아 봉우리가 눈에 들어오니
 그 누가 관리의 행차 다시 바쁘다 하리오.

기묘년(1579) 청주 완산 이양원

復疊前韻錄呈都事案右
 蟾烏西邁水流東
 浮世光陰似夢中
 客恨漫行千里遠
 病瘡還怕一首空
 山風挾雨猶添峭
 春事乘機已退工
 坐對香鑪峯入眼
 誰將玉節更怱怱

己卯淸秋 完山 李陽元



字蕃仲 號遼齋 昌寧人 倪子 中廟丁卯文科 選湖堂 官至右相文衡 丙午謫卒 諡文莊

자는 번중(蕃仲), 호는 둔재(遼齋), 본관은 창녕(昌寧)으로, 성현(成倪, 1439~1504)의 아들이다. 증중 정묘년(1507) 문과에 급제하여 호당에 선발되었다. 관직은 우상에 이르렀으며, 문형을 맡았다. 병오년(1546) 유배를 갔다가 죽었다. 시호는 문장(文莊)이다.

삼가 상국 김국경⁹⁶⁾의 시에 차운하다

奉次金相國卿韻

늙어 가매 나그네 심사는 더욱 뒤엎힌 듯하고
나그네로 오매 늦봄 기운이 가을 같아라.
시절을 걱정하며 반드시 헛되이 눈물 흘릴 필요 없고
세상에 있으며 진실로 매놓지 않은 배와 같구나.
날리는 버들 솜털은 어지러이 뚫고 들어와 주렴 앞에서 날리고
목욕하는 오리는 쌍쌍이 자리하여 거울빛 속에서 노닌다.
한가한 마음은 집 앞 물을 가장 사랑하노니
답답한 마음 씻어내며 잠시 머문다.

老去羈懷轉繆悠
客來春晚氣如秋
憂時未必虛垂涕
在世眞同不繫舟
飛絮亂穿簾額舞
浴鳧雙占鏡光游
閑心最愛堂前水
洗滌煩襟爲少留

95) 성세창: 조선전기 형조참판, 대사헌, 형조판서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학식과 문장이 뛰어나 오랫동안 홍문관에서 봉직했다. 필법에 뛰어났고 글씨·그림·음률에 정통하여 3절(三絶)이라 불렸다. 저서로는 『둔재집遼齋集』, 『식료찬요食療纂要』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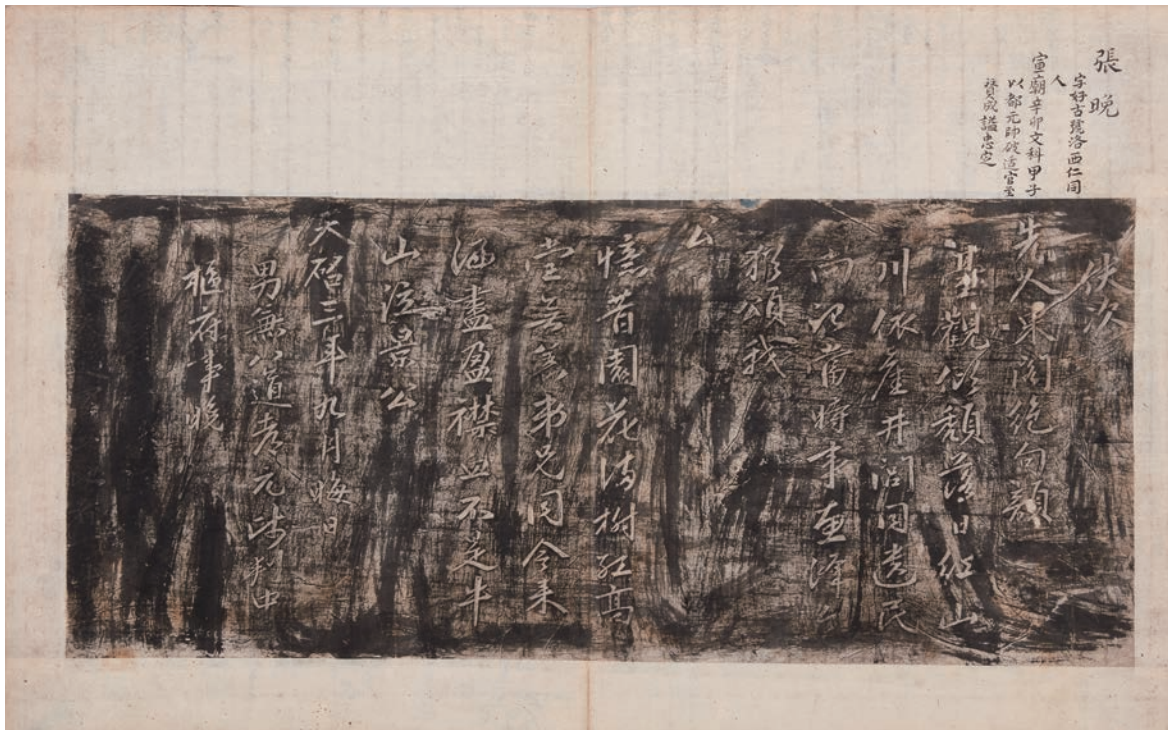
96) 국경: 모재(慕齋) 김안국(金安國, 1478~1543)의 자(字)이다. 성세창의 이 작품은 사용한 운자로 보아 김안국의 「題龍岡縣壁」에 차운한 것이다.

못가 풍색은 이미 서늘한 가을이라
 경물이 이를 따라 고요한 곳이 좋은줄 알겠네
 찬 기운에 젖은 옥소반에 새 달이 떠오르고
 맑은 빛 머금은 주락에 새벽별 떠있네
 섬돌 사이에서 샘물 졸졸거리는 소리 기쁘게 듣고
 나그네 주머니는 험하여 아득한 길 잊을 만하다.
 긴긴 밤 난간에 기대 잠 못이루는데
 주인과 술잔 들며 다시 서로 주고 받네.

澤邊風色已驚秋
 景物從知靜處優
 寒清玉盤新月湧
 晴涵珠絡曉星浮
 砌間喜聽泉鳴咽
 客囊能忘路阻脩
 永夜憑軒眠不得
 主人杯酒更相酬

정덕 신사년(1521) 계춘 하순 도사선위사 공조참의 성세창

正德辛巳季春下澣 都司宣慰使工曹參議 成世昌



字好古 號洛西 仁同人 宣廟辛卯文科 甲子以都元帥破适 官至贊成 諡忠定

자는 호고(好古), 호는 낙서(洛西), 본관은 인동(仁同)이다. 선조 신묘년(1591) 문과에 급제하였고, 갑자년(1624)에 도원수로 이괄을 격파하였다. 관직이 찬성에 이르렀으며, 시호는 충정(忠定)이다.

선조의 동각절구에 삼가 차운하다

伏次先人東閣絕句韻

누대는 쓰러져 퇴락했는데 저녁 해 붉고
산천은 의구하여 마을은 그대로다.
남은 백성 여전히 당시 일을 기억하나니
끼친 은택 지금도 여전히 우리 공(公)을 칭송하네.

臺觀傾頽落日紅
山川依舊井閭同
遺民尙記當時事
惠澤今猶頌我公

옛날을 생각하니 동산에 꽃피고 나무 가득 붉었는데
고당(高堂)의 부모님 별일 없었고 형제도 그러했지.
이제는 다 사라져서 소매엔 피가 가득하니⁹⁸⁾
우산에서 경공이 울었던 일은 아니라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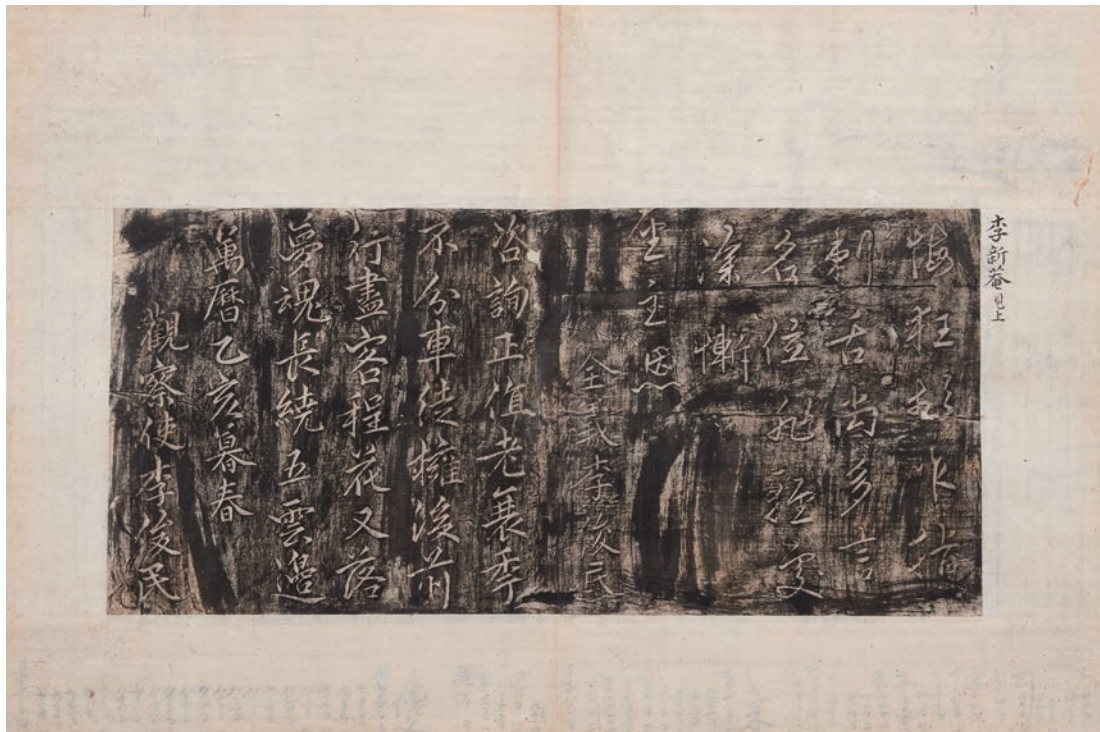
憶昔園花滿樹紅
高堂無恙弟兄同
今來涵盡盈襟血
不是牛山泣景公

천계3년(1623) 9월 그믐 남검팔도도원수 판증추부사 장만

天啓三年九月晦日 男兼八道都元帥判中樞府事晩

97) 장만: 선조, 광해군, 인조대 문신이다. 인조반정으로 팔도도원수가 되고, 이괄의 난을 평정하였다. 이 작품은 장만의 문집 『낙서집洛西集』에 「題甞山館閣壁上」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98) 소매엔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두보(杜甫)의 시 「전흥遺興」에서 용사한 것이다. 이는 전쟁통에 헤어진 형제들을 그리워하는 내용이므로, 여기서는 작자가 옛날 함께 지내던 형제들을 그리워한다는 의미로 용사한 것이다.



李新庵 見上

이신암[이준민] 앞에서 보인다.

미친 듯했던 일 후회하며 자주 손가락 깨물어 맹세하고
 헛바닥 찌르며 조심했건만 여전히 말이 많았네
 이름과 자리가 가벼운 곳 아니니
 임금의 은혜에 깊이 부끄럽구나.

悔狂頻咋指
 刺舌尙多言
 名位非輕處
 深慚聖主恩

전의 이준민

全義 李俊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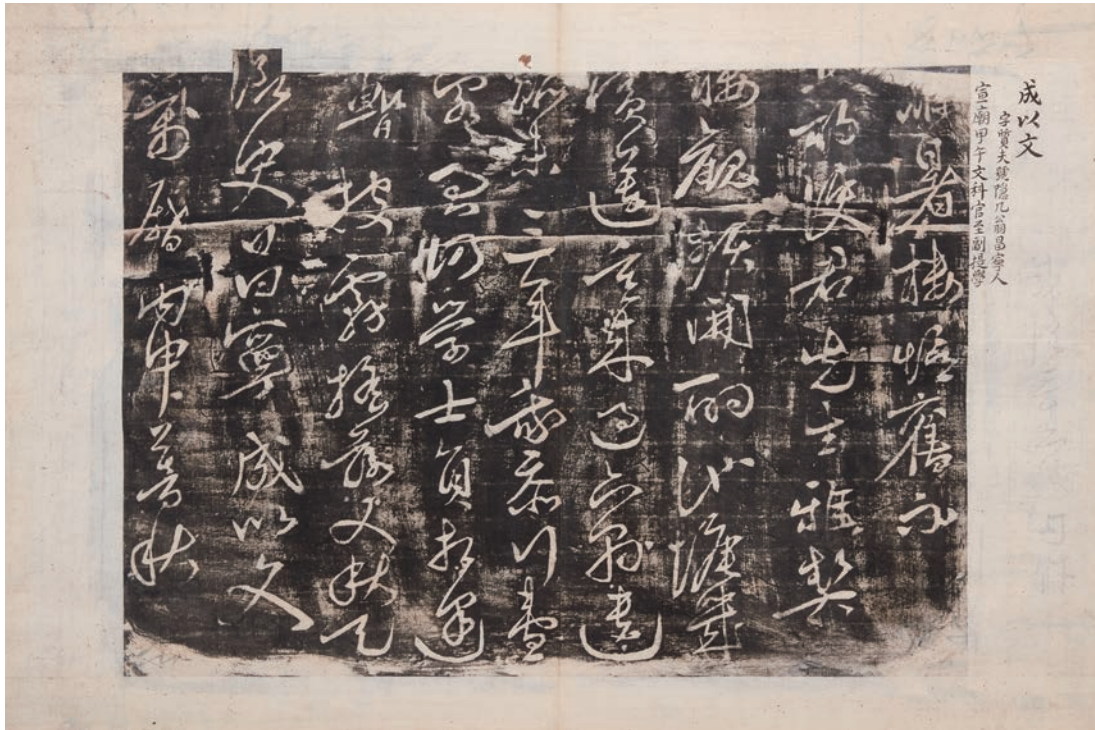
의견 구하느라 정히 늙고 쇠한 몸 되었는데
 수레와 구종(驅從) 가리지 않고 앞뒤에서 옹위하네.
 나그네 길 다니는 사이에 꽃은 피었다 지나니
 꿈 속에서라도 혼백은 오운(五雲)⁹⁹ 가를 길이 둘러싸네

咨詢正值老衰年
 不分車徒擁後前
 行盡客程花又落
 夢魂長繞五雲邊

만력 을해년(1575) 모춘 관찰사 이준민

萬曆乙亥暮春 觀察使 李俊民

99) 오운(五雲): 임금이 있는 곳을 의미한다.



字質夫 號隱几翁 昌寧人 宣廟甲午文科 官至副提學

자는 질부(質夫)이며, 호는 은계옹(隱几翁), 본관은 창녕(昌寧)이다. 선조 갑오년(1594)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부제학에 이르렀다.

척서루에서 옛날을 그리워하며 사군 선생의 아름다운 모임에 보이며 술잔을 나누다

滌暑樓懷舊示■酌使君先生雅契

누관에서 자주 술자리 열려서
연못에서 연꽃 완상 몇 번이런가.
거듭 와서 육현을 지나니
남긴 자취 아직 삼 년이 안 되었네
나는 행호객¹⁰¹⁾이 되었고
그대는 이에 학사원¹⁰²⁾이 되었네.
서로 만나 잠시 안개를 헤치니
모든 것이 시들어 또한 가을이로세.

樓觀頻開酌
池塘幾賞蓮
重來過六縣
遺跡未三年
我忝行壺客
君仍學士員
相逢暫披霧
搖落又秋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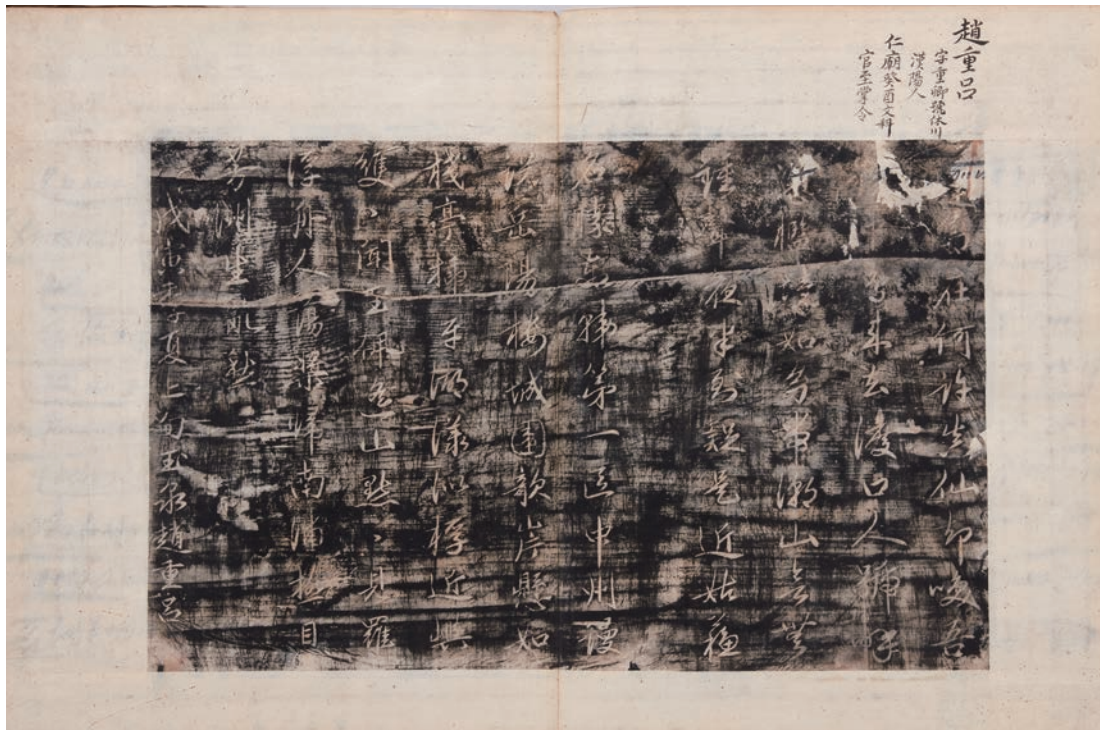
어사 창녕 성이문 만력 병신년(1596) 모추

御史 昌寧 成以文 萬曆丙申暮秋

100) 성이문: 선조대 홍문관부제학, 이조참의, 대사간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종묘서 부봉사로서 왕실의 신주를 받들고 왕을 따라 정주로 피난하였다. 광해군 때는 고향에 돌아가 세상일과 인연을 끊고 한가한 여생을 보냈다.

101) 행호객(行壺客): 차례에 따라 술잔을 주고 받는 사람이다.

102) 학사원(學士員): 학문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여기서는 고을 군수를 지칭한다.



字重卿 號休川 漢陽人 仁廟癸酉文科 官至掌令

자는 중경(重卿), 호는 휴천(休川), 본관은 한양(漢陽)이다. 인조 계유년(1633)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장령에 이르렀다.

봉래도는는 어디쯤 있는가
진선(眞仙)은 도리어 나를 부르네.
■■ 안에는 새들이 오가고
나루터에는 사람들 외치는 소리.
난간에 기대니 이 땅은 환상인 듯하고
조수를 띠니 산은 없어지는 듯.
종소리 한밤중에 들려오니
아마도 고소성이 가까운 걸까.¹⁰⁴⁾

蓬島在何許
眞仙却喚吾
■■中鳥來去
渡口人號呼
憑檻境如幻
帶潮山欲無
鍾聲夜半到
疑是近姑蘇

103) 조중려: 조선후기 장령, 정언, 사도시정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문관이었으나 장재(將才)에 뛰어났으며 효행이 널리 알려졌다. 저서로 『휴천집』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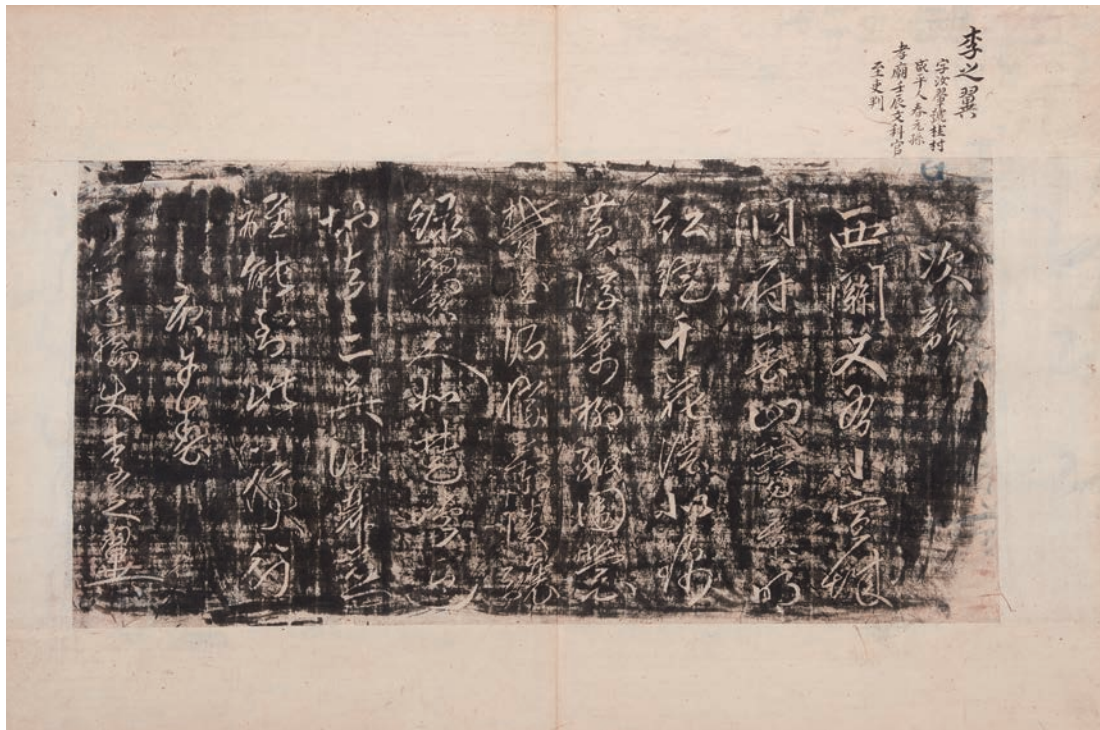
104) 종소리 …… 가까운 걸까: 장계(張繼)의 시 「풍교야박(楓橋夜泊)」에 나오는 구절을 용사한 것이다. 시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月落馬啼霜滿天 江楓漁火對愁眠 姑蘇城外寒山寺 夜半鍾聲到客船.”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제일의 명승지
 중국에선 부질없이 악양루를 이야기하지.
 성은 기울어 있는 언덕을 둘러싸며 잔도처럼 걸려있고
 정자는 평평한 호수에 꽂혀서 뗏목처럼 일렁인다.
 가까운 섬은 쌍쌍이 있어 옥패(玉佩) 소리 들리는 듯
 아득한 산은 묵묵하여 나부산(羅浮山)을 보는 듯.
 뱃사공 노를 저어 남포로 돌아오니
 보이는 저 끝 꽃다운 모래톱에서 어지러운 근심 일어난다.

名勝東韓第一區
 中州謾說岳陽樓
 城圍欹岸懸如棧
 亭插平湖漾似桴
 近嶼雙雙聞玉佩
 遙山默默見羅浮
 舟人蕩槳歸南浦
 極目芳洲生亂愁

무인년(1638) 계하 상순 옥천 조중려

戊寅季夏上旬 玉泉 趙重呂



字汝翬 號桂村 咸平人 春元孫 孝廟壬辰文科 官至吏判

자는 여휘(汝翬), 호는 계촌(桂村), 본관은 함평(咸平)으로, 이춘원(李春元)의 손자이다. 효종 임진년(1652)에 문과 급제하여 관직이 이조판서에 이르렀다.

차운하다

次韻

서관에 작은 선성(宣城)이 또 있나니
골짜기에 봄이 오니 갠 경치 밝아라.
천 가지 꽃 붉게 피어나
만 그루 버드나무에 노란빛 떠도니 가느다란 가지가 감영을 휘감았다.
울금주가 난릉에서 빛은 술보다 좋고¹⁰⁶⁾
푸른 머리의 미인은 무형에서 맞이하는 듯.
땅은 삼오와 떨어져 아름답기 그지없으니
누군들 이곳에 이르러 갈 길을 멈추지 않으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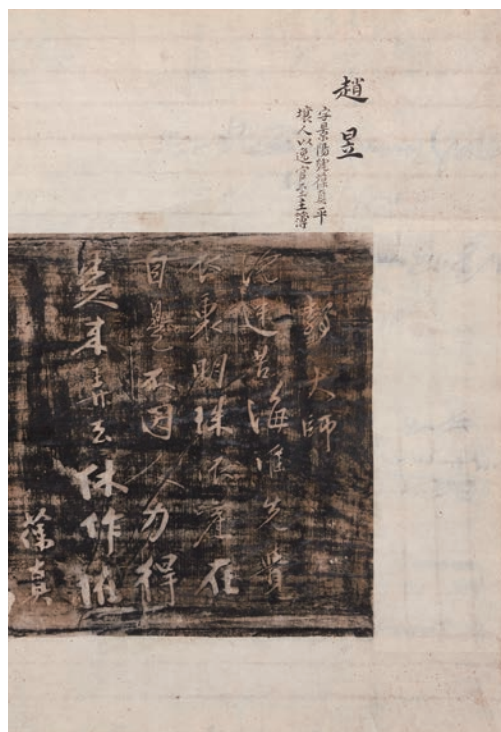
西關又有小宣城
洞府春回霽景明
紅綻千花濃似錦
黃浮萬柳細圍營
鬱金酒勝蘭陵釀
綠鬢人如楚峽迎
地去三吳佳麗慈
誰能到此不停行

경오년(1690) 봄 원접사 이지익

庚午春 遠接使李之翼

105) 이지익: 조선 후기 한성판윤, 함경감사, 전라감사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원접사(遠接使)로 네 차례나 의주를 왕래하였으며, 지돈녕부사가 되었다가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조정에 있는 40년 동안 정국이 몇 번 바뀌었으나 시세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신념대로 시종일관하였다.

106) 울금주가 …… 좋고: 이백의 시 「객중행客中行」에 나오는 구절 “蘭陵美酒鬱金香”을 염두에 두고 쓴 구절이다.



정대사에게

靜大師

괴로움의 바다에 빠져 헤매다가 누가 먼저 깨달을까
옷 안에 있는 밝은 구슬 예전처럼 있는 것을.
본래 사람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이니라
희롱하며 오고 가는 것이니 괴이히 여기지 마오.

沈迷苦海誰先覺
衣裏明珠依舊在
自是不因人力得
弄來弄去休作怪

보진

葆眞

107) 조욱: 조선전기 『용문집龍門集』을 저술한 학자이다. 시문과 서화에 능하였으며, 서경덕(徐敬德)·이황(李滉) 등 당대의 명사들과 교류하였다. 이조참의에 추증되었고, 용문서원에 배향되었다.



宋頤菴 見上

송이암[송인] 앞에서 보인다.

현응의 선판에 부치다

寄似玄應禪判

잠시 높은 마음 굽혀 법문 행하시고
표연히 떠나가니 도가 더욱 높아라.
멀리서도 알겠네 태백산 천 개 봉우리 눈 내리고
작은 방에 향기 어리고 편안한 자리 안온하신줄
지달은 태백이라고도 한다.

暫屈高情爲法門
飄然辭去道彌尊
遙知忭怛千峯雪
丈室凝香燕坐溫
忭怛一云太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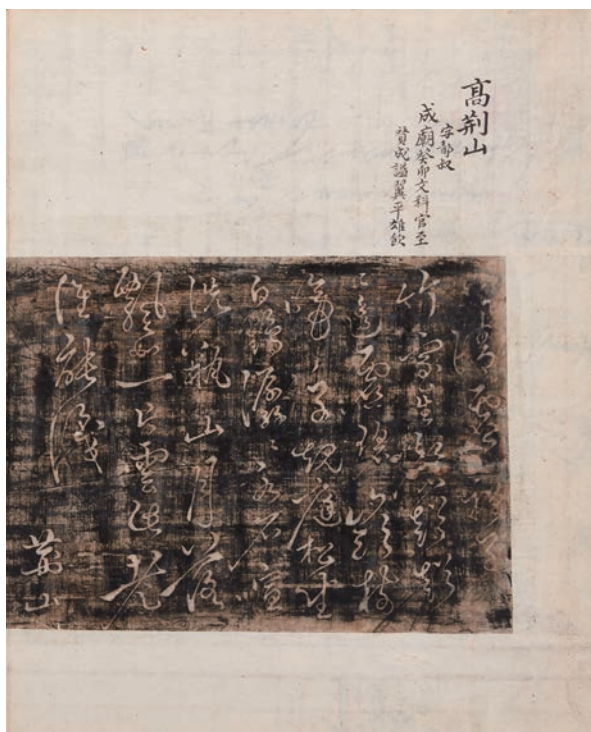
공께서는 선을 말씀하시고 나는 시를 이야기하며
서로 만나 책상 마주하여 매양 눈썹을 펴노라.
지금은 문득 구름과 땅처럼 멀리 떨어져 있어서
다만 때때로 맑은 저녁 꿈에서나 만나네

公爲談禪我說詩
相逢對榻每伸眉
如今便作雲泥隔
只有清宵夢會時

이암

頤菴

108) 송인: 조선전기의 학자이자 서예가이다. 중종 서녀인 정순옹주(貞順翁主)와 결혼하여 여성위(礪城尉)에 봉해졌다. 글과 글씨에 능하여 산릉(山陵)의 지(誌)와 궁전의 액(額)으로부터 사대부의 비갈(碑碣)에 이르기까지 많은 글과 글씨를 남겼다. 이황, 조식, 이이, 성혼 등 당대 석학들과 교류하였고, 만년에는 선조의 자문 역할을 하였다. 『이암유고頤庵遺稿』를 남겼다. 이 두 편의 시는 송인의 문집 『이암유고』에 수록되지 않은 작품이다.



高荊山 字靜叔 成廟癸卯文科 官至贊成 諡益平 雄飲

고형산¹¹⁰⁾ 자는 정숙(靜叔), 성종 계묘년(1483)에 문과 급제하여 관직이 찬성에 이르렀다. 시호는 익평(益平)이며, 술을 잘 마셨다.

청허선자에게

清虛禪子

대나무 집에 풍경 소리 일어나니
소리 소리마다 푸른 허공 꿰뚫는다.
고갯마루 나무에서는 두견새 울고
정원 소나무에선 백학이 바라본다.
줄줄 흐르는 물은 바위 틈에서 나고
씻은 병에는 산 달이 떨어져있다.
표연한 한 조각 구름같은
이 노인을 그 누가 알 수 있으랴.

竹室生磬聲
聲聲透虛碧
嶺樹啼子規
庭松望白鶴
潺潺水石喧
洗瓶山月落
飄如一片雲
此老誰能識

형산

荊山

109) 김구: 조선 전기의 문신이자 서예가이다. 자는 대유(大柔)이며, 호는 자암(自庵), 삼일재(三一齋). 부제학을 지냈고, 기묘사화로 유배되었다. 조선 초기 4대 서예가의 한 사람으로, 그의 서체를 인수체(仁壽體)라고 이른다. 저서에 『자암집自菴集』이 있다.

110) 이 작품이 『청구제영』에는 고형산의 작품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이는 착오다. 김구의 문집 『자암집』에 「증청허선자贈清虛禪子」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또한 그 주석에서, “청허는 묘향산의 스님 휴정(休正)이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허휴정(淸虛休靜, 1520~1604)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번역에서 바로잡았다.



字仲玉 號聽訟 昌寧人 隱居不仕 暫赴積城縣任 諡文貞

자는 중옥(仲玉)이고 호는 청송(聽訟)이다. 본관은 창녕(昌寧)이다. 은거하여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으나 잠깐 적성현감에 임명되었다.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현응도인에게

玄應道人

도인을 만나고자 함이 하루 아침이 아니라
험한 길 청려장 짙고 밖에야 도착했네
천 개 바위 만 개 골짜기가 비바람 막아주니
청동 향로 마주하고 백자향(柏子香)¹¹²⁾ 피울 것 생각한다.

欲見道人非一朝
杖藜無路到青霄
千巖萬壑排風雨
想對銅爐柏子燒

청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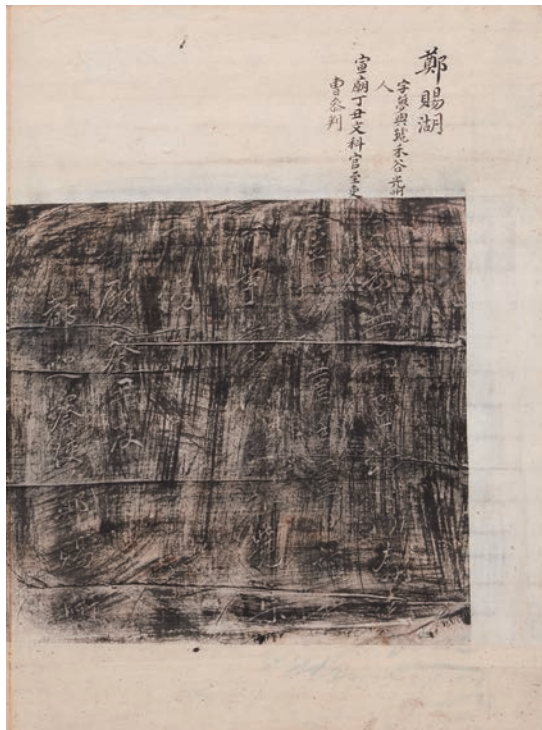
聽松

111) 성수침: 조선 중종, 명종 때의 학자이다. 대사헌 성세순(成世純)의 아들이고, 우계(牛溪) 성혼(成渾)의 아버지이다. 조광조를 중심으로 추구해 온 도학적 지치주의가 기묘사화로 좌절되는 것을 목도하고 평생 산간에 묻혀 은일자로 일관하였으며, 학문탐구와 자기수양 후생교육에 열중하였다. 이 작품은 성수침의 문집 『청송집聽松集』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112) 백자향: 향의 이름. 잣을 활용하여 만든 향으로, 당태종이 좋아했다고 한다.

37 정사호(鄭賜湖, 1553~1616)¹¹³⁾

(청구제영 제6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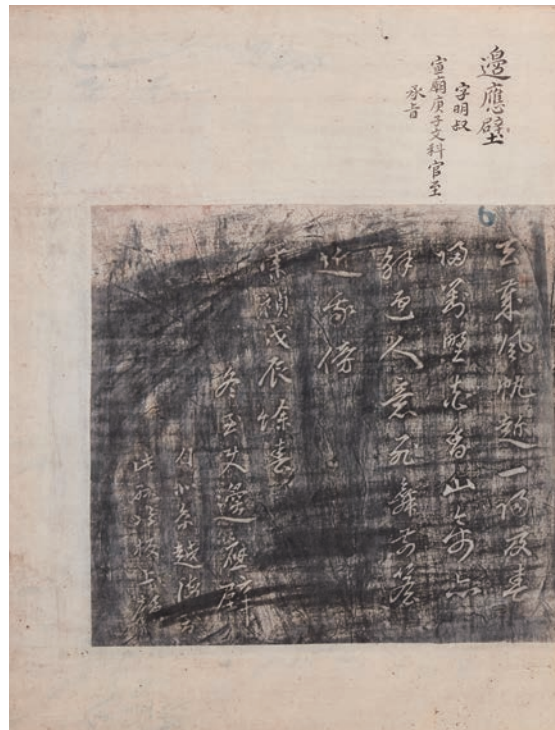


字夢輿 號禾谷 光州人 宣廟丁丑文科 官至吏曹參判

자는 몽여(夢輿)이며 호는 화곡(禾谷)이다. 본관은 광주(光州)이다. 선조 정축년(1577)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관직은 이조참판에 이르렀다.¹¹⁴⁾

113) 정사호: 조선후기 문신으로, 대사헌 등을 역임하였다. 임진왜란 때에 군량을 관장하였고, 광해군대 정인홍, 이이첨 등을 논책하였다. 글씨에 뛰어났다.

114) 이 탁본은 탁본상태가 좋지않아 내용을 판독할 수 없다.



字明叔 宣廟庚子文科 官至承旨

자는 명숙(明叔), 선조 경자년(1600)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승지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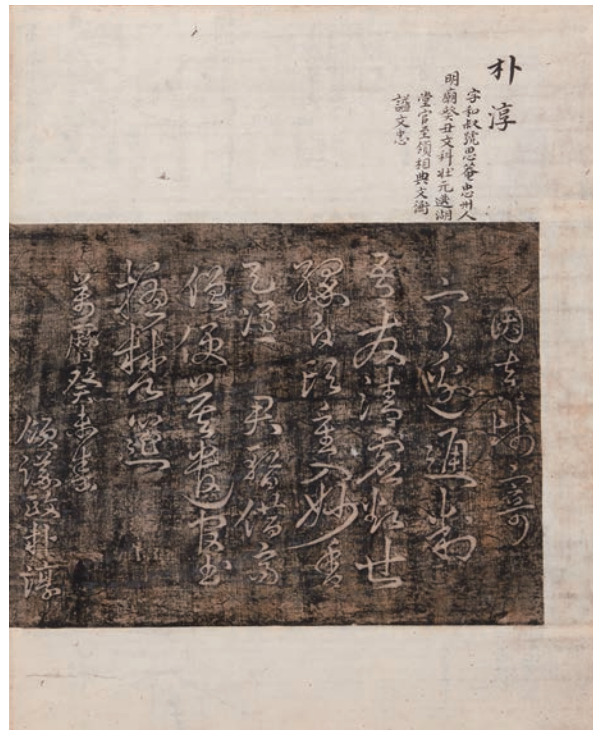
지난 해 배를 타고 동짓달에 떠났는데
봄 되어 돌아와서 들꽃 향기 마주했다.
산새 또한 사람 맞이하는 뜻을 아는지
앞 처마에서 날고 춤추며 내 옆으로 가까이 온다.

去歲風帆趣一陽
及春歸對野花香
山禽亦解迎人意
飛舞前簷近我傍

승정 무진년(1628) 늦 봄, 동지사 변응벽
북경에서 바다를 건너 이 현에 이르러 시판의 시에 차운한 것이다.

崇禎戊辰餘春 冬至使 邊應壁
自北京 越海到此縣 次板上韻

115) 변응벽: 선조, 광해군, 인조대 문신이다. 선조대 관직생활을 시작하여 경성판관, 황해도 도사 등을 지내고 인조대 동지사를 지내기도 하였다. 전하는 문집은 없다.



字和叔 號思庵 忠州人 明宗癸丑文科壯元 選湖堂 官至領相典文衡 諡文忠
 자는 화숙(和叔), 호는 사암(思庵), 본관은 충주(忠州)이다. 명종 계축년(1553)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였으며
 호당에 선발되었다. 관직은 영상에 이르렀고 문형을 맡았다. 시호는 문충이다.

떠나는 스님 편으로 영변통판에게 보내다

因去師寄寧邊通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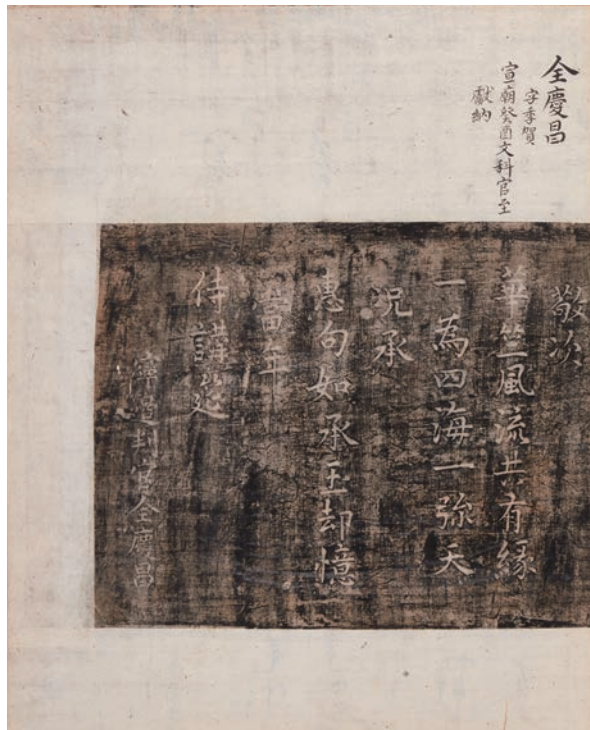
나의 벗 청허당이 세상 인연 끊어버리고
 백발로 다시금 묘향산으로 들어가네.
 그대에게 부탁하니 잠시 고승의 인편을 빌려
 관청 문서가 도량 어지럽히지 말게 하소서.

吾友清虛斷世緣
 白髮重入妙香天
 憑君暫借高僧便
 莫遣官書擾梵筵

만력 계미년 봄에 영의정 박순

萬曆癸未春 領議政 朴淳

116) 박순: 서경덕의 문인이다. 명종대 우의정·좌의정에 이어 선조대에는 영의정으로 14년간 재직했다. 동서당쟁 속에서 이이·성혼을 편들다 서인으로 지목되어, 탄핵을 받고 은거했다. 시·문·서에 모두 뛰어났다. 『사암문집思庵文集』이 있다.



字季賀 宣廟癸酉文科 官至獻納

자는 계하(季賀)이다. 선조 계유년(1573)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헌납에 이르렀다.

공경히 차운하다

敬次

선비와 스님의 풍류 함께 인연 맺었나니
 하나는 사해요 하나는 미천이라.¹¹⁸⁾
 하물며 주옥 같은 시구를 보내주시니
 당시에 모시고 공부하던 일 생각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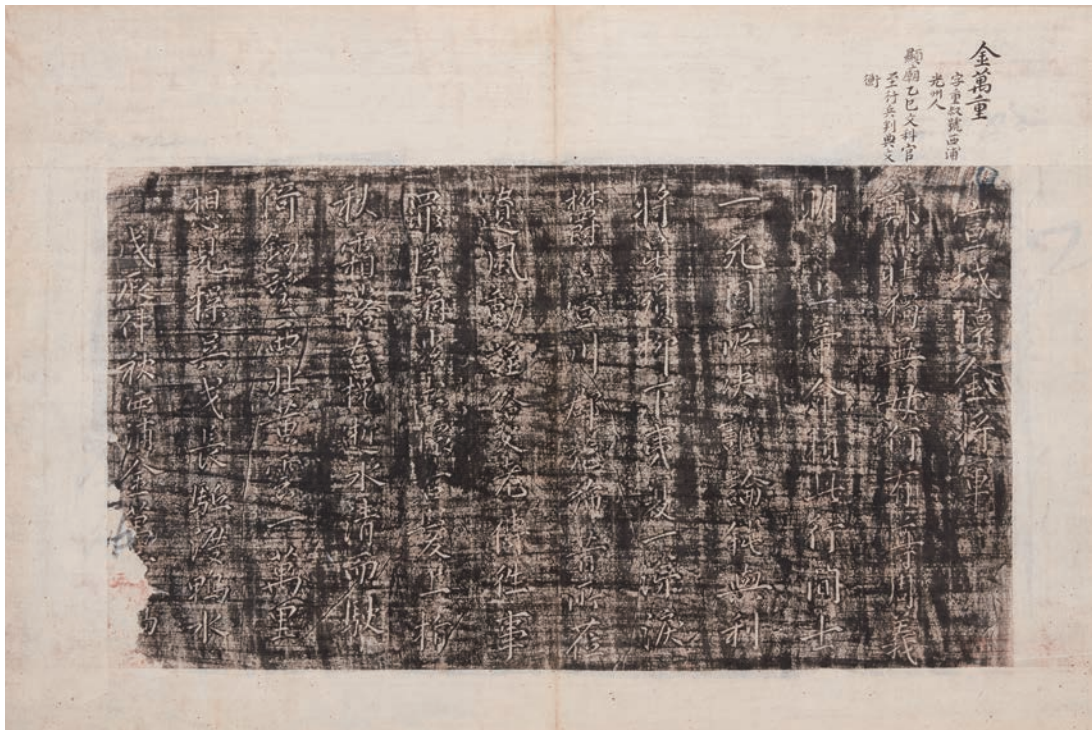
華竺風流共有緣
 一爲四海一彌天
 況承惠句如承玉
 却憶當年侍講筵

영변판관 전경창

寧邊判官 全慶昌

117) 전경창: 선조대 문신이다. 이황의 학통을 이어받았으며 가야산에 들어가 학문연구에 전심했다. 종계변무(宗系辨誣)의 중대함을 강조하며 전담 사신을 파견할 것을 상소하여 실시하게 하였다.

118) 하나는 …… 미천이라: 선비와 스님 사이의 아름다운 교유를 표현하는 것이다. 한 사람은 천하의 모든 사람을 동포로 여기고 또 한 사람은 하늘에 가득한 중생을 친근하게 여긴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인다.



字重叔 號西浦 光州人 顯廟乙巳文科 官至行兵判典文衡

자는 중숙(重叔), 호는 서포(西浦), 본관은 광주(光州)이다. 현종 을사년(1665 현종 6)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행병조판서에 이르렀다. 문형을 잡았다.

선성[선천]에서 김장군을 생각하다

宣城懷金將軍

정장은 홀로 어머니가 없었는데
어찌 존주(尊周)의 의리를 가지고 있었던가.¹²⁰⁾
밝고도 밝은 상제의 명령
이에 의지하여 행하는 선비들.
한 번 죽은 것은 진실로 결정된 것
둔함과 날카로움 누가 논하랴.
장군 별이 버드나무 아래에 떨어지니
온천하가 일제히 눈물 떨군다.
울울(鬱鬱)한 선천군이여
관리의 깃발이 옛날 머물렀던 곳이지.
남은 풍모는 세속 노래에 올리고
부로(父老)들은 옛 일을 전해준다.

鄭莊獨無母
何有尊周義
明明上帝命
賴此行間士
一死固所決
誰論鈍與利
將星殞柳下
夷夏一涕淚
鬱鬱宣川郡
旌旆昔所莅
遺風動謠俗
父老傳往事

119) 김만중: 조선후기의 문신이다. 한글소설인 『구운몽』을 창작하여 숙종 때 소설문학의 선구자가 되었다. 『사씨남정기』, 『서포만필』 등의 작품이 있다. 이 작품은 김만중의 문집 『서포집西浦集』에 「宣川懷金將軍」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120) 정당시(鄭當時)의 자가 장(莊)이므로 정장으로 호칭함. 『사기열전』 「급정열전汲鄭列傳」에 의하면 정장은 협객으로 자처하는 사람이었는데, 청렴결백하게 관직 생활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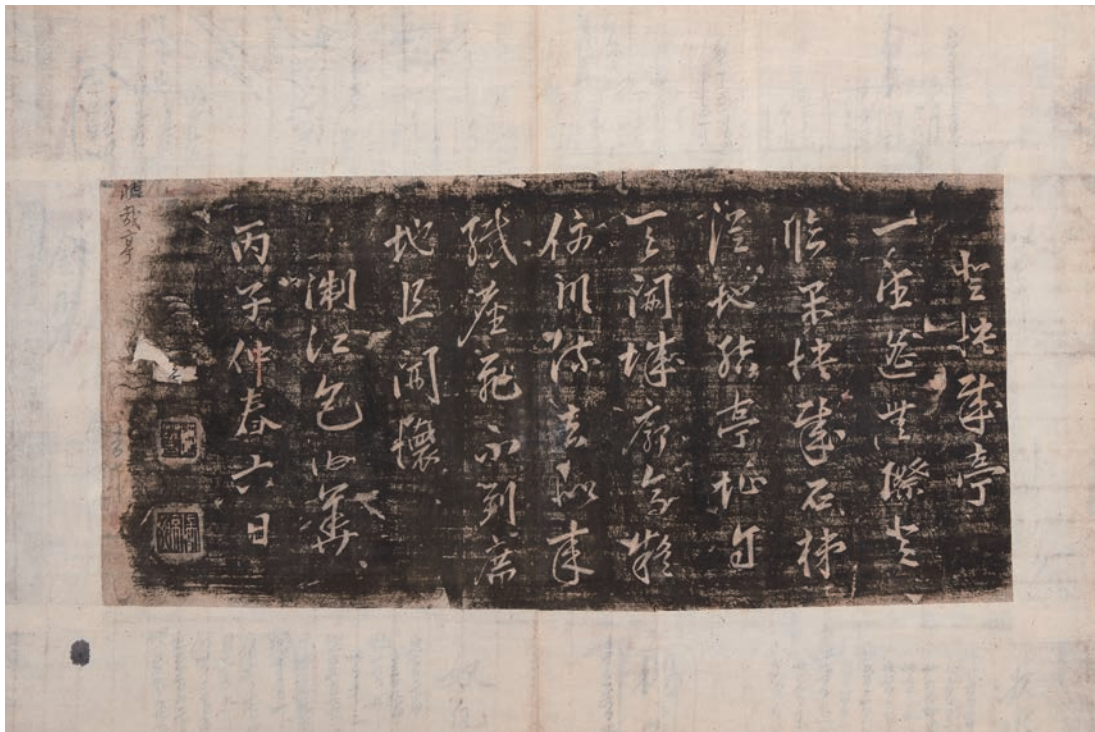
죄 지은 신하는 이 땅에 귀양왔나니
 옛일 생각하매 머리카락이 위로 치솟는다.
 추상 같이 우뚝 선 오래된 회화나무
 흘러가는 물은 맑고도 빠르구나.
 칼에 기대 서북쪽을 바라보니
 누런 구름 만 리에 펼쳐졌네.
 상상하며 바라보나니, 날카로운 창¹²¹⁾을 들고
 길이 말을 달려 압록강을 건너는 것을.

罪臣謫茲土
 懷古髮上指
 秋霜落古槐
 逝水清而駛
 倚劍望西北
 黃雲一萬里
 想見操吳戈
 長驅渡鴨水

무진년 중추 서포 김만중 쓰다

戊辰仲秋 西浦 金萬重 稿

121) 원문은 ‘뫏戈’인데, 오나라에서 생산된 창으로 매우 날카롭고 뛰어난 재질과 성능을 가졌다고 한다.



쾌재정에 올라서

바라보매 아득하여 끝이 없나니
이곳에 오르자 과연 장쾌하도다.
돌사다리는 땅으로부터 땃혀져있고
정자 터는 하늘로부터 열렸구나.
성곽은 드높아서 굽어보는 듯하고
시내는 흘러서 가는 듯 온다.
미세한 먼지¹²²⁾ 날아오지 않으니
자리를 펴고 가슴을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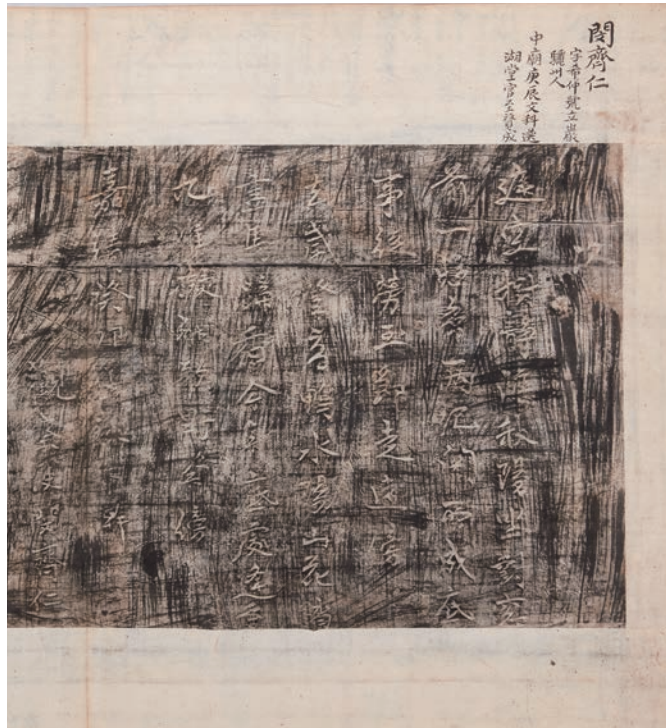
제강 포여화 병자년 중춘 6일

登快哉亭

一望遙無際
登臨果快哉
石梯從地結
亭址自天開
城廓高疑俯
川流去似來
纖塵飛不到
席地且開懷

澗江包如華 丙子仲春六日

122) 미세한 먼지: 원문은 纖塵. 여기서는 속세의 소식을 의미한다.



字希仲 號立巖 驪州人 中廟庚辰文科 選湖堂 官至贊成

자는 희중(希仲), 호는 입암(立巖), 본관은 여주(驪州)이다. 중종 경진년(1520) 문과에 급제하여 호당(湖堂)에 선발되었다. 관직이 찬성에 이르렀다.

차운하다

次

텅 빈 뜨락 고요한 나무 담박한 가을별
창 앞에 마주하고 앉아 향 한 대 피운다.
두 해 동안 관서에서 무슨 일 이루었던가
헛되이 부절 치고 길가를 달린다.

庭空樹靜澹秋陽
坐對窓前一炷香
兩紀關西成底事
徒勞玉節走途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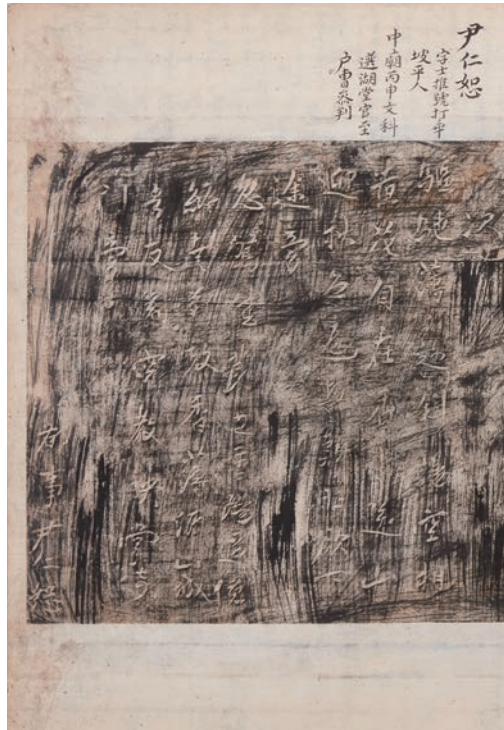
지난 해 압록강 북쪽에서登高(登高)하면서
산꽃을 두루 밟으니 말 발굽에서 향기난다.
올해는 어디에서 중양절을 만날까
들국화 옆에서 얼큰하게 취해 노래해야지

去歲登高鴨水陽
山花踏盡馬蹄香
今年底處逢重九
準擬酣歌野菊傍

가정 계묘년(1543) ■■ 가을 하순 관찰사 민제인 쓰다.

嘉靖癸卯■■秋下澣 觀察使 閔齊仁

123) 민제인: 중종, 인종대 문신으로, 윤원형 일파가 『시정기』를 고치려는 것을 제지하다가 공주로 유배되어 죽었다. 『입암집立巖集』이 있다. 이 작품은 『입암집』에 「次巖山壁上韻」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字士推 號打乖 坡平人 中廟丙申文科 選湖堂 官至戶判

자는 사추(士推), 호는 타괴(打乖), 본관은 파평(坡平)이다. 중종 병신년(1536) 문과에 급제하여 호당(湖堂)에 선발되었다. 관직이 호조참판에 이르렀다.

차운하다

次

서둘러 말을 달려 석양녘을 틔타서
공상히 향기로운 노란 국화 살피네
물 보내고 산 맞으니 두루 가을빛인데
흥은 ■■■■ 길썸으로 내려간다.

驅馳薄薄趁斜陽
空相黃花自在香
水送山迎秋色遍
興■■■欲下途傍

홀연 아름다운 계절에 놀라보니 중양절 가까운데
아스라이 종남산¹²⁵⁾ 생각하니 국화는 진정 향기로우리.
조출한 술로 산성에서 나의 벗과 마주해서
유쾌히 감상하며 연못 옆에 기대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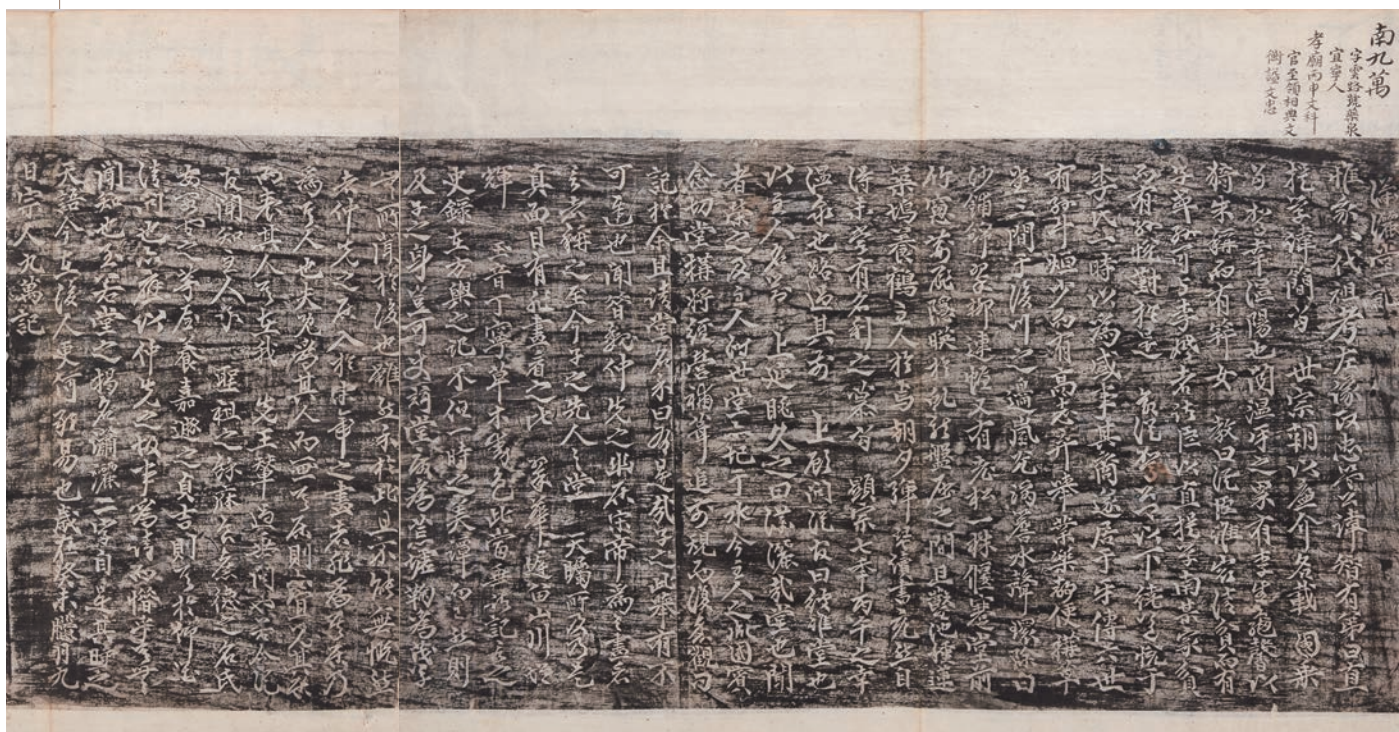
忽驚佳節近重陽
遙憶終南菊政香
薄酒山城吾友對
空教快賞倚淵傍

도사 윤인서

都事 尹仁恕

124) 윤인서: 중종대 활동한 문신이다. 생몰년은 미상이지만, 동부승지(同副承旨), 대사간(大司諫), 부제학(副提學), 예조참판(禮曹參判),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등을 역임하였다.

125) 여기서 종남산은 한양의 남산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字運路 號藥泉 宜寧人 孝廟丙申文科 官至領相典文衡 諡文忠

자는 운로(運路), 호는 약천(藥泉), 본관은 의령(宜寧)이다. 효종 병신년(1656)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영상에 이르렀다. 문형을 맡았으며,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瀟灑堂記

惟我八代祖考 左議政忠簡公 諱智 有弟曰直提學諱簡 當世宗朝 以廉介名 載國乘 當駕幸溫陽也 聞溫牙之界 有李生龜馨 以猗朱稱 而有笄女 教曰 從臣誰最清貧 而有子或孫 可與李婚者 諸臣以直提學南某 家貧而有孫悅 對 於是命從駕 公卿以下繞送悅于李氏 一時以爲盛事 其裔遂居于牙 傳六世有孫斗烜 少而有高志 棄舉業 樂靜便 構草堂三間于後川之邊 嵐光滴簷 水聲環除 白沙鋪錦 翠柳連幄 又有老松一株 偃蹇堂前 竹牕荆扉 隱映於虬龍盤屈之間 且鑿池種蓮 築塢養鶴 主人於焉朝夕 彈琴讀書 充然自得 未嘗有名利之慕 當顯宗七年丙午之幸溫泉也 路過其前 上顧問從官曰彼誰堂也 以主人名對 上延眺久之曰 瀟灑哉堂也 聞者榮之 及主人謝世 堂亦圯于水 今主人之胤國寶念切堂構 將經營補葺 迫前規而復舊觀 問記於余 且請堂名 我曰有是哉 子之此舉 有不可遲也 聞昔魏仲先之幽居 宋帝爲之畫看 言者稱之至今 子之先人之堂 天矚所及 乃是眞面目 有非畫看之比 翠華遲留 山川增輝 玉音丁寧 草木動色 此當垂諸記言之史 錄在方輿之記 不但一時之美譚而已 然則及子之身 豈可使茲堂 廢爲荒墟 鞠爲茂草 無所聞於後也 雖然我於此 且不能無慨然者 仲先之居 入於宋帝之畫者 非爲其居 乃爲其人也 夫既爲其人而畫其居 則亦宜見其居而表其人 其在我先王輦過垂問也 若令從官聞知主人承聖祖之餘庥 食舊德之名氏 安數間之茅屋 養嘉遯之貞吉 則其於仰對清問也 亦應以仲先之故事爲請 而惜乎其無聞知也 至若堂之揭名 瀟灑二字 自是其時之天語 今在後人 更何敢易也

歲在癸未臘月九日 宗人九萬記

126) 남구만: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숙종대 우의정, 좌의정을 거쳐 영의정까지 지냈다. 서인으로 당시 정치 운영의 중심인물이었다. 문장에도 뛰어났으며 시조 「동창이 밝았느냐」가 『청구영언靑丘永言』에 전한다. 문집에 『약천집藥泉集』이 있다. 이 글은 『약천집』에 「소쇄당기瀟灑堂記」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소쇄당기

우리 8대 조고(祖考)인 좌의정 충간공(忠簡公) 휘 지(智)에게 아우가 있었으니 직제학을 지낸 휘 간(簡)으로, 세종조(世宗朝)에 청렴과 지조로 그 이름이 국사(國史)에 기재되어 있다. 세조 임금의 수레가 온양(溫陽)에 행차 하셨을 때였다. 온양과 아산(牙山)의 경계에 사는 유생 이귀형(李龜馨)이 대단한 부자¹²⁷⁾로 일컬어지면서 혼례를 치를 나이의 딸이 있다는 말씀을 임금이 듣고 이렇게 하고하셨다. “수행하는 신하 중에 누가 가장 청빈하며 아들이나 혹은 손자가 있어서 이씨와 혼인할 만한 자가 있는가?” 여러 신하들이 “직제학 남모(南某)가 집이 가난하면서 손자 열(悅)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명하여 대가를 따르게 하니, 공경(公卿) 이하가 남열(南悅)을 빙 둘러 에워싸고 이씨의 집으로 보냈으니, 한때의 성대한 일로 여겨졌다. 그리하여 그 후손들이 마침내 아산에 살게 되었다.

6세(世)를 전하여 후손 중에 두훤(斗烜)이 있었으니, 젊어서부터 높은 뜻이 있어 과거 공부를 포기하고 고요함과 편안함을 좋아하였다. 초당 세 칸을 뒤쪽 시냇가에 지으니, 산기운이 처마에 떨어지고 물소리가 들을 둘러쌌으며 흰 모래가 비단처럼 깔려 있고 푸른 버드나무가 장막처럼 이어져 있었다. 또 늙은 소나무 한 그루가 집 앞에 비스듬히 누워 있고, 대나무 창문과 가시나무 사립문은 규룡(虯龍)처럼 서려있는 사이로 은은히 비추고 있었다. 또 연못을 파서 연꽃을 심고 언덕을 쌓아 학을 길렀다. 주인이 이에 아침저녁으로 머물러 거문고를 타고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 마음 가득 자득하여 일찍이 명예와 이익을 사모하는 일이 없었다.

현종(顯宗) 7년(1666) 병오년 왕이 온양에 행차할 적에 그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임금께서 수행하는 관원을 돌아보고 묻기를, “저기가 누구의 집인가?” 하였다. 주인의 이름으로 아뢰자, 임금은 오랫동안 바라보고 말하기를, “소쇄(瀟灑)하구나, 저 당이여.” 하니 듣는 자들이 영광스럽게 여겼다. 주인이 세상을 떠나자 당(堂)도 또한 홍수에 무너지고 말았다. 지금 주인의 아들 국보(國寶)는 당을 다시 지을 것을 간절히 생각하고 장차 경영하여 보수해서 예전의 규모를 따라 옛날의 경관(景觀)을 회복하려 하였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 기문(記文)을 청하고 또 당의 이름을 지어 줄 것을 청하였다. 이에 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러하도다. 그대의 이 거사는 늦출 수가 없다. 내 들으니 옛날 위중선(魏仲先)¹²⁸⁾이 은거하던 집은 송나라 황제가 그려 오게 하여 보았는데도 말하는 자들이 지금까지도 칭송하고 있다. 그대 선인의 당은 성상께서 직접 보신 것으로 바로 진면목이라, 그림을 그려 오게 하여 본 것과는 비할 바가 아니다. 취화(翠華)¹²⁹⁾가 머물러서 산천이 광채를 더하고 옥음(玉音)이 간곡하여 초목도 빛을 움직이니, 이는 마땅히 사관이 기록한 역사에 적히고 방역(方輿)의 기록에 실려 있어야 할 것이니 그저 한때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고 말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대의 몸에 이르러 어찌 이 당을 황폐한 빈터로 만들고 끝내 무성한 잡초가 자라게 해서 후세에 알려지는 바가 없게 해서야 되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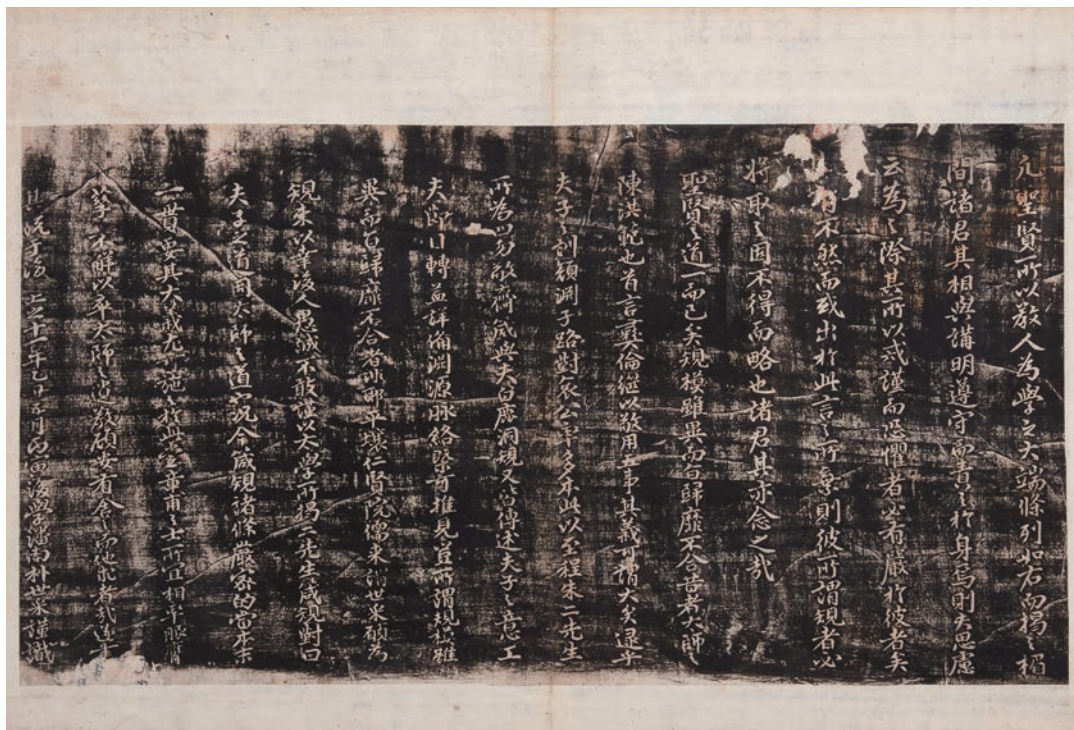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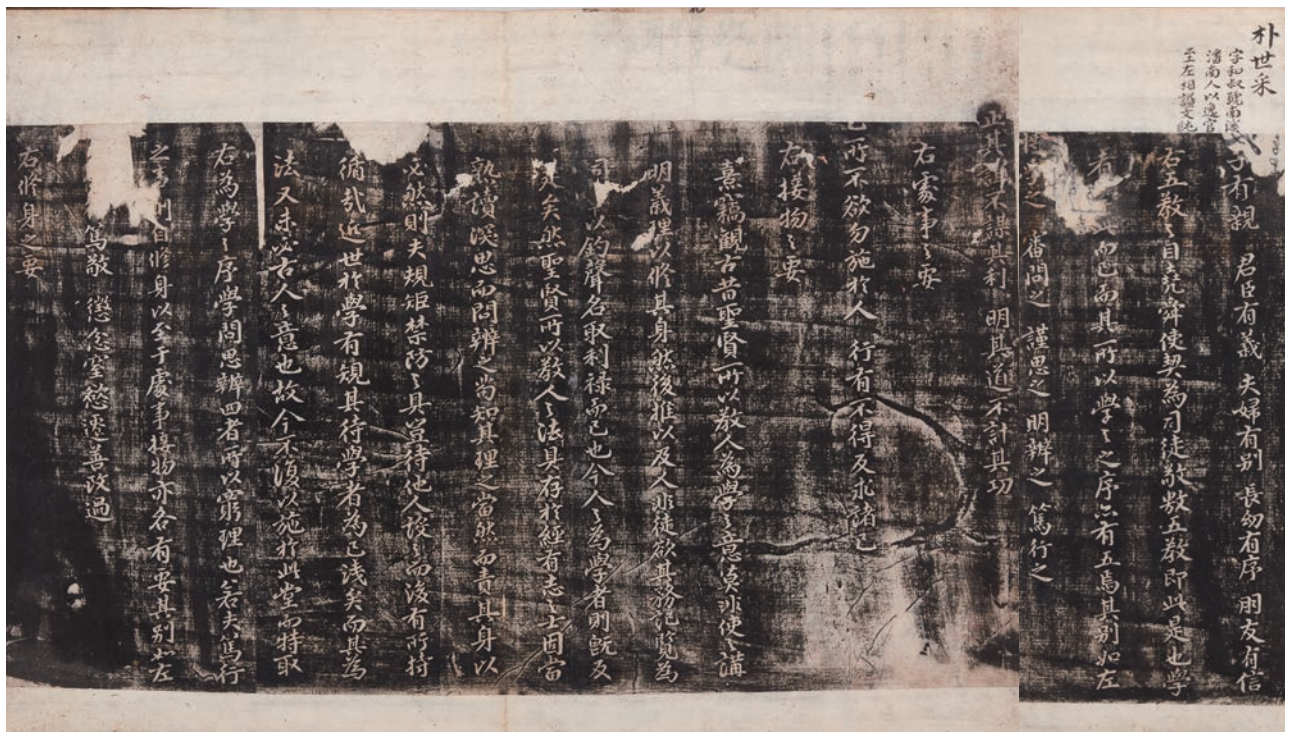
그렇지만 나는 이에 대하여 또 서글픈 마음이 없지 못하다. 위중선이 살던 곳이 송나라 황제의 그림에 그려진 것은 그가 집 때문이 아니고 바로 그 사람 때문이었으니, 이미 그 사람을 위해서 그가 살던 곳을 그렸다면 그 사람 때문에 사는 곳을 보고 그 사람을 드러내야 마땅했을 것이다. 우리 선왕께서 연(輦)을 타고 지나가면서 하문 하셨을 때에 만약 수행하는 관원 중에 ‘집주인이 성조(聖祖)의 남은 은혜를 받들고 옛 덕을 지닌 유명한 씨족(氏族)으로서 몇 칸의 초가집을 편안히 여기고 아름답게 은거하는 올바른 도리를 기른다.’는 사실을 알도록 했더라면 성상의 물음에 우러러 대답할 때에 또한 위중선의 고사를 가지고 청했을 터인데, 당시의 신하들이 들어 알지 못한 것이 애석하다. 당 이름을 ‘소쇄(瀟灑)’ 두 글자로 현판을 단 것은 본래 그 당시 성상의 말씀이었으니, 이제 후인의 처지에서 다시 어찌 감히 바꿀 수 있겠는가.”

계미년(1703) 12월 9일 종인(宗人) 구만(九萬)이 쓰다.

127) 원문은 ‘猗朱’로 되어있다. 춘추전국시대의 부상(富商)인 도주공(陶朱公)과 의돈(猗頓)을 함께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128) 중선(仲先)은 송나라 진종(眞宗) 때의 은사(隱士)인 위야(魏野)의 자(字)로, 세상에 알려지기를 구하지 않고 섬주(陝州)의 동쪽 교외에 초당(草堂)을 짓고 살면서 초당거사(草堂居士)로 자칭함. 위야가 황제의 부름을 받고도 상소하여 초야에서 살아가게 해 주기를 바라니, 황제는 사신을 보내 그가 거처하는 곳을 그림으로 그려 오게 하기도 하고 내시를 보내 안부를 물었다고 한다.

129) 취화: 황제가 행차할 때 비취 깃털로 만든 깃발과 일산의 닭개를 이르는 것으로, 여기서는 황제를 지칭한다.



130) 박세채: 영조·정조 때에 이르러 탕평책을 시행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을 제공한 황극탕평설(皇極蕩平說)로 구체화한 조선 후기 문신 겸 성리학자이다. 주요 저서인 『동유사우록東儒師友錄』를 통해 조선시대 성리학자의 계보를 파악하였다.

131) 이 글은 박세채의 문집 『남계집南溪集』에 『跋程朱二先生箴規』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다만 『청구제영』의 편집은 순서도 바뀌어 있고 일부 훼손된 글자가 있으므로, 문집의 내용에 의거하여 바로 잡아서 원문을 제시하고 번역하였다.

字和叔 號南溪 潘南人 以逸 官至左相 諡文純

자는 화숙(和叔), 호는 남계(南溪), 본관은 반남(潘南)이다. 유일(遺逸)로 천거되어 관직이 좌상(左相)에 이르렀으며 시호는 문순(文純)이다.

白鹿洞書院揭示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 右 五教之目 堯舜使契爲司徒 敬敷五教 卽此是也 學者學此而已 而其所以學之之序 亦有五焉 其別如左 博學之 審問之 慎思之 明辨之 篤行之 右 爲學之序 學問思辨四者 所以窮理也 若夫篤行之事 則自修身以至于處事接物 亦各有要 其別如左 言忠信 行篤敬 懲忿窒慾 遷善改過 右 修身之要 正其誼 不謀其利 明其道 不計其功 右 處事之要 己所不欲 勿施於人 行有不得 反求諸己 右 接物之要

熹竊觀古 昔聖賢所以教人爲學之意 莫非使之講明義理 以修其身 然後推以及人 非徒欲其務記覽 爲詞章 以釣聲名取利祿而已也 今人之爲學者 則既反是矣 然聖賢所以教人之法具存於經 有志之士 固當熟讀深思而問辨之 苟知其理之當然 而責其身以必然 則夫規矩禁防之具 豈待他人設之而後有所持循哉 近世於學有規 其待學者爲已淺矣 而其爲法 又未必古人之意也 故今不復以施於此堂 而特取凡聖賢所以教人爲學之大端 條列如右而揭之楣間 諸君其相與講明遵守 而責之於身焉 則夫思慮云爲之際 其所以戒謹而恐懼者 必有嚴於彼者矣 其有不然 而或出於此言之所棄 則彼所謂規者 必將取之 固不得而略也 諸君其亦念之哉

聖賢之道 一而已矣 規模雖異 而旨歸靡不合 昔者太師之陳洪範也 首言彝倫 繼以敬用五事 其義可謂大矣 逮乎夫子之訓顏淵子路 對哀公 率多本此 以至程朱二先生 所爲四勿敬齋箴 與夫白鹿洞規 又皆傳述夫子之意 工夫節目 轉益詳備 淵源脈絡 槩可推見 豈所謂規模雖異 而旨歸靡不合者非耶 平壤仁賢院儒 來謂世采 願爲規束 以幸後人 愚誠不敢 謹以太學所揭二先生箴規對曰 夫子之道 固太師之道也 況今箴規諸條 嚴密的當 本末一貫 要其大義 尤可施之於此堂 章甫之士所宜相率服膺 孳孳不解 以卒太師之遺教 顧安有舍之而他求者哉 遂書其說于後 上之十一年乙丑五月丙寅 後學潘南朴世采謹識

백록동서원 개시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친함이 있고,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고, 부부 사이에는 분별이 있고,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차서가 있고,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다. 이상은 다섯 가지 가르침의 요목이다. 요임금과 순임금이 설(契)을 사도(司徒)로 삼아 다섯 가지 가르침을 공경히 베풀도록 하였는데 바로 이것이다. 배운다는 것은 이것을 배우는 것일 따름이며 그것을 배우는 순서에도 또한 다섯 가지가 있으니 다음과 같다. 널리 배우고, 자세히 묻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밝게 변별하고, 독실하게 행한다. 이상은 배우는 순서이다. 배우고 묻고 생각하고 분별하는 네 가지는 이치를 궁구하는 것이다. 독실하게 행하는 일은 몸을 닦는 것에서부터 일에 처하고 사물에 접하는[處事接物]에 이르기까지 또한 각각 요목이 있으니, 그 구별은 다음과 같다. 말은 충실하고 신의가 있으며, 행실은 독실하고 공경하며, 분노를 다스리고 욕심을 막으며, 선한 곳으로 옮겨서 허물을 고친다. 이상은 수신(修身)의 요체이다. 의를 바로 잡아 이익을 도모하지 않고, 도를 밝혀서 그 공을 헤아리지 않는다. 이상은 처사(處事)의 요체이다. 내가 하고자 하지 않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말며, 행하여 얻지 못한다면 돌이켜서 자신에게서 구하라.

이상은 접물(接物)의 요체이다.

나 주희(朱熹)가 그옥이 생각건대 옛날 성현께서 사람을 가르쳐 배우게 한 의리를 강하여 밝히도록 하여 그 몸을 닦은 연후에 그것을 미루어 사람들에게 미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없었으니, 다만 보고 외우기에 힘써서 사장을 함으로써 명성을 낚고 이익과 벼슬을 취하게 함이 아니었다. 오늘날 배운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이와는 반대로 한다. 그렇지만 성현께서 사람을 가르치는 법도는 경전에 모두 남아 있으니, 뜻이 있는 선비는 진실로 마땅히 익히 읽고 깊이 생각하며 묻고 변별해야 한다. 그래서 진실로 그 이치의 마땅히 그러함[理之當然]을 알아서 반드시 그러함[必然]으로써 그 몸을 경책한다면 무릇 법도와 금방(禁防)¹³²⁾의 도구를 어찌 다른 사람이 베풀어준 이후에야 지녀서 따를 바가 있겠는가. 요즘 학교에 있는 학규(學規)는 배우는 자가 위지기학을 하도록 함에 더한 기대가 천박하고, 그 법도 역시 반드시 옛 성현의 뜻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지금 다시 이 서원에서는 시행하지 않는다 다만, 무릇 옛 성현께서 사람을 가르치고 배우도록 하는 큰 단서를 취하여 조항들을 위와 같이 나열하여 기둥에 걸어두니, 제군들은 서로 더불어 강하여 밝히고 준수하여 자신을 경책한다면 대저 생각하고 말을 할 때 경계하고 삼가며 두려워하는 바가 반드시 다른 사람들보다 엄정함이 있을 것이다. 만약 그러하지 않고 간혹 이 말을 버리는 것에서 나온다면 저들이 말하는 학규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취하게 되리니 진실로 간략히 할 수 없을 것이다. 제군들은 그 점을 생각할진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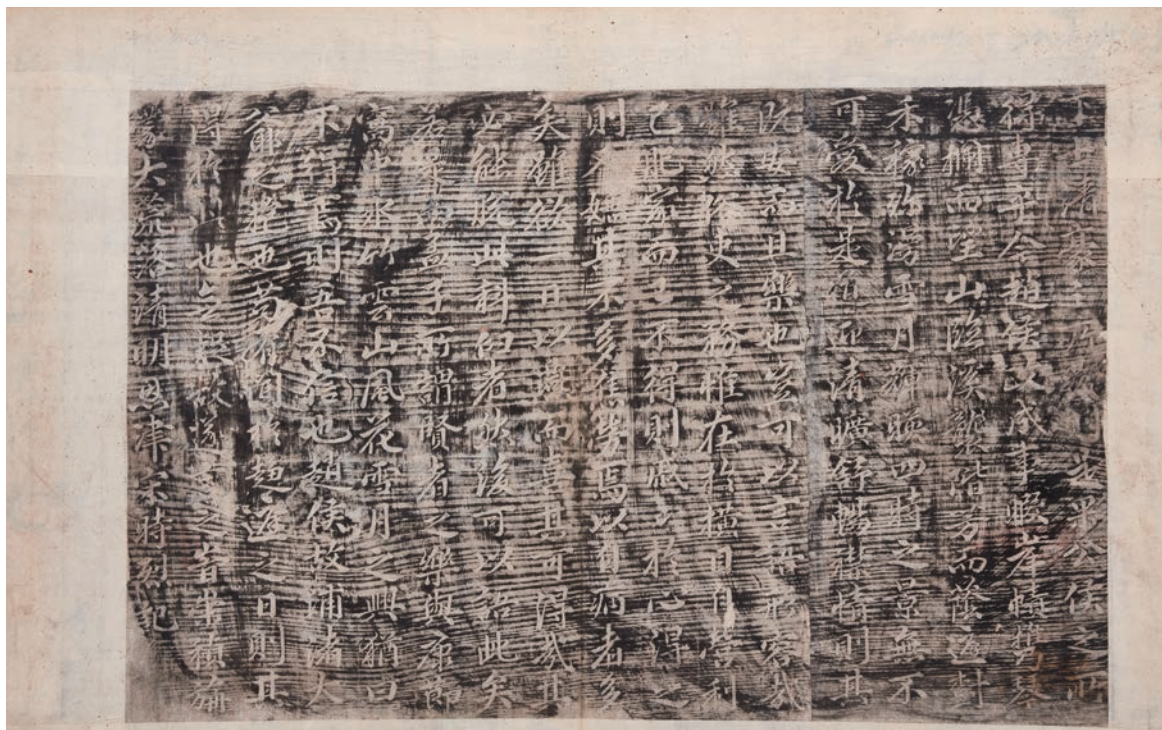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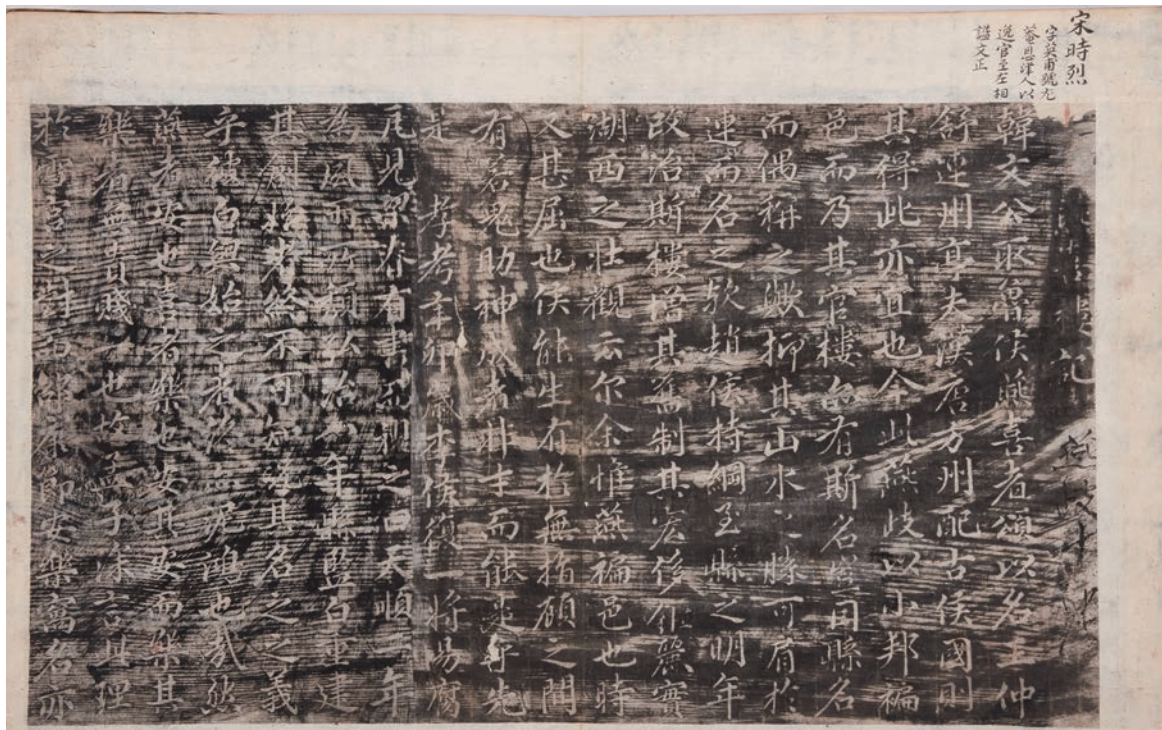
성현의 도는 하나일 뿐이다. 규모가 비록 다르더라도 뜻은 합치되지 않는 것이 없다. 옛날 태사(太師)께서 홍범(洪範)을 진술하실 때 첫머리에 이륜(彝倫)을 말씀하셨고, 이어서 공경히 다섯 가지 일을 쓰셨으니 그 뜻은 가히 위대하다 하겠다. 공자가 안연, 자로를 가르치고 애공을 대한 것에 이르러서도 대체로 이것에 근본한 것이 많다. 정자(程子)와 주자(朱子) 두 분 선생님께서 쓰신 바 사물잠(四勿箴), 경재잠(敬齋箴)과 저 백록동규(白鹿洞規) 또한 모두 공자의 뜻을 전하여 서술한 것으로, 공부의 절목이 갈수록 더욱 자세하게 갖추어져서 연원과 맥락을 대개 미루어 살펴볼 수 있다. 어찌 이른 바 규모가 작아도 뜻은 합치되지 않는 바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평양 인현서원의 유생이 와서 나에게 말하기를 ‘원컨대 서원의 규약을 만든다면 후인들에게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내가 진실로 함부로 할 수 없었다. 삼가 태학(太學)에 걸어놓았던 두 분 선생님의 잠(箴)과 규(規)로써 대답하여 말하였다. “공자의 도는 진실로 태사의 도입니다. 하물며 지금 잠과 규의 여러 조항들은 엄밀하고 적당하여 본말이 일관되니 요컨대 그 큰 뜻을 더욱 이 서원에서 해 볼만 합니다. 장보(章甫)¹³³⁾를 쓴 선비들이 마땅히 서로 이끌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못하는 바에 부지런히 노력함으로써 태사의 남기신 가르침을 마친다면 어찌 이것을 버리고 다른 것에서 구하겠습니까?” 마침내 이 이야기를 뒤에 쓴다.

우리 임금(숙종) 11년 을축년(1685) 5월 병인(5월 7일) 후학 반남 박세채 씀.

132) 금방 : 금지하고 경계하여 막음.

133) 장보는 유자(儒者)가 쓰는 관(冠)을 말함.



134) 송시열: 조선 후기 문신 겸 학자, 노론의 영수. 주자학의 대가로서 이이의 학통을 계승하여 기호학파의 주류를 이루었으며 이황의 이원론적인 이기호발설을 배격하고 이이의 기발이승일도설을 지지, 사단칠정이 모두 이라 하여 일원론적 사상을 발전시켰으며 예론에도 밝았다. 주요 저서에는 『송자대전』 등이 있다. 이 글은 송시열의 문집 『송자대전宋子大全』에 「燕岐縣燕喜樓重修記」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韓文公取魯侯燕喜者頌 以名王仲舒連州亭 夫漢唐方州 配古侯國 則其得此亦宜也 今此燕岐 以小邦偏邑 而乃其官樓亦有斯名 豈因縣名而偶稱之歟 抑其山水之勝 可肩於連而名之歟 趙侯持綱至縣之明年 改治斯樓 增其舊制 其宏侈鉅麗 實湖西之壯觀云爾 余惟燕編邑也 時又甚屈也 侯能生有於無 指顧之間 有若鬼助神成者 非才而能是乎 先是孝考辛卯歲 李侯復一將易腐瓦 見梁脊有書 而視之曰天順二年 爲風雨所頽 弘治八年 縣監白重建 其創始者 終不可知 況其名之之義乎 彼白與始之者 終亦泥鴻也哉 然燕者安也 喜者樂也 安其安而樂其樂者 無貴賤一也 故孟子深言此理於雪宮之對 而邵康節安樂窩名 亦下士清豪之所發 則是果公侯之所得專乎 今趙侯政成事暇 岸幘携琴 憑欄而望山臨溪 襲階芳而蔭庭樹 禾稼彌漫 雪月輝映 四時之景 無不可愛 於是導迎清曠 舒暢襟情 則其既安而且樂也 豈可以言語形容哉 雖然俗吏之務 惟在於橫目自營 利己肥家而已 不得則戚戚於心 得之則又嫌其不多 焦勞焉以自病者多矣 雖欲一日以燕而喜 其可得哉 其必能脫此科臼者然後可以語此矣 若是而孟子所謂賢者之樂 與康節窩中水竹雲山風花雪月之興 猶曰不得焉 則吾不信也 趙侯故浦渚大爺之抱也 苟有聞於趨庭之日 則其得於此也無疑 故遂言之 時崇禎旃蒙大荒落清明 恩津宋時烈記

연희루기燕喜樓記

한문공이 노후연희(魯侯燕喜)를 취하여 송축하면서 왕중서(王仲舒)의 연주의 정자를 명명하였는데, 대저 한당(漢唐)의 여러 고을은 옛 제후국에 필적하니 곧 이러한 이름을 얻은 것 또한 마땅하다.¹³⁵⁾ 그런데 지금 이곳 연기(燕岐)는 작고 좁은 고을인데 관청의 누각에 이 이름이 있으니 어찌 고을의 이름으로 인해 우연히 붙인 것이겠는가. 혹 산수의 뛰어남이 가히 연주(連州)에 비견되어 이름한 것 인가.

조지강 후(侯)께서 이 현에 부임한 이듬해 이 누정을 개축하고 옛 규모를 증축하니 그 크고 사치하고 거대하고 아름다움이 진실로 호서의 장관이라 할 것이다. 나는 생각하기를 연기는 좁은 고을이요 시절 또한 매우 꺾인 때인데, 후(侯)가 잠깐 사이에 무(無)에서 유(有)를 만들어내어 귀신이 도와서 이루어 진 듯하니, 그 재주가 아니라면 이를 수 있었겠는가. 이 앞서 효종 신묘년(1651)에 이덕일 후가 또한 가 썩은 기와를 한꺼번에 바꾸려고 할 때 들보에서 글이 발견되었는데, 그것을 살펴보니 천순(天順) 2년 비바람에 퇴락하였으며 홍치(弘治) 8년 현감 백(白)이 증건하였다고 되어 있었다. 이 정자를 창시한 사람을 끝내 알 수 없었는데 하물며 이름을 지은 뜻임에랴.

저 백 현감과 창시자는 끝내 또한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연(燕)’은 편안하다는 뜻이고 ‘희(喜)’는 즐겁다는 뜻이다. 그 편안함을 편안히 여기고 그 즐거움을 즐기는 것은 귀천(貴賤)이 모두 한가지이다. 그러므로 맹자께서는 설궁(雪宮)¹³⁶⁾에서의 대답에서 이 이치를 깊이 말씀하셨고 소강절(邵康節)의 안락와(安樂窩)¹³⁷⁾라는 명칭 역시 하사(下士)의 청호(淸豪)를 격발시키는 곳이었으니, 이것이 과연 공후(公侯)만이 오로지 얻을 수 있는 것이겠는가.

이제 조후(趙侯)께서는 정치를 이루어 일이 한가함에 두건을 벗고 거문고를 가지고, 난간에 기대어 산을 바라보고 시내에 임하며, 섬돌의 꽃향기를 훈습하고 정원의 나무를 그늘로 삼으며, 곡식이 가득하고 눈 위에 달이 휘영청 비치는 사시사철 경치를 사랑하지 않음이 없었다. 이에 맑고 드넓은 곳으로 이끌어 맞아 마음 속 회포를 풀어내니 이마 편안하며 또한 즐거움을 어찌 그것을 말로 형용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만 속리(俗吏)는 힘씀이 오직 스스로 경영하는데 눈을 돌려 자기를 이롭게 하고 집안을 살지게 할 따름이니, 그것을 얻지 못하면 마음에 슬퍼지고 그것을 얻으면 많지 않음을 싫어하며 애태워 수고를 하며 스스로를 병들게 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 비록 하루를 편안히 즐기고자 해도 어찌 그럴 수 있겠는가. 필시 이러한 틀을 벗어날 수 있게 된 연후에라야 이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도 맹자가 말씀하신 바 어진 사람의 즐거움과 소강절이 안락와의 물과 대나무와 구름과 산과 바람과 꽃과 눈과 달의 흥취를 그래도 얻을 수 없다고 한다면 나는 그 점을 믿지 못하겠다.

조후(趙侯)는 고(故) 포저(浦渚)¹³⁸⁾ 어르신인 손자이다. 진실로 집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동안 들은 바가 있을 것인 즉 여기에서 얻었음은 의심할 바가 없다. 이 때문에 드디어 이를 말하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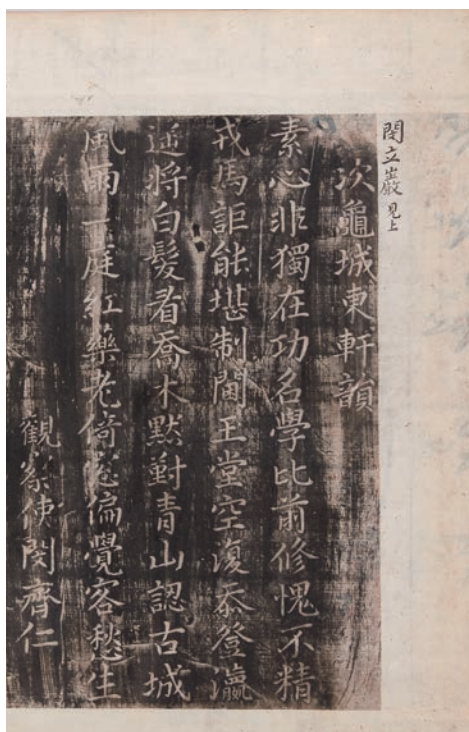
송정 을사년(1665) 청명일 은진 송시열이 쓴다.

135) 이와 관련된 사적은 한유가 지은 「연희정기燕喜亭記」에 나온다. ‘연희’는 『시경』 「노송魯頌 비궁闕宮」에 나오는 ‘魯侯燕喜(노나라 임금이 잔치를 열어 기뻐한다)’에서 온 말이다.

136) 설궁은 춘추전국시대 이궁(離宮)의 이름으로, 맹자가 제나라 선왕(宣王)을 이곳에서 만나 왕궁의 원유(苑囿)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다.

137) 소강절이 낙양에 와서 지은 아주 누추하고 작은 집의 이름이 안락와였다.

138) 포저는 조익(趙翼)의 호이다.



閔立巖 見上

민입암[민제인] 앞에서 보인다.

구성 동헌의 시판에 차운하다¹³⁹⁾

원래 먹은 마음은 다만 공명에 있지 않았나니
 배움이 옛 사람에 비해 정묘하지 못한 것 부끄럽구나.
 갑옷과 말로 어찌 능히 변방 군대 통솔하랴
 부질없이 다시 감히 옥당에 올랐었지.
 아득히 백발로 교목을 바라보고
 묵묵히 청산 마주하여 옛 성을 알아본다.
 온 뜰에 비바람 부니 붉은 작약 늙어가고
 창에 기대 문득 나그네 근심 일어나는 것 깨닫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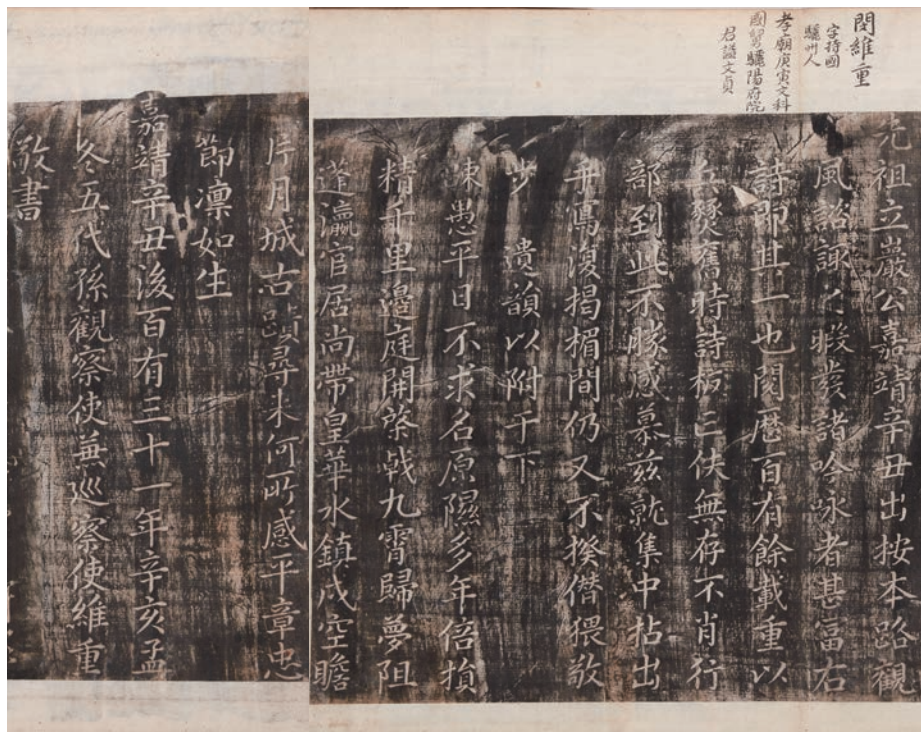
관찰사 민제인

次龜城東軒韻

素心非獨在功名
 學比前修愧不精
 戎馬詎能堪制閫
 玉堂空復忝登瀛
 遙將白髮看喬木
 默對青山認古城
 風雨一庭紅藥老
 倚窓偏覺客愁生

觀察使 閔齊仁

139) 이 시는 민제인의 문집 『입암집』에 「次龜城東軒韻」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字持國¹⁴¹⁾ 驪州人 孝廟庚寅文科 國舅驪陽府院君 諡文貞

자는 지국(持叔), 본관은 여주(驪州)이다. 효종 경인년(1650)에 문과 급제하였다. 국구(國舅)로 여양부원군(驪陽府院君)에 봉해졌으며,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先祖立巖公 嘉靖辛丑 出按本路 觀風諮諏之暇 發諸吟咏者甚富 右詩即其一也 閱歷百有餘載 重以兵燹 舊時詩板亡佚無存 不肖行部到此 不勝感慕 茲就集中拈出手寫 復揭楣間 仍又不揆僭猥 敬步遺韻 以附于下

선조이신 입암공께서 가정 신축년(1541) 이곳을 다스리러 오셨다가, 백성들의 풍속을 살피고 두루 자문을 하는 여가에 시로 읊조리신 것이 매우 풍성하였으니 앞의 시는 그 중 한 편이다. 백 여년이 지나면서 거듭 전란으로 옛날 시판들은 일실되어 남아있는 것이 없는데, 불초한 내가 이 지역을 순행하다가 이곳에 이르니 감회와 사모함을 이기지 못하여 이에 문집 안에서 이 작품을 집어내어 손수 써서 기둥 사이에 걸었다. 이에 또한 참람되고 외람됨을 살피지 않고 공경히 남기신 시에 차운하여 아래에 부친다.

140) 민유중: 숙종의 장인이자, 인현왕후의 아버지이다. 딸이 숙종의 계비가 되자 여양부원군이 되었다. 당색으로는 노론에 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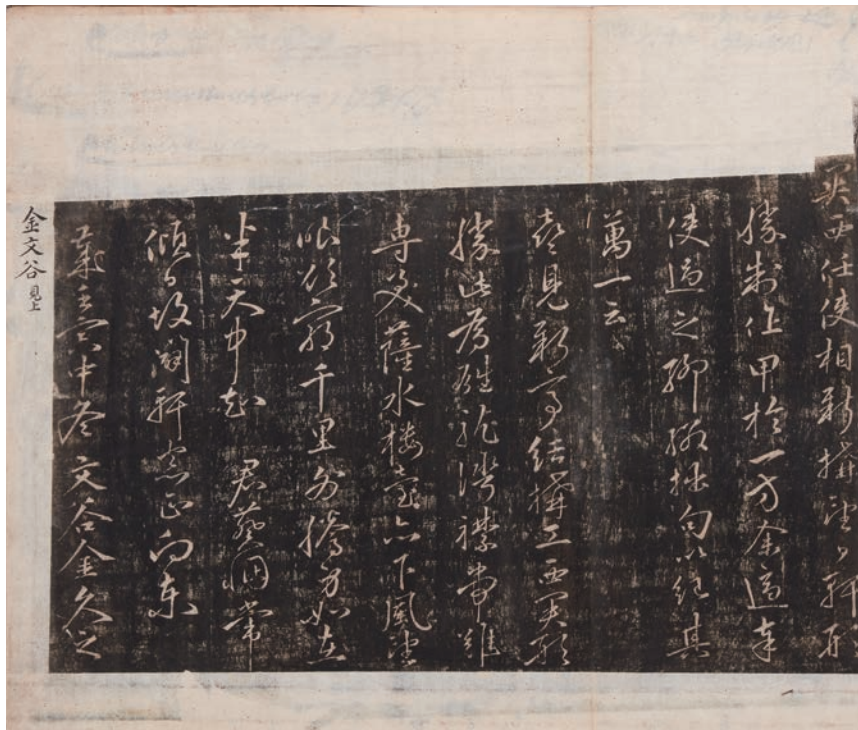
141) 민유중의 자는 지숙(持叔)이다. 상단에 기재된 작자 소개에 자를 '지국'으로 표기한 것은 편집상 오류로 번역으로 바로잡았다.

게으르고 어리석은 이 내 몸 평소에 명성을 구하지 아니하여
 들판에서 여러 해 동안 정기를 두 배나 손상시켰지.
 천 리 밖 변방에서 창을 전개해두니
 구중궁궐 돌아갈 꿈은 신선의 섬에 가로막혔네.
 관청은 여전히 황화(皇華)의 물을 띠고 있고
 변방 수루는 부질없이 조각달 뜬 성을 보라본다.
 옛 자취 찾아오니 느끼는 바 무엇인가
 평장(平章)의 충절이 늠름하여 살아계신 듯하구나.

疎愚平日不求名
 原隰多年倍損精
 千里邊庭開檠戟
 九霄歸夢阻蓬瀛
 官居尙帶皇華水
 鎮戍空瞻片月城
 古蹟尋來何所感
 平章忠節凜如生

가정 신축년 후 131년되는 신해년(1671) 초겨울에 오대손 관찰사 겸순찰사 유중이 공경히 쓰다.

嘉靖辛丑後百有三十一年辛亥孟冬 五代孫 觀察使兼巡察使 維重 敬書



金文谷 見上

김문곡[김수항] 앞에서 보인다.

關西任使相 新構望日軒 形勝制作甲於一方 余適奉使過之 聊綴拙句 以紀其萬一云

관서의 임 사상¹⁴³⁾이 망일헌을 새로 지었는데 그 빼어난 승경이 한 지방에서 으뜸이었다. 내가 마침 사신의 임무를 받아서 이곳을 지나다가 애오라지 졸렬한 시구를 엮어서 그 만분의 일이나마 기록하는 바이다.

새로운 누정 잘 지어진 것 기쁘게 보나니

관서의 형승 중에 이곳이 제일일세.

용만 산천이 아름다움 독차지하기 어렵고

살수(薩水) 옆 누대 역시 이보다는 못하네.

눈 들어 천 리 밖을 끝까지 바라보려니

몸이 떠올라 하늘 한가운데 있는 듯하구나.

그대는 해바라기처럼 항상 해를 향해 기울어져 있나니

짐짓 누정의 창문을 동쪽으로 내셨어라.

喜見新亭結構工

西關形勝此爲雄

龍灣襟帶難專美

薩水樓臺亦下風

望眼欲窮千里外

騰身如在半天中

知君葵悃常傾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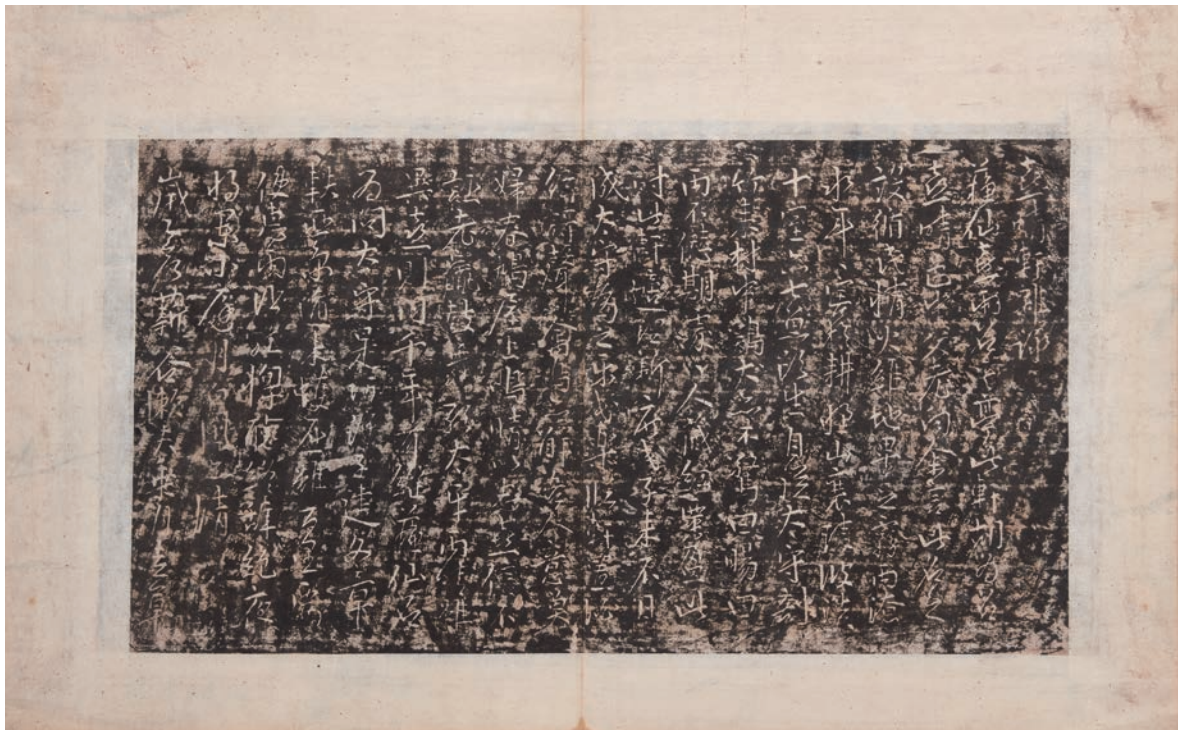
故關軒窓正向東

임인년(1662) 중동 문곡 김구지

歲壬寅中冬 文谷 金久之

142) 김수항: 효종, 현종대 문신이다. 제2차 예송이 일어나 남인이 주장한 기년설이 채택되자 벼슬을 내놓았다. 그 후 숙종대 영의정이 되었으나, 1689년(숙종 15)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재집권하게 되자 진도에 유배되었다가 사사되었다. 이 시는 김수항의 문집 『문곡집文谷集』에 「關西方伯任公義伯 新構望日軒於營衛之東 余適過宿 方伯索題賦贈」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143) 『문곡집』에 의하면 ‘임 사상’은 임의백(任義伯, 1605~1667)을 지칭한다. 임의백은 1660년(현종 1) 11월 9일 평안도관찰사에 임명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희청헌 잡영

喜晴軒雜詠

소동파는 ‘희우(熹雨)’로 정자를 명명했는데
이 건물은 어찌하여 희청(熹晴)으로 명명했는가.¹⁴⁴⁾
고을의 부로(父老)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이 이름 지어진 것은 백성들의 뜻을 따른 것이라 하네.
남방¹⁴⁵⁾은 땅이 낮고 안개와 비가 풍족하며
큰 물이 해마다 밭갈이에 해롭다네.
들과 산과 언덕에 물결이 질펀하니
열 집 중에 예닐곱 집엔 고기가 살 듯하여라.
이로부터 태수가 부절을 가지고 부임해 와도
마을의 닭과 개도 놀라지 않았네.
해가 뜨나 비가 오나 시기를 놓치지 않으면
곳곳에 갈무리해 놓은 붉은 곡식이 가득하게 되지.¹⁴⁶⁾
이 때 이 집을 때마침 새로 지으니
수많은 백성들이 와서 며칠 안 되어 완성되었지
태수는 이 때문에 백성들의 즐거움을 즐기며

蘇仙熹雨名其亭
此軒胡爲名熹晴
邑中父老向余言
此名之設循民情
火維地卑足霧雨
潦年年害於耕
懷山襄陵波浩浩
十室六七魚欲生
自從太守剖竹來
村中鷄犬亦不驚
日暘日雨不愆期
處處人藏紅粟盈
此時此軒適俱新
庶幾子來不日成
太守爲之樂民樂

144) 소동파는 …… 명명했는가: 송나라 문인 소동파가 1061년 섬서성 봉상현에 부임하였을 때, 극심한 가뭄으로 흉년이 들었다가 이듬해 비가 넉넉히 내려서 백성들이 모두 즐거워하였다. 이 때문에 이 시점에 지어진 정자의 이름을 ‘희우정(喜雨亭)’이라고 지었다고 하는 글이 있다. 그러나 이 고을의 동헌 정자의 이름은 날이 맑게 개인 것을 기뻐한다는 뜻의 ‘희청헌’으로 지어진 유래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145) 남방의 원문은 화유(火維)인데, 이는 남쪽이 오행 중 화(火)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칭하는 것임.

146) 붉은 곡식은 습한 날씨 때문에 곰팡이로 부패한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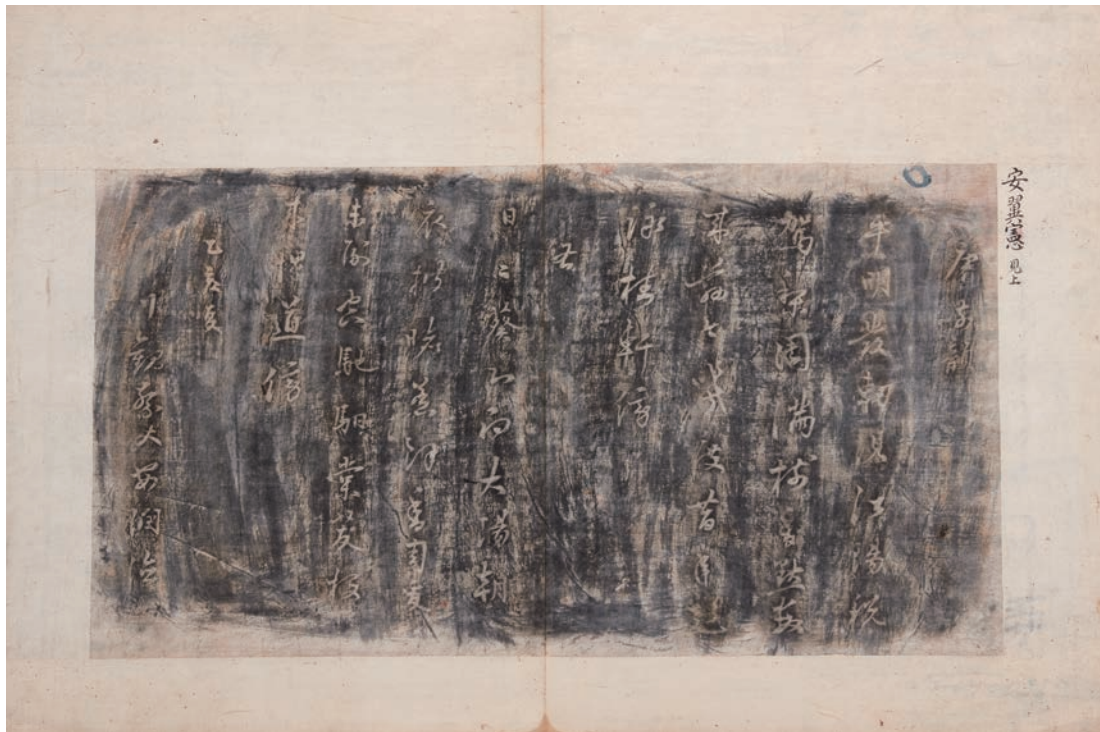
건물에 나와 술을 놓고 음악 소리 드높다.
 새들도 사람의 뜻을 이해하는지
 짝 부르는 봄 비둘기가 집 위에서 우는구나.
 맑은 것으로 기쁨을 기록함이 진실로 거짓이 아니니
 늙은이들도 북 치고 춤추며 태평시절 노래한다.
 비와 맑음 다르지만 기쁨은 같은 것
 천 년 후에도 소동파의 이름이 이어질 수 있어라.
 문노니 태수는 누구인가
 자건(子建)¹⁴⁷⁾의 문장이 서경(西京)에 뛰어났네.
 근래에 자벌레처럼 굽혀 지방 고을에 있지만
 은혜로운 비로 외로운 사람들 진작시키고자 함이라
 듣는 것 마치고 이야기 끊어져 밤은 끝나려는데
 작은 뜰에 달은 밝고 바람 또한 맑아라.

臨軒置酒絃歌聲
 禽鳥亦解吾人意
 喚婦春鳩屋上鳴
 晴以志熹信不誣
 老羸鼓舞歌太平
 雨晴雖異熹則同
 千年可繼蘇仙名
 爲問太守是何許
 子建文章軼西京
 邇來蟻屈雖百里
 要使惠雨作孤惇
 聽終辭絕夜將闌
 小庭月白風亦清

을해년 신곡나부(薪谷懶夫)가 달빛을 타고 단번에 쓰다

歲乙亥 薪谷懶夫 乘月走草

147) 자건(子建)은 위(魏) 문제(文帝) 조비(曹丕)의 아우인 조식(曹植)을 지칭한다. 인생에 대한 깊은 물음과 서정적인 문풍으로 건안시풍(建安詩風)을 형성하는 주역이었다. 여기서는 이곳을 다스리는 군수를 칭송한 것이다.



安翼憲 見上

안익헌[안윤검] 앞에서 보인다.

앞의 시판에 화운하다

廣前韻

새벽에 패강 북쪽에서 수레를 출발하여
향기로운 나무 가득한 이원(梨園)에 수레를 멈추었다.
지금 몇 번째인가 묵묵히 세어보니
작년에 시를 써서 건물 옆에 걸었더군.

平明發轍溟江陽
稅駕梨園滿樹香
默數來茲今幾度
昔年題詠掛軒傍

또 차운하다

右

날마다 해바라기 마음 태양을 향하는데¹⁴⁸⁾
관복 헤치며 보노라니 남은 향기 일어난다.¹⁴⁹⁾
주원(周爰)에 부흥하지 못하고 헛되이 말을 달려
선정 베푸는 것¹⁵⁰⁾ 구하다가 길 옆에서 부끄러워하네.

日日葵心向太陽
朝衣披睹惹餘香
周爰未剖空馳駟
榮莢投求愧道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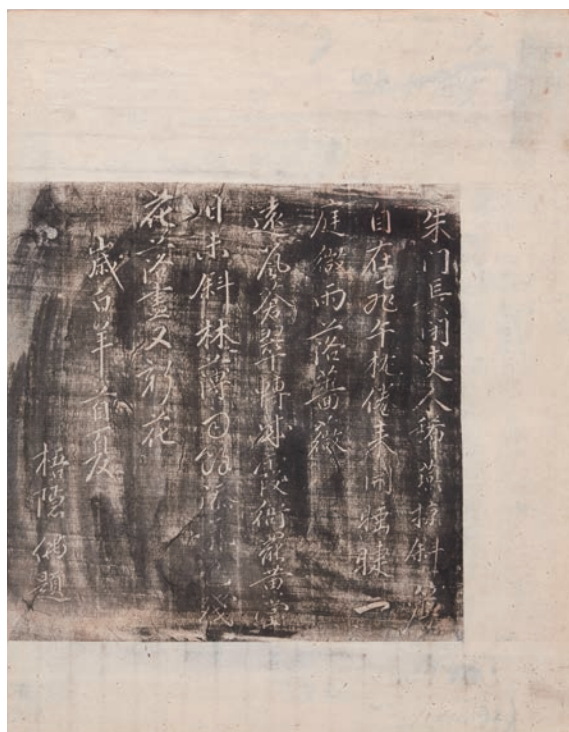
을해년 행관찰사 안윤검

乙亥夏 行觀察使 安潤儉

148) 날마다 …… 향하는데: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해 얼굴을 늘 돌리는 것을 통해서 임금을 향한 충성심으로 가득한 신하를 의미한다.

149) 관복 헤치며 …… 일어난다: 임금에게 조회를 하면서 오래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궁중의 향이 옷에 배게 된다. 따라서 관복 차림으로 남은 향기를 일으킨다는 것은 임금을 알현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여기서는 작자가 관찰사 입장으로 지방 관아에 와서 정치와 민속을 살피노라니 임금의 은택이 널리 퍼지게 된다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150) 원문은 당발(棠莢). 주나라 소공(召公) 석(奭)이 당채나무 아래에서 좋은 정치를 폈다는 고사에서 온 말로,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푸는 것을 말한다.



붉은 문 오래 닫혀있고 관리들 드문데
제비는 비스듬한 처마 스치며 마음대로 난다.
낮잠 느긋하게 들었다가 슬며시 눈을 뜨니
온 뜰 가랑비에 장미가 떨어진다.

朱門長閉吏人稀
燕掠斜簷自在飛
午枕倦來開睡睫
一庭微雨落薔微

먼 산기운 푸르스름하다가 노을로 바뀌었는데
하루 일 끝난 동헌에는 해가 아직 기울지도 않았네.
수풀에 비내린 뒤 기운과 빛깔 더해지니
남았던 꽃 모두 떨어지고 또 새 꽃이 핀다.

遠嵐蒼翠轉成霞
衙罷黃堂日未斜
林薄雨餘添氣色
殘花落盡又新花

신묘년 수하
오은이 우연히 쓰다

歲白羊首夏
梧隱偶題



字宗聖 昌寧人 燕山乙卯文科 官至贊成

자는 종성(宗聖), 본관은 창녕(昌寧)이다. 연산군 을묘년(1495)에 문과 급제하여 관직이 찬성에 이르렀다.

땅은 홍도와 접하여 아름답고

풍속은 백성이 뉘뉘하고 물산이 풍부한 곳이라¹⁵²⁾

오산은 남쪽으로 읊하듯 병풍처럼 감싸안고

석수는 북으로 흘러 거울처럼 맑구나.

올라와 조망하니 나그네 근심은 술잔 속에 사라지고

서성거리노라니 시의 재료를 의지할 만하다.

연못가 정자엔 사방이 버드나무라

이곳 창건할 때 들인 노력을 알 만하여라.

地接洪都佳麗

俗封民物彝興

鳥山南楫屏擁

石水北流鏡澄

登眺羈愁飲盡

徘徊詩料堪憑

池亭四面楊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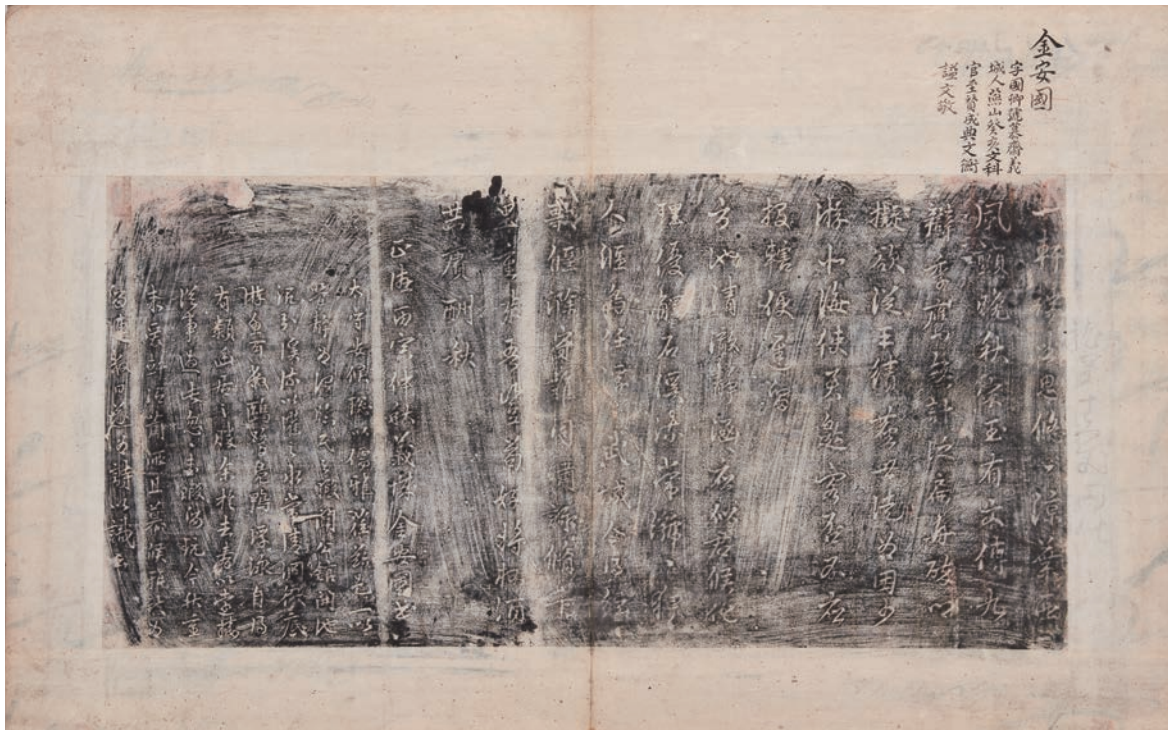
開創得知功能

정덕 기사년(1509) 11월, 객 조계상 씀

正德己巳至月 過客曹繼商書

151) 조계상: 조선전기 문신이다. 예조참판 때 신진 사류의 등용을 반대해 정광필에 의해 파직된 뒤 재기용되었다. 김안로와의 불화로 부쳐되었다가 김안로가 사사되자 우찬성으로 등용되고, 후에 중추부판사가 되었다.

152) 땅은 …… 흥성하네: 이 구절은 당나라 문인 왕발(王勃)의 「등왕각서滕王閣序」를 활용하였다. “南昌故郡 洪都新府 星分翼軫 地接衡廬襟三江而帶五湖 控蠻荆而引甌越 物華天寶 龍光射牛斗之墟 人傑地靈 徐孺下陳蕃之榻.”(남창은 옛 고을 이름이요 홍도는 새 고을이다. 별자리로는 익성과 진성에 해당되며 땅은 형산과 여산에 접해있다. 세 강이 옷깃처럼 감돌고 오호를 허리띠처럼 둘러있다. 형만을 억누르고 구월을 끌어당기는 곳이다. 물산의 정화는 하늘이 내린 보배이니 용천검의 광채가 건우성과 복두성 사이를 쏘았고, 인물은 걸출하고 땅은 신령스러워 서유는 진번 태수가 책상을 내려주며 맞이하게 했다.) 즉 작자가 있는 이 정자가 등왕각처럼 빼어난 곳이라는 점을 말한다.



字國卿 號慕齋 義城人 燕山癸亥文科 官至贊成典文衡 諡文敬

자는 국경(國卿), 호는 모재(慕齋), 본관은 의성(義城)이다. 연산군 계해년(1503)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찬성에 이르렀다. 문형을 맡았으며,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동헌에 단정히 앉으니 생각은 유유한데
서늘한 잎이 늦가을 바람에 흔들리네
송옥은 문장 지어 구변(九辯)을 전하였고¹⁵⁴⁾
계응은 느닷없이 조각배를 띄웠었지.¹⁵⁵⁾
취향에서는 왕적을 따르고자 했¹⁵⁶⁾
속세에서는 다만 곤고한 소유였지.¹⁵⁷⁾
북해의 군수님은 빈객을 맞이하지 않으시는가¹⁵⁸⁾

一軒端坐思悠悠
涼葉西風顫晚秋
宋玉有文傳九辯
季鷹無計泛扁舟
醉鄉擬欲從王績
塵世徒爲困少游
北海使君邀客否

153) 김안국: 조선 전기의 문신이자 학자로 대사간·공조판서·경상도관찰사 등을 지내며 성리학의 실천·보급에 주력하였으며 향촌민들을 교화시키는 데 힘썼다. 이후 예조판서·대사헌·병조판서 등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김안국의 이 작품은 그의 문집 『모재집慕齋集』에 「題龍岡縣壁」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154) 송옥은 전국시대 말기 초나라의 시인으로, 초사(楚辭)에 수록된 「구변」을 지어서 자신의 스승인 굴원의 억울함을 변호하였음.

155) 계응은 위진남북조 시대 장한(張翰)의 자로, 가을바람이 불자 고향의 순채와 농어회가 생각난다고 하면서 벼슬을 그만 두고 낙향하였음.

156) 취향에서는 …… 했고: 왕적은 당나라 초기의 관료이자 문인이다. 당고조(唐高祖) 때 대조문하성(대조문하성(待詔門下省))에 제수되었는데, 황제가 특별히 날마다 술 한 말을 지급하여 두주학사(斗酒學士)로 불렸다. 당현종(唐玄宗) 정관(貞觀) 초에 병으로 관직을 버리고 귀향하여 은거한 채 거문고와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세상을 떠났다.

157) 속세에서는 …… 소유였지: 소유(少游)는 북송 때의 문인 진관(秦觀)의 자이다. 당쟁에 휘말려 오랫동안 유배되었거나 폄직되었는데, 휘종 즉위 당시 사면되어 집으로 돌아오다가 길에서 세상을 떠났다.

158) 북해의 …… 앉으시는가: 북해태수는 공융(孔融)을 지칭한다. 그는 손님이 찾아오는 것을 매우 좋아하여 집에는 늘 손님으로 가득하고 술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였다.

수레 굴대 빼서 던지지 않아도 문득 머물 것을.¹⁵⁹⁾
 연못 맑디맑아 고요히 가을 머금었으니
 응당 군수는 훌륭하게 고을을 다스리리.
 바위에 부딪치는 시냇물은 늘 소리내며 흐르고
 사람과 허물없이 노니는 갈매기는 마음껏 떠돈다.
 무성에서 지금 거문고와 노래를 하는 언(僊)을 얻었고¹⁶⁰⁾
 저주(滁州) 태수는 누구와 함께 읍조릴까나.¹⁶¹⁾
 천 리 길을 거듭 오니 내 어찌 구차히 하라
 장차 시와 술로 함께 주고받으며 노래하리.

不應投轄便遲留
 方池清澈靜涵秋
 應似君侯化理優
 觸石溪流常瀺瀺
 狎人漚鳥任浮浮
 武城今得絃歌僊
 滁守誰同嘯詠脩
 千里重來吾豈苟
 好將詩酒共賡酬

정덕 병인년 중추에 의성 김안국 씀

正德丙寅仲秋 義城金安國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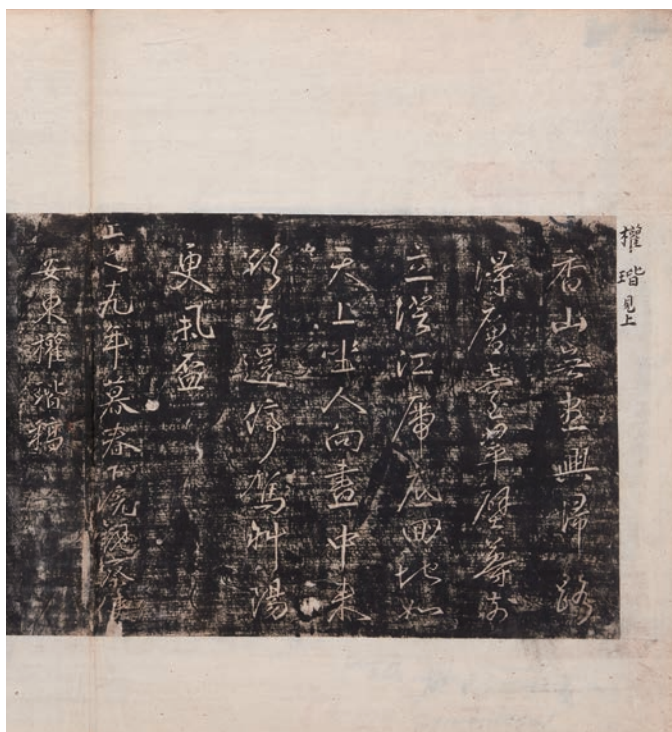
太守安侯聰以儒雅莅茲邑 一以簡靜爲治 臨民以暇 闢公館 開池沼 分溪流以灌之 水常清澗徹底 游魚可數 鷗鷺鳴 浮泳自得 有類幽居之勝 余於去春 以遠接從事過此 忽忽 未暇留玩 今秋重來 愛軒沼蕭洒 且慕侯雅致 爲留連數日 遂爲詩以識云

태수 안충(安聰)은 바른 선비로서 이 고을에 부임하여 간결함과 고요함으로 다스렸다. 백성에게 임하고 여유로운 시간에 공관을 넓히고 연못을 열었다. 시냇물을 나누어서 끌어들이매 물은 항상 맑아서 바닥까지 보여서 노니는 물고기를 셀 수 있을 정도였고 갈매기와 오리들이 마음껏 헤엄치니 깊은 곳에 은거하는 거처의 뛰어난 것이 있었다. 내가 지난 봄 접반사의 종사관으로 이곳을 바빠 지냈던 터라 머물러서 감상할 여유가 없었다. 금년 가을에 다시 오니 동헌 건물과 연못은 정갈하고 말쑥하였다. 또한 안후의 고아한 풍치(風致)를 사모하여 여러 날을 머무르면서 마침내 시를 지어 이를 기록하는 바이다.

159) 수레 굴대를 빼서 던진다는 것[投轄]은 술자리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수레바퀴 굴대를 뽑아서 우물 속에 던졌던 진준(陳遵)의 고사에서 용사한 것.

160) 이 부분은 『논어』 「양화」에 나오는 공자와 자유(子游) 사이의 고사를 용사하였다. 자유의 이름은 언(僊)으로, 그가 무성을 다스릴 때 거문고를 타면서 노래를 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에 어찌 닭을 잡는 데에 소 잡는 칼을 쓰냐고 하자 자유가 예악을 통해서 좋은 정치를 하라는 뜻으로 대답하자 공자가 이를 칭찬했다는 내용이다. 여기서는 고을을 잘 다스리는 안후(安侯)를 칭송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161) 저주 태수는 …… 읍조릴까나: 여기서 언급하는 저주태수는 두 사람을 상정할 수 있다. 먼저 당나라 덕종 때 시인 위응물(韋應物)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는 저주자사(滁州刺史)를 지내면서 「저주서간滁州西澗」이라는 명시를 지은 바 있다. 또 한 사람은 송나라 때의 관료이자 문인인 구양수(歐陽修)를 들 수 있다. 그는 저주태수를 지내면서 취옹정을 짓고 이곳에서 시와 술을 즐기면서 지냈는데, 그 내력을 「취옹정기醉翁亭記」에 담은 바 있다. 여기서는 김안국이 고을의 건물을 두고 지은 것이기 때문에 구양수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위응물이라고 해도 문맥상의 문제는 없어 보인다. 따라서 두 사람을 모두 언급해둔다.



見上
위에서 보인다.

향산에 끝없는 흥이 이는데
돌아가는 길에 층층한 누대를 만났네.
푸른 절벽은 울울히 앞에 서있고
맑은 강은 자리 아래로 감돈다.
땅은 마치 천상에 앉은 듯하고
사람은 그림 속에서 나온 듯하다.
떠나려다가 다시 수레 멈추고
비끼는 햇살 속에 다시 술잔을 든다.

香山無盡興
歸路得層臺
翠壁鬱前立
澄江席底回
地如天上坐
人向畫中來
欲去還停駕
斜陽更舉杯

우리 임금 19년(1693년, 숙종19년) 모춘 하순 관찰사 안동 권해 짓다.

上之十九年暮春下浣 觀察使安東權楷稿



高麗密直使

고려시대 밀직사를 지냈다.

큰 거리 봄바람에 가랑비 지나니
가벼운 먼지 날리지 않고 버드나무 가지 비스듬하다.
녹색 창 붉은 대문에 생황과 노랫소리 흐느끼나니
모두들 이원제자의 집이로구나.¹⁶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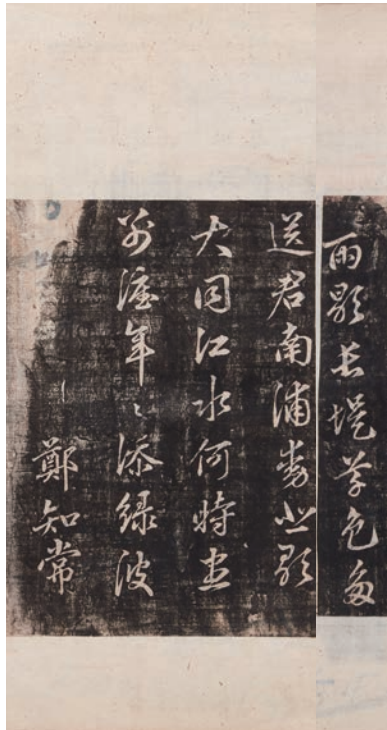
紫陌春風細雨過
輕塵不動柳絲斜
綠窓朱戶笙歌咽
盡是梨園弟子家

162) 정지상: 고려전기 좌정언, 좌사간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작품으로는 『동문선』에 「신설新雪」·「향연치어鄉宴致語」가, 『동경잡기東京雜記』에 「백률사栢律寺」·「서루西樓」등이 전하며, 『정사간집鄭司諫集』·『동국여지승람』등에도 시 몇 수가 실려 있다. 이 시는 『동문선』을 비롯하여 조선 시대 시화서에 자주 언급되는 작품이다.

163) 이원제자(梨園弟子): 당나라 현종 때 금원(禁苑)에서 300명을 뽑아 음악을 가르쳤다는 데에서 온 말. 이 작품에서는 평양의 변화가에서 활동하는 기생과 여러 악공 등을 지칭함.

58 정지상(鄭知常)

대동강¹⁶⁴⁾(청구제영 제6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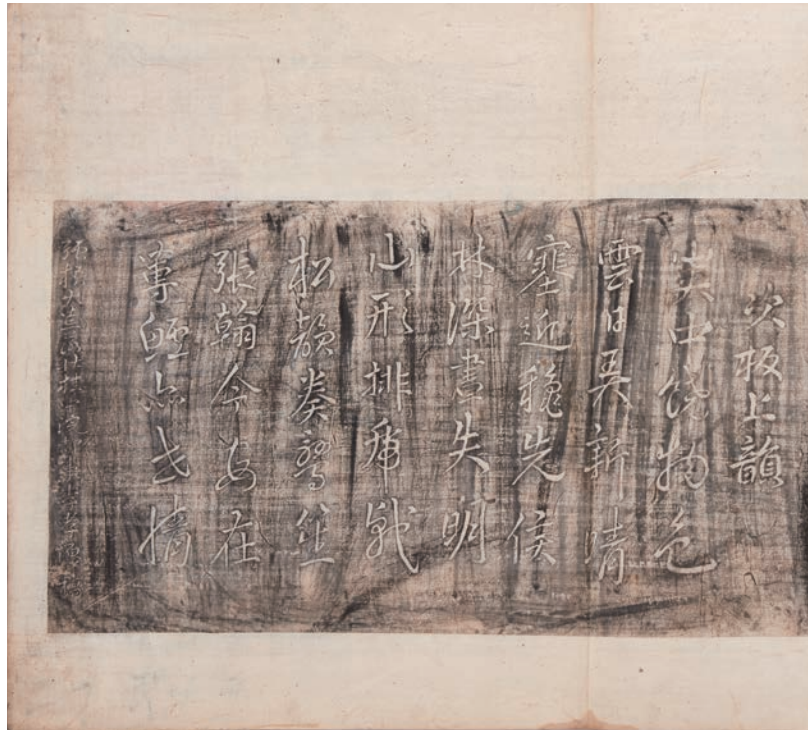
비 그친 긴 둑에 풀빛 짙은데
남포에서 그대를 보내니 슬픈 노래 올린다.
대동강 물은 언제나 다 마를까
이별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에 덧붙태 지는 것을.

정지상

雨歇長堤草色多
送君南浦動悲歌
大同江水何時盡
別淚年年添綠波

鄭知常

164) 이 시는 「송인(送人)」이라는 제목으로 『동문선』을 비롯하여 조선 시대 시화서에 자주 언급되는 작품이다.



시판의 시에 차운하다

次板上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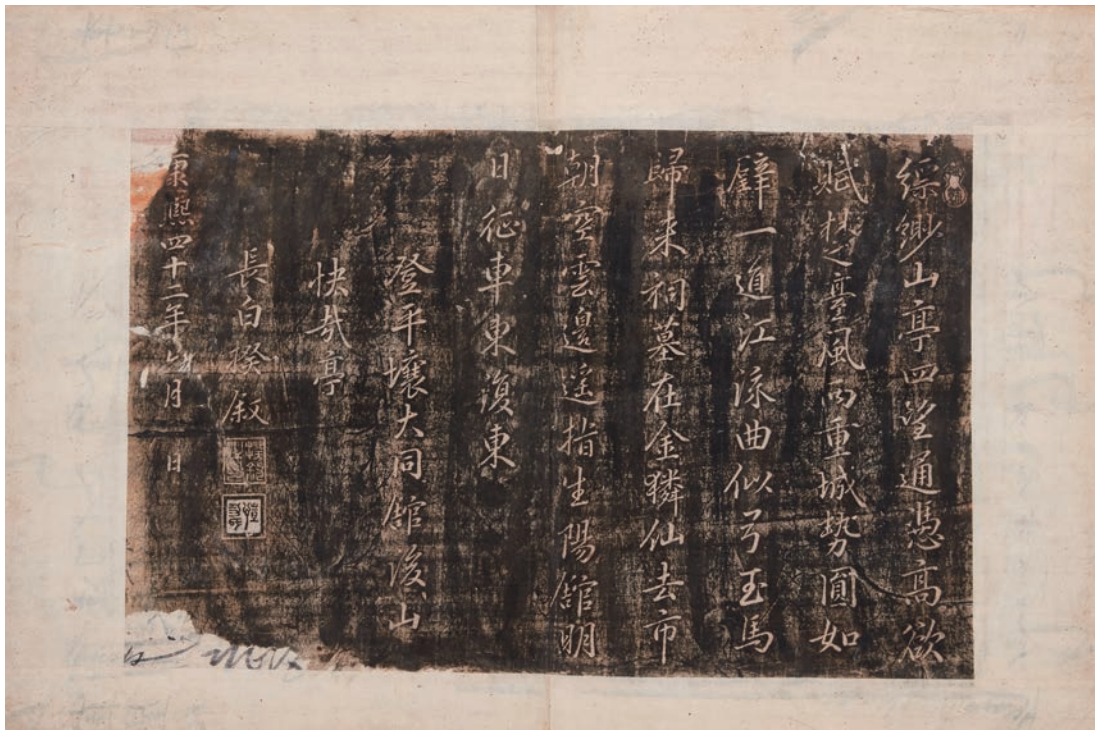
골짜기 안에 물산이 풍성하고
구름 낀 해는 막 개인 날씨를 희롱한다.
변새 가까워지니 가을은 먼저 오고
숲 깊으니 낮에도 어둑하여라.
산 모양새는 날랜 군사의 창을 배열한 듯하고
소나무 바람 소리는 난새에서 생황을 연주하는 듯.
장한은 지금 어디 있는가
순채와 농어회 또한 세상의 마음일지니.

峽中饒物色
雲日弄新晴
塞近穉先侯
林深晝失明
山形排虎戟
松韻奏鸞笙
張翰今安在
蓴鱸亦世情

정사년(1677) 8월 중순에 도사 이효원 지음

强梧大荒落壯桂中浣 都事 李孝源稿

165) 이효원의 생몰연대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숙종실록의 기록을 참고하면 1677년(정사년)에 평안도사로 재임하면서 재해를 입은 토지에 대한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관리들에 대해 임금에게 보고를 한 기록이 있다.



아득한 산 속 정자 사방으로 시야 통하였는데
 높은 곳에 기대니 초대(楚臺)의 바람 짓고 싶구나.
 두 겹으로 두른 성의 형세 벽옥(璧玉)처럼 둥글고
 한 줄기 강물은 활처럼 휘었네.
 아름다운 말 타고 돌아오니 사묘(祠廟)는 남아있고
 기자 조천으로 저잣거리와 조정은 텅 비었다.
 구름 주변 아득히 천자의 처소를 가리키니¹⁶⁶⁾
 내일이면 수레는 동으로 동으로 가리라.

縹緲山亭四望通
 憑高欲賦楚臺風
 兩重城勢圓如璧
 一道江流曲似弓
 玉馬歸來祠廟在
 金麟仙去市朝空
 雲邊遙指生陽館
 明日征車東復東

평양 대동관 뒷산 쾌재정에 올라서 장백규 쓰다.
 강희42년(1703) 6월 일

登平壤大同館後山快哉亭 長白揆敘
 康熙四十二年六月 日

166) 이 구절은 명확하게 전거를 찾기가 어렵다. 다만 양관(陽關)이 천자의 처소를 뜻하는 단어라는 점과 앞서서 동명성왕 및 기린굴을 지칭하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천자의 처소는 해모수 또는 주몽이 올라간 하늘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金生
李杏村 岳
倪按廉 慶壽
成觀察 概
申巖軒 檣
崔直學 興孝
鄭萊城 蘭宗
金河西 麟厚
李退溪 滉 景浩
宋頤庵 寅 礪城
白玉峯 光勳
成牛溪 渾
李鵝溪 山海
韓石峯 濩
吳晚翠 億齡
曹夏寧 文秀
李聽蟬 志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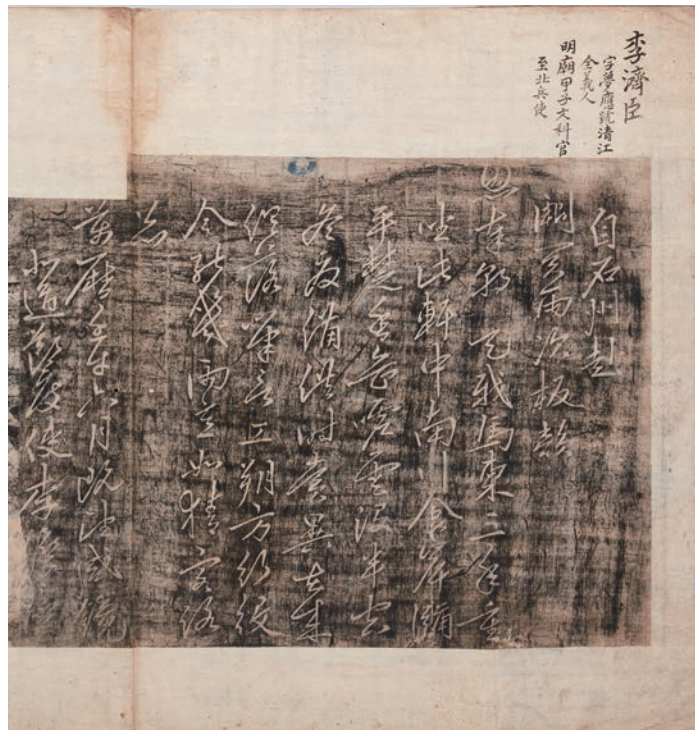
崔學士 致遠
韓柳巷 脩
鄭圃隱 夢周
朴礎
梅竹軒 瑤 安平
成安齋 任
金悠然 希壽
鄭湖陰 士龍
成聽松 守琛
楊蓬萊 士彦
金自庵 絳
李峒隱 義健
李梨川 弘胄
李松溪 麟奇
李長城 瀟
姜復泉 鶴年
趙醜翁 涑

柳文學 公權
李益齋 齊賢
成獨谷 石璘
河相國 演
朴學士 彭年 仁叟
姜仁齋 希顏
金直學 魯
蘇退休 世讓
黃孤山 耆老
李玉山 瑀
韓南崗 準
李清江 濟臣
金南窓 玄成
白松湖 振南
李灘翁 祐
申東淮 翊聖 東陽
吳竹南 竣

김생
이행춘 압
설안렴 경수
성관찰 개
신암헌 장
최직학 흥효
정래성 난중
김하서 인후
이퇴계 황 경호
송이암 인 여성
백옥봉 광훈
성우계 혼
이야계 산해
한석봉 호
오만취 억령
조하령 문수
이청선 지정

최학사 치원
한유항 수
정포은 몽주
박초
매죽헌 용 안평
성안재 임
김유연 희수
정호음 사룡
성청송 수침
양봉래 사언
김자암 구
이동은 의건
이이천 홍주
이송계 인기
이장성 속
강복천 학년
조추옹 속

유문학 공권
이익재 제현
성독곡 석린
하상국 연
박학사 팽년 인수
강인재 희안
김직학 로
소퇴휴 세양
황고산 기로
이옥산 우
한남강 준
이청강 제신
김남창 현성
백송호 진남
이탄옹 현
신동회 익성 동양
오죽남 준



李濟臣 字夢應 號清江 全義人 明廟甲子文科 官至北兵使

자가 몽응(夢應)이고 호가 청강(清江)이며 본관이 전의(全義)이다. 명종 갑자년(1564)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북병사(北兵使)에 이르렀다.

석주에서 대궐로 달려가다가 비에 막혀 현판의 시에 차운하다¹⁶⁸⁾

自石州赴闕關雨次板韻

명나라에 조회가서 말타고 돌아오다가
세 해 만에 다시 이 동헌에 앉았네
남쪽 냇물이 언덕을 깎아 넓은 숲¹⁶⁹⁾에 넘실대고
묘향산에 구름이 흘러 반쪽 허공으로 사라지네
사철 언제나 제철의 감당거리 제공하고
오고 가며 다들 좋은 글 지어냈네
북방을 행차한 지 지금 몇 해가 되었나
빗기운이 바쁜 길손의 노정을 꺼리는 듯하네

恩奉朝天我馬東
三年重坐此軒中
南川食岸瀾平楚
香岳懸雲沒半空
冬夏備供時賞異
去來俱落筆言工
朔方行役今能幾
雨意如猜客路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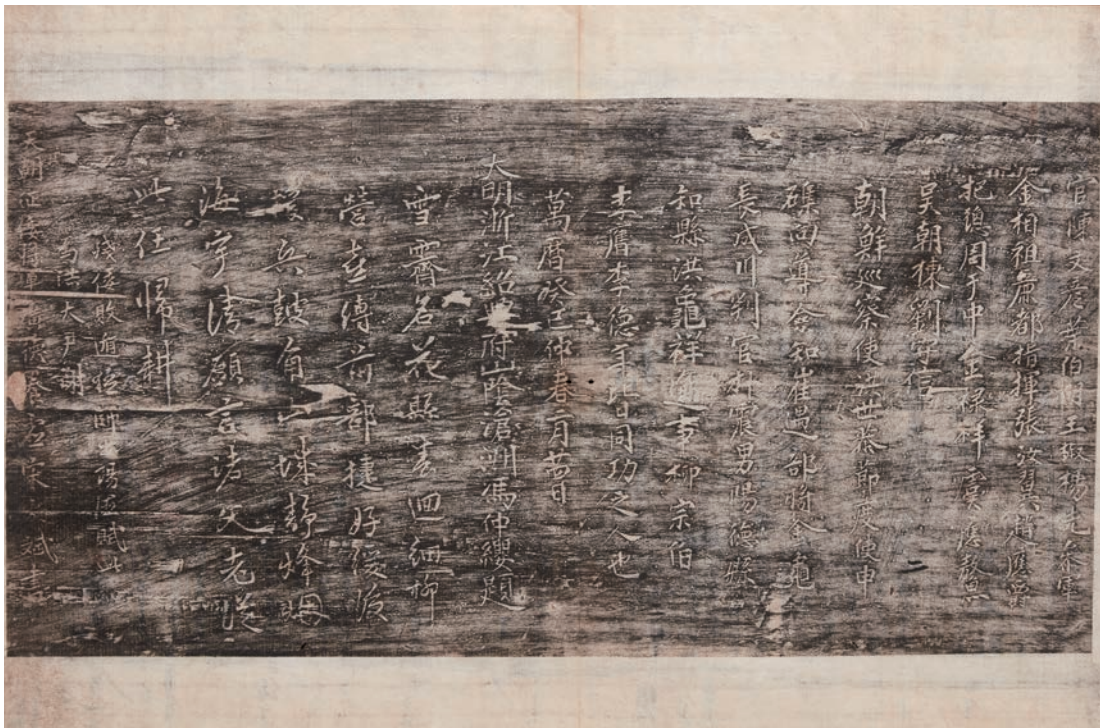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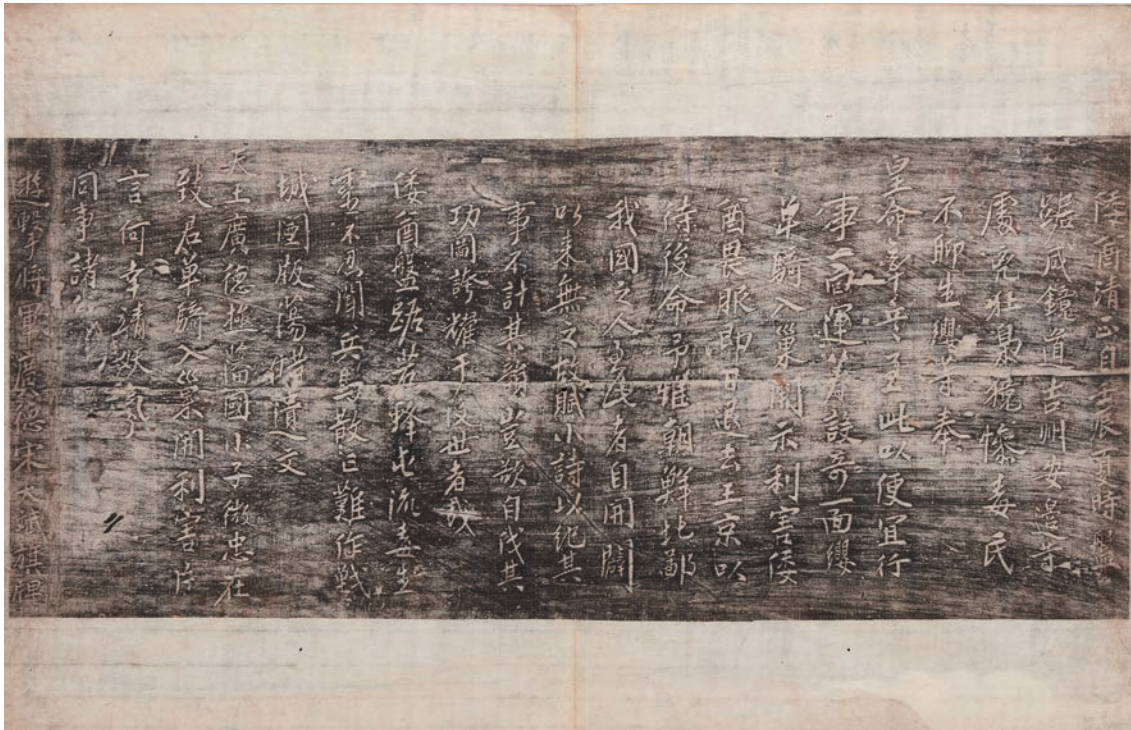
만력(萬曆) 임오년(1582) 6월 기망(既望, 16일) 함경북도 절도사 이제신

萬曆壬午六月既望 咸鏡北道節度使李濟臣

167) 이제신: 명종대 문신으로 형조, 공조, 호조 정랑, 사헌부감찰, 사헌부지평 등을 지냈고, 사은사 종사관이었다. 함경북도 병마절도사 때 여진족 니탕개(泥湯介)를 소탕하였으나 모함으로 유배 생활을 하다 죽었다.

168) 석주(石州)에서……차운하다: 원문의 '석주(石州)'는 강계(江界)의 옛날 이름이다. 함경북도 병마절도사 이제신이 사은숙배(謝恩肅拜)하러 대궐로 가다가 1582년(선조 12) 6월 16일에 강계(江界) 동헌에 가서 오상(吳祥, 1512~1573)의 시에 차운하여 지은 작품이다. 이제신은 1580년 10월에 강계부사(江界府使), 1582년에 함경북도 병마절도사에 임명되었다. 오상(吳祥)의 『부원당유고負眞堂遺稿』에 실린 「강계제영江界題詠」이 같은 운자(韻字)로 되어있다.

169) 넓은 숲: 원문의 '평초(平楚)'는 높은 곳에서 바라볼 때 나무숲이 가지런하게 보이는 모습을 말한다. 사조(謝朓)의 「군내등망시郡內登望詩」에 “차가운 성을 한눈에 조망하니, 가지런한 숲이 정말로 푸르네.[寒城一以眺, 平楚正蒼然.]”라고 하였다.



170) 송대빈(宋大斌): 명 신종(神宗)대 무신으로, 자(字)가 양허(養虛)이고 광덕(廣德) 출신이다. 1593년(선조 26)에 제독(提督) 이여송(李如松) 휘하의 유격장군(遊擊將軍)으로 조선에 왔다가 1594년(선조 27) 정월에 귀국하였다.

倭酋清正 自壬辰夏時 盤踞咸鏡道吉州安邊等處 兇狂梟獍慘毒 民不聊生 纓等奉皇命 率兵至此 以便宣行事 一面運籌設奇 一面纓單騎入巢 開示利害 倭酋畏服 即日退去王京 以待後命 予惟朝鮮北鄙 我國之人至此者 自開闢以來無之 故賦小詩以紀其事 不計其韻 豈欲自伐其功 圖誇耀于後世者哉 倭酋盤踞若蜂屯 流毒生靈不忍聞 兵馬散亡難作戰 城闌板蕩惜遺文 天王廣德極藩國 小子微忠在致君 單騎入巢開利害 片言何幸靖妖氛 同事諸公 遊擊將軍廣德宋大斌 旗牌官陳文彥.葉伯明.王椒.楊先 參軍金相祖 兼都指揮張汝翼.趙應爵 把總周于中.金祿祥.虞應鰲.吳朝棟.劉守信 朝鮮巡察使洪世恭 節度使申礪 向導僉知崔遇 部將金龜長 成川判官朴震男 陽德縣知縣洪龜祥 通事柳宗伯.李膺.李德年 皆同功之人也 萬曆癸巳仲春二月廿四日 大明浙江紹興府山陰滄洲馮仲纓題 雪霽名花縣 春迴細柳營 喜傳前部捷 好緩後援兵 鼓角山城靜 烽烟海宇清 願言諸父老 從此任歸耕 殘倭敗遁 猛師出陽德 賦此爲洪大尹謝 天朝征倭將軍廣德養虛宋大斌書

왜추(倭酋, 왜장) 청정(清正, 가등청정)이 임진년(1592) 여름부터 함경도 길주(吉州)와 안변(安邊) 등지에 근거지를 잡고 흉악한 효경(梟獍)처럼 매우 참혹한 짓을 하여 백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없었다. 풍중영(馮仲纓)¹⁷¹⁾ 등이 황명(皇命)을 받들어 병사를 거느리고 이곳[양덕현]에 와서 형편에 따라 일을 하였다. 한편으로 궁리하여 기발한 계책을 내고, 한편으로 풍중영이 혼자 말을 타고 왜적의 소굴에 들어가서 이해(利害)로 타일러 가르치자, 왜장이 두려워 복종하고 그날로 퇴각하여 왕경(王京, 서울)으로 떠나서 후일의 명령을 기다렸다. 내가 생각건대 조선의 북쪽 변두리 땅에 우리 명(明)나라 사람 가운데 이곳에 온 사람은 명나라 건국 이후에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짧은 시를 지어 일을 기록하고 운을 따지지 않았으니, 어찌 스스로 공적을 자랑하여 후세에 빛나고자 도모하였겠는가?

왜적이 벌떼처럼 모여 터를 잡았는데
백성에게 끼친 해독을 차마 들을 수 없네
병마가 달아나서 작전을 펼 수 없고
성곽이 무너져서 남긴 글이 애석하네
황제의 넓은 덕이 변방 조선에 극진하고
소신의 작은 충심은 훌륭한 임금이 되게 함이네
단기필마로 왜적 소굴에 들어가 이해로 타이르니
짧은 말로 묘사한 기운을 없앤다면 얼마나 다행일까

倭酋盤踞若蜂屯
流毒生靈不忍聞
兵馬散亡難作戰
城闌板蕩惜遺文
天王廣德極藩國
小子微忠在致君
單騎入巢開利害
片言何幸靖妖氛

171) 풍중영(馮仲纓): 소흥부(紹興府) 산음(山陰) 사람으로, 호(號)가 창주(滄洲)이다. 1592년(선조 25)에 병부 직방청리사원주사(兵部職方清吏司員主事) 원황(袁黃)을 따라 조선에 와서 전쟁에 참전하였던 기사(奇士)이다. 전겸익(錢謙益)은 임진왜란에 참전하였던 풍중영과 김상(金相)의 말을 듣고 전쟁의 상세한 상황을 적은 「동정이사록東征二士錄」을 지었다.

일을 함께한 제공(諸公)

유격장군(遊擊將軍) 광덕(廣德) 송대빈(宋大斌), 기패관(旗牌官) 진문언(陳文彦).섭백명(葉伯明).왕초(王椒).양선(楊先), 참군(參軍) 김상조(金相祖), 겸도지휘(兼都指揮) 장여익(張汝翼).조응작(趙應爵), 파총(把摠) 주우중(周于中).김녹상(金祿祥).우응오(虞應鰲).오조동(吳朝棟).유수신(劉守信), 조선(朝鮮) 순찰사 홍세공(洪世恭), 절도사 신잡(申礫), 향도 첨지(向導僉知) 최우(崔遇), 부장(部將) 김구장(金龜長), 성천 판관(成川判官) 박진남(朴震男), 양덕현 지현(陽德縣知縣) 홍구상(洪龜祥), 통사(通事) 유종백(柳宗伯).이응(李膺).이덕년(李德年)이 모두 공적이 같은 사람들이다. 만력(萬曆) 계사년(1593) 중춘(仲春) 2월 24일에 대명(大明) 절강(浙江) 소흥부(紹興府) 산음(山陰) 창주(滄洲) 풍중영이 짓다.

꽃이 유명한 고을에 눈이 그치고	雪霽名花縣
세류영에 봄이 돌아왔네	春廻細柳營
기쁘게도 전군이 승리를 전해와서	喜傳前部捷
기분 좋게 후원하는 병사를 늦추었네	好緩後援兵
산성에 북소리가 조용하고	鼓角山城靜
사해에 봉화가 사라졌네	烽烟海宇清
원하는 바는 부모들이	願言諸父老
이제부터 돌아가서 농사짓는 것이네	從此任歸耕

왜적의 잔당이 패하여 달아나서 용맹한 군사가 양덕현(陽德縣)을 나감에 이 시를 지어 홍대윤(洪大尹)에게 사례하였다. 천조정왜장군(天朝征倭將軍) 광덕(廣德) 양허(養虛) 송대빈(宋大斌)이 쓰다.¹⁷²⁾

172) 왜추(倭酋)……쓰다: 직방청리사원주사(職方淸吏司員主事) 풍중영(馮仲纓)이 1593년(선조 26) 2월 24일에 지은 시문(詩文)과 송대빈(宋大斌)이 지은 시와 자주(自註)를 판각한 글을 탁본한 것이다. 성해응(成海應)의 『연경재전집(研經齋全集)』 「천장시(天將詩)」와 윤행임(尹行愆)의 『석재고碩齋稿』 「양암(陽巖)」에 기사가 실려 있는데, 일부 자구(字句)가 다른 곳이 있다.

역사자료총서21 청구제영(靑丘題詠)

함경도



字子實 號雪汀 昌寧人 仁廟甲子文科 官至戶判

자가 자실(子實)이고 호가 설정(雪汀)이며 본관이 창녕(昌寧)이다. 인조 갑자년(1624)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호조 참판에 이르렀다.

벽 위의 시에 차운하다²⁾

次壁上韻

시인³⁾이 여기에서 새 시를 지었는데
 화답하려니 비단보다 더 고움에
 촌민에게 다투어 송아지를 사게⁴⁾ 할 뿐이지
 어찌 번거롭게 관아에 물고기를 걸어⁵⁾ 놓으랴
 봄날 관아에서 조용히 지내 이끼가 도장에 끼고
 낮잠 잘 때 시원하게 비가 연꽃에 쏟아지네
 난간에 기대 시 읊으며 긴 봄날을 보내지만
 백발에 헛되이 성은을 이고 있어 부끄럽네

騷人於此題新句
 欲和還慚錦不如
 但使村氓爭買犢
 何煩解字獨懸魚
 春衙靜處苔封印
 午睡涼時雨瀉蘂
 長嘯倚欄消永日
 白頭羞戴聖恩虛

임오년(1642) 모춘 행직 영흥부사 조문수

壬午暮春 行府使曹文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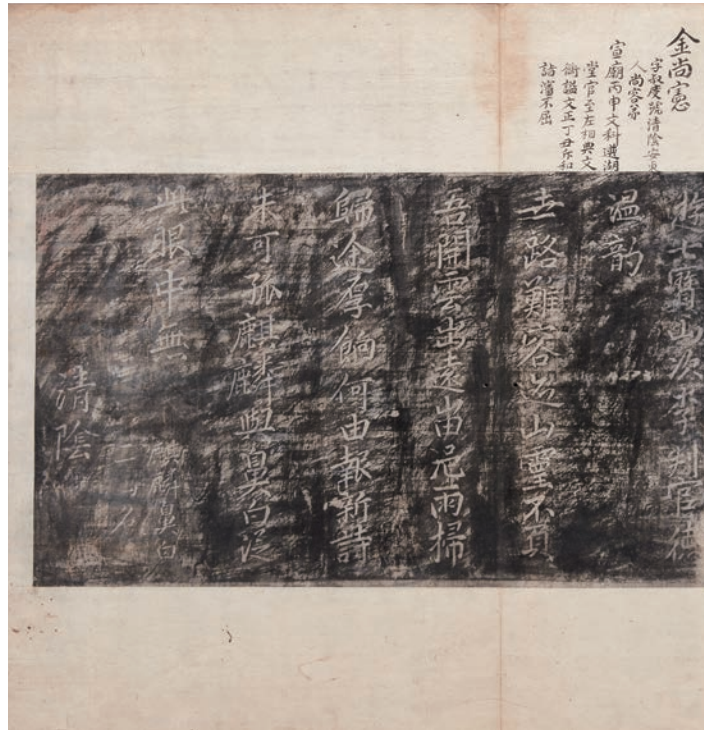
1) 조문수: 조선 후기 문신이자 서예가이다. 글씨에 일가를 이루어 명필로 일컬어 졌고, 그림과 시에도 능했다. 금석으로 <보현사 편양당대사비>, <좌상 유홍비>등이 남아 있다.

2) 벽……차운하다: 이 시는 영흥부사로 조문수가 1642년(인조 20) 3월에 영흥 연당(蓮堂)에서 목장흠(睦長欽)의 시에 차운하여 지은 작품이다.

3) 시인(詩人): 함경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지방을 순찰하다가 영흥에 들러 시를 지은 목장흠(睦長欽)을 말한다.

4) 송아지를 사게: 원문의 ‘매독(買犢)’은 ‘매도매독(賣刀買犢)’의 준말로, 지방관이 농사를 권면하여 고을을 잘 다스리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5) 물고기를 걸어: 원문의 ‘현어(懸魚)’는 관리의 청렴함을 비유하는 말이다.



字叔度 號淸陰 安東人 商容弟 宣廟丙申文科 選湖堂 官至左相典文衡 諡文正 丁丑斥和詣瀋不屈
 자가 숙도(叔度)이고 호가 청음(淸陰)이며 본관이 안동이다. 김상용(金尙容)의 동생이다. 선조 병신년(1596)에 문과에 급제하여 호당(湖堂)에 선발되고 관직이 좌상(左相, 좌의정)에 이르렀다. 문형(文衡)을 맡았고 시호가 문정(文正)이다. 정축년(1637)에 척화(斥和)를 주장하여 심양(瀋陽)에 끌려갔으나 굴복하지 않았다.

칠보산을 유람하다가 판관 이덕온의 시에 차운하다

遊七寶山 次李判官德溫韻

세상 길에 자취를 용납하기 어려운데
 산신령이 나를 저버리지 않았네
 구름 개어 먼 봉우리가 나오고
 비가 와서 가는 길을 씻어주네
 후한 대접을 무슨 수로 보답하랴
 새로 시를 지어 은혜를 저버리지 않네
 기린산과 비백산⁷⁾이
 이제부터 안중에 없으리라

世路難容迹
 山靈不負吾
 開雲出遠岫
 浥雨掃歸途
 厚餉何由報
 新詩未可孤
 麒麟與鼻白
 從此眼中無

기린(麒麟)과 비백(鼻白)은 두 산의 이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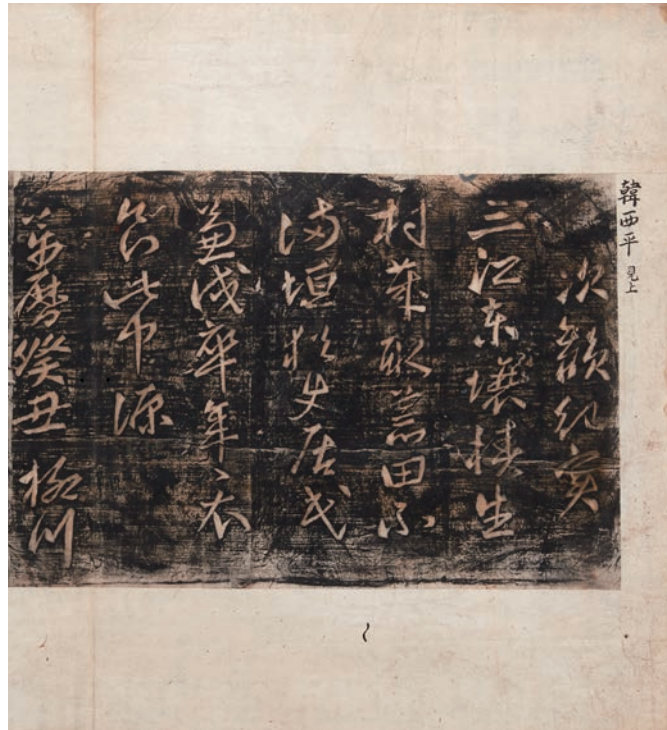
麒麟鼻白 二山名

청음

淸陰

6) 김상헌: 인조대 문신이다. 조선후기 대표적인 척화신으로서 추앙받았다. 이 시는 김상헌이 명천의 칠보산을 유람하다가 북청 판관(北靑判官) 이덕온(李德溫)의 시에 차운하여 지은 작품이다. 『청음집淸陰集』에 제「遊七寶山次李判官德溫韻」으로 되어있다.

7) 기린산(麒麟山)과 비백산(鼻白山): 함경남도 정평군(定平郡)에 있는 산이다.



韓西平 見上

한서평[한준겸] 앞에 보인다.

차운하여 사실을 적다

次韻紀實

삼강⁹⁾ 동쪽에 적생촌¹⁰⁾이 있는데
거친 밭이라 추수해도 담장에도 차지 않네
주민들이 변방 군졸을 겸하는데
해마다 의식은 여기에서 나오네

三江東壤積生村
歲取荒田不滿垣
猶使居民兼戍卒
年年衣食此中源

만력(萬曆) 계축년(1613) 유천(柳川)

萬曆癸丑 柳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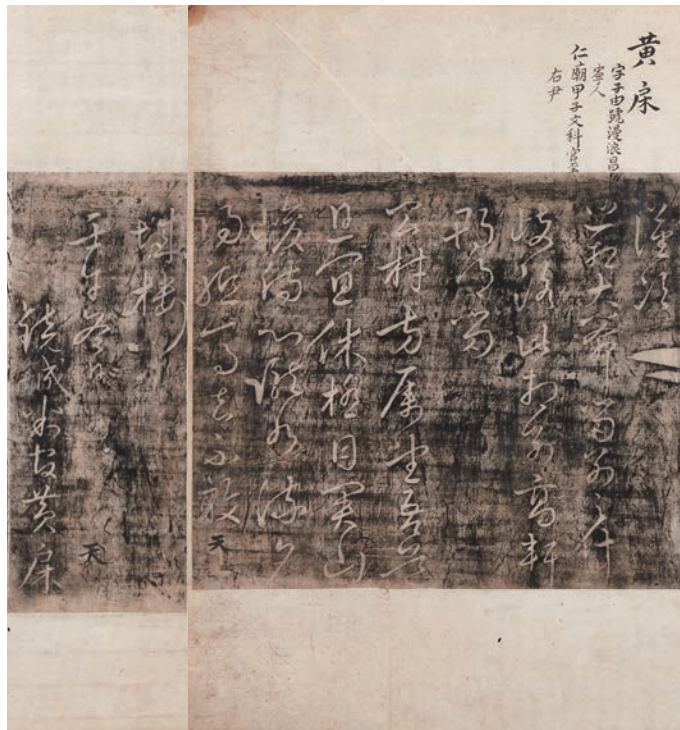
8) 한준겸: 조선중기의 문신으로, 동부승지 때 중국 명(明)나라 도독을 도와 마초(馬草)와 병량보급에 힘썼다. 선조로부터 영창대군의 보필을 요청받은 유교철신 중의 한 사람으로, 계축옥사(癸丑獄事)에 연좌되어 충주에 귀양가서 여주에 이배(移配)되었다. 이 시는 1613년(광해군 5) 함경도 관찰사로 파견된 한준겸이 삼수 적승관에서 민제인의 시를 차운한 것이다.

9) 삼강(三江): 삼수(三水)의 옛날 이름이다.

10) 적생촌(積生村): 함경도 삼수 적생역(積生驛)이 있던 곳에 자리한 마을이다. 적생역은 삼수 읍치(邑治) 동쪽 1백 5리에 있었다.

4 황호(黃床, 1604~1656)

경성(鏡城)(청구제영 제7첩)



字子由 號漫浪 昌寧¹¹⁾人 仁廟甲子文科 官至右尹

자가 자유(子由)이고 호가 만랑(漫浪)이며 본관이 창원(昌原)이다. 인조 갑자년(1624)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우윤(右尹)에 이르렀다.

삼가 순찰사 어르신이 헤어지며 남긴 시에 차운하다

謹次巡相大爺留別之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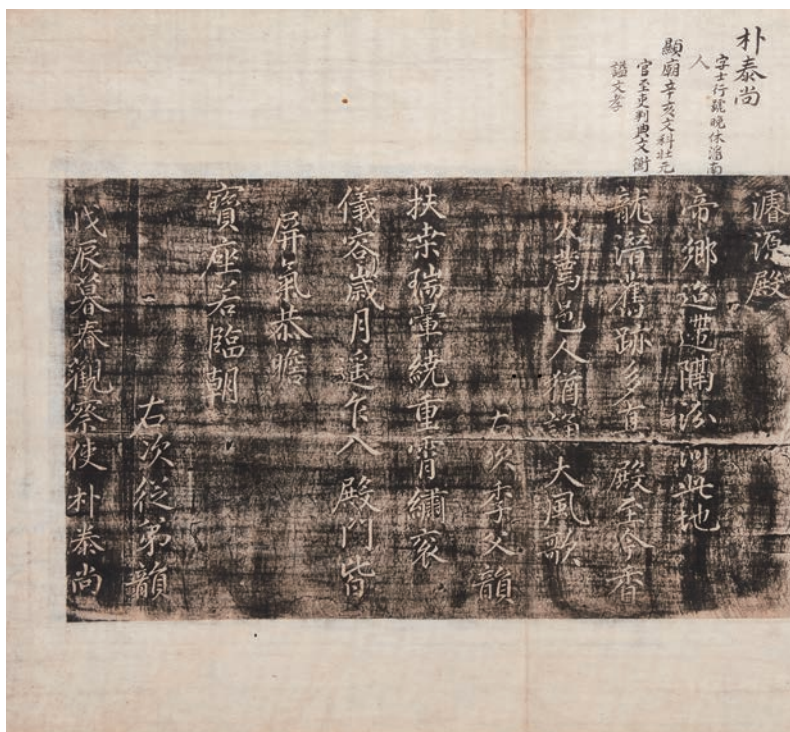
이곳 갈림길에서 서로 헤어지니
순찰사의 수레가 어찌 머물 수 있으랴
공의 재주는 바야흐로 촉망받고
우리 도가 장차 마땅히 빛나리라
험준한 변방 산을 한껏 바라보고
흐르는 물을 보며 마음이 아프네
석양에 말을 몰고 가다가
성곽 누각에 오르지 못하리

岐路此相別
高軒那得留
公材方屬望
吾道且宜休
極目關山峻
傷心隴水流
夕陽驅馬去
不敢上城樓

임오년(1642) 겨울 경성 판관 황호

壬午冬日 鏡城判官黃床

11) 『청구제영』에는 창녕(昌寧)이라고 되어 있으나 황호의 본관은 창원(昌原)이므로 번역으로 바로잡았다.



字士行 號晚休 潘南人 顯廟辛亥文科壯元 官至吏判典文衡 諡文孝
 자가 사행(士行)이고 호가 만휴(晚休)이며 본관이 반남(潘南)이다. 현종 신해년(1671)에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관직이 이조판서에 이르렀다. 문형을 맡았고 시호가 문효(文孝)이다.

준원전

황제 고향이 아득히 분하(汾河)에 막혔는데
 이 땅에는 태조의 옛 자취가 많이 있네
 준원전에 지금도 제사를 올리는데
 고을 사람들이 여전히 「대풍가」를 부르네
 위는 계부(季父, 박세당)의 시에 차운하였다.

부상의 햇무리가 높은 하늘에 감도는데
 곤룡포¹⁴⁾ 입은 모습은 오랜 세월 흘렀네
 준원전 문에 잠시 들어가서 모두 숨을 죽이고
 보좌를 우러러보니 조정에 임한듯하네
 위는 종제(從弟, 박태보)의 시에 차운하였다.

무진년(1688) 모춘(暮春) 관찰사 박태상

淸源殿

帝鄉迢遼隔汾河
 此地龍潛舊跡多
 眞殿至今香火薦
 邑人猶誦大風歌
 右次季父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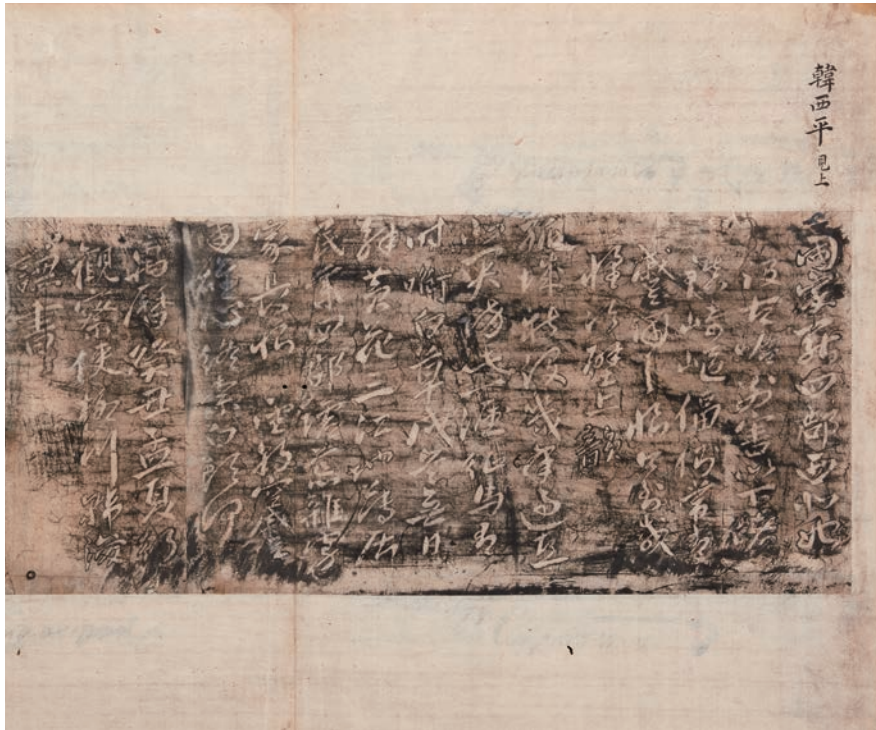
扶桑瑞暈繞重霄
 繡袞儀容歲月遙
 乍入殿門皆屏氣
 恭瞻寶座若臨朝
 右次從弟韻

戊辰暮春 觀察使朴泰尙

12) 박태상: 조선후기의 문신이다. 갑술옥사로 소론이 중용될 때 이조참판, 홍문관대제학 등을 지냈고 인현왕후 복위에 관한 옥책문을 지어 올렸다. 이 시는 함경도 관찰사 박태상이 1688년(숙종 14) 3월에 준원전에 들러 박세당(朴世堂)의 시에 차운하여 지은 작품이다.

13) 준원전(淸源殿): 함경도 영흥부(永興府) 동남쪽 13리 흑석리(黑石里)에 있던 전각으로, 태조의 어진(御眞)을 봉안한 진전(眞殿)이다. 1396년(태조 5)에 환조(桓祖)가 살던 영흥부의 옛집에 준원전을 건립하고, 1398년(태조 7)에 태조의 어진을 봉안하였다.

14) 곤룡포(袞龍袍): 원문의 '수곤(繡袞)'은 곤룡포를 말한다. 여기에서는 곤룡포를 입고 있는 태조의 어진을 가리킨다.



韓西平 見上

한서평[한준겸] 앞에서 보인다.

國家罷四部 西北始設古哈別害以下諸鎮 崎嶇偏側 常有蹙國之恨 今到感懷 次壁上韻

국가가 사군(四郡)을 혁파하고 서북 지방에 처음으로 고합보(古哈堡)와 별해보(別害堡) 이하 여러 진보(鎭堡)를 설치하였으나 지형이 험하고 좁아서 항상 국경이 줄어들었다는 한탄이 있었다. 지금 이곳에 이르러 감회가 일어 벽 위의 시에 차운하다¹⁵⁾

외로운 성을 새로 설치한 지 몇 년이 지났나
북쪽의 요새가 이곳 물가에 있네
군마가 때때로 흰 풀을 뜯어 먹고
변방 병사들은 국화를 구경할 날이 없네
삼강¹⁶⁾ 땅이 척박하여 백성들 생업이 가난하고
사군¹⁷⁾ 터가 황폐하여 오랑캐 집이 섞여 있네
성조에서 헛되이 국경 줄인 것을 길이 한탄하지만
웅장한 뜻을 백발에 끝내 어찌할 수 있으랴

孤城新設幾年過
直北關防此一涯
征馬有時嘶白草
戍兵無日解黃花
三江地薄居民業
四郡墟荒雜虜家
長恨聖朝空蹙國
雄心終奈白頭何

만력 계축년(1613) 맹하 행 관찰사 유천 한준겸이 쓰다.

萬曆癸丑孟夏 行觀察使柳川韓浚謙書

15) 국가가……차운하다: 함경도 관찰사 한준겸이 1613년(광해군 5) 4월에 삼수 별해보에 가서 민제인(閔齊仁)의 시에 차운하여 지은 작품이다. 한준겸은 1610년(광해군 2) 함경도 관찰사에 임명되었고, 1613년(광해군 5) 5월에 서양갑(徐羊甲)의 옥사(獄事)와 관련되어 함경도 관찰사에서 교체되었다. 이 시는 『유천집柳川集』에 실려 있지 않다. 『약전집藥泉集』 「북순잡록北巡雜錄」에 한준겸 이의 시가 실려 있는데, 8구의 '중(終)'이 '무(無)'로 되어있다.

16) 삼강(三江): 삼수(三水)의 옛날 이름이다.

17) 사군(四郡): 압록강 상류의 여연(閔延), 우예(虞芮), 무창(茂昌), 자성(慈城) 네 곳의 군(郡)을 말한다. 세종 때 여진족을 막기 위해 설치하였으나 단종과 세조 때 차례로 철폐하고 백성들의 거주를 금하였다.



字景霖 號菊窓 宜寧人 中廟乙未文科 官至禮判

자가 경림(景霖)이고 호가 국창(菊窓)이며 본관이 의령(宜寧)이다. 중종 을미년(1535)에 급제하여 관직이 예조 참판에 이르렀다.

차운

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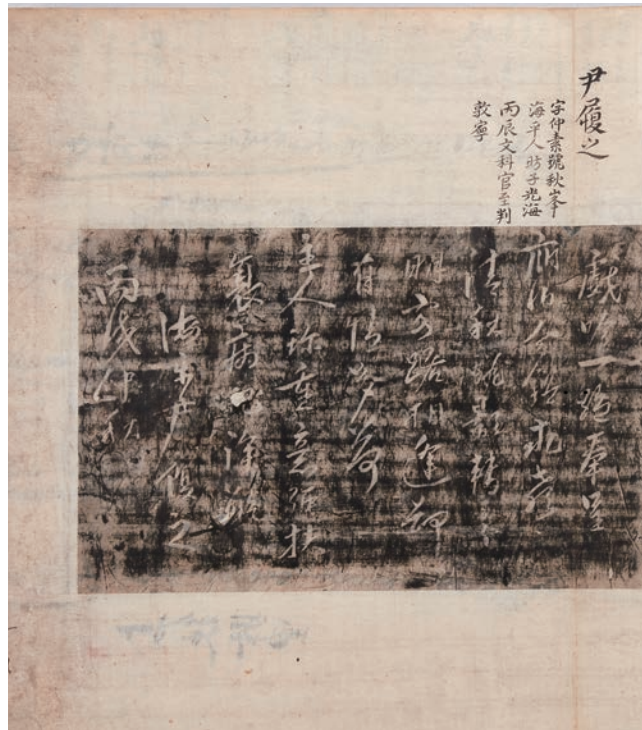
하늘 끝 변방 요새를 두루 다니며
높은 산을 오르고 또 물가를 지났네
천년 세월 음산한 골짜기에 눈이 쌓여있고
유월에도 깊은 숲에 시든 꽃이 남아있네
주민들은 다만 조 농사에 알맞은 땅을 기뻐하고
먼 길손은 판자로 지은 집에 매우 놀라네
국경이 북쪽 오랑캐와 접하여 풍속이 다른데
시와 술이 없으니 시름을 어찌할 수 있으랴

極天關塞遍經過
又上高山又水涯
陰壑千秋餘積雪
深林六月有殘花
居人只喜田宜粟
遠客偏驚板作家
境接北戎風俗異
無詩無酒奈愁何

경신년(1560) 여름 절도사 남응운

庚申夏 節度使南應雲

18) 남응운: 중종, 명종, 선조대 문신으로 형조, 병조 참의, 공조 참판 등을 역임했다. 춘추관편수관(春秋館編修官)으로 『중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글씨에 능해 <서화담경덕비>, <황산대첩비> 등을 썼다. 이 시는 남응운이 1560년(명종 15)에 삼수 별해보에 가서 민제인(閔齊仁)의 시에 차운하여 지은 작품이다.



字仲素 號秋峯 海平人 昉子 光海丙辰文科 官至判敦寧府事

자가 중소(仲素)이고 호가 추봉(秋峯)이며 본관이 해평(海平, 구미)이다. 윤방(尹昉)의 아들이다. 광해군 병진년(1616)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에 이르렀다.

장난삼아 절구 한 수를 지어 부사 영감에게 올리고 가르침을 구하다

戲吟一絕 奉呈府伯令鑑求教

팔월²⁰⁾에 맑은 풍광 갈수록 분명한데
 객지에서 서로 만나 도리어 정이 있네
 주인의 진중한 뜻에 너무나 감사하여
 억지로 병든 몸으로 큰 술잔을 잡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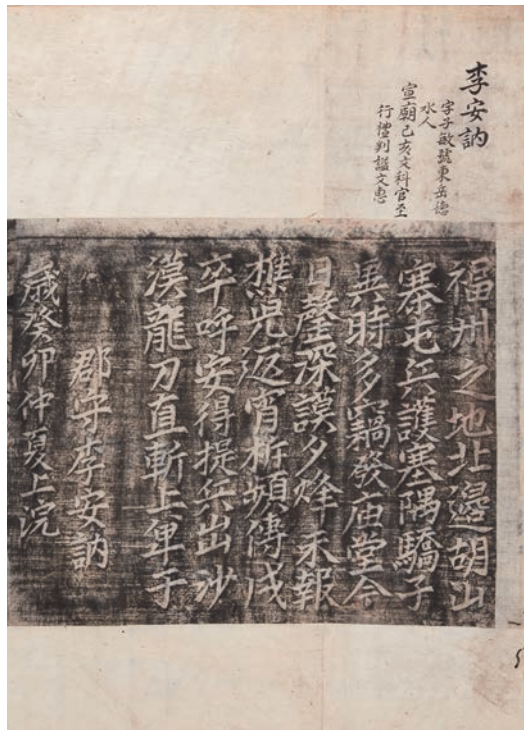
清秋澹影轉分明
 客路相逢却有情
 多荷主人珍重意
 强扶衰病把深觥

해평 윤이지 병술년(1646) 중추

海平尹履之 丙戌仲秋

19) 윤이지: 광해군, 인조대 문신이다. 1618년(광해군 10) 인목대비의 폐모론에 반대하였으며,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 때 강화부유수로서 강화수비에 패하였다. 평안도, 함경도 관찰사에 이어 여러 관직을 거쳤다. 이 시는 윤이지가 1646년(인조 24)에 함경도에서 지은 시이다.

20) 팔월: 원문의 '청추(淸秋)'는 음력 8월이다.



字子敏 號東岳 德水人 宣廟己亥文科 官至禮判 諡文惠

자가 자민(子敏)이고 호가 동악(東岳)이며 본관이 덕수(德水)이다. 선조 기해년(1599)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예조 판서에 이르렀다. 시호가 문혜(文惠)이다.

북주²²⁾ 땅에 북쪽 변방 오랑캐가 있어서
산채에 병사가 주둔하여 변방을 지키네
오랑캐²³⁾가 후일에 침범함이 많으리니
오늘날 조정은 깊은 계책이 공허하네
저녁 봉화가 오르지 않아 초동이 돌아가고
밤중 딱따기 소리가 자주 들려 병졸들이 소리치네
어찌하면 병사를 이끌고 사막으로 나가서
청룡도로 곧장 선우의 목을 벨 수 있을까

福州之地北邊胡
山寨屯兵護塞隅
驕子異時多竊發
廟堂今日罄深謨
夕烽未報樵兒返
宵柝頻傳戍卒呼
安得提兵出沙漠
龍刀直斬上單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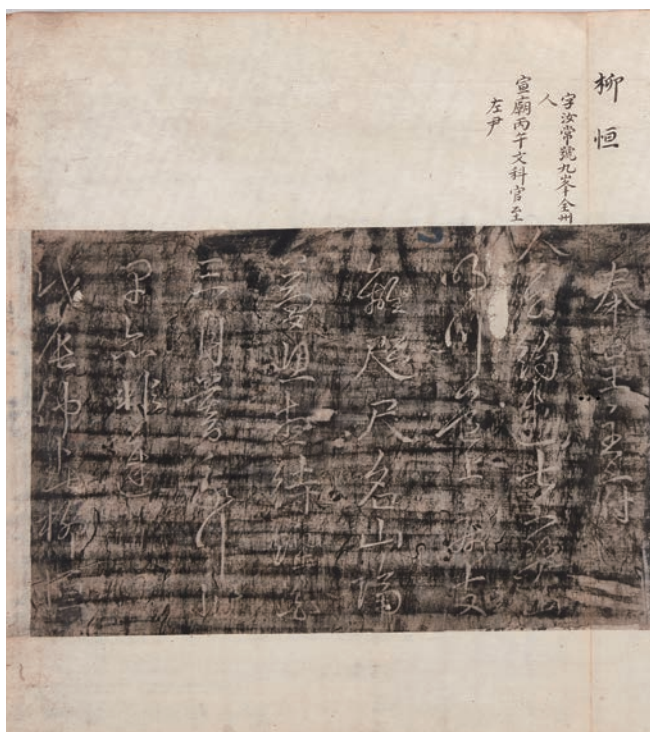
군수 이안눌 계묘년(1603) 중하 상순

郡守李安訥 歲癸卯仲夏上浣

21) 이안눌: 인조대 문신으로 형조참판, 함경도 관찰사 등을 역임했다. 시문에 뛰어나 이태백에 비유되었고, 글씨도 잘 썼다. 『동악집』이 있다. 이 시는 이안눌이 단천군수로 있을 때 단천 오을족보(吾乙足堡)에 가서 지은 시이다. 이안눌은 1602년(선조 35) 12월에 단천 군수로 부임하였다가 1604년(선조 37) 8월에 사직하였다. 『동악집東岳集』에 제목이 「오을족보작吾乙足堡作」으로 되어있다.

22) 북주(福州): 함경도 단천(端川)의 옛날 이름이다. 이 외에 오림금촌(吳林金村)·독노울(禿魯兀)·단주(端州)·증산(龜山)으로도 불렸다.

23) 오랑캐: 원문의 「교자(驕子)」는 「천지교자(天之驕子)」의 줄임말로 오랑캐를 말한다. 한(漢)나라 때 흉노(匈奴)의 선우(單于)가 한나라에 보낸 글에 이르기를 “남쪽에 큰 한나라가 있고 북쪽에 강한 오랑캐가 있으니, 오랑캐는 하늘의 아끼는 자식이다.[南有大漢, 北有強胡, 胡者, 天之驕子也.]”라고 하였다. (『전한서前漢書』 「흉노전匈奴傳」)



字汝常號九峯 全州人 宣廟丙午文科 官至左尹

자는 여상(汝常) 이고 호는 구봉(九峯)이며, 본관은 전주이다. 선조 병오년(1606)에 문과에 합격하여 관직이 좌윤(左尹)에 이르렀다.

주부 영공에게 올려 칠보산을 유람하기로 약속하다

奉呈主府令公約遊七寶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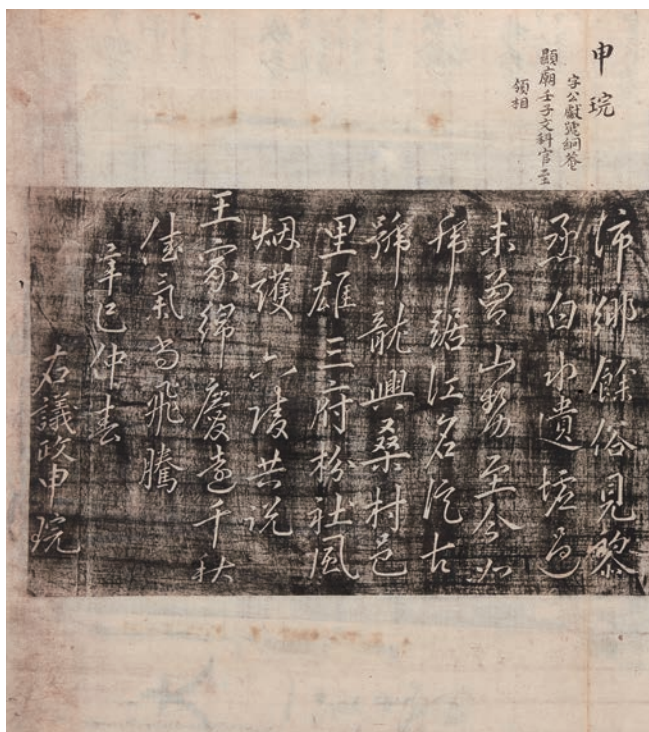
명천 길에서 병들어 지루한데
지척의 명산이 꿈속에도 그림네
봄 풍경을 기다리다 삼월이 저무니
내 행차는 이르지도 늦지도 않네

明川道上病支離
咫尺名山隔夢思
想待煙花三月暮
我行非早亦非遲

무진년(1628) 중춘 유항

戊辰仲春 柳恒

24) 유항: 광해군, 인조대 문신으로 예조좌랑, 양양부사, 강원도 관찰사 등을 역임했다. 광해군대 유영경에게 추형(追刑)이 가해질 때 그의 일파였다는 죄로 삼수에 안치되었으나 인조반정 이후 복직되었다. 이 시는 1628년(인조 6) 명천 군수(明川郡守)와 칠보산(七寶山)을 유람하기로 약속하며 지은 시이다.



字公獻 號絳菴 顯廟壬子文科 官至領相

자가 공헌(公獻)이고 호가 경암(絳菴)이다. 현종 임자년(1672)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영의정에 이르렀다.

패군²⁶⁾의 남은 풍속이 백성에게 보이는데
 백수의 남은 터를 전에 들르지 못했네
 산세는 지금도 범이 걸터앉은 듯하고
 강 이름은 예로부터 용흥강이라 불렀네
 누상촌의 고을과 마을이 삼부²⁷⁾에 웅장하고
 분사²⁸⁾의 바람과 안개가 육릉²⁹⁾을 보호하네
 모두 말하네, 왕실의 경사가 멀리 이어져
 천년 뒤에도 좋은 기운이 드날릴 것이라고

沛鄉餘俗見黎烝
 白水遺墟過未曾
 山勢至今如虎踞
 江名從古號龍興
 桑村邑里雄三府
 粉社風烟護六陵
 共說王家綿慶遠
 千秋佳氣尙飛騰

신사년(1701) 중춘 우의정 신완

辛巳仲春 右議政申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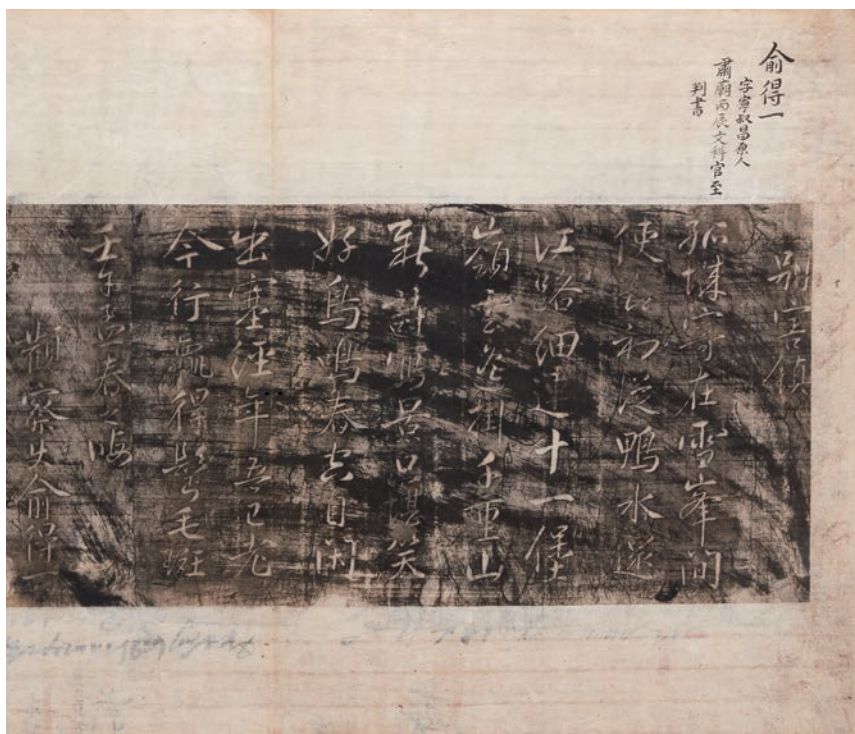
25) 신완: 조선후기의 문신이다. 1700년(숙종 26) 우의정에 올랐다. 이 때 서인의 소론으로 희빈 장씨의 처벌에 온건론을 폈고 북한산성의 축조를 건의, 윤희를 얻었으나 일부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 시는 신완이 1701년(숙종 27) 2월에 용흥강(龍興江)을 건너 영흥에 갈 때 지은 시이다.

26) 패군(沛郡): 원문의 '패향(沛鄉)'은 한(漢)나라 고조(高祖)의 고향인 패군(沛郡) 풍현(豐縣)으로, 제왕(帝王)의 발상지(發祥地) 또는 고향을 가리킨다. 여기에서는 환조(桓祖)가 살았던 영흥을 말한다.

27) 삼부(三府): 조선 건국의 발상지인 함경도 함흥부(咸興府), 영흥부(永興府), 경흥부(慶興府)를 말한다.

28) 분사(粉社): 분유사(粉楡社)의 준말로, 한나라 고조(高祖)의 고향을 뜻한다. 여기에서는 조선의 발상지인 함경도 영흥을 가리킨다.

29) 육릉(六陵): 태조 이성계의 조상인 목조(穆祖)의 덕릉(德陵), 목조비(穆祖妃)의 안릉(安陵), 익조(翼祖)의 지릉(智陵), 익조비(翼祖妃)의 숙릉(淑陵), 도조(度祖)의 의릉(義陵), 도조비(度祖妃)의 순릉(純陵), 환조(桓祖)의 정릉(定陵), 환조비(桓祖妃)의 화릉(和陵) 등 여덟 능을 가리킨다.



字寧叔 昌原人 肅廟丙辰文科 官至判書

자가 영숙(寧叔)이고 본관이 창원(昌原)이다. 숙종 병진년(1676)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판서에 이르렀다.

별해진

別害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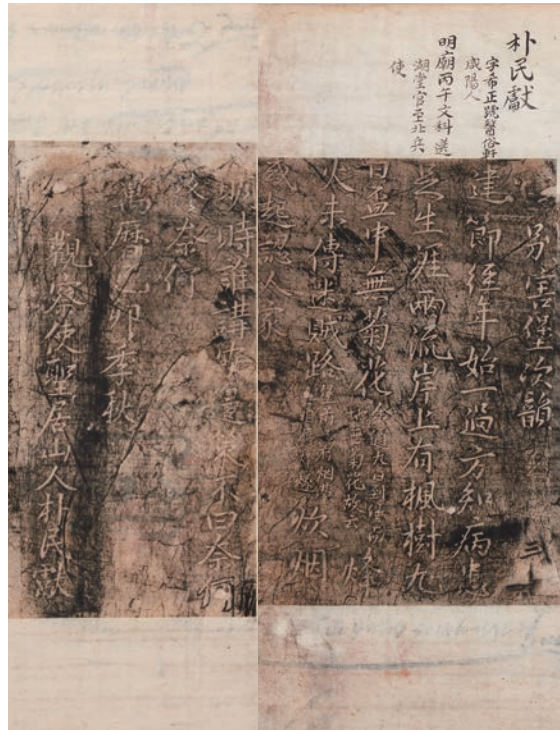
외로운 성이 눈 덮인 봉우리 사이에 있는데
관찰사가 압록강에서 막 돌아왔네
강가 길이 가늘게 열한 개 진보로 이어지고
고개 구름이 멀리 천 겹 산에 걸려 있네
새 시에 풍경을 묘사하니 다만 웃음이 나고
좋은 새가 봄에 울어 공연히 절로 한가하네
변방에서 해를 보내 내가 이미 늙었는데
이번 행차에 머리에 백발이 많이 늘었네

孤城寄在雪峯間
使節初從鴨水還
江路細連十一堡
嶺雲遙掛千重山
新詩寫景只堪笑
好鳥鳴春空自閑
出塞經年吾已老
今行贏得髭毛斑

임오년(1702) 맹춘 그믐 관찰사 유득일

壬午孟春之晦 觀察使兪得一

30) 유득일: 조선후기의 문신이다. 지평·수찬·교리·정언 등 간관을 지내며 직언을 하였고, 외직으로 나가 강원도관찰사, 전라도 관찰사, 함경도 관찰사 등을 역임한 후 다시 조정으로 돌아와 대사성, 대사헌, 형조판서, 병조판서 등을 지냈다. 이 시는 유득일이 1702년(숙종 28) 1월 그믐에 삼수 별해진에 가서 지은 시이다.



字希正 號醫俗軒 咸陽人 明廟丙午文科 選湖堂 官至北兵使

자는 희정(希正), 호는 의속헌(醫俗軒), 본관은 함양(咸陽)이다. 명종 병오년(1546) 문과에 급제하여 호당에 선발되었으며, 관직은 북병사에 이르렀다.

별해보 시에 차운하다

別害堡次韻

부임하여 비로소 한 해가 지났는데
병환으로 넉넉한 삶을 비로소 알겠구나.
두 갈래 강물 언덕 위엔 단풍나무 있지만
중구일(重九日) 술잔 속엔 국화가 없네.

建節經年始一過
方知病患足生涯
兩流岸上有楓樹
九日盃中無菊花

내가 때마침 9월 9일 별해보에 도착하였는데 이곳에 국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썼다.

余適九日到堡而地無菊花故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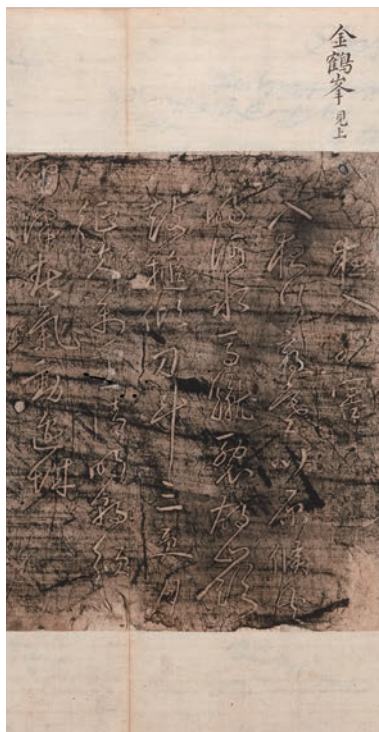
31) 박민헌: 선조대 문신으로 병조정랑, 공조참의, 동부승지, 대사간 등의 내직과 강원도 관찰사, 전라도 관찰사, 함경도 관찰사 등 외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성리학과 역학에 뛰어났다.

봉화 전해지지 않으니 도적이 오는 길 희미하고
 보 앞에 단지 봉화대만 있어서 봉수와 서로 대응한다.
 밥 짓는 연기 간혹 일어나 인가가 있는 것 알겠네.
 밝은 시절에 그 누가 변방 안정시킬 계책 논의할 것인가
 어찌 하리오 하지 않으면 끝내 어찌 하리오.

烽火未傳迷賊路
 堡前只有烟臺■相應烽燧
 炊烟或起認人家
 明時誰講安邊策
 不曰奈何終奈何

만력 을묘년(1615) 계추 관찰사 성거산인 박민헌

萬曆乙卯季秋 觀察使 聖居山人 朴民獻



金鶴峯 見上

김학봉[김성일] 앞에서 보인다.

밤에 별해보에 들다³²⁾

밤 되어 궁벽한 요새로 가니
 들판에는 손님맞이 등불³³⁾ 밝아라.
 강 얼음은 말발굽에 갈라지고
 북쪽 고개는 북 치는 소리에 기울어진다.
 딱딱이 소리 속에 삼경의 달 떠있으니
 나그네는 만 리 고향 그리는 마음.
 내일 아침 임금 은택 반포하시면
 봄 기운이 변방 성을 울리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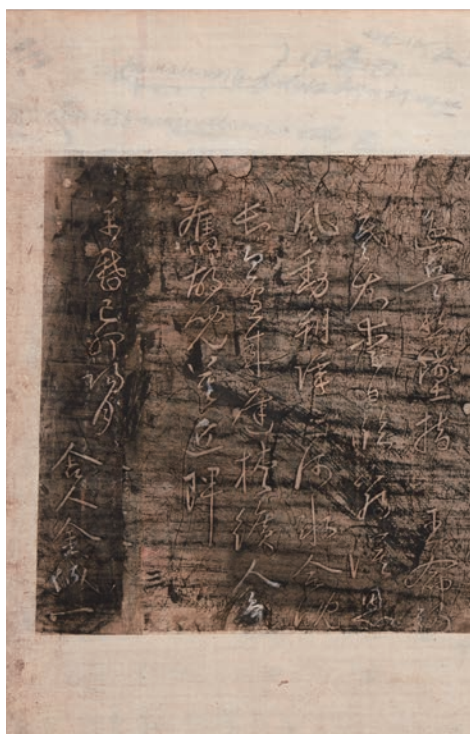
夜入別害

入夜行窮塞
 川原候火明
 河水馬蹄裂
 胡嶺³⁴⁾鼓槌傾
 刁斗三更月
 征夫萬里情
 明朝頒聖澤
 春氣動邊城

32) 이 시는 김성일의 문집 『학봉집鶴峯集』에 「夜入別害堡」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33) 등불의 원문은 候火인데, 이것은 봉화를 뜻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밝히는 등불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34) 嶺: 문집에는 障으로 되어 있다.



변방의 병사들 손가락 떨어질까 근심되어
 왕명으로 겨울옷 하사하셨네.
 사랑의 햇빛이 궁벽한 변세에 임하시고
 은혜로운 바람은 북방 모퉁이에 두루 부네.
 삼강은 얼음이 뒤늦게 열고
 장백산엔 눈이 더디 내린다.
 솜옷 입은 병사들 다투어 분발하니
 오랑캐들 성 가까이 오지 말라.³⁸⁾

邊兵愁墜³⁵⁾指
 王命錫寒衣
 愛日臨³⁶⁾窮漢
 恩風動朔陲
 三河³⁷⁾冰合晚
 長白雪來遲
 挾纈人爭奮
 胡兒莫近陴

만력 기묘년(1579) 10월 사인(舍人) 김성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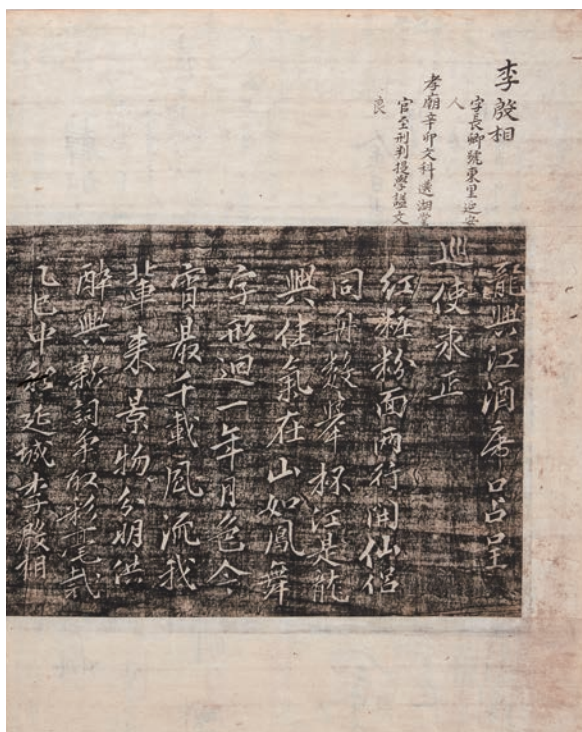
萬曆己卯陽月 舍人 金誠一

35) 墜: 문집에는 墮로 되어 있다.

36) 臨: 문집에는 先으로 되어 있다.

37) 河: 문집에는 江으로 되어 있다. 삼하(三河) 뒤에 협주로 '삼수군명(三水郡名)'이라고 되어 있다. 즉 삼수는 군의 이름이라는 뜻이다.

38) 이 시는 김성일의 문집 『학봉집鶴峯集』에 「頒衣」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字長卿 號東里 延安人 孝廟辛卯文科 選湖堂 官至刑判提學 諡文良

자는 장경(長卿), 호는 동리(東里), 본관은延安(延安)이다. 효종 신묘년(1651) 문과에 급제하여 호당에 선발되었으며, 관직은 형조판서, 제학에 이르렀다. 시호는 문량(文良)이다.

용흥강 술자리에서 입으로 시를 불러 순사에게 질정을 구하다

龍興江酒席口占呈巡使求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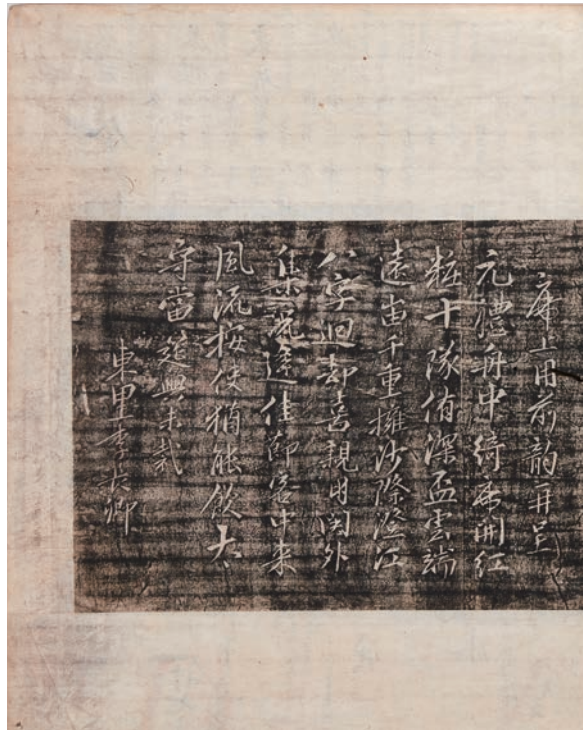
붉은 단장 분칠한 얼굴 두 줄로 펼쳐졌는데
선선들 함께 배를 타고 술잔 자주 드는구나.
강은 용흥이라 아름다운 기운 머무르고
산은 봉황이 춤추듯 글자 모양으로 감돌아든다.
일 년 중 달빛은 오늘 저녁이 최고인데
천 년의 풍류 즐기러 우리들이 왔노라.
경치는 분명하여 취흥을 돋우니
다투어 붓을 잡고 새로운 시를 짓네

紅粧粉面兩行開
仙侶同舟數舉杯
江是龍興佳氣在
山如鳳舞字形迴
一年月色今宵最
千載風流我輩來
景物分明供醉興
新詞爭取彩毫裁

을사년(1665) 중추 연성 이은상

乙巳中秋 延城 李殷相

39) 이은상: 조선후기 대사간, 도승지, 형조판서 등을 역임한 문신이자 학자이다. 1651년(효종 2)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으며 설서로 있다가 문과에 장원을 하였다. 1674년(현종 15) 인선왕후(仁宣王后)가 죽자 자의대비(慈懿大妃) 복상문제를 논할 때 형조판서로서 대공제(大功制: 만9개월)를 주장하였다. 같은 해 현종이 죽자 애책문(哀冊文)을 찬진한 바 있으며, 송시열(宋時烈)이 복상문제로 유배당하자 벼슬에 나가지 않고 관동지방을 유람하였다. 김만중(金萬重)의 장인이며, 저서로는 『동리집東里集』과 『동리소설』이 남아 있다.



술자리에서 앞의 시운을 사용하여 다시 지어 올리다⁴⁰⁾

席上用前韻再呈

원례의 배 안에서 성대한 자리 열었으니⁴¹⁾

元禮舟中綺席開

붉은 단장 열 무리들 정성 어린 술잔 올리네.

紅粧十隊侑深杯

구름 끝 먼 봉우는 천 겹으로 둘러싸고

雲端遠岫千重擁

모랫가 맑은 강은 팔자로 감도네.

沙際澄江八字廻

친한 벗들 관문 밖에서 모인 것 도리어 기쁘네

却喜親朋關外集

하물며 아름다운 계절에 손님들이 찾아옴에랴.

況逢佳節客中來

풍류로운 안사(按使)께서 오히려 능히 마시나니

風流按使猶能飲

태수는 술자리에 임하여 흥을 다스릴 수가 없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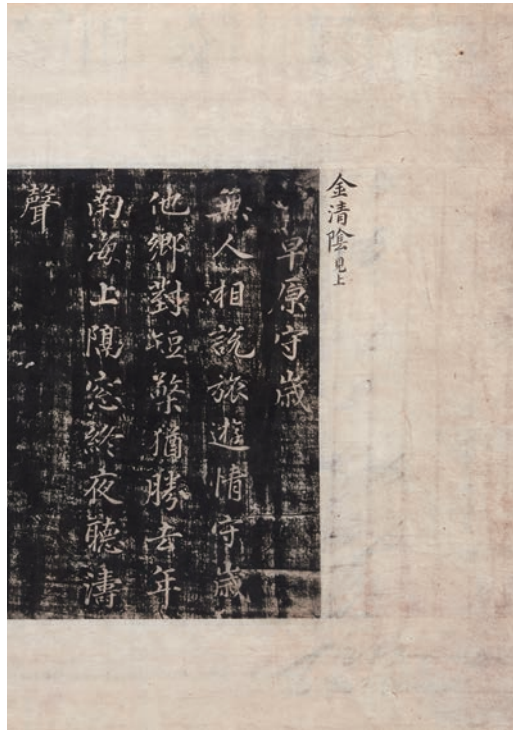
太守當筵興未裁

동리 이장경

東里李長卿

40) 이 시는 이은상의 문집 『동리집』에 『龍興江泛中秋月 席上口占呈方伯』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41) 원례의 … 열었으니: 원례(元禮)는 후한 이응(李膺)의 자. 당시 가난하고 미천한 신분이었으나 학식이 뛰어났던 곽태(郭泰)가 낙양에 갔다가 이응을 만난다. 그러나 이응의 인정을 받아서 단번에 오랜 친구 사이처럼 지내게 되었다. 나중에 곽태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 낙양의 선비들이 강변에 나와 그를 전송하였는데, 이응과 단둘이서만 배를 타고 신선처럼 강을 건넜다고 한다. 여기서는 순사(巡使)의 기상과 풍류가 뛰어남을 의미한다.



金淸陰 見上

김청음[김상헌] 앞에 보인다.

초원⁴²⁾에서 설달 그믐밤을 지내다⁴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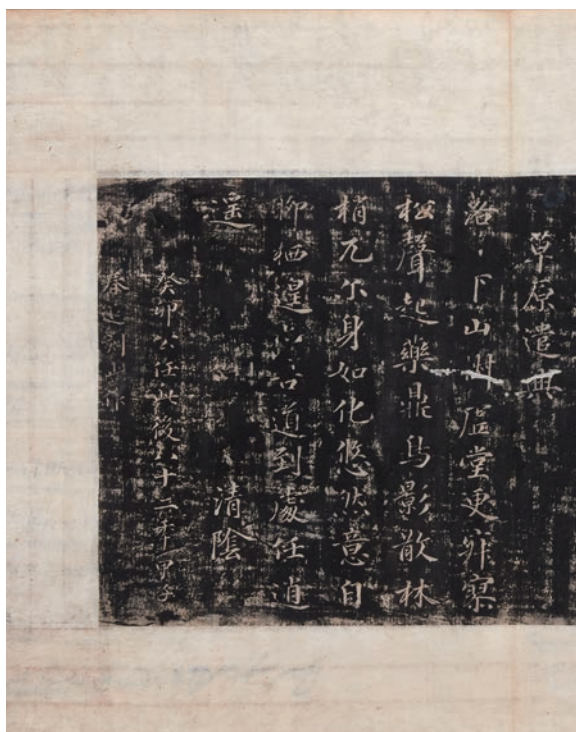
나그네 정 서로 즐길 만한 사람 없어서
설달 그믐날 타향에서 짧은 등잔 마주한다.
그래도 낯구나 작년 남해 가로 가서
창 너머로 밤새도록 파도 소리 들던 때보다

草原守歲

無人相說旅遊情
守歲他鄉對短檠
猶勝去年南海上
隔窓終夜聽濤聲

42) 초원: 함경도 정평부(定平府)에 있는 역 이름이다.

43) 이 시는 김상헌의 문집 『청음집』에 같은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초원역에서 흥을 보내다⁴⁴⁾

지는 해 산마루로 떨어지고
빈 집은 더욱 고요해졌다.
술바람 소리는 약 달이는 술에서 일고
새 그림자는 나무 끝에서 흩어진다.
조용히 몸은 신선처럼 변하는 듯하고
아득히 생각은 절로 즐겁다.
서성거리는 것 역시 나의 도이니
곳곳마다 마음껏 거닐어본다.

草原遣興

落日下山椒
虛堂更寂寥
松聲起藥鼎
鳥影散林梢
兀爾身如化
悠然意自聊
棲遑亦吾道
到處任逍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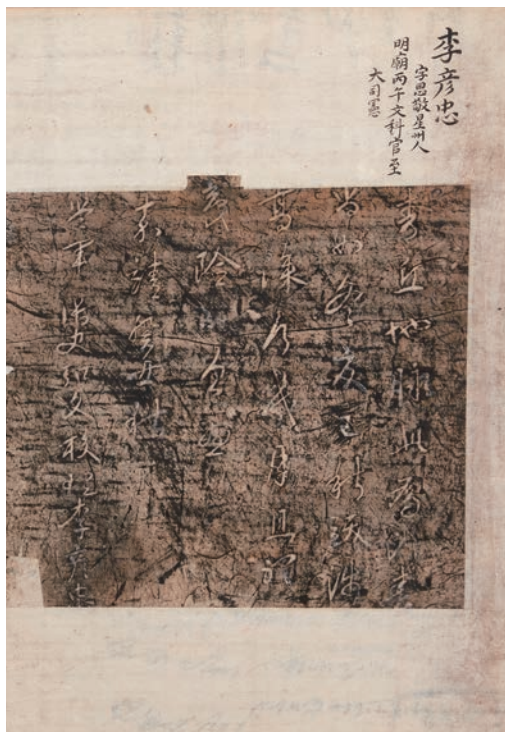
청음

清陰

계묘년(1603) 공께서 이곳에 부임한 지 82년 되는 갑자년(1684) 봄에 이 작품을 추각하였다.

癸卯公任此後八十二年甲子春追刻此作

44) 이 시는 김상헌의 문집 『청음집』에 같은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李彦忠 字思敬 星州人 明廟丙午文科 官至大司憲

자는 사경(思敬)이며 본관이 성주(星州)이다. 명종 병오년(1546)에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관직은 대사헌에 이르렀다.

청구(靑丘)의 지맥은 이곳이 뛰어나니

봄에도 여전히 겨울 같고 여름엔 이미 가을.

높은 산 넘고 깊은 물 건너 길을 다닌 지 몇 달이런가

평탄하고 험난한 곳 슬퍼도 근심한 적 없네

靑丘地脈此爲頭

春尙如冬夏已秋

跋涉高深行幾月

且聽夷險不曾憂

가정 계축년(1553) 가을 감군어사 홍문교리 이언충

嘉靖癸丑秋 監軍御史 弘文校理 李彦忠

45) 이언충: 조선전기 대사헌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좌찬성 이집(李諱)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사평 이운기(李云芑)이다. 아버지는 이흔(李掀)이다. 1563년(명종 18) 이량(李樑) 등이 정배될 때 함께 탄핵되었다.



字晦甫 昌寧人 中廟戊子文科 官至判敦寧

자는 회보(晦甫), 본관은 창녕(昌寧). 중종 무자년(1528)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판돈녕(判敦寧)에 이르렀다.

차운하다

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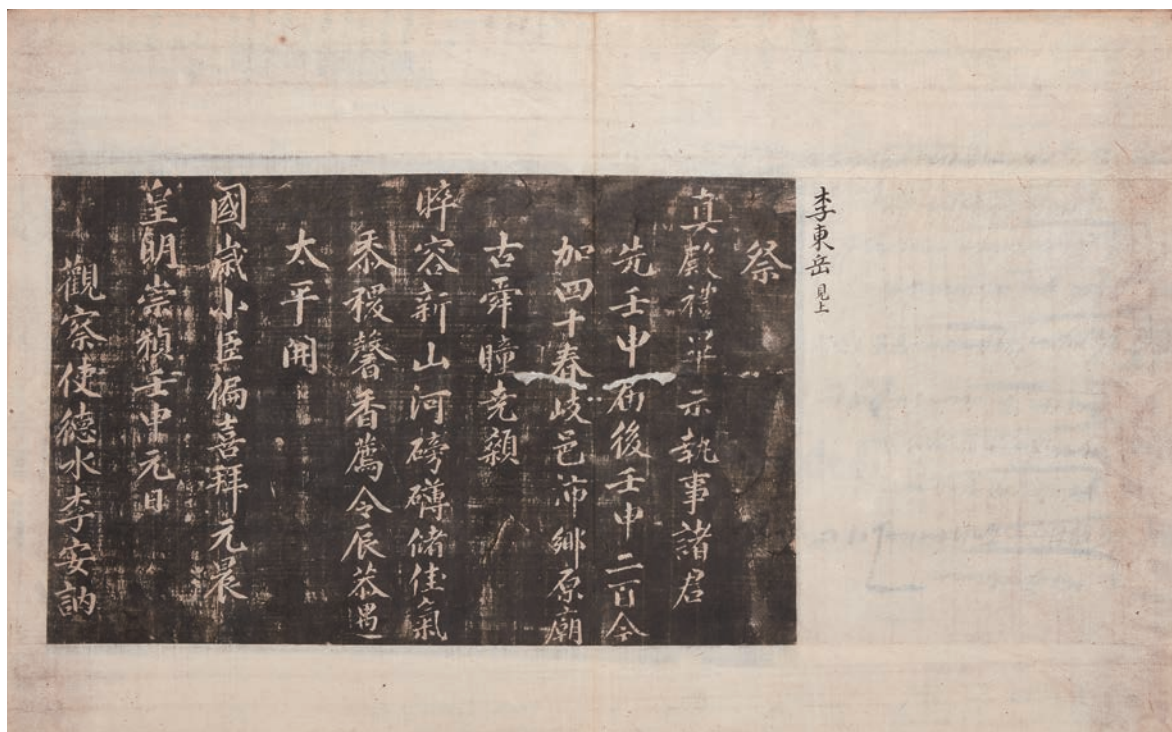
구름 뚫고 며칠이나 괴롭게 지났던가
벼랑에 기대지 않으면 물가였었지.
오월 고갯마루엔 눈 빛이 남아있고
숲속 나뭇가지 위엔 서리꽃 이어졌다.
들판 밖으로는 여러 마을 이미 없어졌고
다만 성 안에서 판자집 몇 채 보일 뿐
태평성대 임금의 가르침은 멀리 있나니
천고에 황폐한 곳으로 나아가는 이 누구런가.

穿雲幾日苦經過
不是緣崖則水涯
五月巔頭留雪色
方林枝上綴霜花
已無野外諸村落
只見城中數板家
賴有盛明聲教遠
就荒千古敢誰何

병사 하성 조광원

兵使 夏城 曹光遠

46) 조광원: 명종대 문신으로 공조참의, 함경도 관찰사 등을 거쳐 1548년(명종 3) 호조참판이 된 후 대사헌, 개성부유수 등을 지냈다. 을묘왜변 때 경상도 도순찰사로 활약하고, 좌참찬, 호조판서 등을 거쳐 우찬성에 올랐다.



李東岳 見上

이동악[이안눌] 앞에서 보인다.

진전⁴⁷⁾에 제례를 올린 뒤 집사 여러분에게 보이다⁴⁸⁾

祭眞殿禮畢 示執事諸君

앞의 임신년이 뒤의 임신년에 이어져
이백 년에 지금 사십 년을 더하였도다.⁴⁹⁾
기읍⁵⁰⁾ 패향⁵¹⁾에 원묘(原廟)⁵²⁾는 오래되었고
순임금의 눈동자 요임금의 이마에 얼굴 모습 새로워라.
산하에 기운 서려 아름다운 기운 쌓였고
서직(黍稷)⁵³⁾의 아름다운 향기를 좋은 날 올렸네.
태평한 개국의 해를 공손히 만나니
소신은 다만 기뻐하며 새해 첫날 새벽에 절 올린다.

先壬申屆後壬申
二百今加四十春
岐邑沛鄉原廟古
舜瞳堯額睟容新
山河磅礴儲佳氣
黍稷馨香薦令辰
恭遇太平開國歲
小臣偏喜拜元晨

황명 숭정 임신년(1632) 1월 1일 관찰사 덕수 이안눌

皇明崇禎壬申元日 觀察使 德水 李安訥

47) 진전(眞殿): 태조 이성계의 초상을 모신 준원전(濬源殿)을 지칭한다.

48) 이 시는 이안눌의 문집 『동악집東岳集』에 「壬申元日 濬源殿行祭禮畢 示執事諸君」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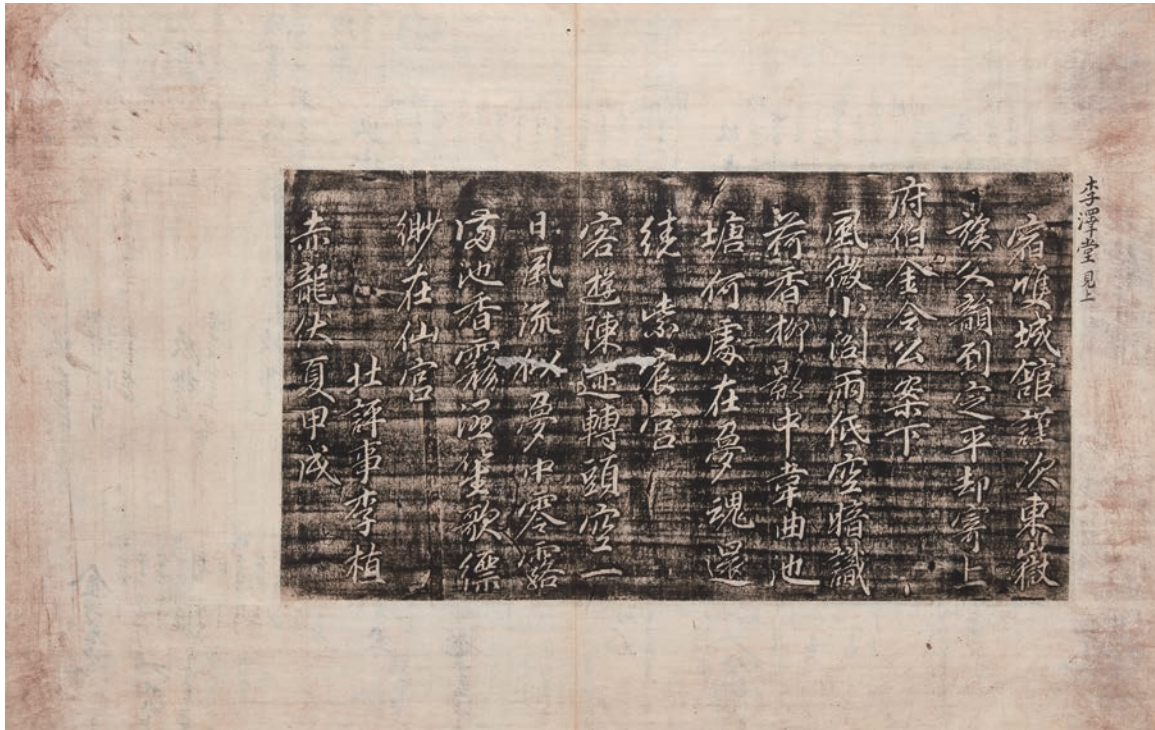
49) 앞의 임신년이 … 더하였도다: 조선이 건국한 1392년이 임신년이었고, 지금 이안눌이 제례를 올리는 1632년(인조 10)이 건국으로부터 240년이 되는 임신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50) 기읍(岐邑)은 주나라 문왕이 다스리던 지역으로, 여기서는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기 전에 다스리던 지역인 관북 지역을 말한다.

51) 패향(沛鄉)은 한나라 고조가 군사를 일으켜 나라를 세운 곳으로, 여기서는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는 기틀을 마련한 관북 지역을 말한다.

52) 원묘는 조정에서 모시는 정묘(正廟) 이외에 별도로 건립한 묘당을 지칭한다. 여기서는 준원전을 말한다.

53) 서직(黍稷)은 제사에 올렸던 곡식이다.



李澤堂 見上

이택당[이식] 앞에서 보인다.

쌍성관에서 묵으며 삼가 동악 족부(族父)의 시에 차운하였다. 정평에 도착하여 부백(府伯) 김 영공의 안하(案下)에 부친다.⁵⁵⁾

宿雙城館 謹次東嶽族父韻 到定平 却寄上府伯金令公案下

바람 살랑이는 작은 누각에 비는 하늘에 낮게 내리고
버드나무 그림자 속에 연꽃 향기 남몰래 풍긴다.
위곡⁵⁶⁾의 연못은 어디 있는가
꿈속에라도 도리어 자신궁⁵⁷⁾을 감싸노라.

風微小閣雨低空
暗識荷香柳影中
韋曲池塘何處在
夢魂還繞紫宸宮

나그네 노닐었던 옛 자취 삼시간에 사라지고
하루의 풍류는 마치 꿈 속이런 듯.
연못에 내린 이슬 닿자 향기 어린 안개 촉촉하고
생황 노래 아스라이 신선의 궁궐에서 들려온다.

客遊陳迹轉頭空
一日風流似夢中
零露當池香霧濕
笙歌縹緲在仙宮

북평사 이식 뜨거운 삼복 여름 갑술년(16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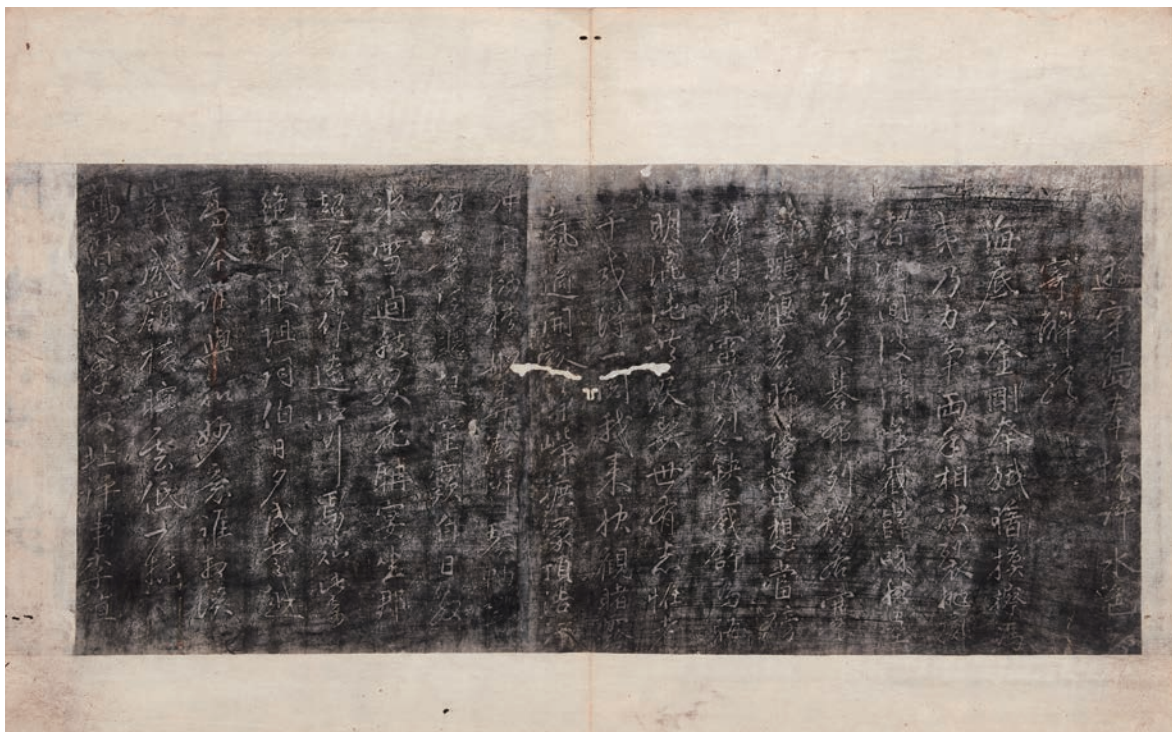
北評事 李植 赤龍伏夏甲戌

54) 이식: 명문가의 후손으로 광해군 때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을 역임하다가 폐모론이 일어나자 지평에 낙향하여 지냈다. 인조반정 이후 중용되어 대사헌과 여러 판서를 역임하였다. 문명(文名)이 높아서 문형이 되었으며, 한문사대가의 하나로 꼽혔다.

55) 이 시는 이식의 문집에 수록되지 않은 작품이다.

56) 위곡: 당나라 때 위(韋)씨 집안이 세거하던 곳으로, 지금의 섬서선 장안현에 있다. 풍경이 수려하여 유람하기 좋은 곳을 지칭한다.

57) 자신궁: 왕이 거처하는 정전 혹은 궁궐을 말한다.



천도에서 노닐며 삼가 허 수색⁵⁹⁾을 그리워하며 취해서 부른 노래를 즉시 부치다

遊穿島 奉懷許水色 卽寄醉歌

바닷속 여덟 금강을
과아⁶⁰⁾가 몰래 비비니
풍이⁶¹⁾가 이에 남쪽으로 힘써 당겨
두 손으로 찢어 벌려서
물가에 던져놓으니
파도가 높고 가파른 산을 씹었네.
행하니 검은 빛으로 문을 이루었고
그것을 진행하여 바둑판처럼 배열했지.
바르기로는 부리를 들어 올린 봉새 같고
엎드리기로는 별을 찢는 자라와 같네.
상상건대 천지가 아직 혼돈 상태였던 시절
바람과 우레는 번개를 따랐고
희서는 어둠과 밝음이 되었지.⁶²⁾

海底八金剛
夸娥暗摸索
馮夷乃力牽
兩手相決裂
拋擲渚涯間
波濤噬巖巖
呀然墨成門
鎮之碁布列
矯若褰陽黿
偃若晞陽鼈
想當磅礴時
風雷隨烈缺
羲舒爲晦明

58) 이 시는 이식의 문집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작품이다.

59) 허수색: 허적(許積, 1563~1640)을 말한다. 그의 호는 수색(水色), 자는 자하(子賀), 본관은 양천으로, 당대 시문의 대가로 꼽힌다.

60) 과아(夸娥): 엄청난 힘을 가졌다고 전하는 신선의 이름. 옛날 우공(愚公)이 마을을 가로막은 산을 옮기려고 삼태기로 매일 흙을 옮기자, 그 정성에 감동한 옥황상제가 과아를 보내서 산을 옮겨주도록 했다는 고사가 『열자列子』에 나온다.

61) 풍이: 물의 신.

62) 희서는 …… 되었지: 희서(羲舒)는 해의 신 회화(羲和)와 달의 신 망서(望舒)를 병칭하는 것으로, 세월을 의미한다. 또한 어둠과 밝음은 하루를 지칭하는 것으로 역시 세월을 의미한다.

혼돈은 모두 바르지 않은지라⁶³⁾
 세상에 괴이한 일을 기록하는 자가 있어서
 천 년 동안 한 번 보았다네.
 내가 와서 재빨리 살펴보고
 이슬 기운 때마침 활짝 열려서
 우뚝하게 주워서 머리를 덮으니
 드넓고도 깊은 큰 바다여.
 널배가 거센 물결을 희롱하니
 거문고 굴대에서 쟁쟁 소리가 난다.
 바람에 뜨더니 깊은 구멍에서 일어나
 환한 대낮인데도 얼음과 눈 흩뿌린다.
 느긋한 모습으로 노담⁶⁴⁾을 비웃으니
 편안히 앉아서 어찌 저리도 빠른가
 멀리 길을 떠나지 않고도
 어찌 이리도 기이하기 그지없는가.
 도리어 사백 만나지 못한 것 한스러운데
 밤낮으로 초나라와 월나라처럼 멀리 떨어지게 되었네.
 높이 읊조리지만 뉘와 함께 화답할 것이며
 오묘한 뜻을 뉘와 서로 이야기할까
 높고 높은 함경도의 고개 가로놓였으니
 따뜻한 구름 나지막히 한결같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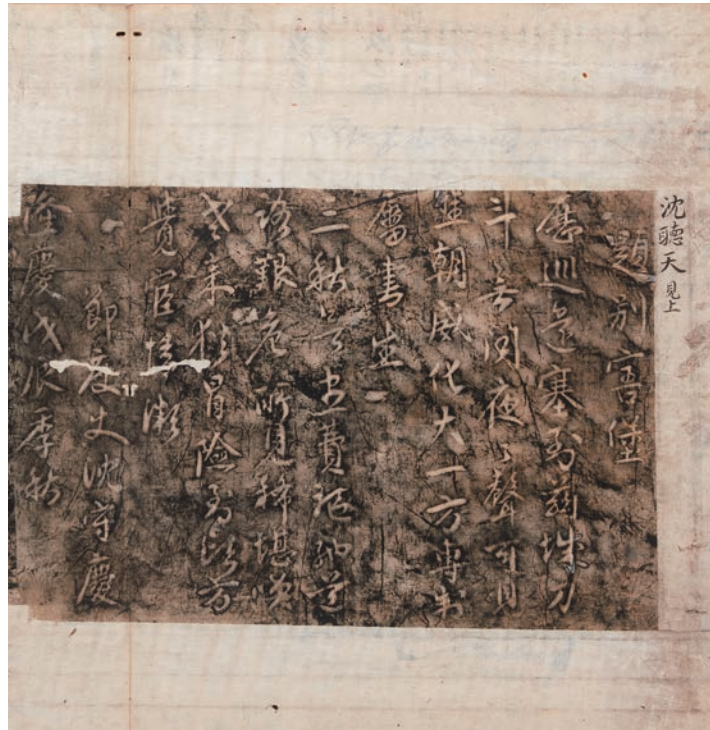
만력 병진년(1616) 계하 북평사 이식

混沌共戾契
 世有志怪者
 千載得一閱
 我來快觀睹
 露氛適開豁
 崢嶸撫冢頂
 浩汗冲溟渤
 植船弄澎湃
 琴軸響伊憂
 泛颺起窰窾
 白日散冰雪
 適然笑老聃
 宴坐那超忽
 不作遠征行
 焉知此奇絕
 却恨阻詞伯
 日夕成楚越
 高吟誰與和
 妙意誰相談
 峨峨咸嶺橫
 暄雲低一樣

萬曆丙辰季夏 北評事 李植

63) 바르지 않은지라: 원문은 여설(戾契, 여계로 읽히지만 운자로 보아 설로 읽은 것으로 보임)로, 원래는 머리가 똑바르지 않은 모양을 지칭하지만 샅되어 울바르지 않은 것을 비유하는 말로 사용된다.

64) 노담(老聃): 노자를 말한다.



沈聽天 見上

심청천[심수경] 앞에서 보인다.

별해보에 쓰다

題別害堡

변방을 두루 돌아보다 이 고을에 이르렀는데
 딱딱이 소리 밤마다 들리지 않네.
 성스러운 조정의 위엄과 교화가 취대함을 볼 수 있나니
 한 지방 다스림이 서생에게 맡겨졌네.

歷巡邊塞到玆城
 刀斗無聞夜夜聲
 可見聖朝威化大
 一方專制屬書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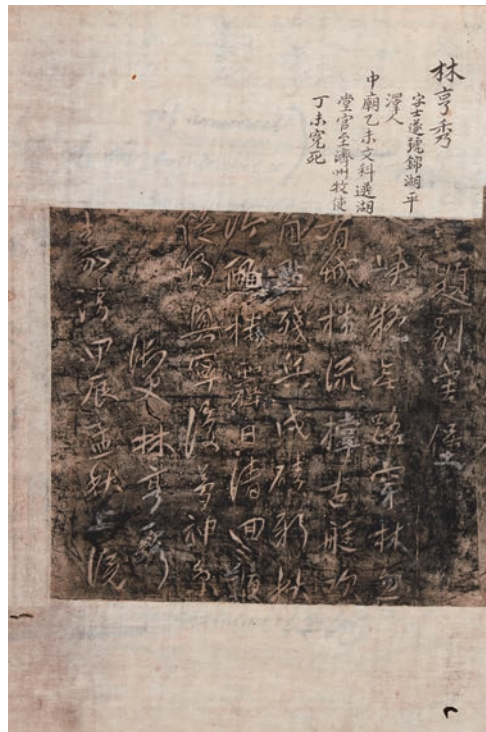
가을 다가도록 말 몰아 다녔건만
 험하고 어려운 길에 본 것이 드무네
 늙어서야 오히려 위험 무릅쓰는 것 웃을 만하니
 끝내 바야흐로 벼슬살이 마음 작다는 걸 깨닫는구나.

三秋欲盡費驅馳
 道路艱危所見稀
 堪笑老來猶冒險
 到頭方覺宦情微

절도사 심수경 용경 무진년(1568) 계추

節度使 沈守良 隆慶戊辰 李秋

65) 심수경: 중종, 선조대의 문신이자 서예가이다. 경기도 관찰사, 대사헌 등을 역임하고 청백리에 녹선되었다. 이 시는 심수경의 문집 『청천당시집聽天堂詩集』에 「題別害堡」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협주에 의하면 이 시는 “용경 무진년(1568) 늦가을 남도절도사 시절” [隆慶戊辰季秋南道節度使時]의 작품이라고 되어 있어서 창작 시기를 알 수 있다.



字士遂 號錦湖 平澤人 中廟乙未文科 選湖堂 官至濟州牧使 丁未冤死

자는 사수(士遂), 호는 금호(錦湖)이며, 본관은 평택(平澤)이다. 중종 을미년(1535) 문과에 급제하여 호당에 선발되었다. 관직은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이르렀으며, 정미년(1547)에 원통하게 죽었다.

별해보에 쓰다

題別害堡

골짜기 들어 서자 길이 없는 듯한데
숲을 지나자 홀연 성이 있어라.
시내를 가로질러 오래된 배를 짓고
뿔피리 불어서 남은 병사 점검한다.
수자리 언덕엔 초가을 서늘하고
남은 누각에 날이 개어 맑구나.
말머리 돌려서 돌아가는 흥취 따르니
어찌 다시 신선의 고을 꿈꾸리오.

入峽疑無路
穿林忽有城
橫流撐古艇
吹角點殘兵
戍磧新秋冷
僂樓霽日清
回鞭從歸興
寧復夢神京

어사 임형수 가정 갑진년(1544) 맹추 상순

御史 林亨秀 嘉靖甲辰孟秋上浣

66) 임형수: 조선전기 문신이다. 수찬, 전한 등을 거쳐 부제학에 올랐으나, 윤원형의 미움을 받아 제주목사로 좌천되었다가, 을사사화로 파직되었다. 주요 저서에는 『금호유고錦湖遺稿』가 있다. 이 시는 임형수의 『금호유고』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작품이다.



吳楸灘 見上

오추탄[오윤겸] 앞에서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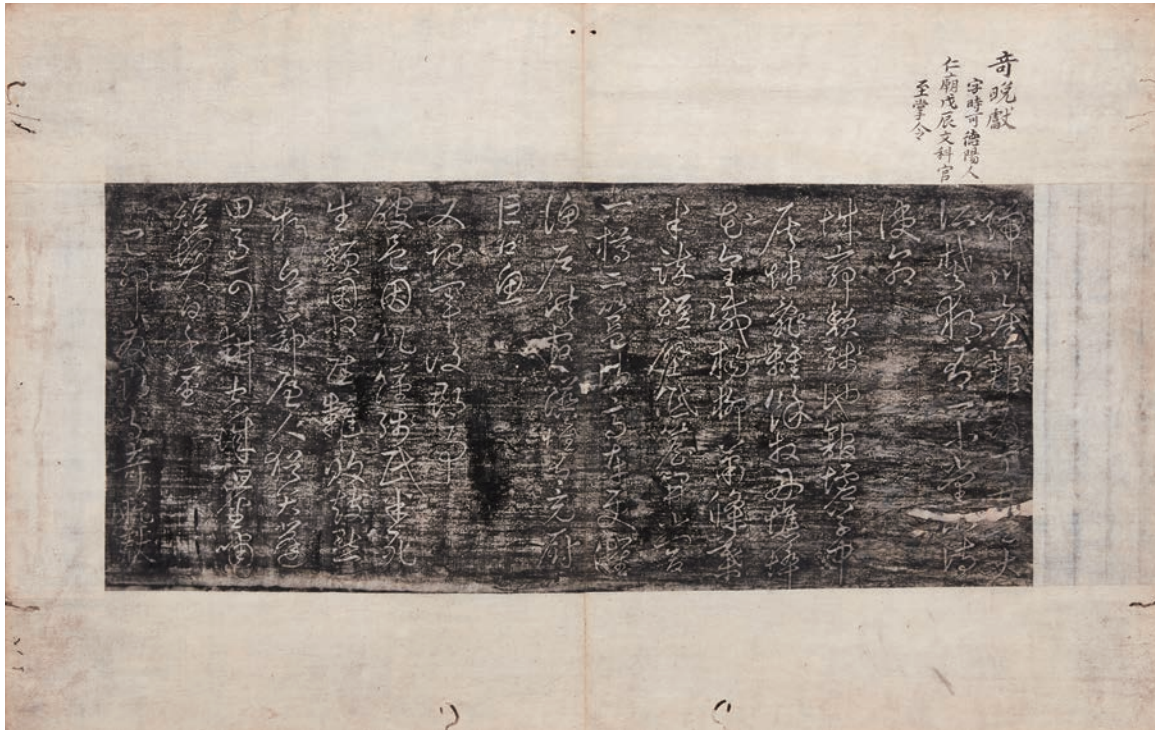
외로운 객관 적료하고 밤은 한창 깊은데
 옅은 구름 희미한 달이 서쪽 봉우리에 걸렸다.
 가련해라 잠자리에서 집에 돌아가는 꿈을 꾸니
 물과 산 천만 겹인 걸 말하지 않으려다.

孤館寥寥夜正中
 淡雲殘月在西峯
 可憐枕上還家夢
 不道山千水萬重

오윤겸 기유년(1609) 중춘

吳允謙 己酉仲春

67) 오윤겸: 광해군대 호조참의·우부승지 등을 역임하고 선현들의 문묘종사와 폐모론(廢母論)에 반대하여 탄핵을 받았다. 중추부동지사로서 명나라에 다녀왔으며 인조대 형조와 예조판서, 우의정 등을 거쳐 영의정에 올랐다. 이 시는 오윤겸의 문집 『추탄집楸灘集』에 「吉州 次李子敏安訥壁上韻」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字時可 德陽人 仁廟戊辰文科 官至掌令

자는 시가(時可), 본관은 덕양(德陽)이다. 인조 무진년(1628)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장령(掌令)에 이르렀다.

단천의 옛 객관이 정축년 병화⁶⁹⁾에 불에 타서, 오직 작은 집 하나를 두어 사신을 접대하였다.

端川舊館 爲丁丑兵火所焚 獨有一小堂所傳使命

성곽은 퇴락하고 연못 옆 객관은 터만 남아
난리 끝에 풀 속에 재가 되었네.
모란은 초췌하여 꽃은 모두 사라졌고
버드나무 쓸쓸하여 잎은 반쯤 성글었다.
짧은 벽 낮은 처마로 작은 누각 열었으니
술 한동이 반찬 둘이 모두 높은 수레라
어부 집에 다시 재촉하여 관청의 음식 제공 받으니
주방 가득 채운 것은 오직 대구 뿐.

城廓頽殘池館墟
草中灰燼亂離餘
牧丹憔悴花全滅
楊柳蕭條葉半疎
短壁低簷開小宮
一樽二簋皆高車
更催漁戶供官饌
惟有充廚巨口魚

또 전투 후의 고을 사정을 기록하다

又記軍後郡事

68) 기만헌: 조선후기의 문신이다. 1637년(인조 15) 정언, 지평이 되었고, 1646년(인조 24) 소현세자빈(昭顯世子嬪) 강씨의 처형문제로 인조와 사람의 견해가 대립되었을 때 직책을 회피하려다 파직되었다. 그 뒤로 사람의 미움을 받아 청현직(淸顯職)에 나아가지 못하고 벼슬은 부사에 이르렀다.

69) 정축년 병화는 병자호란을 지칭한다. 병자호란은 음력으로 병자년에 해당하는 1636년(인조 14) 12월 8일에 발발하여 정축년인 1637년(인조 15) 1월 30일까지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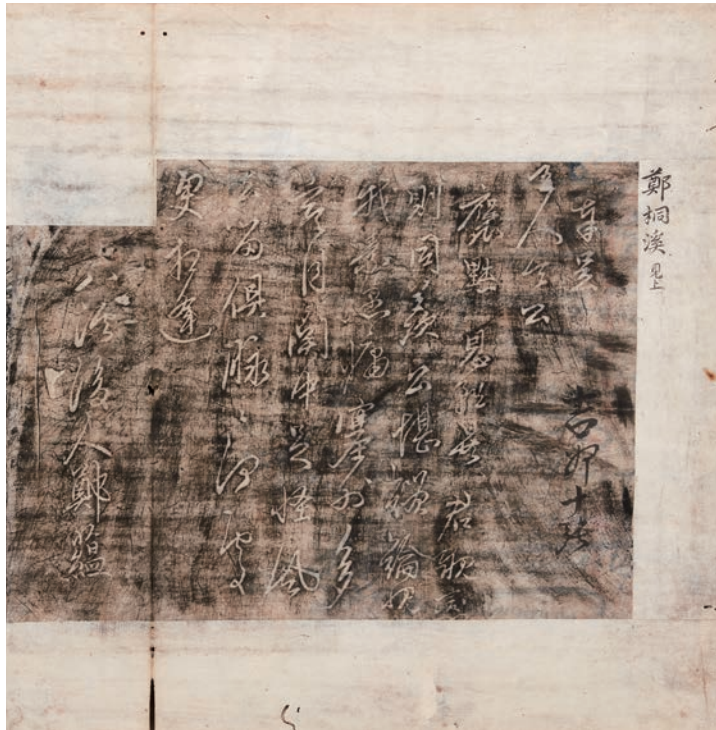
파괴된 고을은 기근으로 인하여
살아남은 백성들도 반은 죽고 살았네.
퇴락과 곤고함으로 옛날 쌀을 거두고
해진 북으로 새로운 병사들을 고요하게 한다
허름한 집⁷⁰⁾에서는 사람들이 여전히 곡을 하고
쑥대밭에서는 말이 밭을 갈 만하여라.
빈 성에선 아침에 앉아 휘파람 부니
짧은 머리카락 하얗게 천 가닥일세.

破邑因飢饉
殘民半死生
頽困收舊糶
敗鼓默新兵
鄙屋人猶哭
蓬田馬可耕
空城旦坐嘯
短髮白千莖

기묘년(1639) 여름 군수 기만헌

己卯夏 郡守奇晩獻

70) 허름한 집: 원문은 ‘부옥(鄙屋)’으로, 풀로 만든 듯자리로 지붕을 덮은 가난한 집을 말한다.



鄭桐溪 見上

정동계[정온] 앞에서 보인다.

주인 영공께 받들어 올리다⁷²⁾

승진과 좌천은 은혜가 비록 다르지만
임금과 아버이 그리움은 같다네.
요충지를 잘 지키는 공(公)이 부럽고
본디 어리석고 게우른 내가 부끄럽네.
변새 밖에는 찬 달이 많이 뜨고
관문 안에는 괴이한 바람 많이 분다.
떠나고 머무르는 사람 모두 말이 없나니
어디서 다시 상봉할까나.

입계후인 정온

奉呈主人令公

褒黜恩雖異
君親戀則同
羨公堪鎖鑰
愧我素愚庸
塞外多寒月⁷³⁾
關中足怪風
去留俱脈脈
何處更相逢

入溪後人 鄭蘊

71) 정온: 조선중기의 문신이다. 홍문관 부제학을 지냈다, 병자호란 때 척화(斥和)를 주장하였으며, 이듬해 화의가 성립되자 벼슬을 버리고 은거하였다. 저서에 『덕변록』, 『동계집』 등이 있다.

72) 이 시는 정온의 문집 『동계집桐溪集』에 「贈主牧鄭文學」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73) 月: 정온의 문집 『동계집』에는 雪로 되어 있음.



閔立巖 見上

민입암[민제인] 앞에서 보인다.

산마루 역참의 객관은 민가 마을에 이어져 있는데
판자 덮어 집 짓고 나무로 울타리했네.
숲 그림자 속에서 물레방아 돌아가니
의연한 계곡 속 마을이 무릉도원 가깝구나.⁷⁴⁾

병사 민제인

山椒郵館接烟村
覆板爲家木作垣
水杵自春林影裏
依然谿巷近桃源

兵使 閔齊仁

74) 이 시는 민제인의 문집 『입암집』에 수록되어 있다.



李東岳 見上

이동악[이안눌] 앞에서 보인다.

가을 바람에 나그네 되니 생각 다듬기 어려운데
 맑은 밤 높은 집에서 다행히 잠시 모시게 되었네.
 밝은 달은 절로 오늘 저녁 둥글고
 노란 국화 도리어 고향집처럼 피었네.
 백 년 인생에 시권을 더하니
 만사는 오르락 내리락 술잔에 부친다.
 구름 밖 기러기는 슬프게 한 소리 울면서
 남쪽으로 날아가매 어찌 저리도 슬픈지.⁷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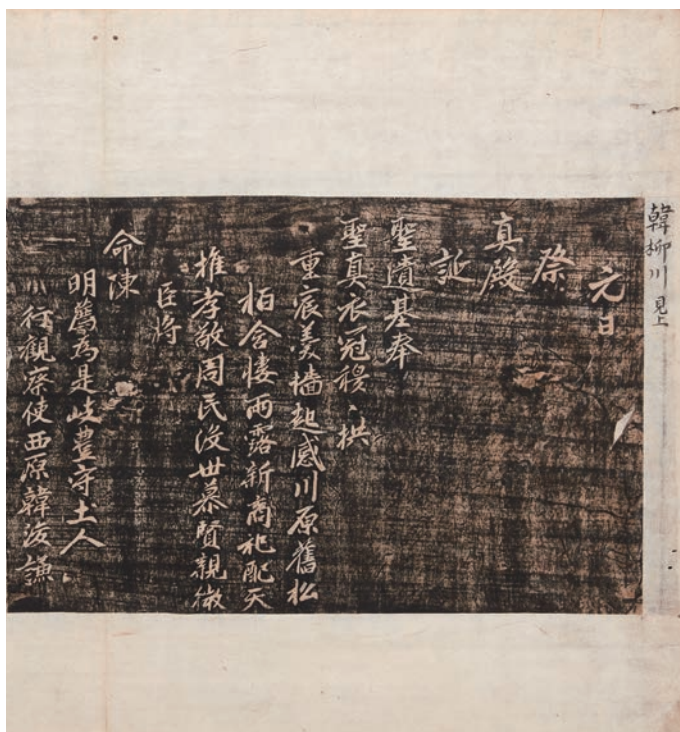
秋風作客意難裁
 清夜高堂幸暫陪
 明月自從今夕滿
 黃花却似故園開
 百年行役添詩卷
 萬事乘除付⁷⁵⁾酒杯
 惆悵一聲雲外雁
 南飛何用有餘哀

만력 기해년(1599) 9월 15일 북평사 이안눌

萬曆己亥九月十五日 北評事 李安訥

75) 付: 이안눌의 문집 『동악집』에는 附로 되어 있다.

76) 付: 이안눌의 문집 『동악집』에는 附로 되어 있다.



韓柳川 見上

한유천[한준겸] 위에서 보인다.

새해 첫날 진전에 제사를 올리다⁷⁸⁾

元日祭眞殿

성인이 탄생한 옛 터전에서 성인의 진영을 받드니
의관은 아름다워 구중궁궐이 감쌌네.
성인 생각하느라 감격 일으키니 시내와 언덕이 의구하고
소나무와 잣나무는 슬픔 머금으니 비와 이슬 새로워라.
상나라의 제사는 하늘과 짝하여 효와 공경 미루어가고
주나라 백성은 영원히 현인과 친인을 추모한다.
미천한 신하 왕명 받들어 제물을 진설하니
기읍 풍패⁷⁹⁾의 지키는 사람이어서라오.

誕聖遺基奉聖眞
衣冠穆穆拱重宸
羹牆起感川原舊
松柏含悽雨露新
商祀配天推孝敬
周民沒世慕賢親
微臣將命陳明薦
爲是岐豐守土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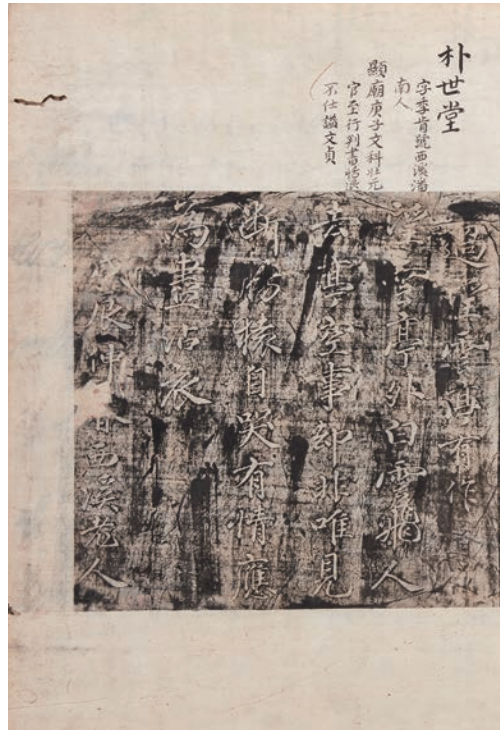
행관찰사 서원 한준겸

行觀察使 西原 韓浚謙

77) 이 시는 한준겸의 문집 『유천유고柳川遺稿』에 「萬曆壬子元日 璿源殿祭後題壁」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78) 이 작품에서 성인은 태조 이성계를 지칭한다.

79) 기읍은 문왕이 다스림으로써 주나라의 기틀이 된 곳이고, 풍패는 한나라 고조가 일어나 기틀을 만든 곳이다. 여기서는 선원전이 있는 영흥을 지칭한다.



字季肯 號西溪 潘南人 顯廟庚子文科壯元 官至行判書 恬退不仕 諡文貞

자는 계금(季肯), 호는 서계(西溪), 본관은 반남(潘南)이다. 현종 경자년(1660)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관직이 행판서에 이르렀다. 명리에 뜻이 없어서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다.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망운정을 지나며 짓다

過望雲亭有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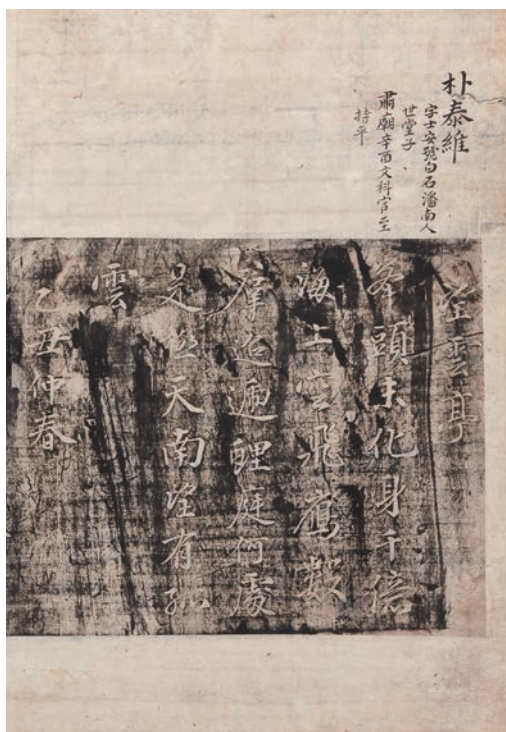
망운정 너머로 흰구름 흐르는데
사람은 떠나고 정자는 텅 비었으니 일은 틀려버렸네.
오직 애틋듯 원숭이만 스스로 우는 것만 보이니
사람의 정이 있다면 응당 옷깃 적시리.

望雲亭外白雲飛
人去亭空事却非
唯見斷腸猿自哭
有情應爲盡沾衣

무진년(1688) 중춘 서계노인

戊辰仲春 西溪老人

80) 박세당: 조선후기의 학자이자 문신이다. 당시의 정국을 주도하던 노론계의 반대 입장에서 주자학을 비판하고 독자적 견해를 주장하였다. 실사구시적 학문 태도를 강조하였으며 『사변록』을 저술하였다. 이 시는 박세당의 문집 『서계집西溪集』에 「過望雲亭有作」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문집의 협주에 의하면 이 시는 1688년(숙종14년) 봄에 지었다고 하며, 형의 아들인 박태상이 함경도관찰사가 되었을 때 감영에서 선대(先代)의 시호를 맞았는데 박세당이 바로 그곳에 갔을 때 지은 것이라고 하였다.



字士安 號白石 潘南人 世堂子 肅廟辛酉文科 官至持平

자는 사안(士安)이며 호는 백석(白石)이고 본관은 반남(潘南)이다. 박세당(朴世堂)의 아들이다. 숙종 신유년(1681)에 문과에 급제하였고, 관직은 지평에 이르렀다.

망운정⁸²⁾

望雲亭

산봉우리 천변만화하고
바다 위 기러기들만 떼지어 나네
아스라이 이정은 어디에 있는가⁸³⁾
먼 남쪽 바라보니 외로운 구름 뿐

峯頭未化身千億
海上空飛鴈數羣
迢遞鯉庭何處是
極天南望有孤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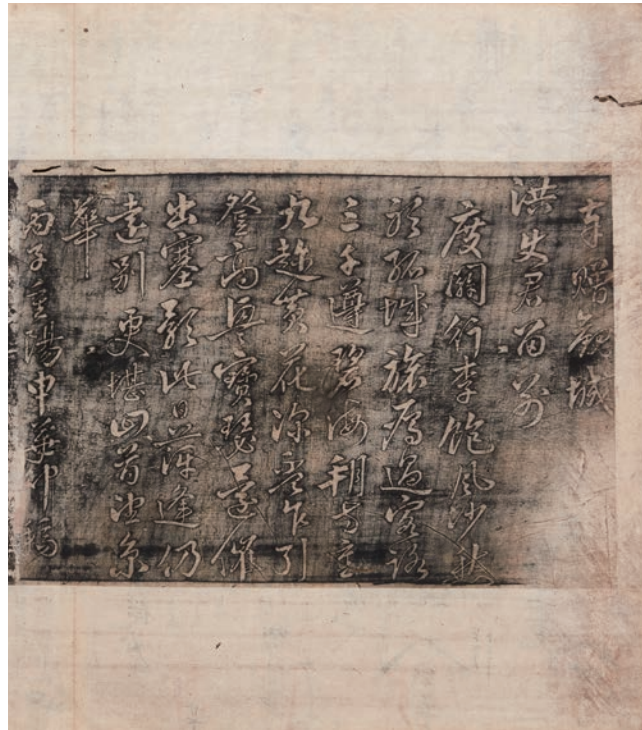
을축년(1685) 중춘
반남 박태유

乙丑仲春
潘南朴泰維

81) 박태유: 조선후기의 문신이다. 같은 서인인 어영대장 김익훈이 남인을 무자비하게 숙청한 데 반발하여 이를 탄핵하다 좌천되었다.

82) 망운정(望雲亭): 박태유가 함경도의 고산독우(高山督郵)로 있을 때 지은 정자이다. 박태유는 이 정자의 기문을 짓기도 하였다.

83) 이정(鯉庭): 부모가 서 계신 뜰을 가리킨다. 리(鯉)는 공자(孔子)의 아들의 이름으로 자(字)가 백어(伯魚)인데, 뜰에 계신 공자의 앞을 지나다가 시(詩)와 예(禮)에 관한 가르침을 받은 데서 유래하였다.

관성 홍사군과 이별하며 지어 보내다⁸⁵⁾

奉贈觀城洪使君留別

관문 넘는 여행길에 모랫바람 맞았고
 시름 겹게 외로운 성에 기러기 지나는 소리 듣네
 나그네 길 삼천리에 푸른 바다를 좇고
 삭방의 중앙절에 국화는 따르네
 넘치는 잔 조금 마셔도 높이 오르고픈 흥취나니
 비파소리 다시금 출새가를 재촉하네⁸⁶⁾
 오늘 우연히 만나자 곧 머나먼 이별이니
 머리 돌려 서울을 바라봄을 어찌 견디리

度關行李飽風沙
 愁聽孤城旅雁過
 客朔三千遵碧海
 路方重九趨黃花
 深盃乍引登高興
 寶瑟還催出塞歌
 此日萍逢仍遠別
 更堪回首望京華

병자년(1696) 중앙에 신화중(申華仲)⁸⁷⁾ 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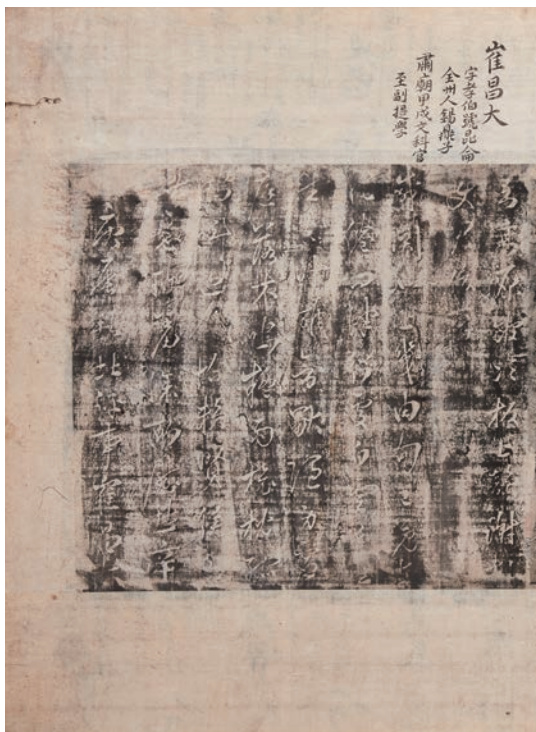
丙子重陽申華仲稿

84) 신임: 조선 후기 호조좌랑, 경기도 도사, 황해감사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85) 관성(觀城)은 함경도 이원(利原)의 이칭이다. 곧 이원현감이었던 홍모와의 이별을 읊은 시인데, 홍모는 누구인지 미상이다.

86) 출새가(出塞歌): 옛날에 종군(從軍)하여 국경으로 나갈 적에 부르던 노래이다. 여기서는 먼 국경 지대인 경성(鏡城)으로 나가게 되었기 때 문에 쓴 말이다.

87) 신화중(申華仲): 신임으로, 본관은 평산(平山), 자는 화중, 호는 한죽(寒竹), 시호는 충경(忠景)이다. 『청구제영』에 따로 부기되어 있지 않다.



字孝伯 號昆侖 全州人 錫鼎子 肅廟甲戌文科 官至副提學

자는 효백(孝伯)이며, 호는 곤륜(昆侖)이고 본관은 전주(全州)이다. 최석정(崔錫鼎)의 아들이다. 숙종 갑술년(1694)에 문과에 급제하였고, 관직은 부제학에 이르렀다.

고원관에 도착하여 판위의 운에 차운하여 사군 □□에게 사례하다

到高原館次板上韻謝□使君□□

함관(咸關) 위로 올라온 지 몇 유순⁹⁰⁾인가

咸關北上幾由旬

이미 □□□□ 느긋하게 나루터를 묻는다.⁹¹⁾

已寬雲□倦問津

가는 곳마다 흰 구름 길이 바라보고

行處白雲長在望

헛된 세상 웅검만 홀로 이 몸 따르네.

空時雄劍獨隨身

빈 뜰에 떨어지는 잎 빗소리처럼 울리고

虛庭落木鳴疑雨

객지의 잠자리에 외로운 기러기는 가까이서 사람 부르는 듯.

旅枕孤鴻叫近人

어진 수령의 도움 덕분에 □□□□

怡賴賢侯□□□

진귀한 □□ 술잔 기울이며 시름을 위로하네.

珍□深酌慰愁卒

경신년(1700) 가을 북평사 최창대

庚辰秋 北評事 崔昌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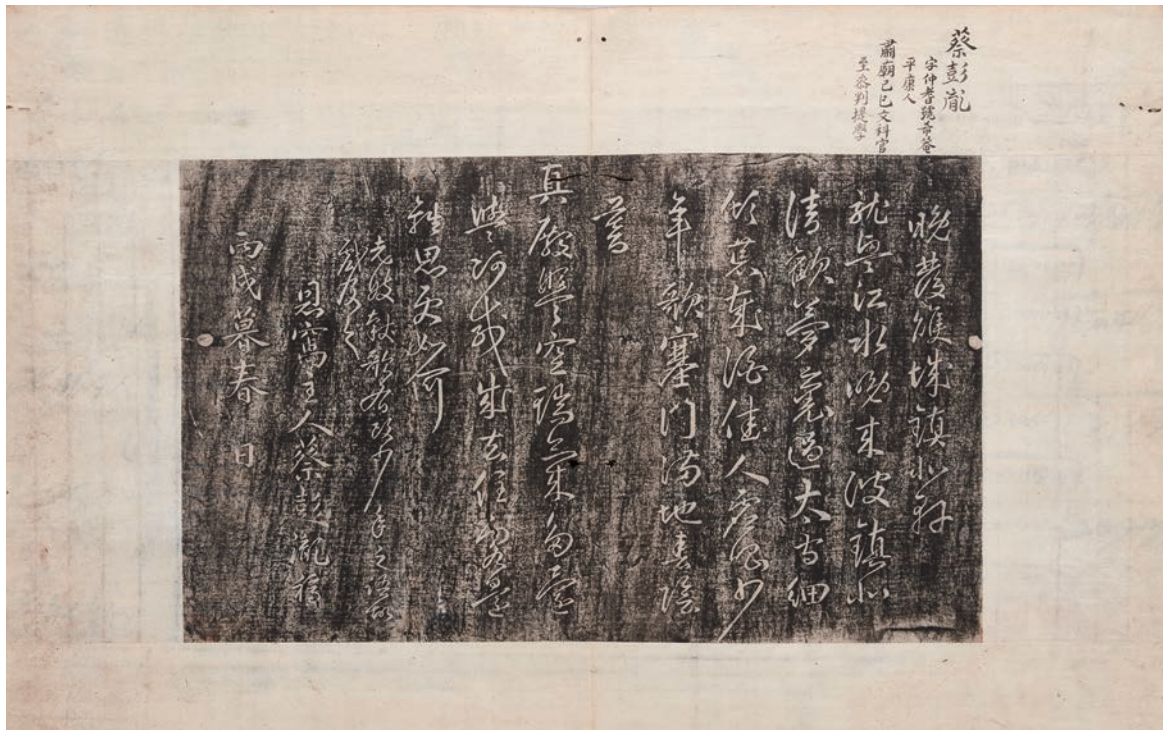
88) 최창대: 조선후기의 문신으로, 이조정랑, 사간 등을 거쳐 1711년(숙종 37) 대사성에 올랐다. 최석정의 아들이다. 경서에 밝고 문장에 능하였으며 글씨도 잘 썼다. 저서로 『곤륜집昆侖集』이 전한다. 이 시는 1700년(숙종 26) 북평사(北評事)로 가게 된 최창대가 함경도 고원관에 이르러서 지은 것이다.

89) 고원관(高原館): 함경도 고원군(高原郡)의 객관으로 보인다.

90) 유순(由旬): 거리를 재는 단위. 1유순에 대해서는 80리, 60리, 40리 등 여러 가지 설이 있다.

91) 나루터를 묻는다: 『논어』에 나오는 구절로, 공자가 장저(長沮)와 결익(桀溺)에게 나루터를 물었다는 것에서 왔다. 흔히 도(道)를 찾는다는 의미로도 전용된다.

37 채팽윤(蔡彭胤, 1669~1731)⁹²⁾ 영흥부(永興府) 쌍성관 진북헌(鎭北軒)(청구제영 제7첩)



字仲耆 號希菴 平康人 肅廟己巳文科 官至參判提學

자는 중기(仲耆)이며 호는 희암(希菴)이고 본관은 평강(平康)이다. 숙종 기사년(1689)에 문과에 급제하였고 관직은 참판과 제학을 지냈다.

저녁에 쌍성 진북헌을 떠나며⁹³⁾

晚發雙城鎭北軒

용흥강 강물에 저녁 물결 일렁일 때
맑은 흥취 진북헌을 꿈속에 지나네
태수는 황세주를 조금만 기울이고
가인은 부질없이 소년가를 부르네
새문에는 대지 가득 봄날이 저무는데
진전에는 하늘 높이 서기 흠뻑 어렸네
다시금 조카와 이별을 하게 되니
타향에서 이별 시름을 다시 어이하나

龍興江水晚來波
鎭北清歡夢裏過
太守細傾荒歲酒
佳人虛唱少年歌
塞門滿地春陰暮
眞殿盤空瑞氣多
還與阿咸成去住
客邊離思更如何

노기가 노래를 불러 소년이라는 말을 고쳤기 때문에 재미로 언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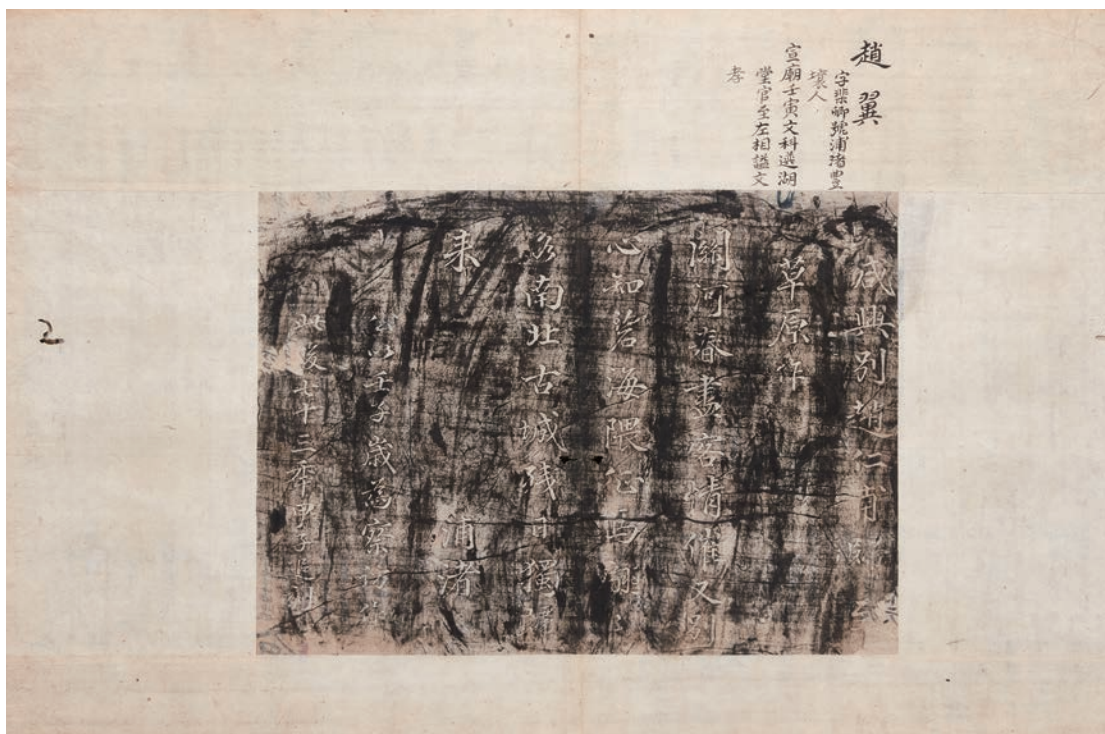
老妓獻歌有改少年之語故戲及之

은와주인(恩窩主人) 채팽윤 쓰다. 병술년(1706) 3월 일

恩窩主人蔡彭胤稿丙戌暮春 日

92) 채팽윤: 조선 후기의 문신이다. 승지·대사간·병조참판·동지의금부사 등을 역임하였다. 문장에 뛰어나 이수대·오상렴과 함께 당대의 삼문장이라 일컬어졌다.

93) 이 시는 채팽윤이 1706년(숙종 32) 2월 영흥(永興)으로 친영(親迎)을 하러 가는 조카 채응삼(蔡應三)을 따라 갔을 때 지은 것이다.



字斐卿 號浦渚 豐壤人 宣廟壬寅文科 選湖堂 官至左相 諡文孝

자는 비경(斐卿)이고 호는 포저(浦渚)이며 본관은 풍양(豐壤)이다. 선조 임인년(1602)에 문과에 급제하였고, 독서당에 선발되었다. 관직은 좌의정을 지냈으며 시호는 문효(文孝)이다.

함흥(咸興)에서 인보(仁甫) 조정호(趙廷虎)와 작별하고 돌아오다가 초원(草原)에 도착해서 짓다

咸興 別趙仁甫 歸到草原作

산하에 봄빛 다해서 나그네 심정 좇기는데
또 바다 모퉁이에서 지기를 작별했네
말들도 갈기 나부끼며 각자 남쪽 북쪽으로
옛 성으로 해 저물녘 혼자 돌아왔다오

關河春盡客情催
又別心知碧海隈
征馬翩翩各南北
古城殘日獨歸來

포저

浦渚

공이 임자년(1612)에 찰방이 되었을 때 지었다.
이후 73년 지난 갑자에 추가로 각하였다.

以壬子歲爲察訪作
此後七十三季甲子追刻

94) 조익: 선조, 광해군, 인조대 문신이다. 김육의 대동법 시행을 적극 주장하였고, 성리학의 대가로서 예학에 밝았으며, 음률, 병법, 복서에도 능하였다. 예조판서, 대사헌, 좌참찬, 우의정을 거쳐 좌의정에 이르렀다. 이 시는 조익이 1611년(광해군 3)에 김광필, 조광조, 이언적, 정여창 등을 문묘에 배향할 것을 주장하다가 고산도찰방으로 좌천되는데 이때 지은 것이다.

95) 초원(草原): 함경도 정평군(定平郡)의 속역(屬驛)이다.



字虞庭 號亨齋 星州人 禍時年十六文科 本朝官至左相 諡文景

자는 우정(虞庭)이고 호는 형재(亨齋)이며 본관은 성주(星州)이다. 우왕 때 16세로 문과에 급제하였다. 조선에서 좌의정을 지냈으며 시호는 문경(文景)이다.

청주 판상의 시에 차운하다⁹⁷⁾

次靑州板上韻

벼슬살이를 바닷가 따라 하다 보니
계절은 벌써 가을이 되었다네
물은 광활하여 파도를 일으키고
구름 걷히자 늘어선 산봉우리
토풍은 용맹한 장사를 숭상하고
지방 학교엔 여러 명의 선비들이 모인다 하네
멀리 떨어진 변방의 풍속을 보지 못하오
교화가 행해짐을 어찌 알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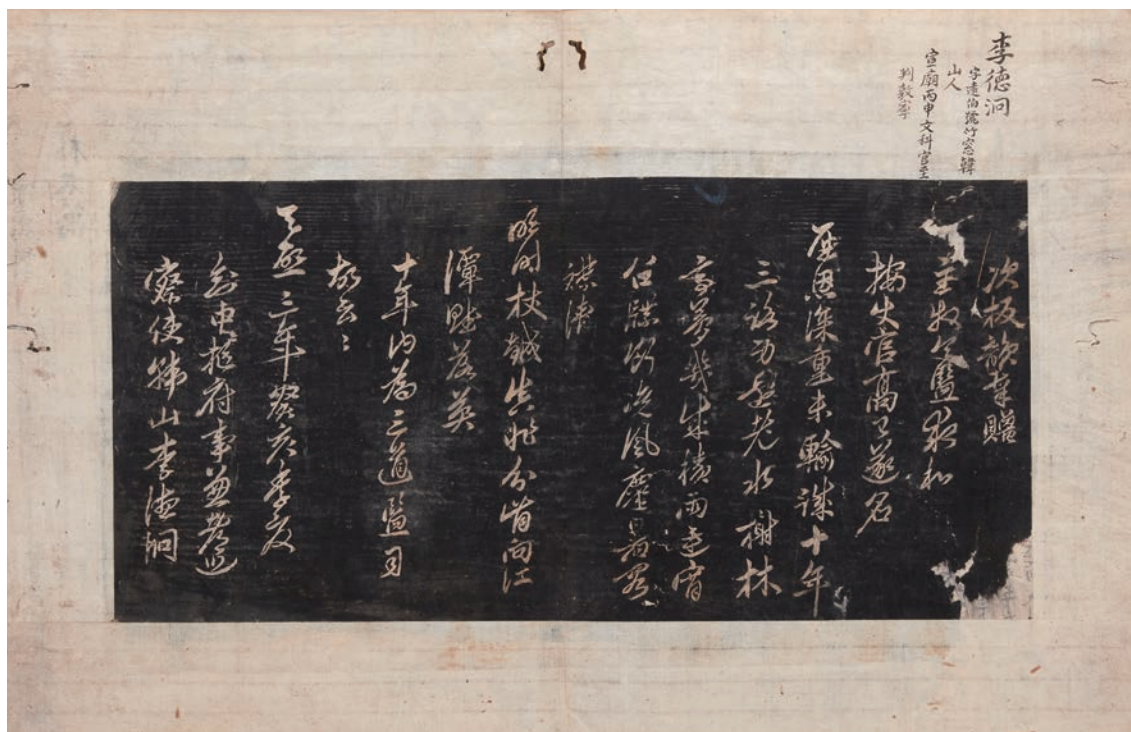
宦遊遵海畔
節序屬秋成
水闊奔濤壯
雲開列岫明
土風崇猛士
鄉學盛諸生
不見遐方俗
何知教化行

경태(景泰) 5년(1454) 계추 도체찰사 이직

景泰五季秋 都體察使李穰

96) 이직: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이다. 이성계를 도와 조선 개국에 공헌했고, 제2차 왕자의 난에 방원을 도왔다. 주자소를 설치, 동활자 계미자를 만들었다. 성산부원군으로 진봉되었다. 세종 때 영의정, 좌의정을 지냈다. 문집 『형재시집亨齋詩集』이 있다.

97) 『형재시집』에 따라 원문에 없는 제목을 추가하였다. 여기에 언급된 청주는 함경도의 북청을 말한다. 원래 북청은 청주였는데, 충청도의 청주와 구분하기 위해 1416년(태종 16) 이후 북청으로 개칭하였다. 이 시는 이직이 동북면도체찰사를 하던 1413년(태종 13)에 지은 것이기에 청주라고 하였다. 다만 경태 5년은 이미 이직이 사망한 이후이므로 오류인 것으로 판단된다.



字遠伯 號竹窓 韓山人 宣廟丙申文科 官至判敦寧

자는 원백(遠伯)이고 호는 죽창(竹窓)이며 본관은 한산(韓山)이다. 선조 병신년(1596)에 문과에 급제하였고 관직은 판돈녕을 지냈다.

판위의 시에 차운하여 주목 영감에게 주고 화답을 청하다.

次板韻奉贈 主牧令監求和

관찰사는 벼슬 높아 이미 이름이 났고
성은이 깊고 중하여 정성을 다하지 못했네
십년 삼로의 벼슬길에 몸은 늙었고
물가 누대 숲 속 정자 꿈 속에서나 만드네
밤을 이어 내린 비로 편지 내버려두고
저녁 바람에 먼지와 더위 시원해지네
밝은 시대 부윌 잡아 분수에 넘치니
강가에서 낙영을 읊을 수 있겠는가⁹⁸⁾

按使官高已遂名
聖恩深重未輸誠
十年三路身還老
水榭林亭夢幾成
積雨連宵任牒飲
晚風塵暑容襟清
明時杖鉞眞非分
肯向江潭賦落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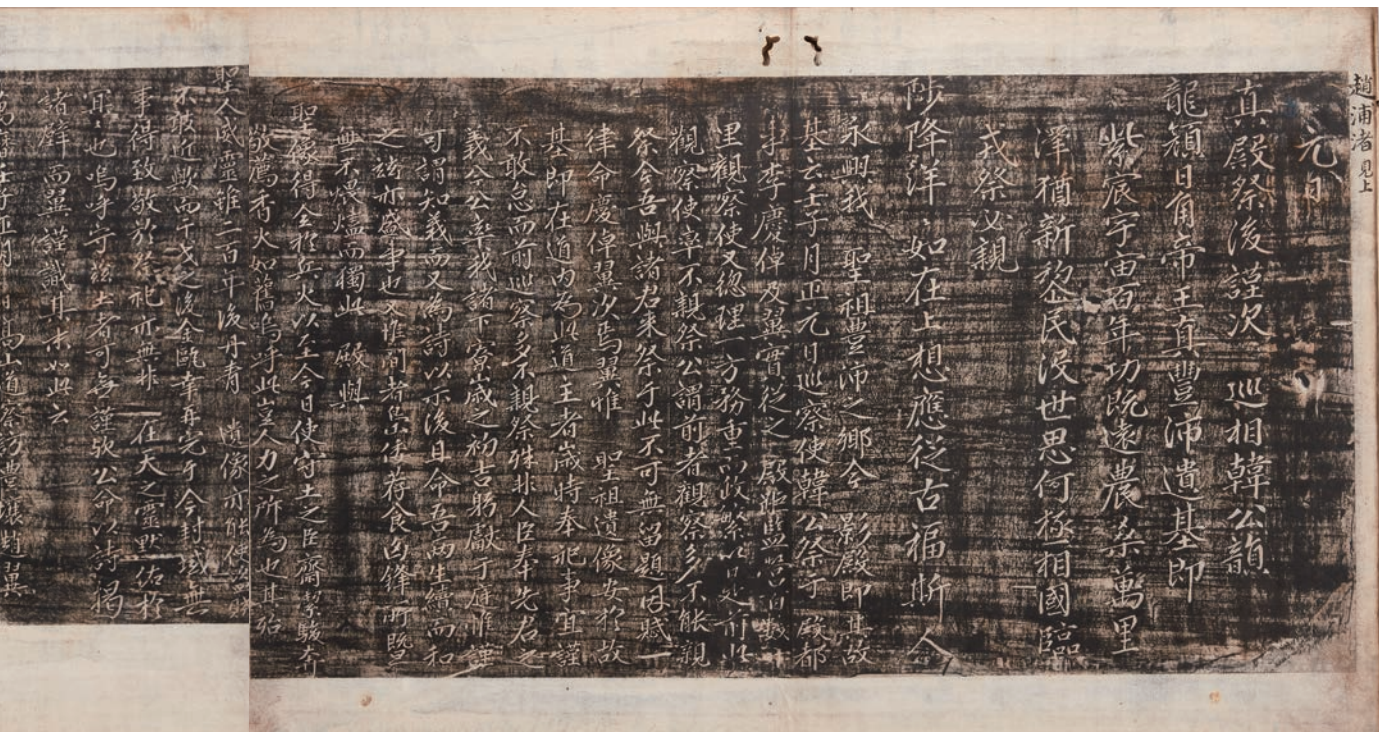
십년 내에 세 도의 감사를 하였기 때문에 읊은 것이다.

十年內爲三道監司故云云

천계 3년(1623) 계해년 계하 지중추부사 겸도순찰사 한산 이덕형

天啓三年 癸亥季夏 知中樞府事 兼都巡察使 韓山 李德洞

98) 낙영(落英)은 『초사楚辭』 「이소경離騷經」에 “아침에는 목란에서 떨어지는 이슬을 마시고, 저녁에는 가을 국화의 지는 꽃잎 먹었네[朝飲木蘭之墜露兮 夕餐秋菊之落英]” 라고 한 데에 온 말이다. 어진 인제가 헛되이 늙음을 비유할 때 쓴다.



趙浦渚 見上

조포저[조익] 앞에 보인다.

원일에 진전제를 마친후 삼가 순상 한공에 차운하다⁹⁹⁾

元日眞殿祭後謹次巡相韓公韻

용안이라 일각이 제왕의 진영이며
 풍패가 남긴 기업이 바로 자신이네¹⁰⁰⁾
 일백 년 세상의 공을 우뚝 수립하신 위에
 일만 리 농토에 혜택이 아직도 새로우네
 백성이 평생토록 사모해 마지않았던
 상공은 전쟁 때면 제사를 꼭 친히 올리시네
 오르내리며 양양히 위에 계시는 듯하니
 예로부터 이런 이에게 복을 내리셨으리라¹⁰¹⁾

龍顔日角帝王眞
 豐沛遺基卽紫宸
 宇宙百年功既遠
 農桑萬里澤猶新
 黎民沒世思何極
 相國臨戎祭必親
 陟降洋洋如在上
 想應從古福斯人

99) 조선시대 함경도 영흥에 있던 태조 진전인 준원전(濬源殿)에서 제사를 지낸 후에 조익이 순찰사 한준겸(韓浚謙)의 시에 차운하여 지은 시이다. 이때 조익은 고산도 참방으로 있었다.

100) 용안이라 ~ 자신이네: 한 고조(漢高祖) 유방(劉邦)의 고사를 빌려서 조선 왕의 초상화와 대궐을 비유한 말이다. 일각(日角)은 이마 한복판의 뼈가 융기(隆起)한 것으로, 이를 용안이라고 하는데, 유방이 바로 용안의 상(相)을 갖췄다는 말이 『사기』 「고조 본기高祖本紀」에 나온다. 풍패(豐沛)는 유방의 고향이자 처음 군사를 일으킨 곳으로 유방 자신을 가리키고, 자신(紫宸)은 대궐을 가리킨다.

101) 오르내리며 ~ 내리셨으리라: 선원전의 귀신도 상국 같은 사람에게 복을 내려 줄 것이라는 말이다.

永興 我聖祖豐沛之鄉 今影殿卽其故基云 壬子月正元日 巡察使韓公祭于殿。都事李慶倬及翼實從之 殿距監營百數十里 觀察使又總理一方 務重而政繁 以是 前此觀察使率不親祭 公謂前者觀察 多不能親祭 今吾與諸君來祭于此 不可無留題 因賦一律 命慶倬，翼次焉 翼惟聖祖遺像 安於故基 卽在道內 爲此道主者 歲時奉祀事。宜謹不敢怠 而前巡察多不親祭 殊非人臣奉先君之義 今公率我諸下寮 歲之初吉 躬獻于庭惟謹 可謂知義 而又爲詩以示後 且命吾兩生續而和之 茲亦盛事也 又惟間者島倭荐食 凶鋒所暨 無不燬燼 而獨此殿與聖像 得全於兵火 以至今日 使守土之臣 齋潔駿奔 敬薦香火如舊 嗚呼 此豈人力之所爲也 其殆聖人威靈 雖二百年後 丹青遺像 亦能使盜賊不敢近歟 而干戈之後 金甌幸再完 于今封域無事 得致敬於祭祀 亦無非在天之靈默佑於冥冥也 嗚呼 守茲土者可無謹歟 公命以詩揭諸壁 而翼謹識其末如此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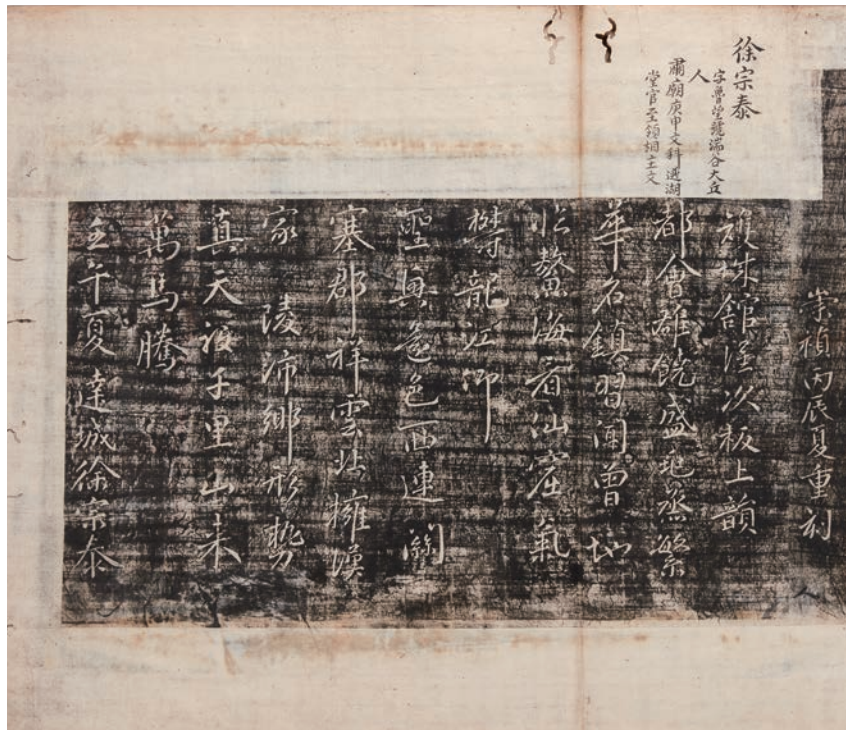
영흥(永興)은 우리 성조(聖祖)의 풍패(豐沛)가 되는 고향이니, 지금 영전(影殿)이 있는 곳이 바로 옛 터전이라고 전해진다. 임자년(1612, 광해군 4) 정월 초하룻날에 순찰사(巡察使) 한공(韓公, 한준겸)이 영전에서 제사 지낼 적에 도사(都事) 이경탁(李慶倬)과 내가 공을 수행하였다. 그런데 이 영전이 감영(監營)에서 1백 수십 리나 떨어져 있고, 또 한 지방을 총괄해서 다스리는 관찰사의 입장에서는 처리해야 할 업무가 중하고 정사가 번다한 까닭에, 예전에는 대부분의 관찰사가 직접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 이에 공이 말하기를 “예전에 관찰사 대부분이 직접 제사를 지내지 못했는데, 지금은 내가 제군(諸君)과 함께 이곳에 와서 제사를 올리게 되었으니, 시(詩)를 지어 기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고는, 율시(律詩) 한 수를 지은 다음에 경탁과 나에게 차운(次韻)하게 하였다.

내가 생각건대, 성조의 유상(遺像)이 옛 터전에 봉안되어 바로 이 도내(道內)에 있는 만큼, 이 도의 순찰사가 된 자는 세시(歲時)에 제사를 받드는 일을 감히 게을리 하지 말고 성실하게 수행해야 마땅할 텐데, 예전의 순찰사들은 대부분 직접 제사를 올리지 않았으니, 이는 참으로 선군(先君)을 받들어 모시는 신하의 도리가 아니라고 여겨졌다. 그런데 지금 공이 우리와 같은 하급 관료를 인솔하고서 새해가 처음 시작되는 때에 몸소 영전의 뜰에 나아가 오직 공손하게 제사를 올리는 정성을 바쳤으니 신하의 도리를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는 또 시를 지어 후대에 보이면서 우리 두 사람에게 이어서 화운(和韻)하라고 명하였으니, 이 또한 성대한 일이라고 하겠다.

또 생각건대, 그동안 왜적이 누차 침입하여 흉악한 갈날이 지나는 곳마다 불타는 재앙을 당하지 않은 곳이 없었는데, 유독 이 영전과 성조의 유상만은 병화(兵火)의 피해가 없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 땅을 지키는 신하들로 하여금 재계(齋戒)하여 몸을 정결히 하고 분주히 일을 주선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전처럼 향화(香火)를 올릴 수 있게 하였으니, 아, 이것이 어찌 사람의 힘만으로 가능한 일이겠는가. 아마도 성인의 위령(威靈)이 200년이 지난 뒤여까지도 단청 건물과 성조의 유상에 또한 도적들이 감히 근접할 수 없게 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국가가 재건되는 행운을 맞아 지금까지 강역이 무사한 속에서 경건하게 제사를 올릴 수 있게 된 것 역시 하늘에 계신 영령(英靈)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 말없이 보우해 주신 덕분 아닌 것이 없다고 할 것이니, 아, 이 땅을 위임받은 자들이 어찌 성실하게 행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공이 명하여 시를 벽에 걸어 놓도록 하였으므로 내가 그 끝에 이와 같이 삼가 적어 넣게 되었다.

만력 임자년(1612) 정월 그믐날에 고산도 찰방 풍양 조익
승정 병진년(1676) 여름 다시 새기다

萬曆壬子正月日 高山道察訪豐壤趙翼
崇禎丙辰夏重刻



徐宗泰 字魯望 號瑞谷 大丘人 肅廟庚申文科 選湖堂 官至領相 主文

자는 노망(魯望)이고 호는 서곡(瑞谷)이며¹⁰³⁾ 본관은 대구(大丘)이다. 숙종 경신(1680)에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독서당에 선발되었다. 관직은 영의정을 지냈으며 문장을 맡았다.

쌍성관에서 삼가 판상의 시에 차운하다.

雙城館謹次板上韻

크고 풍요로운 도회 백성이 번성한데
변화한 명진 일찍이 익숙하게 들었네
땅은 동해에 닿아 선굴을 보고
기는 용강에 막히어 성흥을 바라보네
변방의 형색 서쪽 관새군쪽으로 이어지고
상서로운 구름 북쪽으로 왕가의 능침 옹위하네¹⁰⁴⁾
패향의 형세 진실로 하늘이 낸 곳이니¹⁰⁵⁾
천리에서 만 마리의 말이 오는 승경이네

都會雄饒盛兆烝
繁華名鎮習聞曾
地臨鰲海看仙窟
氣鬱龍江仰聖興
邊色西連關塞郡
祥雲北擁漢家陵
沛鄉形勢眞天設
千里山來萬馬勝

임오년(1702) 여름 달성 서종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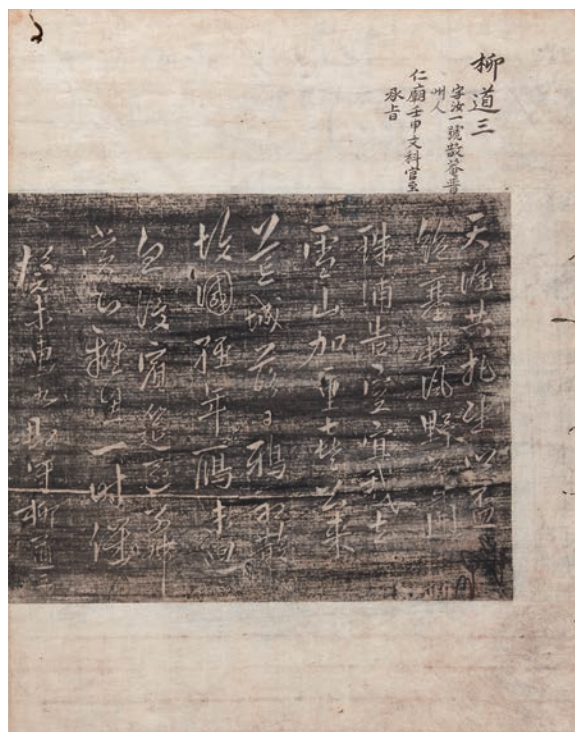
壬午夏 達城 徐宗泰

102) 서종태: 조선 후기의 문신이다. 수찬, 헌납, 집의 등 삼사(三司)의 관직에 있었다. 1689년(숙종 15) 기사환국이 일어나 남인이 득세하자 벼슬에서 물러났다. 1694년(숙종 20) 갑술환국으로 다시 노론과 소론이 정권을 잡자 대사헌·대제학·이조판서·우의정을 거쳐 영의정에 올랐다. 문집인 『만정당집』이 전한다.

103) 원문에는 ‘단곡(端谷)’으로 되어 있으나 서곡이 맞으므로 수정하였다.

104) 원문의 원문의 ‘한가(漢家)’는 한(漢)나라 왕가라는 뜻인데, 조선의 왕가를 그에 견주어 한 말이다.

105) 패향은 한 고조(漢高祖)의 고향이 패군(沛郡) 풍읍(豐邑)이었던 데서 전하여 패향은 제왕(帝王)의 발상지(發祥地) 또는 고향을 가리킨다.



柳道三字汝一號散菴 晉州人 仁廟壬申 官至承旨

자는 여일(汝一)이고 호는 산암(散菴)이며 본관은 진주(晉州)이다. 인조 임신년(1632)에 문과에 급제하였고 관직은 승지를 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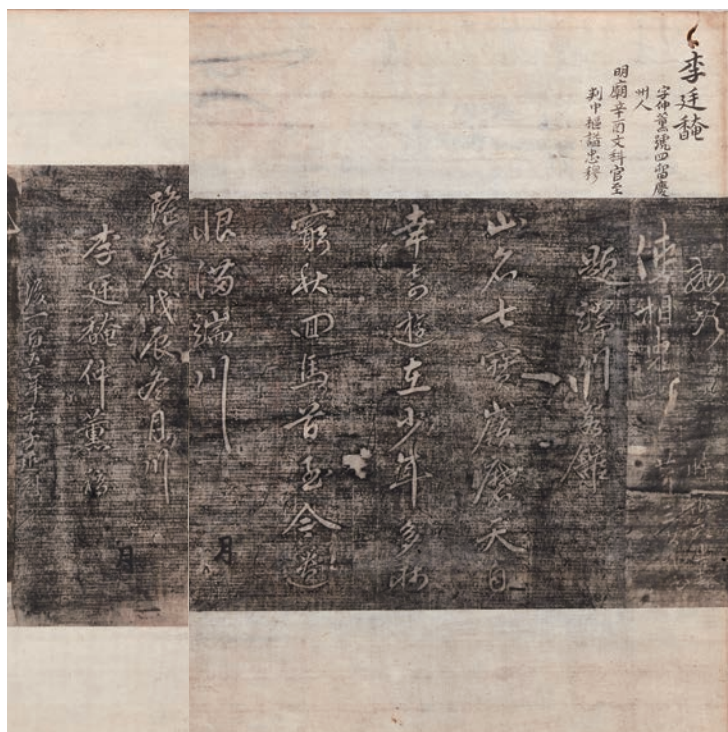
하늘가에서 고향 그리는 술잔을 함께 잡으니
변방의 가을 바람 들판의 기운 일어나네
주포는 자리가 비어 내가 감히 마땅했고
설산은 더욱 중요하여 공이 옴을 기뻐했네
해 떨어지는 쓸쓸한 성 까마귀 흩어지고
해 넘도록 고향에 기러기 돌아가지 못하네
홀연히 빈석 두어 이별자리로 돌아오니
기쁜 마음 이별의 정 한번에 일어나네

天涯共把望鄉盃
絕塞秋風野氣開
珠浦告空宜我去
雪山加重喜公來
荒城落日鴉相散
故國經年雁未迴
忽設筵還別席
賞心離思一時催

계미년(1643) 9월 9일 군수 유도삼

癸未 重九 郡守 柳道三

106) 유도삼: 조선 중기의 문신이다. 단천 군수, 사간원 정언, 동부승지, 우승지 등을 지냈다.



李廷菡 字仲薰 號四留 慶州人 明廟辛酉文科 官至判中樞 諡忠穆

자는 중훈(仲薰)이고 호는 사류(四留)이며, 본관은 경주(慶州)이다. 명종 신유(1561)에 문과에 급제하였고 관직은 판증추를 지냈다. 시호는 충목(忠穆)이다.

단천 객관에 짓다

題端川客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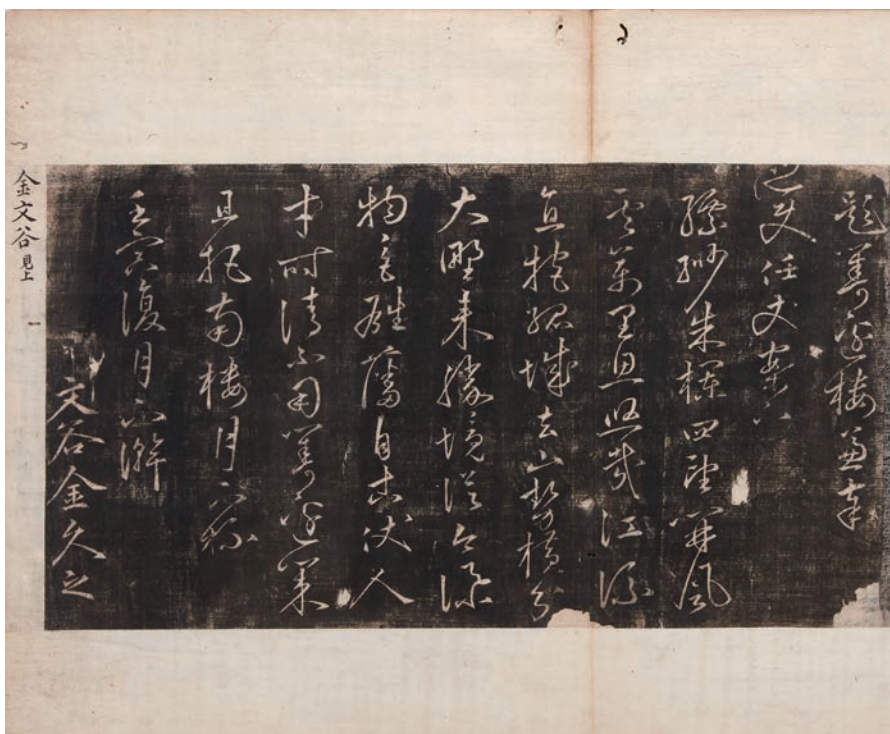
산이름은 칠보, 고개는 마천령
다행히 기이한 유람 소년에 하였네
늦가을 병들어 말머리 돌리니
지금까지 남겨진 한 단천에 가득하네

山名七寶嶺磨天
自幸奇遊在少年
多病窮秋回馬首
至今遺恨滿端川

용경 무진년(1568) 겨울 월천 중훈 이정암 쓰다.
105년 후 임자년(1673)에 추가로 각하다.

隆慶戊辰冬 月川 李廷菡 仲薰稿
後一百五年 壬子追刻

107) 이정암: 임진왜란 때 황해도 의병을 모아 활약하고, 황해도 초토사(招討使)가 되어 연안에서 포위된 왜군 3,000여 명을 격파하였다. 선무공신(宣武功臣) 2등으로 월천부원군에 추봉되었고, 좌의정에 추증되었다.



金文谷 見上

김수항[김문곡] 앞에서 보인다.

주변루에서 짓고 겸하여 순사 임어르신께 보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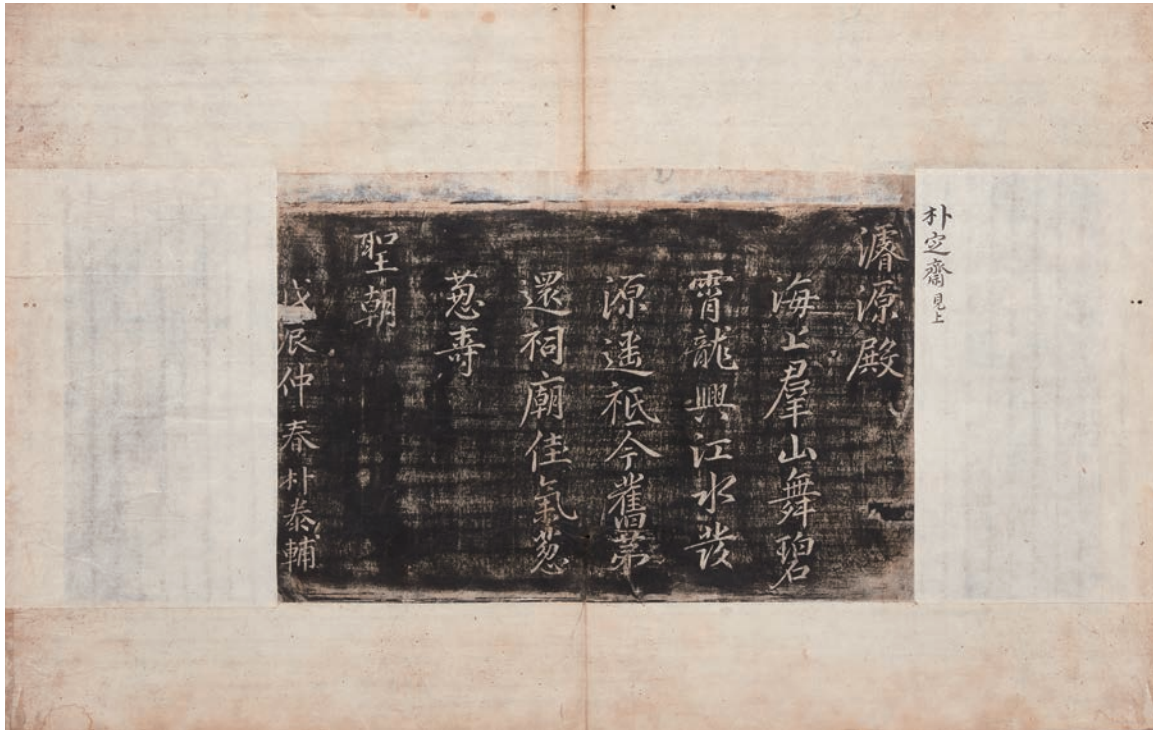
題籌邊樓 兼奉巡使任丈案下

아스라한 붉은 난간 사방으로 트이고
만리에 바람과 구름 생각이 유구하네
강은 외로운 성을 싸고 돌아가고
산세는 큰 평야를 나누어
승경은 지금부터 물색 더하고
웅변은 예부터 인재를 숨겨두었네
안정된 시대 주변책을 쓰지 않으니
남루에서 달빛 아래 술잔을 들어야겠네

縹緲朱欄四望開
風雲萬里思悠哉
江流直抱孤城去
山勢橫分大野來
勝境從今添物色
雄藩自古伏人才
時清不用籌邊策
且抱南樓月下杯

임인년(1662) 11월 하순 문곡 김구지

壬寅 復月 下澣 文谷 金久之



朴定齋 見上

박정재[박태보] 앞에 보인다.

준원전

濬源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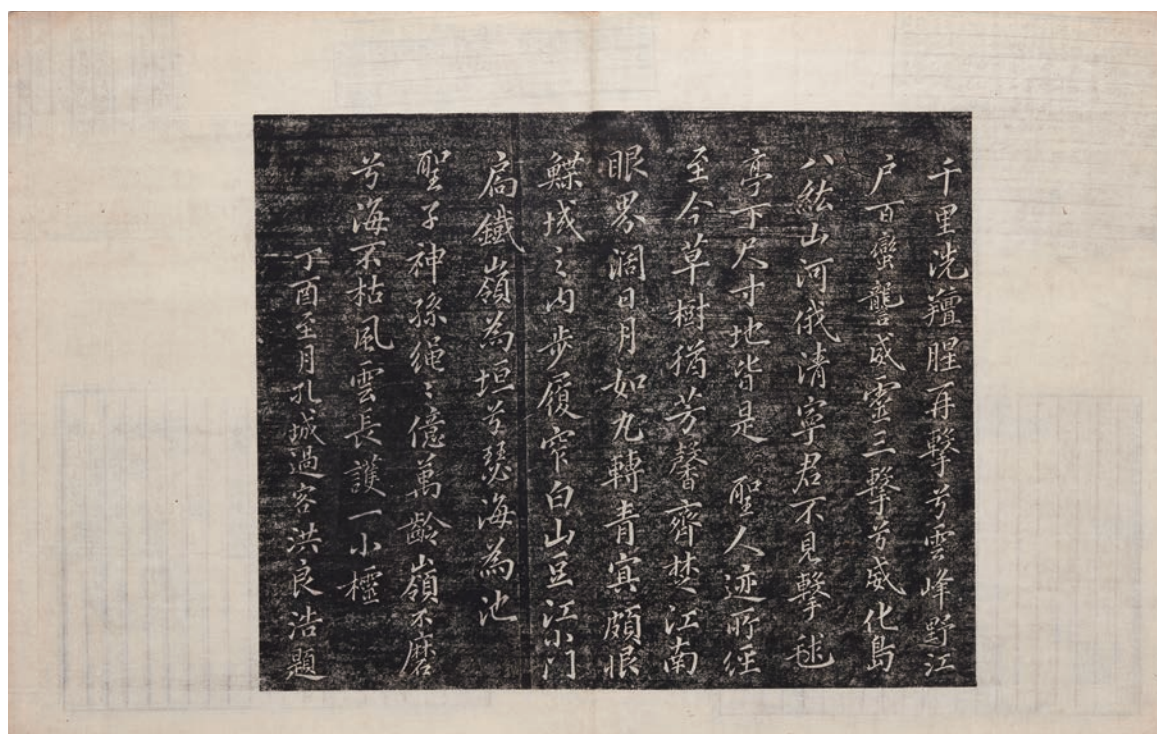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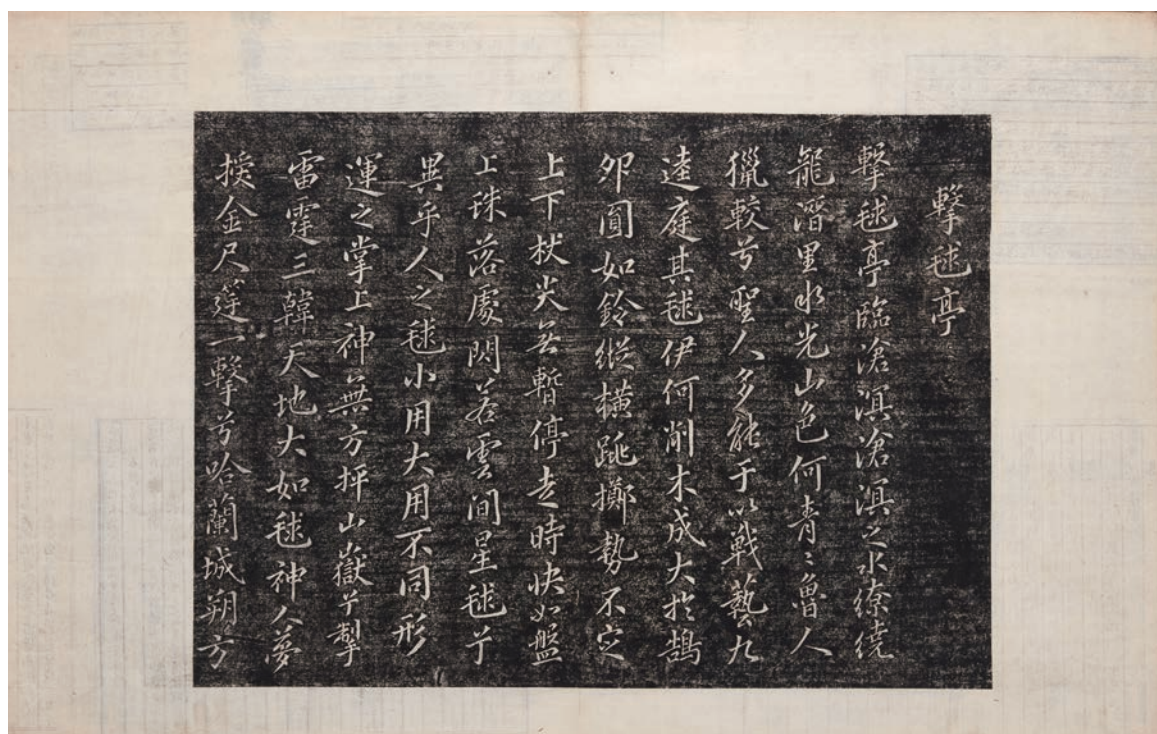
바다 위의 많은 산 푸른 하늘 위에서 춤추고
용흥강물 발원지는 머네
지금 옛집은 원묘로 돌아오니
아름다운 기운 오래된 성조를 감싸네

海上羣山舞碧霄
龍興江水發源遙
紙今舊第還原廟
佳氣苾苾壽聖朝

무진년(1688) 중춘 박태보

戊辰仲春 朴泰輔

108) 박태보: 조선후기의 문신으로, 사간원 정언, 파주목사 등을 역임하였다. 기사환국 때 인현왕후의 폐위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유배 가는 길에 죽었다.



격구정¹⁰⁹⁾

擊毬亭

격구정은

擊毬亭

푸른 바다에 임해 있네

臨滄溟

푸른 바닷물이 용잠리¹¹⁰⁾ 휘감아 도니

滄溟之水繚繞龍潛里

물빛과 산색은 어찌 저리 푸르른가

水光山色何青青

노나라 사람이 엽각함이어 성인은 잘하시는 일 많으니¹¹¹⁾

魯人獵較兮聖人多能

이에 대로(大路)의 뜰¹¹²⁾에서 기예를 겨루셨네

于以戰藝九逵庭

그 공은 어떠한가 나무 깎아 만들었나니

其毬伊何削木成

고니 알보다 크고 방울처럼 둥글도다

大於鵠卵圓如鈴

종횡무진 날고뛴에 승부 가름나지 않으니

縱橫跳擲勢不定

뽕족한 장시(杖匙)¹¹³⁾ 오르내리며 잠시도 멈추지 않네

上下杖尖無暫停

말 달릴 적엔 빠르기가 소반 위 구슬 같고

走時快如盤上珠

공 떨어질 때 번쩍임은 구름 사이 유성인 듯

落處閃若雲間星

남들의 격구공과는 공이 다르니

毬兮異乎人之毬

보통 사람과 위대한 사람 쓰는 공 모양 같지 않아라¹¹⁴⁾

小用大用不同形

손바닥에서 가지고 노는 듯 신묘하기 짝이 없으니¹¹⁵⁾

運之掌上神無方

산악을 때려 치고 우리가 번쩍이는 듯하네

抨山嶽兮掣雷霆

삼한 천지는 커다란 공과 같으니

三韓天地大如毬

신인이 현몽하여 금척 채 주었도다¹¹⁶⁾

神人夢授金尺筵

109) 이 시는 이성계가 격구를 했던 곳으로 전해지는 장소에 세워진 함흥의 격구정에서 읊은 시이다. 홍양호는 격구정의 풍광과 함께 이성계가 잡저 시절 보여준 신기에 가까운 격구 솜씨를 읊은 후에 이것을 이성계의 무용(武勇)에 연결시켜 왕조를 창업한 성인(聖人)으로서의 모습으로 형상화하였다.

110) 용잠리는 용이 잠복해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태조 이성계가 임금이 되기 전에 잡저 시절을 비유했던 말이다.

111) 노나라 ~ 많으니: 격구는 고귀한 일에 속하지는 않지만 원래 성인이 미천할 때에는 자질구레한 일도 잘하는 것이 많고, 예에 벗어나더라도 그 나라의 풍속을 따르는 경우가 있듯이 이성계 역시 고려의 풍속을 따라 격구를 잘했다는 뜻이다.

112) 대로의 뜰은 원문의 구구(九逵)가 사통팔달의 대로를 가리키는 데에서 쓴 말이다.

113) 장시(杖匙): 격구할 때 공을 낚아채기 위한 봉이다.

114) 남들의 ~ 않아라: 격구에서 보통 사용하는 공의 크기는 1자 3치이다. 그런데 『용비어천가』 권6에, “태조대왕이 항상 목구(木毬)를 만들었는데 크기가 배(梨)만 하였다.”라고 하였다. 이성계의 비범함을 표현한 것이다.

115) 손바닥에서 ~ 없으니: 이성계의 격구 솜씨가 신기에 가까웠다는 말이다. 『용비어천가』에, 이성계가 격구하는 모습을 묘사하고서 “온 나라 사람들이 놀라면서 전고에 들어온 바 없는 솜씨라 하였다.”라고 하였다.

116) 삼한 천지는 ~ 주었도다: 이성계가 아직 즉위하지 않았을 때 꿈에 신인이 나타나 금척을 주면서 “시중 경복흥은 청렴하기는 하나 이미 늙었으며, 도통 최영은 강직하기는 하나 조금 고지식하다. 이것을 가지고 나라를 바로잡을 사람은 공이 아니고 누구이겠는가”라고 한 일이 있다. 즉 삼한을 격구공에 비유하고 신인이 준 금척을 격구채에 비유하여 이성계가 삼한을 소유함을 나타낸 것이다.

처음 졌어라 합란성¹¹⁷⁾
 삭방 천 리에 오랑캐 누린내 씻기누나
 두 번째 졌어라 운봉 들판¹¹⁸⁾
 수많은 왜구들 위령에 벌벌 떠누나
 세 번째 졌어라 위화도
 천하의 산하가 갑자기 태평해지네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격구정 아래 좁은 땅이
 그 모두 성인의 발자취 지나신 곳임을
 지금도 초목은 여전히 향기롭네
 제나라 초나라 강남까지 시야 탁 트이고
 탄환 같은 해와 달 창천(蒼天)을 주행하지만
 못내 한스러워라 접역¹¹⁹⁾ 안에 발걸음 묶이니
 백두산과 두만강 작은 빗장 되었네
 철령을 담을 삼고 슬해¹²⁰⁾를 못을 삼아
 성자신손 억만년토록 번성하리라
 고개는 닳지 않고 바다 마르지 않으니
 풍운은 오래도록 작은 이 정자 보호하리

一擊兮哈蘭城
 朔方千里洗羶腥
 再擊兮雲峰野
 江戶百蠻讐威靈
 三擊兮威化島
 八紘山河俄清寧
 君不見擊毬亭下尺寸地
 皆是聖人迹所經
 至今草樹猶芳馨
 齊楚江南眼界濶
 日月如丸轉青冥
 頗恨鰈域之內步履窄
 白山豆江小門扃
 鐵嶺爲垣兮瑟海爲池
 聖子神孫繩繩億萬齡
 嶺不磨兮海不枯
 風雲長護一小櫺

정유년(1777) 11월 공성 과객 홍양호 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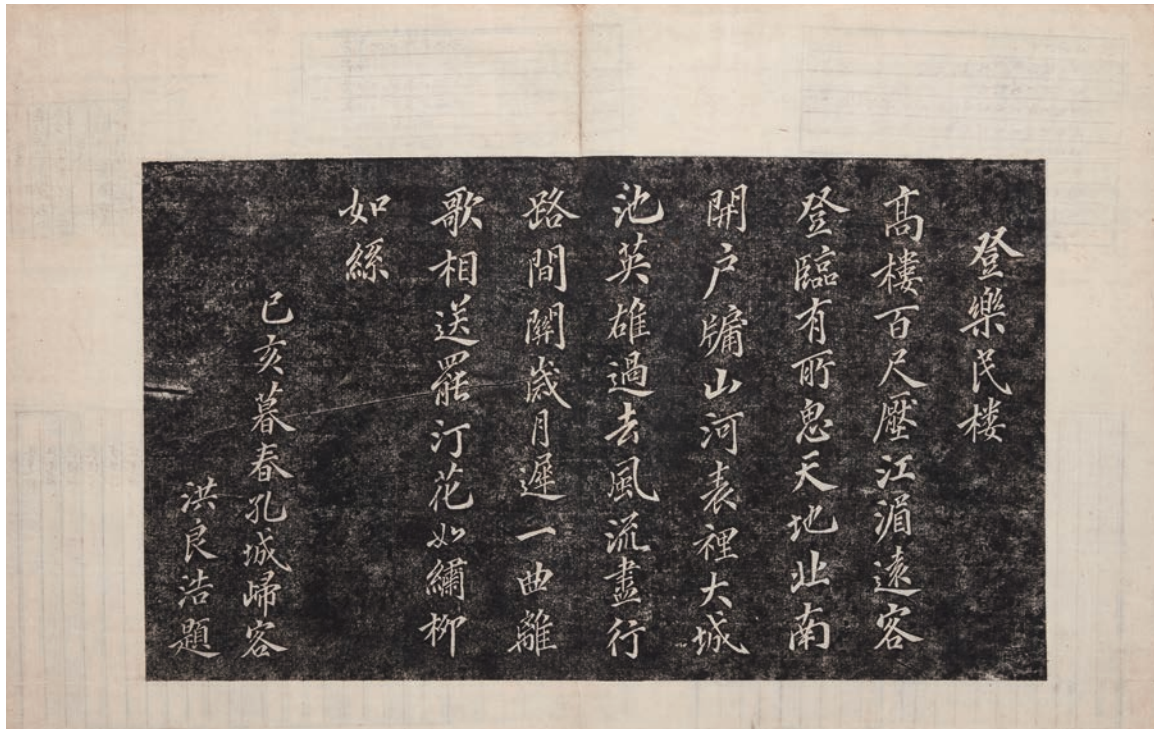
丁酉至月 孔城過客 洪良浩題

117) 합란성은 함흥의 옛 이름이다.

118) 운봉 들판은 1380(우왕 6)에 이성계가 전라도 지리산 부근에서 승리를 거둔 황산대첩이 벌어진 장소이다.

119) 접역(鰈域)은 가자미가 사는 중국 동쪽의 조선을 말한다.

120) 슬해(瑟海)는 함경도 경흥(慶興)에 접해 있는 바다를 말한다.

낙민루에 오르다¹²²⁾

登樂民樓

백 척 높은 누각이 강가에 우뚝 솟았는데
멀리서 온 손 누각 올라 생각에 잠기네
천지 남북으로 창호 열렸고
산하 안팎으로 성지 크네
영웅은 간데없이 풍류는 다하고
이리저리 떠도니 세월 더디네
한 곡조 이별노래로 전송 끝내니
물가 꽃은 수놓은 듯 버들은 실 가닥인 듯

高樓百尺壓江湄
遠客登臨有所思
天地北南開戶牖
山河表裏大城池
英雄過去風流盡
行路間關歲月遲
一曲離歌相送罷
汀花如繡柳如絲

기해년(1779) 모춘 공성귀객 홍양호 짓다.

己亥暮春 孔城歸客 洪良浩題

121) 낙민루(樂民樓): 함흥에 있는 누각 이름으로, 선조 때 낙서(洛西) 장만(張晩)이 세웠다.

122) 홍양호가 경흥부사에서 해임되고 나서 도성으로 귀환하는 길에 함흥의 낙민루에 들러서 지은 시이다.

역사자료총서21 청구제영(靑丘題詠)

부록

부록 일러두기

1. 이 목록은 『청구제영』 7첩의 목록이다.
2. 중복되거나 미상인 탁본 모두 목록에 넣었다.
3. 『청구제영』의 인물정보가 오류인 것은 수정하여 실었다.
4. 건물명은 소재 지역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경우에 지역을 함께 적었다. 지역이나 건물명만 있는 경우는 시나 문집에서 드러나는 정보이다.
5. 이번 역사자료총서의 편집 체제에 따라 현재 행정구역을 도별로 기입하여 해당 탁본을 찾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1. 『청구제영』 1첩 경도(京都) 기전(畿甸) 관동(關東) 해서(海西)

순번	성명	건물명	지역	기타
1	공용경(龔用卿, 1500~1563)	성균관 명륜당	서울	명나라 사신
2	주지번(朱之蕃, 1546~1624)	성균관 명륜당	서울	명나라 사신
3	박팽년(朴彭年, 1417~1456)	비해당	서울	
4	이색(李穡, 1328~1396)	강화 진해루	경기도	
5	이안눌(李安訥, 1571~1637)	강화 진해루	경기도	
6	이민서(李敏叙, 1633~1688)	강화 세심재	경기도	
7	김창협(金昌協, 1651~1708)	강화 세심재	경기도	
8	김창흠(金昌翕, 1653~1722)	강화 세심재	경기도	
9	권필(權緯, 1569~1612)	강화 백련사	경기도	
10	권적(權嫡, 1626~1679)	강화 백련사	경기도	
11	홍중성(洪重聖, 1668~1735)	강화 연미정	경기도	
12	홍중성(洪重聖, 1668~1735)	강화 전등사	경기도	
13	정몽주(鄭夢周, 1337~1392)	여주 청심루	경기도	
14	이색(李穡, 1328~1396)	여주 청심루	경기도	
15	서거정(徐居正, 1420~1488)	여주 청심루	경기도	
16	김종직(金宗直, 1431~1492)	여주 청심루	경기도	
17	박은(朴淵, 1479~1504)	여주 청심루	경기도	
18	노수신(盧守愼, 1515~1590)	여주 청심루	경기도	
19	이경전(李慶全, 1567~1644)	여주 청심루	경기도	
20	황호(黃床, 1604~1656)	여주 청심루	경기도	
21	정두경(鄭斗卿, 1597~1673)	여주 청심루	경기도	
22	김창흠(金昌翕, 1653~1722)	여주 청심루	경기도	
23	홍양호(洪良浩, 1724~1802)	파주 화석정	경기도	
24	유운(柳雲, 1485~1528)	양성현	경기도	
25	김만기(金萬基, 1633~1687)		경기도	

순번	성명	건물명	지역	기타
26	최흥효(崔興孝, 1370~1452)		경기도	
27	정두경(鄭斗卿, 1597~1673)	홍천 범파정	강원도	
28	심희수(沈喜壽, 1548~1622)	홍천 범파정	강원도	
29	이경탁(李景倬, 1572~?)	청허루	강원도	
30	장신(張紳, ?~1637)	청허루	강원도	
31	이명한(李明漢, 1595~1645)	금강산	강원도	
32	유홍(俞泓, 1524~1594)	금강산	강원도	
33	윤희길(尹希吉, 1534~?)		강원도	
34	유승선(柳承善, 1491~1549)		강원도	
35	차식(車軾, 1517~1575)	통천 총석정	강원도	
36	이정형(李廷馨, 1549~1607)	통천 총석정	강원도	
37	이명한(李明漢, 1595~1645)	통천 이은당	강원도	
38	한응인(韓應寅, 1554~1614)	통천 청허각	강원도	
39	김세렴(金世濂, 1593~1646)	통천 연정	강원도	
40	안윤덕(安潤德, 1457~1535)		평안도	
41	이은상(李殷相, 1617~1678)	통천 청허당	강원도	
42	황윤길(黃允吉, 1536~?)	통천 청허당	강원도	
43	임억령(林億齡, 1496~1568)	통천 총석정	강원도	
44	조위(曹偉, 1454~1503)	홍주	충청도	
45	이명한(李明漢, 1595~1645)	금강산	강원도	
46	정창도(丁昌燾, 1623~1687)	금강산	강원도	
47	신점(申點, 1530~1601)	총석정	강원도	
48	오도일(吳道一, 1645~1703)	총석정	강원도	
49	오도일(吳道一, 1645~1703)	통천 환선정	강원도	
50	미상	서악사	강원도	
51	박이창(朴以昌, ?~1451)	풍천 영취루	황해도	
52	박로(朴 竹+魯, 1584~1643)	풍천 영취루	황해도	
53	이옥(李沃, ?~1409)	숙천 소설당	평안도	
54	김세렴(金世濂, 1593~1646)	숙천 소설당	평안도	
55	박태보(朴泰輔, 1654~1689)	춘천 소양정	강원도	
56	오준(吳竣, 1587~1666)	숙천 소설당	평안도	
57	이민서(李敏敍, 1633~1688)	풍천 영취루	황해도	
58	정난종(鄭蘭宗, 1433~1489)	풍천도호부 망원루	황해도	
59	민효환(閔孝權, ?~?)	풍천 영취루	황해도	
60	김명원(金命元, 1534~1602)		강원도	
61	임서(林悞, 1570~1624)	풍천 영취루	황해도	
62	아극돈(阿克敦, 1685~1756)	황주 태허루	황해도	청나라 사신
63	장정매(張廷枚)	황주 태허루	황해도	청나라 사신
64	미상	황주 태허루	황해도	

부록	순번	성명	건물명	지역	기타
	65	종음(鐘音)	황주 태허루	황해도	청나라 사신
	66	오달선(吳達善, ?~1771)	황주 태허루	황해도	청나라 사신
	67	심준(沈埈, 1674~?)		강원도	
	68	김진상(金鎭商, 1684~1755)	황주 태허루	황해도	
	69	홍중효(洪重孝, 1708~1772)	황주 월파루	황해도	
	70	서종옥(徐宗玉, 1688~1745)	황주 월파루	황해도	
	71	오광운(吳光運, 1689~1745)	황주 월파루	황해도	
	72	유엄(柳儼, 1692~1752)	황주 월파루	황해도	
	73	조명정(趙明鼎, 1709~1779)	황주 월파루	황해도	
	74	송수(崇壽, ?~1755)	영파루	황해도	청나라 사신
	75	이경식(李景奭, 1595~1671)	서흥군 객관	황해도	
	76	이경식(李景奭, 1595~1671)	서흥군 객관	황해도	
	77	조태억(趙泰億, 1675~1728)	서흥군 용천관	황해도	
	78	오수원(吳遂元, 1682~?)	익손당	황해도	
	79	심준(沈埈, 1674~?)	익손당	황해도	
	80	송성명(1674~1740)	익손당	황해도	

2. 『청구제영』 2집 해서(海西)

순번	성명	건물명	지역	기타
1	이이(李珥, 1536~1584)	해주 부용당	황해도	
2	이이(李珥, 1536~1584)	해주 부용당	황해도	
3	이우(李瑀, 1542~1609)	해주 부용당	황해도	
4	정현(鄭顯, 1526~?)	해주 부용당	황해도	
5	신응시(辛應時, 1532~1585)	해주 부용당	황해도	
6	신응시(辛應時, 1532~1585)	해주 부용당	황해도	
7	김성일(金誠一, 1538~1593)	해주 부용당	황해도	
8	임담(林潭, 1596~1652)	해주 부용당	황해도	
9	이덕영(李德英, 1659~1721)	해주 탁열정	황해도	
10	임서(林惺, 1570~1624)	해주 은병정사와 부용당	황해도	
11	오숙(吳翮, 1592~1634)	해주 부용당	황해도	
12	이천보(李天輔, 1698~1761)	해주 부용당	황해도	
13	이천보(李天輔, 1698~1761)	해주 부용당	황해도	
14	이천보(李天輔, 1698~1761)	해주 부용당	황해도	관찰사
15	이천보(李天輔, 1698~1761)	해주 부용당	황해도	
16	이천보(李天輔, 1698~1761)	해주 부용당	황해도	
17	이천보(李天輔, 1698~1761)	해주 부용당	황해도	관찰사
18	이천보(李天輔, 1698~1761)	해주 장대(공해대)	황해도	관찰사
19	이천보(李天輔, 1698~1761)	해주 탁열정	황해도	

순번	성명	건물명	지역	기타
20	황경원(黃景源, 1709~1787)	해주 공해대	황해도	
21	조명채(曹命采, 1700~1764)	해주 부용당	황해도	
22	이기진(李箕鎭, 1687~1755)	해주 부용당	황해도	
23	조명정(趙明鼎, 1709~1779)	해주 부용당	황해도	
24	조명정(趙明鼎, 1709~1779)	해주 천림각	황해도	관찰사
25	조명정(趙明鼎, 1709~1779)	해주 부용당	황해도	
26	조명정(趙明鼎, 1709~1779)	해주 부용당	황해도	
27	조명정(趙明鼎, 1709~1779)	해주 공해대	황해도	
28	조명정(趙明鼎, 1709~1779)	해주 공해대	황해도	관찰사
29	조명정(趙明鼎, 1709~1779)	해주 탁열정	황해도	
30	조명정(趙明鼎, 1709~1779)	해주 병암	황해도	관찰사
31	엄우(嚴尤, 1704~?)	해주 부용당	황해도	
32	엄우(嚴尤, 1704~?)	해주 익청각	황해도	
33	심발(沈發, 1711~?)	해주 탁열정	황해도	
34	임서(林愾, 1570~1624)	배천 취경루	황해도	순찰사
35	이덕형(李德炯, 1566~1645)	해주 탁열정	황해도	관찰사
36	황호(黃床, 1604~1656)	배천 취경루	황해도	연안부사
37	조사수(趙士秀, 1502~1558)	안악 이요루	황해도	관찰사
38	이세인(李世仁, 1452~1516)	안악 이요루	황해도	
39	이손(李蓀, 1439~1520)	안악 이요루	황해도	관찰사
40	김세렴(金世濂, 1593~1646)	안악 객사	황해도	관찰사
41	민휘(閔暉, ?~?)	안악 이요루	황해도	관찰사
42	민수천(閔壽千, ?~1530)	안악 이요루	황해도	관찰사
43	정문형(鄭文炯, 1427~1501)	안악 이요루	황해도	감사
44	윤탕(尹宕, ?~?)	안악 이요루	황해도	
45	윤봉소(尹鳳韶, 1678~?)	안악 이요루	황해도	
46	윤봉조(尹鳳朝, 1680~1761)	안악 이요루	황해도	
47	홍양호(洪良浩, 1724~1802)	안악	황해도	관찰사
48	홍양호(洪良浩, 1724~1802)	안악	황해도	
49	홍양호(洪良浩, 1724~1802)	안악	황해도	
50	홍양호(洪良浩, 1724~1802)	안악	황해도	도어사
51	홍양호(洪良浩, 1724~1802)	안악	황해도	
52	홍양호(洪良浩, 1724~1802)	안악	황해도	
53	홍양호(洪良浩, 1724~1802)	안악	황해도	지군사
54	임정(任廷, 1694~1750)	해주 공해대	황해도	
55	이진망(李眞望, 1672~1737)	웅진 수영	황해도	관찰사
56	이천보(李天輔, 1698~1761)	웅진 수영	황해도	관찰사
57	조명정(趙明鼎, 1709~1779)	웅진 세검루	황해도	관찰사
58	서명응(徐命膺, 1716~1787)	웅진 세검루	황해도	관찰사

부록	순번	성명	건물명	지역	기타
	59	신응시(辛應時, 1532~1585)	배천 강서사	황해도	
	60	오숙(吳翮, 1592~1634)	배천 강서사	황해도	관찰사
	61	조희진(趙希進, 1579~1644)	배천 강서사	황해도	도사
	62	이상급(李尙伋, 1571~1637)	배천 강서사	황해도	연안부사
	63	황호(黃床, 1604~1656)	배천 강서사	황해도	배천군수
	64	오핵(吳翮, 1615~1653)	배천 강서사	황해도	
	65	이이(李珥, 1536~1584)	장연 금사사 백사정	황해도	
	66	이명한(李明漢, 1595~1645)	장연 금사사	황해도	
	67	양만고(楊萬古, 1574~1655)	장연 금사사	황해도	부사
	68	이천보(李天輔, 1698~1761)	장연 금사사 사봉	황해도	관찰사
	69	박사해(朴師海, 1711~1778)	장연 금사사	황해도	

3. 『청구제영』 3첩 호서(湖西)

순번	성명	건물명	지역	기타
1	이인(李詵, 1527~?)		충청도	관찰사
2	박호원(朴好元, 1527~?)	가오대	충청도	관찰사
3	이영성(李永成, ?~1543)	지반헌	충청도	
4	심수경(沈守慶, 1516~1599)	강각	충청도	관찰사
5	이승소(李承召, 1422~1484)	청주, 동장	충청도	
6	유전(柳埏, 1531~1589)		충청도	관찰사
7	홍춘경(洪春卿, 1497~1548)	고란사	충청도	
8	서익(徐益, 1542~1587)	부여	충청도	
9	송인(宋寅, 1517~1584)	망선대	충청도	
10	이춘영(李春英, 1563~1606)	영보정	충청도	
11	안위(安瑋, 1498~1563)		충청도	관찰사
12	박은(朴闇, 1479~1504)	영보정	충청도	
13	조중○(趙重○)	미상	충청도	
14	백광훈(白光勳, 1537~1582)	부여	충청도	
15	이순인(李純仁, 1533~1592)	부여	충청도	
16	이경전(李慶全, 1567~1644)	견사정	충청도	
17	송겸(宋謙, ?~?)	동헌(홍주)	충청도	관찰사
18	이식(李植, 1584~1647)	청은당, 원우정	충청도	
19	김정국(金正國, 1485~1541)		충청도	감사
20	김대덕(金大德, 1577~1639)		충청도	
21	이성중(李成中, 1539~1593)	감고루	충청도	
22	황일호(黃一皓, 1588~1641)		충청도	
23	이곡(李穀, 1298~1351)	부여	충청도	
24	최숙생(崔淑生, 1457~1520)	영월대	충청도	부여

순번	성명	건물명	지역	기타
25	이승소(李承召, 1422~1484)	부여	충청도	
26	김홍욱(金弘郁, 1602~1654)	영보정	충청도	
27	안헌징(安獻徵, 1600~1674)		충청도	추고경차관
28	미상	영보정	충청도	
29	여우길(呂祐吉, 1567~1632)	영보정	충청도	관찰사
30	남수문(南秀文, 1408~1442)	태안 객사	충청도	
31	홍수주(洪受疇, 1642~1704)	반월루	충청도	
32	권필(權驍, 1569~1612)	부석헌	충청도	
33	임도삼(任道三, 1647~?)	고란사	충청도	
34	이증(李增, 1525~1600)		충청도	관찰사
35	신익성(申翊聖, 1588~1644)		충청도	
36	이담(李湛, 1652~1716)	영보정	충청도	관찰사
37	이호민(李好閔, 1553~1634)		충청도	
38	박호원(朴好元, 1527~?)		충청도	관찰사
39	권해(權楷, 1639~1704)		충청도	관찰사
40	심정원(沈貞源, ?~?)		충청도	행 영해부사
41	장만(張晩, 1566~1629)	영보정	충청도	검사도도체찰부사

4. 『청구제영』 4첩 영남(嶺南)

순번	성명	건물명	지역	기타
1	강희맹(姜希孟, 1424~1483) 조준(趙浚, 1346~1405) 민사평(閔思平, 1295~1359) 정이오(鄭以吾, 1347~1434)	합천 함벽루	경상도	
2	김성일(金誠一, 1538~1593)	의성 동헌	경상도	
3	조형(趙珩, 1606~1679))	의성 문소관	경상도	
4	유창(兪場, 1614~1690)	의성 문소관	경상도	
5	조희일(趙希一, 1575~1638)	의성 문소루	경상도	순찰사
6	홍중정(洪重鼎, 1649~?)	의성 문소관	경상도	접위관
7	유훈(柳埴, 1524~?)	안동 동헌	경상도	관찰사
8	송영구(宋英耆, 1556~1620)	안동 동헌	경상도	순찰사
9	정몽주(鄭夢周, 1337~1392)	안동 영호루	경상도	
10	정몽주(鄭夢周, 1337~1392)	의성 문소루	경상도	
11	권근(權近, 1352~1409)	안동 영호루	경상도	
12	이사균(李思鈞, 1471~1536))	흥해 객사	경상도	
13	강유(姜瑜, 1597~1668)	함종 척서루	평안도	
14	김홍욱(金弘郁, 1602~1654)	안동 안기역	경상도	홍문관 수찬
15	홍담(洪曇, 1509~1576)	안동 동헌	경상도	

부록	순번	성명	건물명	지역	기타
	16	이의신(李義臣, ?~?)	안동 동헌	경상도	도사
	17	이복(李馥, ?~?)	동래 물운대	경상도	
	18	성현(成俔, 1439~1504))	안동 영호루	경상도	
	19	이항(李滉, 1501~1570)	영천 신녕 죽각	경상도	
	20	이사균(李思鈞, 1471~1536)	안동 귀래정	경상도	
	21	김방경(金方慶, 1212~1300)	안동 영호루	경상도	
	22	김흔(金忻, 1251~1309)	안동 영호루	경상도	
	23	이양원(李陽元, 1526~1592)	안동 동헌	경상도	
	24	김종직(金宗直, 1431~1492)	안동 영호루	경상도	
	25	남이공(南以恭, 1565~1640)	진주 축석루	경상도	
	26	김수현(金壽賢, 1556~1653)	청주 객관	충청도	청주 목사
	27	윤탁연(尹卓然, 1538~1594)	흥해 객사	경상도	관찰사
	28	홍성민(洪聖民, 1536~1594)	안동 동헌	경상도	승정대부 겸 관찰사
	29	홍명구(洪命耆, 1596~1637)	안동 동헌	경상도	안동부사
	30	맹주서(孟胄瑞, 1622~?)	안동 영호루	경상도	
	31	이청(李清, 1483~1549)	안동 동헌	경상도	관찰사
	32	이준(李埈, 1560~1635)	안동 망호루	경상도	
	33	노경린(盧慶麟, 1561~1568))	안동 동헌	경상도	
	34	김경언(金慶言, ?~?)	안동 동헌	경상도	
	35	정사룡(鄭士龍, 1491~1570)	흥해 객사	경상도	
	36	채소권(蔡紹權, 1480~1548)	흥해 객사	경상도	
	37	유승선(柳承善, ?~?)	안동 동헌	경상도	예조 좌랑
	38	김지대(金之岱, 1190~1266)	의성 문소루	경상도	
	39	홍만조(洪萬朝, 1645~1725)	안동 영호루	경상도	
	40	이경전(李慶全, 1567~1644)	서울 세심정	서울	도순찰사
	41	조존세(趙存世, 1562~?)	안동 애련당	경상도	
	42	양문(梁文, ?~?)	안동 동헌	경상도	
	43	이석형(李石亨, 1415~1477)	안동 영호루	경상도	
	44	최진방(崔鎭邦, ?~?)	안동 애련당	경상도	
	45	양문(梁文, ?~?)	안동 망호루	경상도	
	46	홍윤성(洪允成, 1425~1475)	안동 동헌	경상도	
	47	신광필(申光弼, 1553~?)	함중 척서루	평안도	
	48	이언적(李彦迪, 1491~1553)	경산객관	경상도	
	49	이우(李堉, 1469~1517)	안동 애련당	경상도	
	50	이항(李滉, 1501~1570)	안동 애련당	경상도	
	51	정구(鄭逵, 1543~1620)	안동 애련당	경상도	

순번	성명	건물명	지역	기타
52	이종성(李宗城, 1692~1759) 요천(姚遷, ?~?) 유승종(俞承宗, ?~?) 담경승(譚敬承, ?~?) 설민(雪敏, ?~?)	합천 해인사	경상도	
53	이민구(李敏求, 1589~1670))	안동 망호루	경상도	
54	이육(李陸, 1438~149)	안동 동헌	경상도	
55	김상용(金尙容, 1561~1637)	신녕 환벽정	경상도	
56	박효수(朴孝修, ?~1337)	청하 객관	경상도	
57	정사룡(鄭士龍, 1491~1570)	청하 동헌	경상도	
58	김시습(金時習, 1435~1493)	경주 불국사	경상도	
59	이식(李植, 1463~1502)	안동 안기역	경상도	
60	이현석(李玄錫, 1647~1703)	안동 영호루	경상도	
61	이계맹(李繼孟, 1458~1523)		경상도	
62	정수강(丁壽崗, 1454~1527)	안동 귀래정	경상도	
63	이현보(李賢輔, 1467~1555)	안동 영호루	경상도	
64	이현석(李玄錫, 1647~1703)	안동 영호루	경상도	
65	정희번(鄭姬藩, 1543~?)	흥해 객사	경상도	
66	이익한(李翊漢, 1609~1668)	제주 서귀포	제주도	
67	이청(李清, 1483~1549)	청하 동헌	경상도	관찰사
68	홍성민(洪聖民, 1536~1594)	경주	경상도	검관찰사
69	오숙(吳翮, 1592~1634)	단성객사	경상도	관찰사

5. 「청구제영」 5첩 호남(湖南)

순번	성명	건물명	지역	기타
1	황근중(黃謹中, 1560~1633)	광산 경양역	전라도	검순찰사
2	송순(宋純, 1493~1582)	곡성 동헌	전라도	관찰사
3	정온(鄭蘊, 1569~1641)	대정현 동각	제주도	
4	전극항(全克恒, 1590~1636)	광주 풍영정	전라도	
5	장유(張維, 1587~1638)	화순 협선루	전라도	
6	이용진(李用晉, 1575~1624)	화순 협선루	전라도	
7	이숙감(李淑臧, ?~?)	영암군 객관	전라도	
8	이경의(李景義, 1590~1640)	영암군 객관	전라도	의정부사
9	이성구(李聖求, 1584~1644)	광주 풍양정	전라도	검순찰사
10	한준겸(韓浚謙, 1557~1627)	화순 협선루	전라도	관찰사
11	고용후(高用厚, 1577~?)	화순 협선루	전라도	
12	조정(趙靖, 1555~1636)	화순 협선루	전라도	김제군수
13	홍천경(洪千璟, 1553~1632)	해남 태평정	전라도	

부록	순번	성명	건물명	지역	기타
	14	양응정(梁應鼎, 1519~1581)	해남 태평정	전라도	절도사
	15	기대승(奇大升, 1527~1572)	광주 풍영정	전라도	
	16	고경명(高敬命, 1533~1592)	광주 풍영정	전라도	
	17	김종직(金宗直, 1431~1492)	용안	전라도	관찰사
	18	김수항(金壽恒, 1629~1689)	도갑사	전라도	
	19	신익전(申翊全, 1605~1660)	광주 풍영정	전라도	
	20	임석천(林石川, 1496~1568)	영암의 양취루	전라도	
	21	이륙(李陸, 1438~1498)	미상	전라도	
	22	김길통(金吉通, 1408~1473)	영암 양취루 동헌	전라도	도관찰사
	23	김인후(金麟厚, 1510~1560)	광주 풍영정	전라도	
	24	전극항(全克恒, 1590~1636)	영암 양취루	전라도	
	25	성임(成任, 1412~1484)	순창 관정루	전라도	
	26	조우인(曹友仁, 1561~1625)	미상	전라도	
	27	김종직(金宗直, 1431~1492) 이이(李珥, 1536~1584)	안심사 적설루	전라도	
	28	유사원(柳思瑗, 1541~1608)	제주 대정현	제주도	경차관 교서관 교리 겸지명
	29	전식(全湜, 1563~1642)	영천 신녕 죽각	경상도	
	30	노사신(盧思愼, 1427~149)	전라도 용안현	전라도	
	31	조희일(趙希逸, 1575~1638)	광주 풍영정	전라도	
	32	신유(申濡, 1610~1665)	담양 일아정	전라도	
	33	신혼(申混, 1624~1656)	담양 일아정	전라도	
	34	홍천경(洪千璟, 1553~1632)	미상	전라도	선유사
	35	양경우(梁慶遇, 1568~)	광주 풍영정	전라도	
	36	윤방(尹昉, 1563~1640)	영천 신녕 죽각	경상도	
	37	오윤겸(吳允謙, 1559~1636)	영천 신녕 죽각	경상도	
	38	송흠(宋欽, 1459~1547) 송익경(宋益璟, ?~?)	광주 풍영정	전라도	
	39	정룡(程龍, ?~?)	한성 남별궁 산우루	서울	
	40	미상	용안현	전라도	
	41	정시윤(丁時潤, 1646~1713)	화순 협선루	전라도	경차관
	42	정홍명(鄭弘溟, 1582~1650)	화순 협선루	전라도	
	43	박서(朴遜, 1602~1653)	화순 차군정	전라도	관찰사
	44	정창주(鄭昌胄, 1606~?)	광산 경양역	전라도	
	45	정시윤(丁時潤, 1646~1713)	화순 협선루	전라도	중복 탁본
	46	김시걸(金時傑, 1653~170)	미상	전라도	관찰사
	47	남용익(南龍翼, 1628~1692)	강경 팔괘정	전라도	
	48	남호곡(南壺谷)	안동 영호루	경상도	
	49	홍처량(洪處亮, 1607~1683)	광주 풍영정	전라도	
	50	김우형(金宇亨, 1616~1694)	광주 풍영정	전라도	

6. 『청구제영』 6첩 관서(關西)

순번	성명	건물명	지역	기타
1	유홍훈(劉鴻訓, 1565~1634)	평양	평안도	명나라 사신
2	서익(徐益, 1542~1587)		평안도	
3	이색(李穡, 1328~1396)	벽서루	평안도	
4	신광한(申光漢, 1484~1555)	부벽루	평안도	
5	김부식(金富弼, 1075~1151)	영명사	평안도	
6	정몽주(鄭夢周, 1337~1392)	영명루	평안도	
7	소세양(蘇世讓, 1486~1562)	부벽루	평안도	
8	이원(李龜, ?~1504)	부벽루	평안도	
9	엄흔(嚴昕, 1508~1553)	부벽루	평안도	
10	서익(徐益, 1542~1587)	대동강	평안도	
11	이달(李達, 1539~1612)	대동강	평안도	
12	이훈(李混, 1252~1312)	영명사	평안도	
13	권해(權諧, 1639~1704)	망일헌	평안도	
14	박미(朴彌, 1592~1645)	평양 일대	평안도	
15	이준민(李俊民, 1524~1590)	희천	평안도	
16	최경창(崔慶昌, 1539~1583)	부벽루	평안도	
17	임식(林植, 1539~1589)	부벽루	평안도	
18	이정형(李廷馨, 1549~1607)		평안도	
19	김영유(金永濡, 1418~1494)	객관	평안도	
20	김신국(金薰國, 1572~1657)		평안도	검순찰사
21	이양원(李陽元, 1526~1592)		평안도	
22	성세창(成世昌, 1481~1548)	용강현 관아	평안도	
23	장만(張晩, 1566~1629)	증산 관아	평안도	
24	이준민(李俊民, 1524~1590)	증산 관아	평안도	관찰사
25	성이문(成以文, 1546~1618)	척서루	평안도	
26	조중려(趙重呂, 1603~1650)	척서루	평안도	
27	이지익(李之翼, 1625~1694)	척서루	평안도	
28	조욱(趙昱, 1498~1557)		평안도	
29	송인(宋寅, 1517~1584)		평안도	
30	김구(金絿, 1488~1534)		평안도	
31	성수침(成守琛, 1493~1564)		평안도	
32	정사호(鄭賜湖, 1553~1616)		평안도	
33	변응벽(邊應壁, 1562~?)		평안도	
34	박순(朴淳, 1523~1589)		평안도	
35	전경창(全慶昌, 1532~1585)		평안도	영변판관
36	김만중(金萬重, 1637~1692)	선천	평안도	
37	미상	쾌재정	평안도	
38	민제인(閔齊仁, 1493~1549)	증산	평안도	관찰사

부록	순번	성명	건물명	지역	기타
	39	윤인서(尹仁恕, ?~?)	증산	평안도	
	40	남구만(南九萬, 1629~1711)	소쇄장	평안도	
	41	박세채(朴世采, 1631~1695)	평양 인현서원	평안도	
	42	송시열(宋時烈, 1607~1689)	연기현 연희루	평안도	
	43	민제인(閔齊仁, 1493~1549)	구성동헌	평안도	
	44	민유중(閔維重, 1630~1687)	구성동헌	평안도	
	45	김수항(金壽恒, 1629~1689)	망일헌	평안도	
	46	미상	희청헌	평안도	
	47	안익헌(安翼憲, ?~?)		평안도	행관찰사
	48	오은(梧隱)		평안도	
	49	조계상(曹繼商, 1466~1543)		평안도	
	50	김안국(金安國, 1478~1543)	용강헌	평안도	
	51	권해(權瑨, 1639~1704)		평안도	관찰사
	52	정지상(鄭知常, ?~1135)	평양	평안도	
	53	정지상(鄭知常, ?~1135)	대동강	평안도	
	54	이효원(李孝源)		평안도	
	55	장백규	쾌재정	평안도	
	56	대동서법목록			

7. 『청구제영』 7첩 관북(關北)

순번	성명	건물명	지역	기타
1	이제신(李濟臣, 1536~1584)	강계 동헌	평안도	절도사
2	조문수(曹文秀, 1590~1647)	영흥 연당	함경도	
3	김상헌(金尙憲, 1570~1652)	명천 칠보산	함경도	
4	한준겸(韓浚謙, 1557~1627)	삼수 적생역 적승관	함경도	
5	황호(黃床, 1604~1656)	경성	함경도	경성판관
6	박태상(朴泰尙, 1636~1696)	영흥 준원전	함경도	관찰사
7	미상	양덕현 양암	평안도	
8	한준겸(韓浚謙, 1557~1627)	삼수 별해보	함경도	
9	남응운(南應雲, 1509~1587)	삼수 별해보	함경도	
10	윤이지(尹履之, 1579~166)		함경도	
11	이안눌(李安訥, 1572~163)	단천 오을족보	함경도	군수
12	유항(柳恒, 1547~164)	명천 칠보산	함경도	
13	이선(李選, 1632~1692)	제주 차귀	제주도	순무사
14	유근(柳根, 1549~1627)	흡곡 객사	강원도	
15	한준겸(韓浚謙, 1557~1627)	흡곡 객사	강원도	
16	신완(申琬, 1646~1707)	영흥 용흥강	함경도	우의정

순번	성명	건물명	지역	기타
17	유득일(俞得一, 1650~1712)	삼수 별해진	함경도	관찰사
18	박민헌(朴民獻, 1516~1586)	별해보	함경도	관찰사
19	김성일(金誠一, 1538~1593)	별해보	함경도	
20	김성일(金誠一, 1538~1593)	별해보	함경도	
21	이은상(李殷相, 1617~1678)	용흥강	함경도	
22	이장경(李長卿, ?~?)	용흥강	함경도	
23	김상헌(金尙憲, 1570~1652)	초원역	함경도	
24	김상헌(金尙憲, 1570~1652)	초원역	함경도	
25	이언충(李彦忠, 1524~?)		함경도	감군어사 홍문교리
26	조광원(曹光遠, 1492~1573)		함경도	병사
27	이안눌(李安訥, 1571~1637)	영흥 준원전	함경도	
28	이식(李植, 1584~1647)	쌍성관	함경도	북평사
29	이식(李植, 1584~1647)	천도	함경도	북평사
30	심수경(沈守慶, 1516~1599)	별해보	함경도	
31	임형수(林亨秀, 1504~1547)	별해보	함경도	
32	오윤겸(吳允謙, 1559~1636)	길주	함경도	
33	기만헌(奇晩獻, 1593~?)	단천	함경도	군수
34	정온(鄭蘊, 1569~1641)	길주	함경도	
35	민제인(閔齊仁, 1493~1549)	적승관	함경도	
36	이안눌(李安訥, 1571~1637)	영흥 관아	함경도	
37	한준겸(韓浚謙, 1557~1627)	선원전	함경도	
38	박세당(朴世堂, 1629~1703)	망운정	함경도	
39	박태유(朴泰維, 1648~1686)	망운정	함경도	
40	최석정(崔錫鼎, 1646~1715)	안동 영호루	경상도	전 부사
41	신임(申鉉, 1639~1725)	관성	함경도	
42	최창대(崔昌大, 1669~1720)	고원관	함경도	북평사
43	채팽윤(蔡彭胤, 1669~1731)	영흥부 쌍성관 진북헌	함경도	
44	조익(趙翼, 1579~1655)	정평군 초원	함경도	
45	이직(李稷, 1362~1431)	청주	함경도	
46	이덕형(李德炯, 1566~1645)	미상	함경도	
47	조익(趙翼, 1579~1655)	영흥 준원전	함경도	
48	서종태(徐宗泰, 1652~1719)	영흥부 쌍성관	함경도	
49	유도삼(柳道三, 1609~?)	단천	함경도	군수
50	이정암(李廷菴, 1541~1600)	단천 객관	함경도	
51	김수항(金壽恒, 1629~1689)	함주 주변루	함경도	
52	박태보(朴泰輔, 1654~1689)	영흥 준원전	함경도	
53	홍양호(洪良浩, 1724~1802)	함흥 격구정	함경도	
54	홍양호(洪良浩, 1724~1802)	함흥 낙민루	함경도	

역사자료총서 21

청구제영 靑丘題詠Ⅱ

총괄 김상태
기획 김동우 김진실
편집 김진실
한문탈초 번역 김남기 김풍기 정재훈
감수 황위주
교정·교열 김진실 하서정

사진 한정엽(한국문화재사진연구소)

발행처 국립중앙박물관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Tel. 02.2077.9000 Fax. 02.2077.9925
<https://www.museum.go.kr>

발행일 2022년 11월 30일

ISBN 978-89-8164-253-2
978-89-8164-054-5 (세트)

©2022 국립중앙박물관

이 책의 저작권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습니다. 이 책에 담긴 내용은 국립중앙박물관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